韓清洙知事演說文選集

忠清南道

韓淸洙知事演說文選集



忠淸南道

머 리 말

역사의 진행은 언제나 그 과정이 기록으로 보존됨으로써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지나온 역사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보다나은 미래를 가꿀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책자는 한청수지사께서 고향 도정의 책임을 맡으신 지난 1년의 연설을 모아 정리 기록한 것입니다.

그동안 도정의 어느 한곳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보이지 않는곳에도 따뜻한 애정을 쏟으며, 빈공간 채우고 다져나가신 흔적이 이곳에 촉촉하게 배어 있습니다.

충절과 선비의 고장으로 이름지어진 자랑스런 충남의 역사를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도정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지방화시대의 민주자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집념과 의지로 도약의 나래를 힘차게 펼쳤던 지난 1년의 바쁜걸음이 정말 소중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화합하며, 창조와 발전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무심코 지나쳐 버리기 쉬운 지난날의 자취를 되새겨 봄으로써, 회자(膾炙)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쪼록 이 책자가 도민들에게 진실한 봉사행정을 펼치고, 다가오는 2000년대를 바라보는 으뜸 도정 구현과 자랑스런 우리고장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데, 더없이 값지고 소중하게 활용되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1991. 12. 28

충청남도 부지사 박 중 배

차 례

1990

12 월

29일 제25대 충청남도지사 취임사 ····· 31
29일 '90한반기 정년퇴임식 치사 ····· 35
30일 효행 수기집 발간사 ····· 37
31일 '90 종무식 송년사 ····· 39
31일 라디오. TV방송 송년사 ····· 43

1991

1 월

1일 (라디오, TV방송) 새해 신년사 ····· 47
3일 '91 시무식 신년사 ····· 48
3일 '91 신년교례회 하사 ····· 52
7일 농협중앙회장 방문 인사 ····· 54
9일 도민에게 드리는 새해 인사(신문 보도) ····· 56
9일 천안시 순시 훈시 ····· 58
10일 동부권 목요조찬회 인사 ····· 64
15일 충남연극사 발간 축사 ····· 68

16일 충청남도 문화재 해설책자 발간 머리말 …… 70
17일 대전권 목요조찬회 인사 …… 71
21일 걸프사태 및 지방의회 선거에 즈음한 담화문(신문 보도) …… 73
23일 제25대 충청남도지사 취임 인사문 …… 76
23일 제37회 세계 자유의 날 기념행사 격려사 …… 78
25일 MBC TV 새해를 연다 TV 대담 …… 81
29일 국회의원 초청 도정 간담회 인사 …… 88

2 월

1일 2월 월례조회 훈시 …… 93
26일 제34회 택시운송사업조합 정기총회 치사 …… 100
26일 '91노·사·정 연수대회 격려사 …… 103
27일 재향군인회 제33차 정기총회 및 새질서·새생활 결의대회 축사 …… 107
27일 '91 대간첩대책 지방회의 인사 …… 111
28일 '91 정년 및 명예퇴임 교육공무원 훈·포장 전수식 축사 …… 114
28일 역대지사에 보내는 서한문 …… 117

3 월

4일 3월 월례조회 훈시 …… 121
4일 청풍 3월호 명사 칼럼 게재 …… 127
5일 충남발전협의회원에 보내는 서한 …… 131
7일 천안 제2공단 조성사업 기공식 치사 …… 133

11일 근로자의 날 시상식 격려사 …… 136
11일 입장 기미독립만세운동 책자발간 축사 …… 139
13일 「자랑스런 충남건설」을 위한 다짐과 당부의 말씀 …… 141
14일 제2회 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식 축사 …… 144
14일 천안 국악오케스트라 창단공연 리셉션 인사 …… 147
14일 충청남도의사회 제42차 정기대의원총회 축사 …… 149
15일 초부 김용재 향토문화상 시상식 및 장학금 전달식 축사 …… 151
19일 공명선거 당부(일간신문게재) 담화문 …… 154
19일 시군읍면동장에게 보내는 공명선거 당부 서한문 …… 156
21일 만해 한용운선생 생가복원 기공식 치사 …… 157
27일 기초의회의원선거를 마치고 후보자에 보내는 서한 …… 160
28일 지역사회와 대학발전을 위한 세미나 축사 …… 162
28일 공주실내체육관 기공식 치사 …… 165
28일 시군의회 선거를 마치고 일선기관장에 보내는 서한 …… 168
30일 홍익대학 조치원 캠퍼스 1차 준공식 축사 …… 169

4 월

1일 4월 월례조회 훈시 …… 175
4일 일간 신문게재 담화문 …… 182
5일 제9회 충청남도 연극제 격려사 …… 184
6일 창설 제23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사 …… 186
12일 제2회 충남향토사 연합발표회 축사 …… 189
16일 충우회 총회 인사 …… 191

16일 국방정신교육원생 환영인사 ····· 194
22일 충청남도 체육회 이사회 인사 ····· 196
22일 충청남도 체육회 대의원 총회 인사 ····· 198
23일 '91 충청남도 행정동우회 정기총회 격려사 ····· 200
24일 「새질서 새생활 실천」 평가보고회 인사 ····· 203
30일 제8차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 축사 ····· 206
30일 도위민봉사위원 간담회 인사 ····· 209

5 월

1일 5월 월례조회 훈시 ····· 213
2일 새질서·새생활 실천 가속화 다짐대회 격려사 ····· 219
3일 이어령 문화부장관 초청 강연회 축사 ····· 223
5일 제69회 어린이날 기념식 격려사 ····· 225
6일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소비조합 제2매장 개장 축사 ····· 227
7일 농어민후계자 초청 만찬 인사 ····· 229
7일 제14회 국제라이온스협회 309-E지구 연차대회 축사 ····· 232
8일 제19회 어버이날 기념식 기념사 ····· 234
9일 '91 지방기능경기대회 개회식 치사 ····· 236
10일 범도민 교통안전 촉진대회 시상식 ····· 238
10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각계에 보내는 서한 ····· 240
13일 제3회 충청남도 교육상 시상식 축사 ····· 242
15일 제10회 스승의날 기념식 축사 ····· 244
15일 은사의 밤 안내책자 게재 인사 ····· 247

15일 은사의 밤 행사 인사 ····· 248
16일 서남권 목요오찬회 ····· 251
20일 성년의날 행사 격려사 ····· 255
22일 충남교향악단 창단연주회 격려사 ····· 257
22일 제21회 도미술대전 격려사(팜플렛 게재) ····· 259
23일 프리마 오페라단 죠인트 리사이틀 공연 축사 ····· 261
26일 제8회 보이·걸스카우트 큰잔치 격려사 ····· 263
27일 제21회 충청남도 미술대전 시상식 격려사 ····· 266

6 월

1일 제22회 한국JC 충남지구 회원대회 축사 ····· 271
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한 담화문 ····· 273
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보훈가족에게 보내는 서한 ····· 275
1일 중도포커스 창간 축간사 ····· 277
4일 6월 월례조회 훈시 ····· 279
8일 한국자율기동순찰대 천안연합대 10주년기념식 격려사 ····· 285
9일 한국청소년연맹 10주년기념 단원전진대회 격려사 ····· 287
10일 천안 중앙로타리클럽 10주년기념사 발간 축간사 ····· 290
11일 농산물 수출상담역 간담회 인사 ····· 292
12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대회사 ····· 294
13일 망향탑건립 1주년 기념 남북통일촉구 및 공명선거다짐대회 축사 ····· 296
14일 제3회 도지사배 민속 대제전 격려사 ····· 298
14일 제17회 대일 보훈대상 시상식 축사 ····· 300

16일 한국방송통신대학 대전·충남총학생회 제9회 금강체육대회 격려사 …… 302
17일 한밭신문 창간 축간사 …… 304
18일 제28회 반공의 날 기념식 격려사 …… 306
21일 도의회의원 선거 당선자에게 보내는 서한 …… 309
25일 민족 평화 통일을 위한 충청남도민 대회 격려사 …… 311
26일 제8회 충청남도 여성대회 격려사 …… 314
27일 도정자문 위원회 해단식 인사 말씀 …… 316
28일 기독교 청주방송 개국 1주년 멧세지 …… 319
28일 '91상반기 명예직 정년 퇴임식 치사 …… 321
29일 모범보훈가족 시상식 격려사 …… 323
29일 재난예방대비 수방대장에 보내는 서한 …… 325
29일 어려운 이웃과의 자매결연 당부 서한 …… 327
30일 건전생활 안내책자 발간사 …… 329

7 월

1일 대천해수욕장 개장식 치사 …… 333
1일 도정신문게재 재해예방 담화문 …… 335
1일 7월 월례조회 훈시 …… 337
2일 도의회의원 초청 환영리셉션 인사 …… 343
4일 제20회 장한어머니 시상식 격려사 …… 345
5일 '91 금강 국제 자연미술전 격려사 …… 347
8일 제4대 충청남도의회 개원식 축사 …… 349
8일 제4대 도의회개원 축하 다과회 인사 …… 352

11일 공주영림서 개청식 축사 ····· 354
18일 대전권 목요조찬회 인사 ····· 356
19일 백야 김좌진장군 생가복원 상량식 치사 ····· 358
19일 4H 야영대회 인사 ····· 360
25일 체육지도자 단합대회 인사 ····· 362
26일 행락질서 자율실천 결의대회 치사 ····· 365
29일 지역발전과 대전EXPO 성공을 위한 만찬법회 축사 ····· 367

8 월

1일 8월 월례조회 훈시 ····· 371
2일 제7대 교육위원 퇴임식 격려사 ····· 377
3일 제10회 KBS배 전국 중·고 가을철 축구대회 축사 ····· 379
10일 충남저널 창간 축사 ····· 381
13일 제6회 도지사기 정대항 궁도대회 격려사 ····· 383
14일 민주평통 시·군협의회장 임명장 전수식 인사 ····· 385
16일 국가유공자 서훈전수식 인사 ····· 388
19일 충청남도 방위협의회 인사 ····· 390
22일 대전세계박람회 추진협의회 창립총회 인사 ····· 393

9 월

1일 도정신문게재 담화문 ····· 399
1일 중도일보 창간 40주년 축하 멧세지 ····· 401

1일 9월 월례조회 훈시 ····· 402
4일 재경충남선수단 단합대회 인사 ····· 409
7일 역대도지사 초청 도정보고회 인사 ····· 411
7일 제5회 충청남도 산업미술대전 격려사 ····· 413
9일 체육지도자 간담회 인사 ····· 415
10일 제57회 도의회 임시회 인사 ····· 417
13일 위민봉사위원 간담회 인사 ····· 419
15일 제15회 상록문화제 치사 ····· 421
16일 민족통일 충청남도 촉진대회 및 문예작품시상식 격려사 ····· 423
17일 근검절약 실천 및 과소비추방 결의대회 격려사 ····· 425
20일 충남정신의 뿌리와 실체 보급판 발간사 ····· 428
26일 동자위 국정감사 인사 ····· 430
27일 민방위 소양강사와의 간담회 인사 ····· 433
28일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 책자 머리말 ····· 435
28일 제5회 놀뫼향토제 치사 ····· 436
29일 제7회 도원문화제 및 연기군민체육대회 치사 ····· 438
29일 제3회 서산문화제 치사 ····· 440

10 월

1일 도정신문게재 담화문 ····· 445
1일 제4회 만세보령문화제 치사 ····· 447
2일 제10회 금산 인삼제 치사 ····· 449
2일 제16회 망향의 동산 합동위령제 추도사 ····· 452

3일 '91 풍년맞이 새농민대회 축사 ····· 454
4일 '91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격려사 ····· 457
5일 제72회 전국체육대회 결단식 격려사 ····· 459
5일 할아버지 할머니 웃음 한마당잔치 인사 ····· 462
5일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13주년 기념식 치사 ····· 464
6일 추석절 이웃돕기 참여자에 대한 감사 ····· 466
7일 10월 월례조회 훈시 ····· 467
12일 국제로타리 3680지구 제14년차대회 축사 ····· 474
15일 제2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결단식 격려사 ····· 476
16일 농민과 소비자의 한마음대회 축사 ····· 478
17일 기독교방송 대전분실설립 축하리셉션 축사 ····· 481
17일 제2회 충남·대전 장애인 체육대회 격려사 ····· 483
17일 제6회 충남수석 연합전시회 축사 ····· 485
18일 전국남녀 궁도대회 치사 ····· 486
18일 무녕왕능 발굴 20주년 기념학술회의 축사 ····· 488
19일 제37회 백제문화제 치사 ····· 490
19일 제59회 한국미협 충남지부 회원 작품전 격려사 ····· 492
22일 「쓰레기장 없는 학교」 책자발간 머리글 ····· 494
22일 새질서 새생활 실천 범도민 다짐대회 대회사 ····· 495
23일 제5회 천안삼거리 문화제 치사 ····· 499
23일 천안한방병원 개원식 축사 ····· 502
24일 제43회 도민체육대회 대회사 ····· 504
25일 충남지역 무역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인사 ····· 507
25일 한국기업문화에 관한 심포지움 인사 ····· 509

25일 제30회 충청남도 축산진흥대회 격려사 ····· 512
26일 제43회 도민체육대회 폐회사 ····· 514
27일 충남문화예술인 대회 격려사 ····· 516
28일 통일정세 보고회 인사 ····· 520
29일 영농학생 전진대회 축사 ····· 523
29일 제72회 전국체전선수단 해단식 치사 ····· 525
29일 제28회 저축의 날 기념식 기념사 ····· 528
30일 가정의례 실천 당부 각계인사에 보내는 ····· 530
30일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관련 간담회 ····· 531
31일 민원사례집 발간 머리글 ····· 533

11 월

1일 11월 월례조회 훈시 ····· 537
1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인사 ····· 545
1일 지방행정지기고 광역의회 운영 방안 ····· 547
2일 제16회 도민 걷기 대회 격려사 ····· 549
6일 한국보이스카우트 충남연맹 30주년 격려사 ····· 551
11일 대전일보 창간 14주년 축하 멧세지 ····· 553
13일 삼성전자(주) 온양공장 준공식 축사 ····· 554
15일 충남 국악관현악단 대전공연 머리글 ····· 556
15일 충청남도 소방기술 경연대회 격려사 ····· 558
16일 충남 JC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 축사 ····· 560
17일 민족예술 보리수합창단 정기공연 격려사 ····· 562

18일 충남교향악단 서울공연 인사문 …… 564
21일 삼락회 제23차 정기총회 축사 …… 566
22일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대회사 …… 569
22일 전통음식 맛자랑, 솜씨자랑대회 대회사 …… 571
23일 '91 농어민후계자대회 격려사 …… 573
25일 농어민후계자 4H회원에 보내는 서한 …… 577
27일 씀씀이줄이기, 이웃사랑 실천 다짐대회 격려사 …… 579
29일 총기소지자에 대한 서한 …… 582
30일 도정소식지 게재 담화문 …… 584

12 월

2일 9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정연설 …… 589
2일 대산읍 개청식 치사 …… 603
2일 안견선생 기념관 개관식 치사 …… 606
3일 12월 월례조회 훈시 …… 608
3일 제35회 충청남도 문화상 시상식 식사 …… 613
6일 '92 동계훈련 발단식 격려사 …… 616
6일 한산모시타운 건설 기공식 치사 …… 619
10일 도정신문게재 담화문 …… 622
11일 홍주의사총 성역화사업 기공식 치사 …… 624
12일 행정동우회원에 보내는 서한 …… 627
12일 공무원 교육 강사에 보내는 서한 …… 629
14일 불우이웃돕기 담화문 …… 630

16일 국·도정 홍보위원에 보내는 서한 …… 632
18일 관광농원 및 부흥회관 기공식 축사 …… 633
18일 개인서비스 업체에 보내는 서한 …… 635
20일 「뿌리깊은 나무」 책자 발간 머리말 …… 637
21일 '92세입세출 예산안 결의시 인사 …… 639
21일 도의원 및 간부공무원 부인 대한 도정현황 설명시 인사 …… 641
21일 의용소방대장에 보내는 서한 …… 643
21일 경제관련업체, 조합에 보내는 서한 …… 644
21일 교통가족에 보내는 서한 …… 646
26일 충남의 옛소리 책자발간 머리글 …… 647
27일 옛날 옛적 이야기 책자발간 머리글 …… 648
27일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글모음집 머리글 …… 649
28일 부임 한돌 특집(대전일보) …… 650
28일 부임 한돌 특집(중도일보) …… 652
31일 '91 종무식사 …… 655
31일 '91 송년사 …… 662

1992

1 월

1일 '92 신년사 …… 663
3일 '92 시무식사 …… 664
9일 제25대 충청남도지사 이임식 이임사 …… 670
10일 이임서한 …… 673

'90년 12월



△ 25대 충청남도지사 취임

제25대 충청남도지사 취임사

1990년 12월 29일

함께하는 도정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산하 17,000여공무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이 금번 정부의 인사 발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의 고향인 충남도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과연 본인이 도민들께서 소망하시는 바와같이 우리고장을 번영되고 복된 터전으로 가꾸고,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중심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먼저 걱정부터 앞섭니다.

다만, 그동안 제가 2년이 넘도록 부지사로 있으면서, 미력하나마 쌓아온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늘 그려왔던대로 창의와 용기로 맡은바 소임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공무원 동료 여러분의 단결된 조직과 힘, 그리고 도민여러분의 전통적인 저력과 성원으로, 조금은 크고 작은 성취의 기쁨을 나누며 일해 가고자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충청남도가 도민들을 위해 문을 연지도 어느덧 1세기 가까운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외세의 침략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충남인의 전통과 정신을 간직하며, 이땅에

살다가신 선조들에게 먼저 깊이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충남도정을 이끌어 오신 역대 지사님들과 땀흘려 노력하고 보람으로 이땅을 일구어 오신 도민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꿈과 희망, 그리고 시련을 함께 하면서, 온 국민과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하여 도정을 알차게 추진해 왔습니다.

탁월한 역량으로 2년 7개월간 도정을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전임 심대평 지사님을 중심으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이 헌신적인 봉사와 최선을 다하신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쌓아 놓으신 공적과 발자취를 되돌아 보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도세의 창출과 새로운 충남발전 역사를 이끌어 나갈것을 다짐하는 바 입니다.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몇년간 우리는 국민 모두의 자유와 풍요,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고루 잘사는 사회, 민주주의 사회를 착실하게 진행시켜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상식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끌어 가는 보통사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본인은 도민여러분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으면서, 같이 호흡하고 생각하며 맡은바 소임과 주어진 과제를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협력하며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다가오는 시련과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국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데 도민여러분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우선, 앞으로의 도정을 도민의 의지를 먼저 수렴하여 도세를 신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세 양분이후 전임 심대평지사님께서 그동안 추진하여 오신 도세회복과 도약을 위한 시책을 더욱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틀속에서 그 첫번째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서해안개발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일입니다.

하나하나 챙기고 살펴서 개발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 시키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농어촌 소득의 안정기반을 위해서 농어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가구의 절반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농어촌을 풍요롭고 살기좋은 터전으로 가꾸는데 모든 분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는, 우리 공직자 내부의 기강을 확립하고 인화단결하는 힘있는 충청스런 조직, 믿음직스럽게 일하는 조직으로 키워나가는 일입니다.

공직자는 항시 나라와 지역주민을 위한 존재임을 명심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부러움과 미움의 대상이 아닌 고마움의 대상이 되는 신뢰를 쌓아가는데 모든 공직자가 분발하고 다시금 자각해야 합니다.

네번째는, 모든 것을 지역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는 지방화 시대를 효율적으로 운영, 수행할 수 있는 자율과 자급 능력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우선 내년초 지방의회 선거에 대비하여 온 지역보다 우리지역에서 모범적인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자치능력 함양을 위한 공무원 전문교육의 확대는 물론 스스로 자질향상에 잠시도 소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도자의 뜻을 받들어 국정의 지방적 실천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입니다.

우선 새질서, 새생활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질서있는 사회, 도덕적인 사회, 효율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길만이 국가전체의 효율을 높여 세찬 국내외 도전속에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며, 이 운동은 년말이 아니라 명년에도 그 다음해에도

영구히 지속 추진해야 할 국민적 사업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산하 공무원 여러분!

유구한 역사와 소중한 문화유산이 면면히 이어진 우리 고장, 그리고 충절과 선비정신이 빛나는 자랑스런 충남의 도정책임자로서 새삼 가슴에 손을 얹고 겸허한 마음으로 본인은 오늘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날 땀흘려 이룩한 보람을 소중히 하고, 빛나는 영광으로 펼쳐질 우리 고장의 앞날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면서, 향토에 대한 사랑, 그리고 고장 발전에 대한 의지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도정에 참여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200만 도민여러분과 산하 공무원 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영광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90하반기 정년퇴임식 치사

1990년 12월 29일

아쉬운 정과 은은한 향기

오늘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경오년 한해를 마감하는 아쉬움을 함께 하면서, 그동안 정든 공직사회를 영예롭게 마치고 퇴임하시는 동료공무원 아홉분과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금년은 그 어느해보다도 변화와 시련, 그리고 보람도 많았던 해였기에 오늘 퇴임을 맞으신 동료공무원을 떠나보내는 마음 또한 깊은 감회와 더불어, 그동안 정들었던 인연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청운의 꿈을 안고 스스로 인생을 설계하면서 정성과 각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을 가꾸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꿈을 소중히 간직하고 가꾸면서, 공무원으로 오직 한 길을 걸어오신 여기 계신 아홉분들은 일생동안 한가지 직업에 종사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이들에게 큰 감명과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동안 길게는 33년, 짧게는 15년동안 도민을 위한 봉사를 다하고 알찬 도정을 가꾸면서, 구슬진 땀을 흘리고 억척같이 노력했던 지난일이 새삼스러워 지리라 여겨집니다.

때로는 긴장하고 어떠한 때는 체념도 해보며, 또 다시 새로운 의욕으로 일속에 파묻혔던 하나하나가 마디가 되어 이제는 아련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애쓰시고 땀흘린 흔적은, 우리 후배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어 곳곳에 남아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도정을 위하여 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아홉 분들은 그 발자취를 뒤로하고 새로운 생활과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운명도 바꾼다"라는 말과 같이 퇴임하신 후에 다가오는 환경은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보고 늙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신념이 늙었는가 젊으냐가 중요하다"고 한 미국의 어느 장군의 말처럼 미래에 대한 신념과 각오 또한 새로우리라 생각됩니다.

어느 분을 만나든 어느 자리를 가시든 우리 후배공무원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앞날의 행운과 영광을 기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못내 아쉬운 정과 은은한 향기를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떠나시는 윤주남 계장님, 이명배 계장님, 김환각 계장님, 복진철 계장님, 방석직 계장님, 그리고 김두영 기사님과 이준, 강봉구, 이일규 기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예로운 퇴임이 있기까지 뒷받침 해주신 사모님, 그리고 친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요.

그리고 남은 여생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12월 30일

소중한 정신문화

예로부터 충효를 우리네의 삶의 최고가치와 덕목으로 삼아왔던 우리 조상들은 부모공양과 나라사랑 정신에서 훌륭한 전통의 맥을 이어 왔고 또 그러한 윤리관을 가정과 사회생활의 기본으로 여겨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수많은 외침을 견뎌내고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면서 『세계속의 한국』으로 부상하게된 것은, 그동안 우리 선조들께서 갈고 닦아온 효행에 바탕을 둔 정신문화의 계승에 힘입은 바 크며, 독특한 충효의 문화를 꽃피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세에 들어와서 여과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진 서양 문물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의 뿌리까지 흔들어 놓았고 연면히 이어져 내려온 소중한 정신문화 유산마저 안타깝게도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 선양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실천에 옮기려 하는 것은, 충효사상이 참다운 나라발전의 기틀을 다진 촉매 역할을 했던 역사적 사실과 함께, 조상들의 소중한 정신문화를 오늘에 되살려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뜻에서 이번에 발간된 효행수기집 『모든 사람이 부모를 공경한다면』

속에 묻혀있는 효행이 보다 널리 알려지고 선양되어, 충절의 고장으로 이름지어진 우리 충남은 물론, 나아가 국가발전의 정신적 지주로 우뚝 서고 계승 발전되어지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90 종무식 송년사

1990년 12월 31일

끝이 아니라 시작

먼저 오늘 수상을 하신 직원여러분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아울러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1990년 경오년의 한해도, 보람과 시련을 뒤로하고 역사속으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새해가 시작된 것 같더니 벌써 한해가 끝나려 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는 선인의 말씀이 새삼스럽습니다. 년말이 되면 누구나 한번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게 마련입니다.

인간은 자기자신의 잘못을 돌이켜보고 새로이 시작하는 창조적 노력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놀라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한해, 온갖 어려움속에서도 주어진 책임과 자기소임을 묵묵히 다함으로써, 도세신장을 위한 도약의 기틀을 구축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자심감을 갖도록 해준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금년 1년은 국내외적으로나 도내적으로 참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먼저 국제적으로 볼때, 영원히 계속될 줄만 알았던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우리나

라가 외교적인 면에서 큰 성과를 얻어낸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한·소간에 외교관계가 수립되고 역사적인 대통령의 소련방문은 한국외교사에 찬연히 빛날 역사적 쾌거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45년간 분단이후 감격적인 통일을 이룩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독일국민들을 지켜보면서, 분단조국을 갖고 있는 우리국민들의 아픔과 안타까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 한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라크의 기습적인 쿠웨이트 침공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면서, 유가인상등으로 국내외 경제기틀을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볼때, 5.7 대통령 담화를 시작으로 10월 13일에는 「폭력과 범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등 민생치안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민생치안에 전 행정력을 집중투입하여 이제 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면서, 이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시책이고 국민들도 꼭 실천해야 하는, 국가적 국민적 인식의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책은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인 과제로서, 창의와 용기로서 이 길만이 나라와 내가 함께 잘 사는 길이요, 또 꼭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금년은 특히 통일을 위한 활발한 접촉과 추진이 있었습니다.

분단 45년만에 역사적인 남북총리급 회담이 성사되었고 남북 축구교류, 음악제와 영화제가 개최되어 마치 통일이 앞당겨지는 듯한 느낌을 가져보았던 한해였습니다.

또한 우루구아이 라운드 협상에 대한 농어민의 피해의식과 농어촌 문제가 대두되어 우리는 UR에 대한 홍보와 농정시책에 대한 정부의지 구현으로 이에 대처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9.10부터 3일동안 계속된 서울·중부지방의 대홍수와 한강둑이 붕괴되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되면서, 우리 모두를 가슴아프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내적으로 볼때에도, 금년 한해는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도세회복을 초과한 빠른 도약을 함으로써, 도세발전에 자신감을 얻었던 한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면, 첫째,

1,310만평의 공단개발과 205개의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면서, 공업화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통적인 농업도에서 공업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고,

둘째, 농어촌 발전기금 50억 확보, 후계자 160명의 해외연수, 농어촌 시범마을 육성등 농어촌 활력화 시책을 추진하여 농촌의 자립, 자급능력을 고취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셋째, 전국체전에서 11위로 부상하면서, 문화부문에서는 국악관현악단과 충남 교향악단의 창단과 연산 백중놀이의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 국무총리상 수상으로 도민들의 긍지를 한층 고양시켰습니다.

넷째로는, 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계룡 신도시 건설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3월 10일에는 전국 최초로 개발담당관실을 설치하였으며, 8월 10일에는 한전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보령댐 건설사업소 설치등으로 서해안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추진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였다고 봅니다.

이렇듯 여러분은 그동안 참으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이러한 성과는 산하 17,000여 공무원과 200만 도민의 땀과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우리에게는 이러한 성과가 있었는가 하면, 너무나 가슴 메이는 아픔과 시련도 있었습니다.

안면도 집단시위사건과 크고 작은 시련과 도전을, 겸허한 반성과 심기일전의 자세로서 앞날의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의 배려와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도움으로

이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겸허한 마음으로 1년을 되돌아보고, 공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은 없었는지, 후회스러웠던 일은 없었는지, 스스로 반성하면서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서 새해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모든일의 성과와 보람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책임에 최선을 다할 때 또한 창의와 용기를 다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경험과 반성은 내일의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해를 마감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더욱 혼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1990년 12월 31일

땀의 결실

친애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벅찬 기대와 희망으로 맞이했던 경오년 한해도 아쉬움을 남기고 역사속으로 접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보람과 시련속에 올 한해는, 도민 여러분께서 한결같은 소망과 의지로 서해안시대의 기틀을 힘차게 다져온 참으로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더우기 충남도정사의 일대 전기를 마련한 공업화시책과 농어촌활력화사업으로 도세 도약을 앞당기는 가시적 성과와 체육, 문화 부문의 눈부신 성장은 우리 도민 모두가 용기와 신념으로 이룩한 소중한 땀의 결실이었습니다.

금년 한해, 이 보람찬 결실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쏟아주신 도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도민여러분 가정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총 가득 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TV방송) 새해 신년사

1991년 1월 1일

더 큰 결실의 해

친애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오늘 희망찬 신미년 새아침을 맞이하여 먼저 도민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도민들께서 충남발전을 위하여 애써 이룩한 보람과 결실은 이제 도정사의 한 페이지를 영원히 빛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야를 넓히고, 더 밝은 미래를 내다 보며 더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민 모두의 의지를 더욱 다져 나가야 할 때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도민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 지방화시대를 열어가야할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가 충남인 전통의 끈기와 저력을 바탕으로 구슬진 땀을 흘리고, 최선의 노력으로 우리고장을 가꾸어 나간다면, 올해에도 보람 가득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도민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더 큰 행운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월 3일

화합과 도약의 힘찬 도정

희망의 신미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본인은 우선 새해를 맞이하여 17천여 동료 공무원과 200만 도민여러분 한분 한분에게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첫 출근을 하면서 갖는 시무식은 매년 해가 바뀌면 갖는 것이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지난 한해를 회고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다짐과 소망을 하게 됩니다.

도지사 취임후 첫해를 맞이하는 본인에게 주는 이 자리는 아주 뜻깊은 자리로써, 「꿈과 희망, 아픔과 고통을 모두가 함께 하면서 화합과 도약의 나래를 활짝펴는 힘찬 도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굳은 각오와 결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해를 힘차게 출발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양띠 해입니다.

우리 十二干支중에 「未」는 양이나 염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양은 인류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이 농경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에 길렀던 최초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500번 이상이나 언급했던 양은 심성이 순하고 높은 곳에 오르기를 좋아하며 살아서는 젖과 털을 주고, 죽으면 가죽과 고기를 우리 인간에게 바칩니다.

「줄곧 이리떼의 침공을 받았지만 결코 그것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어느 스님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양은 하늘에 순종하며 하늘이 내려주신 사명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해 90년대 첫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지혜와 힘과 억척같은 노력으로 대망의 90년대는 보람과 결실의 연대가 되기를 소망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지냈습니다.

아쉬웠던 미련과 뿌듯했던 보람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제 우리는 새해에 해야할 일을 차분히 확실하게 풀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새해에는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정착되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동서화해 무드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이루어진 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응하고 같이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안정과 번영을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에 언급하신 것처럼, 범죄와 무질서를 단호히 거부하고 그동안 우리가 겪어온 전환기적 상황을 극복하면서, 민족의 슬기와 힘을 모아, 참된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한차원 더 높은 성숙된 민주시민의 모습으로 국가를 발전시키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와 안정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다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적인 뜻과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적으로는, 도세도약을 한단계 더 확산시키고 충남발전을 가속화 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금년 3가지의 도정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를 수범적으로 실천하므로써 국정기조와 지방화시대를 능동적으로 조화시키고, 둘째, 지역역량을 모아 도민화합과 지역안정을 확보하므로써, 우리 도가

우리나라의 중심도로써, 모든 일이 우리도가 국가의 화합과 도약의 시발점이 되도록 하는 한편, 셋째로 도세도약을 위한 공업화시책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농어촌 문제를 슬기롭게 타개하므로써, 21세기를 지향하는 선진도로서 한국을 이끌어 가는 면모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지난해부터 강력히 추진하여 온 새질서·새생활실천을 지속적으로 선도하여 정착화시키고, 행정적 측면에서는, 올해부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치능력을 함양하고, 물량적인 측면에서 도세실체화 6대전략사업과 농어촌자립화 5대 중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도가 한차원 더 높은 도세신장을 이루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방의회선거가 실시 됩니다.

과거의 지방자치가 우리의 경험과 준비부족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볼 때, 앞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뿌리를 이 땅에 내리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과 도민의 비상한 결의와 각오 그리고 실천이 요구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하나하나 챙기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 금전 타락도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본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만, 모든 행정은 각계각층, 그리고 계층간 구별이 없이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사전에 준비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성찰되고 구상되는 도민이 참여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정은 어디까지나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만큼 도정에 대한 신뢰를 갖는 진실된 자세와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우리 공직자는 항상 공부하고 생각하며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일하며 창의와 집념, 용기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사람만이 발전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가지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의회 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여러부문에서 분출되는 시련과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공직에 대한 사명감, 조직에 대한 협동심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으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직분을 충실히 완수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치하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우리고향 충남이 더욱 풍요롭고 복된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것으로, 신년을 맞이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도민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고 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끝으로 우리 모두의 협동단결된 노력으로 도민 모두가 열망하는 서해안시대, 계룡산으로 상징되는 충남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91 신년교례회 하사

1991년 1월 3일

새로운 질서

오늘 뜻깊은 신미년 새해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에 나와서, 여러 기관장님과 내빈 여러분에게 취임후 처음으로 신년하례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새해에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해 올립니다.

취임을 하고나서 일일이 방문해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이런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미력한 힘이나마 신념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우리고장을 복되고 풍요로운 고장으로 가꾸는데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저희 충청남도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성원을 보내 주시고 아낌없이 협조해 주셨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변함없는 애정과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신년이 되면 그것이 크던 작던 소망은 있게 마련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각계의 소망과 기대를 듣고 보면서, 부푼 희망으로 금년을 기약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분야별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말씀도 들었습

니다.

우리가 넓은 시야로 장래를 걱정하고 그 어떠한 난관이라도 이겨 내겠다는 신념을 갖고 힘을 모아 나간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미래는 결코 비관적일 수 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8년 우리는 민족의 엄청난 저력에 스스로 놀랐던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감격과 환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민주사회를 열어 나가는데, 많은 진통과 시련을 겪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정착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화해와 협력으로 나라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국가의 중핵지역으로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 EXPO가 그렇고 서해안개발이 그렇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 기관장님과 지역인사 여러분께서, 이러한 지역발전에 대한 소망을 이루는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실 적으로 믿습니다.

지난해 베풀어 주신 따뜻한 배려와 은혜, 정말 고마웠습니다.

새해를 맞는 지금,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진정으로 고향발전을 소망하시는 모든분들을 위하여, 함께 뛰고 땀흘려 노력하는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면서,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춘원 대전일보 사장님과 지역기관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운과 영광의 한해가 되시기를 거듭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4)

농협중앙회장 방문 인사

1991년 1월 7일

선진 농촌의 주역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선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 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이번 충청남도 도정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말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농업협동조합 가족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이런 자리에 인사를 대신하게 된 것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민들이 맞이하는 이해는 여러분들께서 그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를 위해서 행정은 물론이요, 농협가족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금강시대를 열어가면서 풍요한 자연속의 복지농촌을 가꾸는 노력을 다하고자 공무원 모두가 신년을 맞이하여 다짐을 새롭게 한 바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농협가족 여러분께서 절실한 생각과 사명감으로 선진농촌을 이끌어

주시는 주역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한호선 농협중앙회 회장님과 손창준 도지회장님을 비롯하신 전 농협가족 여러분의 분발과 함께 축복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월 9일

문을 활짝 열고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격동과 시련의 다사다난했던 경오년을 보내고, 희망찬 신미년이 밝았읍니다.

먼저 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깃들고 서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어려운 과제가 많은 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도정의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도민 여러분의 엄하시고 바르신 지도 편달과, 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힘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진실된 사회, 단합된 충남, 보다 잘사는 고장을 가꾸는 데는 도민 화합의 기틀 위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조금씩 낮추면서, 서로 믿고 돕는 밝은 기풍을 조성하여 다함께 자랑스런 충남의 새 시대를 개척해 나아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발전의 시금석인 지방자치를 자립과 신뢰속에서 차근차근히 뿌리를 내리고 다지는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하늘의 도움과 땅의 이로움도 인화만 못하다는 말이 있읍니다.

본인은 이를 위해 어느 때이건 도민여러분에게 지사실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기다리겠읍니다.

그리고 어느곳이던지 뛰어 가겠읍니다.

새해에도 우리 충남인 모두는 소망을 걸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생활로 밝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층간 갈등과 가치관의 혼란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차분하고 여유있는 마음으로, 때로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빌어 드리면서, 마땅히 일일이 찾아 뵙는 것이 도리이오나 벅찬 도정에 인사의 말씀으로 대신하여 올립니다.

우리 모두 양털같은 포근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이해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1991년 1월 9일

50만의 거점도시 육성

여러분들! 여기 첫번째 저의 고향에 와서 함께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뵙게되니 더 친근감을 느끼고 또 저 개인으로도 감회가 깊습니다. 여기 시골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만, 한번은 병이 나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천안에 나와 주사 한대 맞으니까 낫는 병을 가지고, 시골에서 죽는줄 알고 있다가 다시 살아난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6.25 전쟁이 당시 2차 중공군 침공으로 천안이 전부 잿더미가 되었을때, 국민학교 2학년때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때, 시골에서 몇명이 탱크하고 대포가 보고 싶다고 해서 천안에 와서 북쪽으로 포진하고 있는 탱크와 대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천안은 2만도 안되는 소규모의 촌락이었는데 지금은 20만이 넘고 앞으로는 50만이상의 수도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커다란 중부의 거점도시로서의 발전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내외적으로 큰일, 어려운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생각나는 것은 우리 노대통령께서 소련을 방문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그쪽으로 간것이 아니고 그쪽이 초강대국 소련이 필요해서 우리 대통령을 초청하여 스승의 자격으로 소련을 방문했다는 사실은 우리 5천년 외교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두고두고 기리

빛날 역사적 거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남으로서는 작년에 심대평 전임 지사님을 모시고 또 17,000 우리 동료들이 혼연일체가 되서 노력한 결과 여러가지 많은 도세회복의 기틀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도 충남 제일의 도시답게 활기있고, 희망차게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화합하고 단결된 가운데서 줄기차게 일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말에 심지사께서 영전하시고 그 후임으로 제가 지사가 될 수 있는 영광을 지방에 있는 부지사로서는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에 대한것보다는 충남도 전체의 공무원을 신임해준 것이고 또 여러분을 신임해서 한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런 기틀위에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여러가지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 또 수입개방으로 대두되는 대외압력, 집단행동으로 모든 것을 풀어보겠다는 군중의 심리등 여러가지로 지난해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이며 그런 시련과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비상한 결의와 각오, 그리고 24시간을 쉬지않고 일하는 풍토, 이런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몇가지 오늘 좋은 시정보고를 받았습니다.

시민의 소양강좌 운영과 밝고 평안한 도시의 건설, 문화의 거리, 2,000년대를 가서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시정의 방향이 천안의 여러분같이 우수한 공무원 아니고서는 창안해 낼 수 없는 좋은 아이디어고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법입니다.

나는 천안의 전망을 아주 좋게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과밀해서 더이상 발전할 수 없고 포화상태로 더이상 대책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유일한 대책은 충남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도 첫번째 대안은 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속전철이 들어오고 그리고 적어도 50만 그 이상의 도시, 교통이 좋아지면 거기에 걸맞는 산업유통기지가 조성될것이며, 대학문화의 중심도시로서 우리가 자연이 살아있고 평안한 숲속의 도시를 가꾸어 낸다면 서울보다 살기좋으면 좋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여건과 시기를 잃어버리거나 또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이런 밝은 천안의 도시발전의 전망에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정을 새로 맡아서 도정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자고 합니다.

먼저, 우리 공직자는 국가와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해야만 그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 경우에도 국가, 지역주민의 바탕을 두고 성찰하고 좀더 진실된 자세로 국민속에 다가간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시책이 변경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조직이 일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이 일하는 것이 아니다, 조직의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시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것은 어느 경우도 마찬가지로 삼가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역점을 두어왔던 공업화와 농어촌 활력화 시책 그리고 충효교실 운영등은 변함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갈것입니다.

셋째로 일하는 직장풍토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은 나라와 국민과 지역에 충성하라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일하라고 있는 조직입니다.

할일을 찾아서 힘있고 신속하게 행동해 나가야 합니다.

충청도 사람을 보고 흔히 온화하고 부드럽다고 말합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것 이것은 장점이지 결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힘이없어 보이고 느리게 보이는 것은 충청인이 고쳐야 합니다. 왜 힘이 없어 보이는지 이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있고 신속한 행보로 일을 열심히 하면 자랑스런 충남건설은 멀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부임한 지사로서 도정의 기본 구도나 생각이 뭐냐하는 의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6년을 외지에 나가 공직생활하고 고향에서 근무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출신이고 여기서 자랐고 부지사로 도에서 3년간 일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때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단합되고 잘사는 우리 고장을 만들겠다는 굳센 다짐을 합니다.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가 몇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슴을 찌르는 자랑거리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것은 서해안 해안선을 따라서 발달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생각할 때 항상 자랑스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백제문화를 발상시킨 금강 또 충남 한가운데 신비롭게 솟아 있는 계룡산 또 지금 우리 충남이 국토의 중심지에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도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켜온 충절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거리, 감동과 긍지로 이런것을 도정 발전의 원동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문화를 창조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자랑스런 우리의 충남 그리고 새로운 문화, 이것은 우리가 창조 해야겠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한 자연이 우리에게 준 환경에 중점을 두면서, 새로운 개

발문화를 창조해야겠다.

둘째로는 자랑스런 우리의 금강변의 전통 문화를 새롭게 재창조 해야겠다.

셋째는 계룡산을 중심으로한 화합과 충절의 정신문화를 창조하고, 우리가 중심지로서 수도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에 모든 촛점을 모아 도정을 이끌어 나가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평소부터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되고 국가의 발전이 지역 주민의 혜택으로 다시 되돌아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도 나라와 지역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시책이 아닙니다. 또 금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구히 우리가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질서, 우리의 생활문화를 선진국으로 끌어올리자는 범 국민운동이며, 꼭 성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국제 개방화와 국제 경쟁시대에서 우리의 경쟁 상대인 선진 여러나라, 일본, 미국등의 나라들과 경쟁해서 살아 나갈 수 있으며, 우리가 앞으로 경쟁해야 할 상대는 이런 선진국들이지 아프리카나 기타 후진국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활질서 생활문화가 적어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그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해야 할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선거문화를 제대로 정립해서 진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선거혁명을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 실무적인 모든 준비를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준비의 만전을 기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지방중심으로 모든 문제가 제기가 되고 해결해야 되고

결정하고 집행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획, 입안능력,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키워가고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과정에서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다른 선거문화까지도 지배를 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참다운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없으냐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특히 경계해야 할것은 돈을 마구뿌려대는 금전 타락선거 그리고 불법, 탈법 사전 선거운동등, 이런건 단호하게 우리가 막아 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가 아니라 지역 살림을 꾸려 가는, 그리고 갈등과 대립이 거기서 용해되고 진정으로 가슴을 맞대고 대화로서 생산적인 천안의 결론, 충남의 결론이 여기서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한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변화하는 사람만이 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수부도시의 공직자답게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또 충남을 이끌어가는 맏형의 구실을 여러분이 해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스런 충남 새문화가 천안으로부터 시발점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공통된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미년 금년이 양털같이 포근한 화합의 한해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신미년이 솟아오르는 아침해와 같이 밝고 희망찬 도약의 한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책임과 사명감, 그리고 자랑과 긍지를 갖고 함께 힘껏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월 10일

4변 행정

벅찬 희망과 기대속에 1991년 신미년의 한 해도 벌써 10여일이 지났습니다.

도지사 부임이후 첫번째 목요조찬회를 동부권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곳 논산에서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른 아침부터 멀리서 참석하시느라 고생하신 연기, 공주, 금산지역 회원님께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역사회 지도층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도지사라는 중책을 맞게 되었습니다.

미력하나마 온 신명을 바쳐 우리 고장의 발전과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할 각오입니다.

뜨거운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1년을 회고해 보면 국내외적으로나 도내적으로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한·소간의 외교관계수립과 대통령의 소련방문등 외교활동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내적으로 볼때는 5.7 대통령담화를 시작으로 10.13「폭력과 범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등 민생치안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남북 총리회담, 축구경기, 예술제등 남북한교류가 활발히 추진되었습니다.

한편, 도내적으로 볼때는 도민의 의지가 결집되어 도세회복을 초과한 빠른 도약을 하므로써 도세발전에 자신감을 얻었다할 수 있습니다.

공업화시책·농어촌 활력화시책 추진과 체육·문화부문의 성과, 지역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등 여러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200만 도민과 지역사회 지도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써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남은 예로부터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많은 우국열사를 배출하였고 나라가 태평할 때에는 양반의 성품으로 도덕과 학문 그리고 예의를 중시하던 고장이라는 훌륭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계룡산과 금강, 그리고 서해안을 따라 잘 발달된 해안선등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이러한 긍지를 충남발전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도정의 기본구도로서 사변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로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개발문화를, 둘째로 금강유역을 중심으로한 전통문화의 새로운 창조를, 셋째로 계룡산으로 상징되는 화합과 충절의 충남인 특유의 정신문화를, 네째로 국토의 중심지로서 국가화합과 발전의 중심적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지역발전의 결과가 모아져서 나라 발전을 이룩하고 국가발전의 혜택이 지역발전으로 나누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나라의 발전이 곧 내 고장의 발전이고 내 고장의 발전은 곧 국가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신념을 갖고 도정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은 국가적으로 6공화국의 결실기로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지방적으로는 도세도약을 확산·실체화 해야하는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 드린 사변행정을 기본 구도로 삼으면서 금년도의 역점시책으로서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지난해 부터 강력히 추진하여 온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지속적으로 선도하여 국민운동차원으로 정착화 시키고 행정적측면에서는 올해부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책임행정에 중점을 두며, 물량적인 측면에서는 도세신장을 위한 도세도약 가속화 6대 전략사업과 농어촌 자립화 5대 중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위도위상을 재정립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도약하는 충남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과 사회지도층 여러분의 집념적 노력과 화합적 참여가 절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8일 대통령께서는 연두기자회견을 통하여 금년도 국정방향을 안정위의 발전, 민주주의의 정착, 제조업의 활성화, 국민 생활향상, 평화와 통일촉진등 다섯가지로 밝히면서, "새로운 약속,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에 실시되는 지방의회 선거를 민주주의와 지방화시대를 여는 관건으로 표현하고 지자제 선거를 엄정하게 치르겠다는 단호한 의지표명과 함께 경제난국 타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국정의지가 올바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 보다도 지방단위에서의 수범적 실천과 사회안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지방화시대"라는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30년만에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되고, 한편 환경보전 문제등 주민욕구의 증폭적 다양화, 성장과 안정기조의 경제운용 문제등 여러 부문에서 우리 모두의 슬기로운 극복노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지도층에 계신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월 15일

지역 연극인의 소중한 자료

인류가 출현하여 집단취락을 형성한 것은 여러가지 상황이 복잡하였겠지만, 그 이유중 하나가 자연에 대한 외경과 공포였습니다.

자연의 힘을 신앙으로 하였던 샤머니즘의 의식에서부터 연극의 발상은 시작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고대 제천의식의 춤과 음악이 전래되면서, 대중으로부터 호응을 받는 예술로 발전되었으리라 봅니다.

신라시대 처용무는 어느정도 형태가 갖추어진 극이라면, 고려말에 등장한 산대극은 배우가 무대에서 독립적인 연기를 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연극의 모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극은 전통적인 양반계급 사회의 뒤안길에서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고 시대를 풍자하는 여흥의 도구로 천대를 받으면서, 간신히 그 명맥만을 유지하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연극사조를 받아들인 일제시대 이후 우리 고장에서도 연극의 활동이 움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발자취를 추스리고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은 현실을

밝히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국 최초의 충남연극사 발간은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어려운 여건과 열악한 환경에도 그 꿈을 잃지않고 굳건이 향토무대를 지켜온 우리 충남연극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치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모쪼록 본 연극사가 지역 연극인들의 활동에 값지고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지역 연극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발간이 있기까지 정성을 다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1991년 1월 16일

향토문화 발전의 길잡이

우리 충청남도는 금강을 중심으로 넓은 평야와 온화한 기후등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옛부터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였습니다.

공주의 석장리 구석기시대 유적을 비롯하여 선사시대 유적이 각 지역에 많이 흩어져 있으며, 특히 아산, 예산, 부여등지에서 출토된 청동기들은 당시 선대들의 삶이 그려진 유물들로서 독특한 문화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제시대에는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찬란한 문화가 꽃을 피웠고, 바다를 통한 중국과의 문화교류가 활발하여 불교문화가 융성하였으며, 나아가 신라와 일본문화에 끼친 영향 또한 매우 컸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문화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문화재가 근세의 불행했던 역사와 산업화에 따른 무관심으로 묻혀지고, 우리 기억에서 잊혀져가고 있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선대들의 얼과 정신을 되찾고 문화도민의 긍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내에 있는 문화재를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책자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발간이 있기까지 기록 정리하는데 정성을 다해주신 충남대학교 문과대학 이강승 교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향토문화를 이해하는데 더없는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1991년 1월 17일

도정의 기본구도

여러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이자리에 계신 여러 어른과 도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지난해말 도지사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정을 파악하느라 여러분들을 한분한분 찾아 뵙지 못하고 이런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지도층에 계신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2년여 동안 부지사로 일했습니다.

미력하나마 온 신명을 바쳐 일할 각오로 있습니다.

뜨거운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00백만 도민의 의지가 결집되고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도세의 회복과 발전에 커다란 성과를 얻었습니다.

우리 충남은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계룡산과 금강, 잘 발달된 리아스식 해안선과 수려한 경관의 서해안, 그리고 국토의 중심이란 입지적 조건, 이것은 충남의 자랑거리이자 천혜의 자원조건입니다.

저는 이러한 긍지를 바탕으로 국가사회안정과 지역사회발전에 연결시키기 위한 도정의 기본구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로 계룡산으로 상징되는 충절과 화합의 정신문화를, 둘째로 금강유역을 중심으

로한 전통문화의 새로운 창조를, 셋째로 서해안지역에 대한 환경을 더 중시하는 개발문화를, 넷째로 국토의 중심지로서 국가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자랑스런 충남의 새문화를 창조해 나가는데 정성과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두달 후면 30년만에 실시되는 역사적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선거는 공명하게 치루어져야 하고 유권자께서도 무엇보다 훌륭한 분을 뽑아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수 있고, 도정을 제대로 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금전과 타락, 불법·과열선거분위기는 민주열망에 대한 자해행위로서 민주발전에 큰 장애가 됩니다.

어디까지나 돈 안쓰고 깨끗하며 질서있는 선거풍토 조성으로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이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도정발전을 위해서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걸프사태및 지방의회 선거에 즈음한 담화문 (신문보도)

1991년 1월 21일

합심노력하는 저력을

우리에겐 언제나 시련과 도전이 있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장구한 역사속에 우리민족은 민족의 자존과 정통성을 면면히 이어오면서 굳건하게 이 땅을 지켜 왔습니다.

6.25전란이후 폐허의 잿더미 위에서 찌든 가난을 몰아내고, 지난 88년에는 전 세계인의 찬사속에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과 환희의 여운이 채 가시기전에 우리는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너무나 많은 시련과 도전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페르시아만 전쟁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보는 것은, 급박한 전황도 전황이지만 원유의 안정공급과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불안과 우려때문일 것입니다.

근검절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걸프사태는 우리 경제발전과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않는 우리나라가, 우리가 처한 이러한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땀흘려 이룩한 경제안정 기반이 일시에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내의 세월을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밝히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이겨내면서, 그 고달픔을 불평없이 받아 들였습니다.

이제 에너지와 물자절약은 200만 전 도민의 생활속에 정착되어야 합니다.

사재기 등으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챙기려는 어리석음이 있었다면 모두 버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덜 따뜻하게 지내고 불편스러운 것을 조금은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면, 근검절약은 우리의 소중한 덕목이 되고 반드시 실천해야할 명제입니다.

지방의회 선거는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우리의 역사발전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한번쯤은 진지하고 겸허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눈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몸을 던져 일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을 우리 의회에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금전이나 타락, 불법과 혼탁된 분위기 속에서 이번 선거가 치루어 진다면 앞으로의 의회운영에도, 분명히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진 선거에서만이 올바른 일꾼이 지방의회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때일수록 합심노력하는 충남인의 저력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인간은 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걸프전쟁을 지켜보면서 남의 일로만 느껴지지 않는 것도, 이제 눈앞으로 다가온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앞날을 걱정하고 우려하는것 또한, 이러한 맥락과 결코 무관치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인내하고 절약하는 지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새생활의 실천」과 더불어 가장 절실하고 긴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의지를 다지고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제25대 충청남도지사 취임 인사문

1991년 1월 23일

새로운 충남문화 창조

희망찬 신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고당에 행운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의하여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고향의 도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소중히 해왔던 고향에 대한 애정과 긍지로, 이제는 충남을 고향으로 두신 선후배 동료, 여러 어르신들의 뜻을 헤아리고 받들어 희망과 아픔도 함께 하면서, 한분 한분의 의지와 지혜를 지역발전의 힘으로 승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경험이 미숙하지만, 충남인 전통의 끈기와 출중한 예지를 모아 어떠한 난관과 도전이라도 주저치 않고 당당히 헤쳐나갈 각오도 서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이끌수 있는 힘과 따뜻한 성원, 그리고 변함없는 애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신다면, 이를 끈끈한 정으로 엮어서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 새로운 충남문화를 창출해 나가는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어느때이건 귀를 세우고 어느곳이든 바쁜 걸음으로 뛰어 갈 것입니다.

지난 3년 부지사 재직중 베풀어주신 은혜, 그리고 과분하신 축하와 격려를 더욱 분발의 채찍으로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도약하는 충남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인도와 지도편달을 거듭 당부드리오며, 늦은 인사 몇자 글월로 대신 올립니다.

1991년 1월 23일

현명한 선택

친애하는 반공용사여러분!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오늘 서른일곱번째의 뜻깊은 세계 자유의 날을 맞이하여, 조국과 민족의 자유수호를 위하여 소중한 이땅을 지키고 변함없는 반공애국정신으로 살아가시는 자유용사 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우리는 세계의 질서를 바꾸어 놓은 큰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의 한반도에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 가고자, 많은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반세기이상 지속되어온 이데올로기 냉전체제가 허물어지면서, 우리는 분명히 자유민주체제의 우월함을 보았으며, 우리가 얼마나 슬기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였는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천만 이산가족을 남긴 동족상잔의 쓰라린 아픔이 가슴에 맺힌채, 우리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서글픈 유산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적화통일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의 위협과 스스로 뼈를 깎는 군비경쟁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날의 빈곤과 저개발의 굴레에서 벗어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이땅을 복되고 자랑스런 터전으로 가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바탕은, 그동안 자유용사 여러분의 자유수호에 대한 신념과 굳건한 결의가,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안팎으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으며 신미년 새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가, 그전처럼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정체의 길을 가야만 하는가 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격동하는 세계정세는 새해벽두부터 걸프전쟁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개방과 화해의 시대,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소망하는 우리모두에게 큰 실망을 주면서,

우리의 안정된 에너지 공급과 경제발전에도 새로운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피어린 전쟁의 참화에 몸서리쳤던 우리는, 이번 전쟁이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 보는 성찰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시는 이땅에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신념과 단호한 의지를 다지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스스로 비축된 힘이 없다면 우리는 또다른 고통과 수난을 당할 수 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한 민족입니다.

친애하는 자유용사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지금 전국민적인 의지가 모아지고 참여하고 있는 「새생활 새질서 실천」운동은 우리가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힘을 키우고자 하는 절실한 운동입니다.

우리 전후세대들에게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과 공산주의 허구성을 다시한번 인식시키고, 도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어떠한 변화와 격동이라도 이를 당당히 해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쪼록 이자리가,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전환기적인 우리 사회에, 모두가 소망하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로운 삶을 위해, 그리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그날까지 정성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다짐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과연 우리가 어려운 이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대회를 준비하신 대한반공청년회 한석복 충남도지부장님과 회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모두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모두 자유주의 체제를 소중하게 지키고, 「새질서 새생활실천」에 솔선수범할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MBC TV 새해를 연다 TV 대담

1991년 1월 25일

자랑스런 충남 새문화 창조

도민에게 드리는 새해인사

충청남도 지사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희망찬 신미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과제가 많은 이 시기에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여러분과 함께 우리 고장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서 도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 그리고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도정철학과 방향 네가지

저는 충남에서 태어나 충남에서 자랐으며 특히 충남 부지사로 3년을 봉직했습니다.

부지사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17,000여 공무원들을 이끌어, 200만 도민의 뜻을 소중하게 받들어 고향의 발전과 고향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년동안 전국을 돌며 일할 때마다 그리고 내 고장에 돌아와 공직생활을 할 때마다 늘 자랑으로 생각했던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리고장 자랑이 곳곳에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큰것 몇가지는, 첫째로 서해안을 따라 잘 발달된 해안선과 수려한 경관입니다.

다음은 백제조상들의 숨결이 어려있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젖줄인 아름다운 금강입니다.

세째는 충남 한가운데 신비롭게 솟아있는 우리나라의 명산 계룡산입니다.

네째는 충남이 지금 한국의 중심지에 있고 앞으로 통일이 된 뒤에도 제주도를 합하면 한반도의 중심이 된다는 충남의 입지적 조건입니다.

그리고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나라가 어려울때마다 신명을 바쳐 이 나라를 지켜온 충신·열사들을 많이 배출해낸 충절의 고장이란 사실입니다.

애정과 감동! 긍지와 설레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감격과 긍지를 충남발전으로 새롭게 연결시켜 갈수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서해안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개발문화

둘째, 금강유역을 중심으로한 전통문화의 새로운 창조

세째, 계룡산으로 상징되는 화합과 충절의 충남인 특유의 정신문화

그리고 네째, 국토의 중심지로서 국가화합과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런 자랑스런 충남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서 발전시키는데 도정의 기본구도와 초점을 맞춰 나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지역발전의 결과가 모아져서 나라발전을 이룩하고, 국가발전의 혜택이 지역발전으로 나누어 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나라의 발전은 곧 내 고장의 발전이고 내 고장의 발전은 곧 나라 번영의 초석이 된다는 신념을 갖고 깊은 성찰을 해오고 있습니다.

도정방침에 대하여

올해의 도정은 밖으로는 국제적인 개방과 경쟁시대에 대비하고 안으로는 지금 막 열리려고 하는 지방화시대, 지방중심의 시대를 훌륭하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 인식아래, 도세도약을 더욱 가속화 시키기 위한 전략과제와 추진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째는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더욱 내실있고 착실하게 추진하며, 도민생활의 안녕과 화평을 지켜드리는 일입니다.

둘째는 지방화시대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 가장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선거가 치루어져야 되겠으며, 이와함께 참다운 지방자치의 뿌리가 튼튼히 내리도록 하는 일입니다.

세째는 도세도약을 가속화시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6대전략사업과 농어촌자립화 5대중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새생활 새질서 실천

이 사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민주발전과정의 부작용을 치유한다는 의미외에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과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이 길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준높은 질서와 밝고 안정된 생활실천을 통해서 국가전체의 효율성과 능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경쟁상대가 아프리카나 남미의 후진국이 아니고, 바로 유럽 여러나라, 일본, 미국등 선진국이기 때문입니다.

10.13 특별선언이후 이 선언의 실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과제라는 합의가 이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질서가 좋아지고 있고, 제조업체의 근로자 이직율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등산할때 산중 취사행위는 아예 안하는 것으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관내에 산불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생활도 건전한 방향으로 틀이 잡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또 누구나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함께 더욱 합심·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에는 화합과 충절의 충남인 기질을 바탕으로 국민운동 차원에서 범도민 참여 분위기를 가일층 확산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에서 일고 있는 도의새마을운동과 마을단위 향약실천, 충효교실운영, 스승존경운동등을 지역마다 그 특성을 살려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근로정신의 함양, 알뜰살림 실천, 이웃을 생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보·협동의 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능동적 대처

지방화시대에 능동적 대처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해서 그동안 이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지방의회청사를 확보하는등 만반의 준비를 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30년만에 처음으로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는 해가 됩니다.

먼저 지방의회선거가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공무원의 사전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정력 확충 노력이 시급하고 민자유치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을 보강하면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기회에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도지사로서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운영을 통해서, 도민여러분의 기쁨과 아픔, 보람과 아쉬움들이 뜨겁게 하나로 용해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아직도 남아있는 대립과 갈등이 물거품처럼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각계각층 도민의 여론이 체계적으로 수렴되는 가운데, 민주적인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충남의 결론이 도출되는 지방의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도세가속화 6대 전략사업소개

첫째, 우리 충남이 공업도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공업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공단조성은 1,5000만평으로 확장하고 유망중소기업 유치는 무공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앞으로 94년까지 1,000개 업체로 늘릴 것입니다.

둘째, 지역발전의 가속을 위한 거점도시의 개발입니다.

계룡산을 중심으로한 계룡시와 대산공단 배후도시 건설을 곧 착수하고, 당진 석문 광역도시를 구상·추진하고자 합니다.

세째, 백제고도권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토록하여 국가적인 집중투자를 지원받을 것입니다.

넷째, 우리 서해안개발을 위해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191억원을 들여 1일 생산규모 29만톤의 보령댐을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수원 문제로 여러곳에 타당성을 조사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예당호, 지천댐, 칠갑저수지, 공주2단계 용수사업을 추진해갈 것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114km 시설개수를 위하여 137억원을 투자하고, 권역별로 수질보전협의회를 운영하고, 분뇨종말처리장, 농업지구 오·폐수처리장등에 45억원을 투자해서 환경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관광종합개발을 위해서 6개소의 국민관광지개발과 동학사온천, 아산온천 기반공사를 곧 착수하고, 한산모시와 소곡주, 금산인삼등 특산품의 상품성 제고를 위해 투자를 하겠습니다.

여섯째, 도민체육진흥을 위해 전국체전 중위권에 진입하도록 신설팀 창단, 우수선수 확보, 전략종목 육성과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근린생활 체육시설을 늘리고, 취미 스포츠교실 운영등을 통해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도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농어촌자립화 5대 중점사업 소개

올해의 농정기조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농어촌이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불러 일으키는데 있습니다.

우리 농촌이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마는,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갖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추진하려고하는 5대 중점사업은 첫째, 농어촌발전의 주역인 인재의 육성입니다.

4H, 농어민후계자, 농어촌지도자를 위해 금년에도 해외견문을 넓히고 영농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100억원의 농어촌 진흥기금을 마련해 갈 것입니다.

둘째, 농어촌환경의 획기적개선을 위해 15개 지구의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2개소의 농어촌 시범마을 육성, 그리고 소득원 도로포장과 가로등, 부엌개량등에 힘쓰겠습니다.

셋째로 유망작목을 개발하고 수출상담소 운영강화등 수입개방 대응력 배양과 수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농산물의 상품성제고와 판로확보를 위해 무공해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우수한 디자인과 포장재를 개발하는 동시에 농산물 유통개선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소득경영구조를 개편하여 농외 소득률제고에 힘쓰겠습니다.

8개 지구의 농공단지 조성과 특산단지 조성, 바다의 제2목장화에도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하여

충남의 문화예술분야를 아직 미흡하게 평가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고장은 이 분야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첫째, 우리 고장의 문화예술분야 진흥을 위해 우선 지방예술단을 지원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전시회 문화예술행사가 활성화 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운영기금도 93년까지는 60억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둘째 우선 백제문화제를 전국민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셋째 백제인의 집과 정원, 음식 그리고 백제촌 건설을 부여와 공주에 건설·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읍면마다 작던 크던 한 자랑갖기 운동을 권장하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도민께 당부 말씀

도민 여러분!

어느시대 어느나라든 변화속에서 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경제·사회등 그 사회 각 부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발전 또는 정체 어느 쪽으로 이어지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단합과 참여 여부가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도민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고향의 영광과 발전을 위해 정성과 책임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 도민여러분께서 더 많은 협조와 더 뜨거운 성원, 그리고 더 깊은 이해와 더 넓은 참여를 부탁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초청 도정 간담회 인사

1991년 1월 29일

도세도약 의지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충남도지사의 중책을 맡게 된지 오늘로서 꼭 1달이 됩니다.

벅찬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면서 더욱 열심히 하려고 새로운 다짐을 스스로 굳게 하고 있습니다.

모시는 자리를 진작 마련해야 했을텐데 「도정을 파악하느라」 뒤늦게 이런자리를 마련하여 인사드리게 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정에 바쁘신 일정중에도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도정보고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김종필 최고위원님과 김현욱 지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어른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천안에서 출생해서 두번에 걸쳐 3년동안 부지사로 일해왔습니다.

미력하나마 고향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신명을 다해서 일할 각오입니다.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9년 저희 충남도는 100만이란 많은 인적자원과 대전이라는 물적인 활력을 분리해 내고서도, 200만도민의 의지가 하나로 결집되고 특히, 여러 의원님의 보살핌으로 도세의 회복과 발전에 커다란 성과를 얻었습니다.

공업화시책·농어촌 활력화시책 추진과 체육·문화분야의 성장, 지역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도세발전에 자신감을 얻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 충남이 안고 있는 자랑거리로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계룡산과 백제조상들의 숨결이 어려있는 금강, 그리고 잘 발달된 해안과 수려한 경관을 가진 서해안과 또한 우리 충남이 한반도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건을 충남발전의 기틀로 연결 시켜나간다는 생각에서 도정의 기본 구도를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그 첫번째로는 계룡산으로 상징되는 충절과 화합의 정신문화를, 둘째로는 금강유역을 중심으로한 전통문화의 새로운 창조를, 셋째로는 서해안 지역에 대한 개발문화를, 넷째로는 국토의 중심지로서 국가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자랑스런 충남의 새문화를 창조해 나가는데 정성과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국가적으로 국정의 결실기인 동시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해이며, 지방적으로는 도세를 더욱 신장시키고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도정을 착실하게 펴 나가야 할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정신직인 측면에서, 지난해부터 강력히 추진해 온 「새질서·새생활 실천」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정착시키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올해부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공명선거와 효율적 지방의회 운영 그리고 자치행정 발전에 중점을 두며, 물량적인 측면에서는, 도세도약을 위한 6대 전략사업과 농어촌 자립화 5대 중점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앞으로 실시될 지방의회 선거는 지방자치제의 훌륭한 정착을 위한 시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의 지방의원 선거가 「돈 안쓰는 선거」「깨끗한 선거」「차분하고 질서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의 안정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도민과 폭넓은 대화를 하고 특히 영세민을 비롯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따뜻이 보살피고 지원해 드리며, 농어민 후계자와 마을단위 청소년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각종 집단민원도 그 원인을 하나하나 깊이있게 검토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

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베풀어주신 지원 못지않게 지역의 발전 의지가 중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더욱 깊은 관심과 편달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금년도의 주요도정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1년 2월



△ 실과 방문 (전산실)

2월 월례조회 훈시

1991년 2월 1일

충남의 4가지 자랑

본인이 도지사로 도정의 책임을 맡게 된지도, 그리고 벅찬 희망과 함께 시작된 신미년도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앞으로 우리 도정이 펼쳐나갈 구도를 설정하고 지표를 정하고 시군을 순회하며 현지 도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한달을 보냈습니다.

지난 한달동안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전개하기 위해서 지사를 보필해 주고 같이 호흡하고 함께 뛰면서 고생해준 산하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은 새해 벽두부터 걸프전쟁의 발발로 우리 마음에 구김살을 지게하고 얼룩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정세는 동서화해의 무드가 무르익어, 소망스런 변화를 가져왔다면, 금년에는 연초부터 거센 도전속에 출발하는 시련과 극복의 한해가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금년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정착시키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안정속에서 슬기롭게 열매를 맺어가야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로서도 도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세를 더욱 신장시켜가야 하는 기본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달동안 4각4변 행정과 새문화 창조라고 하는 우리 도정의 기본구도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명이 있었고 진실, 화합, 창의라는 도정방침에 대해서도 착실한 개념 설정이 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해야할 과제는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추진하여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민주발전의 시금석인 지방의회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루는 일입니다.

셋째는 도세의 지속적인 신장으로 우리 향토를 자랑스럽게 가꾸어 가는 일이며,

네째는 걸프전쟁에 따른 에너지절약과 물가안정, 그리고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일입니다.

이런 과제와 아울러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적으로 지방적인 과업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칙과 전략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 하는것이 도정의 기본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우리도에는 네가지 자랑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서해안과 내륙에 개발할 수 있는 풍부한 개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점이며,

둘째로는 금강유역을 중심으로한 어느 고장이 갖지 못한 찬란한 민족문화유산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신비롭게 솟아있는 계룡산으로 상징되는 충남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정신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네째로는 우리 충남이 국토의 중앙에 있고, 통일된 뒤에도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가진 이 지역의 지리적 입지적 조건을 충남발전에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도세도약을 더욱 가속해 나가자는 것이 기본구도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해안에는 잘 발달된 해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려한 경관이 있고 내륙에도 개발잠재력이 많은 미개발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또 공업도로의 출발이 늦었기는 하지만 우리들은 좀더 환경을 중시해 가면서 새로운 자연과 인간중심의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개발문화를 창조해 나가야겠다는 것이 첫번째 원칙이고

두번째는 금강유역을 중심으로한 민족문화와 전통문화가 있었고 거기에 농경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자연적인 우리의 장점들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문화를 살려 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고 순리입니다.

셋째 우리 충남사람만이 가진 특유의 끈질긴 저력과 중용의 정신 그리고 어려울때와 큰일 생겼을때는 하나로 뭉쳐서 일어나는 그런 화합과 충절의 정신문화를 계승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남인만이 가진 특유의 정신적인 장점을 도세신장과 발전으로 연계시켜 나가자는 것이 세번째 기본원칙이고 전략입니다.

또 우리는 국토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후에도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수도는 인구가 밀집되고 기능이 너무 많아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수도권 자체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지역을 새로운 국토의 중심지로 건설해야 합니다.

그것은 호남도, 영남도, 강원도 아닌 충남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입지적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랑스럽고 살기좋은 우리 충남건설에 최

대한으로 활용하는 기본원칙과 전략으로 삼자는 것이 이 네가지 자랑과 긍지로 4각4변구도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고장이 갖지 못한 지리적 장점과 정신적이고 역사적인 문화적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세도약과 자랑스런 충남건설에 연결시켜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도정방침을 세가지로 내세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진실, 화합, 창의로 설정했습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느냐하지만 너무 복잡하면 도정방침도 잘 모르겠다하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서 진실, 화합, 창의 세가지로 도정방침을 정했습니다.

진실도정의 목표나 실체가 뭐냐하면 그것은 도정 스타일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실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정의 목표와 실체는 나라와 국민이 위주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할 곳은 오직 나라뿐이고 우리가 봉사할 곳은 오직 국민뿐입니다.

실체에 충성하고 성실하다는 뜻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설득할때 말을 잘못해서 설득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논리가 부족해서 사람을 설득못하는 것도 더욱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과 진실이 전달될 때 신뢰와 우정은 저절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직자의 본분은 나라를 보위하고 국민을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며, 이를 민주적인 봉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충성으로 일하며 땀흘리는 이러한 공직집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화합도정입니다. 그것은 도정을 추진하는 힘의 원천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조직은 분업과 협동을 통해서 이끌어 가야 합니다.

단순히 일하는 조직이 아닌 목적이상의 단결력이 화합도정의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조직이 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만, 우리는 일을 초월한 인간의 동지애와

향토애로 끈끈하게 뭉쳐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도정을 발전시키고 추진시켜 나가는 힘의 원천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법적 의무를 초월한 협약속의 약속을 초월한 인간의 동료애, 향토애 같은 화합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최대한으로 살려 우리 도정 추진의 활력으로 연결시켜가자는 것이 화합도정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은 창의도정입니다. 창의도정은 우리의 조직과 사회 모두의 쇄신과 발전의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개개인의 노력, 창의, 중지의 규합, 민주적 절차를 가진 다수의 힘, 이런 모두가 창의입니다.

이는 조직을 쇄신하고 발전시키고 사회를 개혁하고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개혁과 발전, 건설과 개발, 과학과 기술, 문화와 문명, 이 모든것이 여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정의 방침으로 진실의 원칙, 화합의 원칙, 창의의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있으면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의회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30년만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선거에 대비하여 우리 공직자로서는 의회선거의 운영을 맡아야 할 지방행정조직으로서 행정적 실무적인 모든 준비에 완벽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는 자율의 시대라고 하며 중앙정부에서 하던 모든 역할을 우리 지방정부가 알아서 모두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질향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어느때 보다도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다가올 지방의회선거는 무엇보다도 깨끗한 분위기속에서 질서있게 치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 선거가 과거와 같이 혼탁한 분위기속에서 돈을 써가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으로 의회진출이 이루어진다면 그 분위기는 의회에 그대로 반영되고 우리 지역살림은 파탄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던지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뤄 바람직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와 지방의회는 다르다는 인식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국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정치투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지역살림을 논의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정치성이 개입되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진외국에서도 정치성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지역살림을 논의하고 그 지역살림의 바람직한 결론을 창출해 나가는 곳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이 희생정신을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인사들이 의회에 진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걸프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급은 물론 다른 경제에까지 그 영향이 미칠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국민들을 통보하고 설득도 하면서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성이 낮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외국에 비하여 생산성이 낮습니다.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부단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하나, 우리의 다른 병폐요인은 과소비성향입니다.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출하고 소비하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흐름에 왜곡된 행동입니다.

투기를 하는등 자금과 인력의 흐름이 건전치 못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 공직자는 바닥까지 꿰뚫어 보고 하나하나 챙겨나가며 물가를 안정시키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를 아껴쓰고 근검·절약하는데 우리는 솔선수범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화하는 역사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은 우리를 현재에 머물지 않게하고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갈 것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내고장 발전을 위해서 땀흘리고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와 창의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앞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우리의 생각과 몸가짐을 가다듬고 공직자로서 소명의식, 그리고 주어진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4회 택시운송사업조합 정기총회 치사

1991년 2월 26일

새로운 교통문화

오늘 한해의 알찬 사업을 계획하는 서른네번째의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자리에 참석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공헌해 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도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신 사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연말 고향 도지사로 부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향발전과 우리 도민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먼저 당부 말씀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시련과 격동의 진폭이 그 어느때 보다도 격심했던 한해 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동·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화해와 협력의 국제질서가 태동되면서 동·서독의 통일과 북방외교의 결실등 그 어느해 보다도 소망스러운 일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반면에 대내적으로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우리 사회 일부의 법과 질서의 경시풍조는 우리의 앞날에 어두운 그늘이 염려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개방압력과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더욱 어려워지는

경제적 도전으로 우리의 목표인 선진국으로 향한 발길이 가볍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땀흘려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으려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 되면 남의 탓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볼때 실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더구나 새해 벽두부터 발발한 걸프전쟁은 그동안 우리가 애써 이룩해 놓은 경제안정 기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방울의 석유라도 아끼는 절약의 지혜와 함께 새질서 새생활 실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는 걸프전으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당면한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루어내는 첩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노사간의 분규문제는 이제 어느정도 줄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변에 깔린 대립의식은 잠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교통가족 여러분의 노사간 화합은 실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걸음씩 양보하는 마음으로, 화합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몇년간의 대립과 갈등을 겪으면서 너무나도 뼈저리게 체험해 왔습니다.

노사간 상호의 입장만을 거듭 주장하다가 양측 모두 패배자가 되는 경험을 어디 한두번 겪는 일 입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지난날의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가운데 신뢰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평화를 정착하여 국운도약을 성취해 나가는 슬기를 발휘하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한해의 사업을 계획하고 토의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택시운송사업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민적 과제를 함께 인식하면서 이 자리가 산업 평화 정착을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어 주실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금년에도 택시운송사업 조합원 여러분이 일치단결하여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운송질서확립과 질좋은 고객서비스로 새로운 교통문화의 조기정착에 적극 참여해 주시리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신호균 이사장님을 비롯한 조합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깃드시고 다가오는 새봄, 새로운 다짐으로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1 노·사·정 연수대회 격려사

1991년 2월 26일

신뢰의 사회

친애하는 노동조합 대표 여러분!

그리고 기업체 대표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고장의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사회 모두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하면서, 산업사회의 활력을 위한 노·사·정 연수대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먼저 기업이나 직장의 바쁜 일손을 뒤로하고 보람있는 연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우리는 단절의 역사와 뼈아픈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세계 어느나라도 이룩하지 못했던 눈부신 경제성장 기반을 튼튼히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제발전이 가능했던 것을 세가지로 본다면,

그 첫번째로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이 있었고, 두번째는 근면·성실한 우리 근로자들의 우수한 노동력 그리고 세번째, 기업인들의 줄기찬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위치를 되돌아 볼때,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져서 이제는 더이상 정부가 산업전체를 조절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습

니다.

그리고 우수하고 값싼 노동력은 이젠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인건비는 평균 25%를 넘었으나, 노동생산성은 겨우 13%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고, 수출의 감소와 더불어 우리는 4년만에 다시 무역수지를 적자로 반전시켜 놓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기피하고 의지와 결의마저 위축되어, 사회 일각에서는 산업의 공동화 현상마저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하는것은 선진국들의 개방압력이 거세어지면서, 더구나 지난 연초 발발된 「걸프전쟁」은 우리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지금 이 상황이 어렵다고 하고 또 이래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한결같이 앞날을 걱정하고 이 사회를 올바른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문제는, 누가 나서고 실천하는 사람이 적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몇몇 사람이 나서서 이 사회를 이끌고 경제성장도 정부가 주도했지만, 이제는 말없는 다수가 이끌어 가는 대중의 시대가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두사람 나서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두가 나서고 실천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과 기업의 대표자 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살기좋은 사회란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지내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서로 믿고 마음을 안정시킬수 있는 신뢰의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지나친 이기주의는 내 자신과 내 가족, 나아가서 이 사회와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가 남을 위하여 베푼다는 것이 쉬운일은 분명 아니지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남을 도울 수 있고 모든것을 다 가진 사람도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뢰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인식을 함께 하면서, 대립과 투쟁이 아닌 이해와 협력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지혜를 터득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업이 다시한번 더 높은 창의와 용기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발전의 기틀이 되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세계적으로 성장한 기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 도피적이고 안일한 기업경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연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책임은 근로자에게도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기여 없이는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사회와 더불어 목표와 보람을 함께하고,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이 투철한 근로자가 많을 수록 그 기업은 발전을 거듭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와 기업은 사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반 대중이 그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항상 인식하고, 국민들이 열열한 성원을 보내는 것으로 착각하고 무분별하게 일삼는 과격한 투쟁은 이제는 자제할 때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동의식 탓을 많이 합니다.

바람직한 근로정신은 경영자로부터 나온다는 인식, 그리고 기업은 운명과 책임을 같이하는 공동운영체라는 인식으로 서로 신뢰와 이해속에서, 진정한 근로의식은 꽃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조합과 기업대표자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세우고 아무리 엄중한 법을 만들어도 결국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실천하되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서로 반목과 불신속에서 웃음을 잃고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산업평화와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노·사·정 연수대회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의 바람직한 결론이 모아지고, 우리 지역의 화합과 안정,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전국에서도 수범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어 서로의 믿음을 두텁게 하는 다짐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깃들고, 소망스럽게 다가오는 새봄, 보람으로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향군인회 제33차 정기총회 및 새질서·새생활 실천 결의대회 축사

1991년 2월 27일

결연한 의지로

오늘 우리고장의 향토방위와 지역발전에 헌신하시고 계신 재향군인회 임원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서른 세번째 정기총회와 더불어 「새질서·새생활 실천」 결의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재향군인회원 여러분께서 지역사회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고장을 보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꾸기 위한 노력과 실천을 다해 오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예의 수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축하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이 정기총회는 매년 회원상호간 유대강화와 친목을 다지는데에도 그 목적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사회를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보람된 역할을 어떻게 참여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토의하는데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속에 독특한 문화와 가치있는 윤리를 창출하고 보전해 왔습니다.

수많은 외침과 망국의 비운속에서도 전통과 긍지를 저버리지 않고 역사를 지켜온 끈기있는 민족입니다.

이러한 전통과 긍지는 시련과 진통으로 얼룩진 지난날의 역사를 뒤로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고, 88서울올림픽도 훌륭하게 치루어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광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창조한 자랑스러운 세대임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몇년간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지난날 인내해 왔던 욕구가 무분별하게 분출되고, 고도성장이 그늘아래 묻어 두었던 갈등을 한꺼번에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더욱 발전을 계속하기 위한 하나의 시련이려니.., 민주화로 가는 길에 어차피 한번은 겪어야 하는 과도기적인 진통이려니, 하고 치부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언제 부터인가 법의 권위가 무시되고 질서가 파괴되는 아픔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대립과 투쟁이 계속되고 극단적인 이기심이 만연된 혼탁한 사회기풍은 지난날 우리가 땀흘려 이룩한 성장의 기반은 물론 국민생활 깊숙히 까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통령께서는 10.13 특별선언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겪어온 전환기적 상황을 매듭짓고 민족의 번영과 통일의 길을 위해 사회내부의 도전을 극복해야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지금은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과 참여속에 범죄발생이 줄어들고 검거율이 높아지면서 국민 질서의식도 점차 우리 생활속에 정착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재향군인 회원여러분!

민족사회의 근본인 법과 질서는 그 권위가 바로 서고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고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은 국가발전을 오도하고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비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행위를 과감히 척결하고자 하는 「범국민 도덕성회복운동」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향유한 전통적 문화를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도덕성을 회복하자는 것은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세태, 변화하는 문화의 충격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통적 가치관의 탄력성을 찾으면서 새로운 질서와 가치관을 이땅에 정립시켜, 이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민주화 시대에 알맞는 새로운 질서와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어둡고 긴 지난날의 은둔된 나라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우리도 세계사의 주역이 될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경제를 더욱 신장시키고, 국력을 키우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남북통일도 이룩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오늘을 인내하고 모진 시련을 견딜수 있는 것은 보다나은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미래는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성의 눈으로 내 자신을, 내 이웃을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급변하는 세계정세는 걸프전쟁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와 사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지···

다시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다짐을 새롭게 하여야 할 때입니다.

본인은 우리 35만 재향군인 회원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과 사회곳곳에서 회원여러분이 주축이 되어 「새질서·새생활」의 큰 물줄기를 이룰 수 있는 선도적인 참여와 실천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중앙에서부터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한창선 재향군인회 안보국장님과 행사준비에 애쓰신 김옥범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원여러분 모두의 하시는 일

소망으로 성취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1 대간첩대책 지방회의 인사

1991년 2월 27일

지역방위 다짐

오늘 우리 고장의 향토부대와 예비군 지휘관 여러분, 여러 방위협의회 위원님 그리고 각급 기관장님과 경찰 지휘관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금년도 대간첩대책과 함께 지역안보에 대한 새로운 결의를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먼저 지금 이 시간에도 해안초소와 도내 주요 보안시설 보호를 위해서 헌신, 진력하고 계신 향토사단과 예비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경찰관을 비롯한 보안요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200만 도민과 더불어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 한해동안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와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소련의 개방과 개혁 그리고 동구권의 자유화 물결로 동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태동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들과 북방외교를 펼치면서, 남·북 고위급회담과 한·소 정상회담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소망하는 평화통일 여건을 성숙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걸프전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힘의 논리에 의한 국지전의 가능성은 어느때나 상존하고 있으며, 더욱이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 적화혁명전략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 압니다.

지난번, 제3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양측 대표들이 축배를 나누는 순간에도 북한의 신문과 방송은 우리 정부를 비방하는데 광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전·선동 요원인 기자들은 대학가에서 정치선전을 자행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와해하기 위한 통일전선전략을 노골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를 감안할 때, 금년 한해도 새로운 도전과 시련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의 안보의지를 결집시키고 전후방을 통한 완벽한 경계태세의 구축이야말로 우리의 북방정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여,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첩경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 고장의 대간첩작전 지휘관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격동과 변화의 한해를 마감하고 평화통일 소망을 간직한 채 9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45년간 분단의 역사 흐름속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민족분단의 존재양식이 언제까지나 끝없이 장기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통일에서, 통일은 주변국가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민족의 내적 역량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슴을 알았습니다.

독일의 통일이 처음에는 2+4자회담에서 결정될 것이라 했지만, 결국 동서독의 회담결과를 전승국인 4자가 따라갔다는 사실은, 민족의 역량이 국제 이해관계보다 우위에 있슴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의 역량은 누가 도와 주는것이 아니라 그 민족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국민적 의지를 다지고 땀흘려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북한 공산집단의 어떠한 도발이나 후방교란 행위를 사전에 분쇄할 수 있는 대간첩대책을 완비하여,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 스스로 힘을 기르고 역량을 모아가는 일들 입니다.

우리 충남은 자칫 지역방위의 중요성을 소홀히 할 수도 있는 후방지역이지만 과거 몇차례의 간첩침투가 있었고, 또한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취약지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평소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주민신고체제를 정비 보완하는 동시에, 유사시에는 즉각적으로 작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협의기구를 체계화하고 지역단위 공동 방위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가안보에는 자만이나 방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겪어 왔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굳건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면서, 완벽한 대간첩 작전태세를 확립하는데 가일층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영예의 상을 받은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북한의 대남공작과 도발 전망 그리고 대간첩작전 대비실태의 귀중한 시청각 자료를 제공해 주신 국가안전기획부 대전지부와 보병 제32사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한해동안 국가보위의 소임완수에 헌신해온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면서, 관계관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91 정년및 명예퇴임 교육공무원 훈·포장 전수식 축사

1991년 2월 28일

인내와 보람으로 쌓으신 영광

오늘 성큼 다가온 봄의 문턱에 서서, 한 평생을 2세 교육에 헌신하시고 영예롭게 정든 교단을 떠나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지켜보는 본인은 지난날 어린 학창시절의 회고와 함께 깊은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직 인재 양성의 일념으로 스승의 길을 걸으시며 이 시대를 희망과 보람으로 가꾸어오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 드리면서, 아울러 영광스러운 훈장과 포장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려마지 않습니다.

교육자의 사명과 스승의 길이란 내일의 이 사회와 나라의 국운이 걸린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 어떤 이념이나 덕목보다 높고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속에서도 후진양성을 위하여 높은 벼슬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우리 조상들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목은 이색선생이 그랬고, 우리 고장 출신인 명제 윤증선생 또한 그랬습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그만큼 보람있고 가치있는 것이라 여겨 왔습니다.

어느 국가나 사회이든지 여러가지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요소들이 골고루 발달되고 힘의 균형을 이룰때 그 사회는 더욱 발전하고 성장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이며 이 사회를 지키는 원동력입니다.

또한 교육을 통하여 인간을 인간답게 키우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폭을 넓혀 주는 일은 정말 소중하고도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가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깨우치고 배우고자 노력했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열악한 교육환경속에서도 인재를 키우시는데 온 정열을 쏟고 그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되고, 국력이 신장되어 산업발전을 이룩한 근본이 되었슴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자 불원천리 마다않고 엎드려 가르쳐주기를 간청하였던 일은 흔히 있던 얘기이지만, 요즈음은 산업화되고 현대화된 물질 문명속에서 스승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며 존경해왔던 풍토가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2세교육에 헌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마음은 그지없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오늘의 교육환경을 못내 아쉬워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믿고 정을 나누는 밝고 명랑한 사회, 그리고 스승과 제자간에 사랑과 존경이 오고가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오늘 퇴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제는 사회의 스승으로서 이 사회를 이끌고 선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장래를 알려면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최근 자라나는 청소년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던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날로 복잡해져가는 사회구조와 물질문명속에서도 어린 청소년들에게 사랑을 쏟으시고

오직 바른길로 인도하셨던 선생님들께서는 이시대 우리 사회의 장래를 밝혀주신 가장 값진 공적을 남기신 분들 입니다.

떠나신 자리 공간을 지키는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선생님들의 그 숭고한 뜻과 지혜를 소중히 할 것입니다.

다만, 선생님들께서는 비록 몸은 교단을 떠나시더라도 마음만은 항상 자라나는 청소년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 곁을 떠나시지 못하고 이들을 계속 지켜주시며 바른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계를 변함없이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인내와 보람으로 쌓으신 영광된 퇴임을 다시한번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선생님들을 내조하시고 도와주신 사모님들과 가족, 친지, 그리고 우리 충남 교육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남으신 여생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된 나날이 지속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2월 28일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충청남도는 선배 지사님들께서 쌓으신 업적과 전통적인 도민의 저력에 힘입어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가르쳐 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에 고개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2월 23일 대통령께서 본도를 방문하시어 금년도 도정을 보고 받으시고 몇가지 당부말씀이 계셨기에, 도정보고서와 함께 당부말씀을 동봉해 올립니다.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충남도정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소직, 선배 지사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새봄을 맞이하면서 행운이 깃드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드리옵니다.

'91년 3월



△ 유관순 열사상

1991 년 3 월 4 일

우리의 과제

어느덧 2월보내고 3월을 맞았습니다.

3월을 맞으며 도의 전 직원이 해야할 과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달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만 우리 모든 직원이 희망과 자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어 일하는 과정과 여건에 대해서 큰 보람을 가졌던 달이었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 애써주신 산하 전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무부장관과 대통령 연두순시때 밤낮으로 휴일도 없이 완벽한 준비를 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월을 보내고, 3월을 맞으며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할 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3월은 다른 중요한 일도 많지만 우리가 특별히 다루어야 될 과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요행사와 사건으로 장관님과 대통령 연두순시가 있었고 2.27 인천에서의 서해안 고속도로 착공, 독립기념관에서 행한 3.1절 기념행사, 걸프 전쟁의 종전, 수해택지특별공급 사건등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 연두순시때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말씀 8가지, 대통령의 국가적

이고 일반적인 지시사항 4가지와 개별사항 4가지, 끝으로 대통령 연두순시 때 우리가 보고 드린 도정중점과제등 18가지를 선정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18가지는 3월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도정의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고 실천해서 완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연두순시 지시 강조말씀 중에서 제목만 다시 나열해 보면 국민의 신뢰회복과 공직기강확립, 새질서 새생활 실천 지속추진, 공명선거대책추진, 경제 안정성장 대책추진등 입니다.

또 우리 충남지역에 대한 사항으로는 지역개발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계룡산주변 특정지역 선정, 공주-부여간 도로확장사업 조기추진, 농어촌 자립화시책의 적극추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정중심과제를 간추려보면 새질서 새생활실천의 정착, 지방화시대의 민주자치 기반조정, 자랑스런 충남건설의 전략사업추진, 유서 깊은 충남문화의 창조적 진흥, 신뢰와 화합을 통한 지역역량의 결집등 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이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도내 전 직원 모두가 전 부서에서 중점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도정방향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당면사항 두 가지를 더 든다면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대전 EXPO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금년말까지 계속 추진하고 연구, 보완, 발전시켜야 될 추진과제입니다.

우선 대통령 지시말씀과 도정의 과제에 대해서 나열해 보았는데 전 직원 모두가 이를 자기소신화 해야 됩니다.

또 소상하게 주민에게 알려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도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바라는 바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기도 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미리 미리 점검하여 일이 발생 된 후에 허둥지둥하지 말아야 됩니다.

각 부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업무과제별로 실천의지를 정립하고, 비젼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전략을 개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립하기 위해 3월중에는 각 실과를 둘러 보고 여러분들의 업무에 대한 실천의지, 비젼, 전력등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통령 지시강조 말씀과 도정중점과제가 차질없이 실천이 되도록 전 부서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3월은 모든것이 시작되고 생명이 약동하는 달입니다.

우리 도의 모든 사업도 이 기간중 모두 발주되고 새롭게 움트게하고 보람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것을 이 시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다지고 확인하고 챙겨주는 일에 반복하여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조금후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러분들이 실천계획을 보고해 주리라 믿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기로 하겠습니다.

얼마전 수서사건이 터져 우리 공직자 모두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움을 느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 원인을 따지자면 기업의 무조건적인 확장주의라던지 물질만능주의에서 비롯되었고 공무원들은 종전의 타성, 안일한 사고, 적당주의, 요령주의, 무소신등이 총체적으로 들어난 결과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깊은 자기성찰을 갖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 사건의 관계자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용기, 소신을 가지고 사건에 임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움을 전 공직자가 당해야 된다는데 참으로 가슴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모시고 민주화와 번영과 통일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30년만에 지방의회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금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국민과 오래전부터 약속하고 실시하는 마당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략이다" "책략이다" 등 여러가지 소

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실시하여 국민에서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자는 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지금 정치적 쟁점화해서 지방의회선거를 몰고가려 하는 일부세력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당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됩니다 정권싸움, 정치투쟁에 말려들어서도 안됩니다.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목표는 이런 정치투쟁이나 정당에 의해서 정쟁에 휘말리는 것으로부터 탈정치화하고 탈정쟁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문화부에서는 3월을 한용운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달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용운선생은 일제시대 암울했던 식민지시대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지식인, 민족운동가, 민족시인으로서 좌절에 그치지 않고 우리 민족의 목표를 제시하고 희망을 노래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님의 침묵」도 그런 시중의 하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광복을 찾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뿐인 고귀한 생명까지도 바쳤습니다.

나라와 겨레를 위해 일한 여러 애국선열들을 3월달에 연구하여 업적을 기리고 생애를 기리고 기념행사에도 많이 참관하여, 진실로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나는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후세들에게 길이 기리는 달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서해안고속도로가 착공되었습니다.

우리 충남은 서해안고속도로 기공식으로 해서 서해안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새로운 축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공장들, 공단들 산업기지들이 건설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산공단, 아산산업기지, 장·군산업기지, 보령댐, 석문공단, 새 항만건설, 동서를 관통하는 새로운 고속도로, 그리고 7.38 km의 긴 대교가 아산만에 건설되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개발사업의 모두가 차질 없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분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간중에 걸프전쟁이 있었습니다.

걸프전쟁은 이라크 후세인의 돈키호테 같은 전혀 정보부재, 정보편재의 잘못된 판단, 모험주의 그리고 쿠웨이트 당국자들의 보안의식 결여, 무사안일 이러한 것이 합쳐져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20세기말에 있어서 가장 반문명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안되는 인류의 에너지자원을 무차별하게 방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을 바다에 흘려가지고 사상 최악의 환경파괴를 자행한 것이 후세인 입니다.

다른 측면에서도 사담 후세인은 처벌받고 책임을 져야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인류의 이름으로 먼저 규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험주의자가 우리 북쪽에도 도사리고 있다는데 우리는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재난이 우리가 준비없는 상황에서는 언제 올려는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우리는 조금도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해 온 근검절약운동 그리고 10부제 차량운행,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태세, 이것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공직기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과 공직자는 여느 직장과 다릅니다. 즉 일반 직장인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인으로서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걸고 온 머리와

지식을 동원하고 명예와 가족, 재산을 걸고 그리고 어떤 때는 생명까지를 걸고 직무를 완수해야 하는 충성과 봉사가 요구되는 그런 직장이라는 점을 우리 공직자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국민에게 성실해야 되고 화합하고 창의에 넘쳐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실근면한 공직자와 안일무사한 적당주의 공직자와는 항상 구분되어야 합니다.

자세가 옳은 공직자와 그렇지 않은 공직자는 항상 구분되고 신상필벌해야 하고 일벌백계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풍토가 우리 직장에 조성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지난 연두순시때 밤낮으로 휴일없이 준비해 준 모든 부서 전 직원 그리고 충남의 공직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준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달입니다.

봄을 여는 달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으로 힘찬 새출발을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또 3월에도 모든 사업과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다시 한번 분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승과 행운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청풍 3월호 명사 칼럼 게재

1991년 3월 4일

지방자치의 성패는 공명선거에서 판가름

지난 1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자제 정국이 지난해 말, 여야 만장일치로 지방자치와 관련된 5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서 일단락 되었다.

이제 우리는 단절과 굴곡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성큼 다가온 지방자치제 실시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지방자치는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주민의 참여와 복지를 구현하는데 그 참뜻이 있다.

국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지만, 지방의회는 본질적으로 그 지역의 살림살이를 논의하고 바람직한 지역의 결론을 만들어가는 곳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를 하루 빨리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해 왔음을 상기 할때, 지방 자치의 실시가 지역주민에게 주는 기대와 희망은 가히 짐작할 만 하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 했던 지방자치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과연 앞으로 모두가 소망하는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올바르게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물었을때, 자신있게 '그렇다'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

그것은 아마도 과거 지방자치의 쓰라린 경험과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선거문화를

겪은 얼룩진 아픔이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보다 이성적인 시각으로, 지자제 실시가 우리 역사 발전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또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방자치를 조금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리라.

지방자치제가 모두가 소망하는 만큼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건이 있지만 먼저 주민들이 자치의식을 스스로 높이고 지역사회를 이끌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선출하면서, 자치능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질서 있는 선거를 치루기 위하여 선거풍토를 개선하는 일이다.

금년 상반기중 우리는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갖게 된다.

그리고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는 대통령 선거를 치루어야 한다.

줄줄이 이어져 실시 되는 선거가 지난날과 다름 없는 타락상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또다시 선거 염증에 시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찌기 독일의 문호 괴테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속담에도 '시작이 잘 되어야 끝이 좋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이번 선거가 과거의 선거풍토를 일신하고 새로운 선거문화를 이룰 수 있는 도약대가 되고 분수령이 되기를 고대한다.

올바르게 치루어진 선거에는 올바른 일꾼이 탄생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올바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뿌리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는 그만큼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네 선거는 모범이 될 만한 구체적인 사례를 남겨 놓지 못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 모두는 이번 지자제 선거 역시 과거와 같이 혼탁되고 타락된

선거가 재현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사람이 사람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것, 어떻게보면 냉혹한 선거에서 후보자는 승리를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후보자의 이러한 노력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페어플레이 정신은 모든 후보자가 지녀야 할 덕목이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대표 수 있는 능력과 인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돈 안쓰는 선거, 질서 있는 선거, 그리고 합의된 룰에 의하여 공정하게 그 결과가 존중되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로 치루어져야 한다.

선거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면 우리 유권자들은 자칫 지역의 발전과 공명선거의 참뜻을 잊고 눈앞의 작은 이익에 휘말리기 쉽상이다.

돈을 안써도 당선을 할 수 있는 덕망과 능력을 갖춘 인사들이 지방의회에 보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보다 지혜로와 질수는 없을까?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하는 흑색선전이나 금품의 유혹으로 접근하는 후보자들을 이제는 우리가 멀리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우리 지역발전의 역사를 쌓는 주체는 후보자가 아니라, 바로 "나"임을 생각하면 그들이 외치는 목소리를, 한발치 떨어져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리라.

우리 인간의 역사는 지금이 항상 최악의 상태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것 같지만 조금씩은 이상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으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새로운 자기자정의 환류를 되풀이하는 가운데 발전하여 온 것이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이제 그 싹을 다시 틔우고 자생력을 갖게 되기 까지에는 우리를 시험하는 많은 시련과 도전이 거세어질 것은 자명하다.

이번 선거가 과거와 같이 혼탁되고 무질서하게 치루어진다면, 그동안 우리가 지방

자치제 실시를 위하여 애써 준비한 노력은 물론, 이제 막 싹터 오르게 될 지방자치 또한 시작부터 잘못된 길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공정한 판단들이 모여서, 커다란 역사의 주류를 이루는 지역의 주인이라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앞서, 어떤 유권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

는데에 이번 선거의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1991년 3월 5일

도민에게 꿈과 용기를

花春之節에 더욱 건강하시고 댁내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도정의 책임을 맡으면서 그 동안 시군순시와 도민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 충남도가 펼쳐나갈 도정의 발전방향을 새롭게 마련하고 대통령께 주요 도정계획을 보고 드리느라 정말 바쁜 일과를 보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각오와 결의, 그리고 언제나 소중히 여겨왔던 고향에 대한 애정과 긍지로 도정을 이끌어 가면서, 특히 우리 고장 발전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열어주실 충남발전 협의회 회원님들의 의지와 지혜를 도정 곳곳에 반영하여 충남발전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12일에는 회장님들과 부회장님들을 모시고 '91 도정을 보고드리는 가운데 우리 충남발전협의회가 지향하고 실천해 나가야할 구체적인 사안들이 진솔하게 협의되고 논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발전협의회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지역구심체로서, 도민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지역 발전의 알찬 결실을 안겨주는 거도적인 모임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도정에 대하여 계속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다면 「자랑스런

충남 새 문화를 창조」해 가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앞날에 더 큰 행운과 영광을 기원드립니다.

1991 년 3 월 7 일

개발과 보존의 조화

약동하는 봄의 새생명이 움트는 오늘, 우리 충남의 제1중심지인 이곳 천안에서 두정동 천안공업단지에 이어, 천안 제2공업단지 조성사업의 기공식을 갖게된 것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기공되기까지, 협력해 주시고 성원을 다 해주신 이 지역출신 정일영 의원님과 지역유지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본 사업은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업으로서 지난 2년간 시민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속에서 추진한 결과 오늘 대망의 기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350억원이 투자되고, 그리고 25만평에 달하는 본 공단이 들어서게 되면, 이곳 천안은 우리 충남북부권의 공업중심지가 되고 수도권으로부터 내려 오는 공업과 상업의 중심도시로 더욱 성장하게 될것은 자명해집니다.

더구나 인근의 천흥공단, 아산의 인주공단과 연결되어 우리나라의 새로운 공업지역으로 각광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충남은 공업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열여덟개의 공단과 65개의 농공지구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 2,020만평의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유망한 각종 기업들이 유치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업화를 추진하고 고장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이 보다 풍요롭고 우리 도민들이 보다 잘 살게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업화추진이 우리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앞에 가로놓인 시련과 장애물도 많이 있습니다.

입주업체에 대한 고용문제와 지역 주민과의 이해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환경오염과 산업공해로 우리의 국토와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고도 경제성장을 주도 해온 근거지가 되었던, 많은 공업 도시들이 환경오염과 공해로 피폐해가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힘은 너무 커졌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깊은 바다를 메워 뽕나무 밭으로 만들수 있고 높은 산도 단숨에 깎아 평지로 만들어 낼 수 있읍니다.

우리는 흔히 보전개발이라는 말을 합니다

개발과 보존은, 서로 상반 되는 입장에 있지만 오히려 이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

간다면 지난날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듭한 환경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우리의 공업화시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최근의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원화절상과 원자재값 상승,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와 통상압력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임금상승과 기능인력 부족으로 우리 경제는 시련에 당면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조업의 많은 우수인력이 써비스 부문으로 유출되고, 어렵고 힘든일을 기피하는 요즘의 우리 사회 풍조는, 우리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근본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과학 기술의 혁신은 하루가 다르게 세계를 변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꾸준한 기술 개발과 자체 산업인력의 육성과 더불어 생산성을 향상시켜, 국제경제력을 높이는 일에 전력투구 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인간이 오늘의 어려움을 참으며 견뎌 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보다나은 내일과 보람찬 희망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때까지, ?

그리고 우리 고장이 희망 가득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발자욱씩 양보하고 인내하여 어려운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우리 고장으로 들어오는 기업을 조금은 긍정적인 눈으로, 조금은 따뜻한 가슴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벅찬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충청남도가 우리나라 발전의 중심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본 공사가 순조롭고 소망스럽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공사에 참여하는 기업은 물론 시민 모두의 협조와 성원을 거듭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기공식 준비에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해드리면서 화사한 새봄, 보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3월 11일

생산성 향상을

오늘 뜻깊은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먼저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조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시는 근로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영예의 수상을 하신 모범근로자 여러분과 노동조합대표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지난 30년간 여섯차례에 걸친 경제사회 발전 계획을 마무리 짓는 해입니다.

내년부터 1996년까지 제7차계획이 완수 되면 우리는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는 고도산업의 선진국이 된다는 청사진을 그려 놓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30년간 우리는 피땀어린 정성과 억척같은 노력으로 이땅을 일구고 가꾸어 왔습니다.

이는 그동안 국민모두가 인내로써 견디고 보람으로 이룩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전국의 수많은 근로자들의 숨은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만큼 국력이 신장되고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열악한 근로조건과 저임금속에서 고통을 참아왔던 근로자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던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임금도 많이 오르고 근로조건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년간 극심했던 노사간의 대립과 투쟁도 사회적 공감과 합의에 의하여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 전만해도 여러분들은 우리 명절인 설날이나 추석에도 정상근무를 했고 고향을 다녀오기 위해 며칠씩 밤샘작업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사회는 힘든 일을 기피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기풍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느 미국의 신문에 "한국의 기적은 허공으로 치닫고 있는가"하는 번역된 기사를 읽은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집은 없어도 승용차부터 사고 노동자들은 잔업마저 기피하고 있다"라고 이 신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 우리나라 임금은 25%를 상회하고 있는데 노동생산성은 14%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은 올랐는데 생산성은 그만큼 뒤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나마 상품의 품질마저 떨어지고 불량률이 높아져 세계에서 품질이 우수하다는 우리 상품의 신뢰가 낮아져서, 과거보다 크레임 발생률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동기피풍조와 낮은 생산성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의 과제는,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산업이 활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성장을 계속할수 있고, 우리가 목표로하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가 노력하고 더 일하면, 그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보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세끼 밥먹는 것이 빠듯했지만, 지금은

힘든 일을 나서서하고 시간을 더 절약하면 그만큼 앞설수 있고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사회에는, 경제구조가 왜곡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며, 사치와 향락풍조 그리고 일부계층의 과소비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항상 잘못된 것으로 뭉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것 같지만, 하나씩 하나씩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희망차고 보람있게 살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오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를 참고 견디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와 국민 모두가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고 우리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회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사한 이 봄날과 같이 새로운 소망을 걸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생활을,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두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부럽지 않은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요, 또 하나는 통일된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상이나 먼 장래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눈앞에 다가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험난한 역경과 시련을 겪으면서, 민족의 정통성과 소망을 버린적이 없는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이루는데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우리 산업사회를 건전하게 이끄는데 빛이되고 소금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충만하고 하나님은총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3월 11일

선열들의 고귀한 숨결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치고 일제의 총칼에 분연히 항거했던 3.1운동은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전국에 메아리쳤던 민족운동이였읍니다.

나라 잃은 슬픔을 삭이고, 힘들고 괴로운 나날을 함께 하면서도, 독립만세를 부르고 항일시위를 벌였던 선열들의 충청어린 희생과 정신은 분명히 우리민족사의 우뚝솟은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선열들께서 외치신 독립만세운동이 그저 한 시대를 스쳐 지나버린 평범한 저항에 불과했다면, 아마 우리가 이만큼의 성장과 번영을 이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입장과 양대 장터에서 메아리쳤던 함성이 그친지도 72년의 세월이 바람스치듯 지났습니다.

지난날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고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다시 조명해 보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당연한 책임이며 도리가 될 것입니다.

토막쳐진 세월은 그 의분했던 가슴을 식히고 맺혀진 응어리마저 가라 앉혀 놓았지만, 이름없이 가신 선열들의 고귀한 숨결은 우리 세대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빛나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기록을 찾고 묻혔던 얘기를 다시 캐내어 오늘에 되살린 이 한권의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민태일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치하와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아울러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겨주고, 나라사랑의 교훈이 되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랑스런 충남건설」을 위한 다짐과 당부의 말씀

1991년 3월 13일

이렇게 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충청남도는 소망스럽게 맞이한 '91년도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자랑스런 충남문화를 창조해 나가기 위하여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참여속에서 화합·안정·발전의 「으뜸 도정」을 구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 ㅇ 「새 질서·새 생활실천」의 정착
- ㅇ 지방화시대의 민주자치 기반조성
- ㅇ 자랑스런 충남건설의 전략사업 추진
- ㅇ 유서 깊은 충남문화의 창조적 진흥
- ㅇ 신뢰와 화합을 통한 지역역량의 결집

□ 새 질서 운동은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자하는 범 국민적 운동입니다.

- 국가와 사회의 발전이 이 운동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 우리 사회의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생활화 될때까지 사회 각 분야에서 도민

스스로의 참여와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 우리의 자치역량은 공명선거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 지방의회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룰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민주발전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 도민 모두가 금품과 선심공세를 멀리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루기 위한 감시자가 되어, 지역과 나라를 위하여 봉사할 참 일꾼을 뽑는 지혜를 스스로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 「자랑스런 충남 건설」을 위하여 도민 모두의 뜻과 힘이 하나로 모아져야 합니다.

• 공업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백제 문화권 종합개발과 금강권 종합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대산공단, 석문공단, 관창공단, 천흥공단을 조정하며, 95년까지 모두 1,050개의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 계룡신도시, 금산인삼타운 한산모시타운이 건설되며, 동학사에서 공주를 거쳐 부여까지의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합니다.

• 계룡산주변은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 보령댐 건설과 광역상수도사업으로 서북부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생활 민원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도민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덜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을 건설하겠습니다.

• 농어민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국제적 경제에서 우리의 농어촌이 이길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농어촌 자립 성장」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유서 깊은 우리의 향토 문화를 아름답게 가구는 것은 우리의 긍지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소중히 가꾸면서 오늘에 맞는 우리의 것을 새롭게 창조할

것입니다.

-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이 어울어진 생활문화공간이 친숙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정성을 모으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지금은 도민모두의 화합과 참여가 소중하게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어려운 사람과 그늘진 곳을 찾고 작은 소망과 가벼운 바램에 대하여도 행정의 선길이 따뜻하게 미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듣고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200만 도민 여러분의 보람과 영광을 꽃피워 나간다는 도정의지를 바탕으로, 도지사이하 17천여공무원이 정성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를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제2회 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식 축사

1991 년 3 월 14 일

나라 사랑의 값진 정신

나라 사랑의 값진 정신이 절실하고 소중한 시기에, 오늘 기미 독립만세 기념 사업회가 주관되어 목천 독립만세운동의 일흔 두돌을 기념하는 모임을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보람된 자리를 준비해 주신 김재홍 회장님을 비롯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해 드리면서 바쁘신 중에도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고장 출신 김종식 의원님과 각급 기관장님, 그리고 내빈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3월이 오면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선열들의 그 결연한 의지가 새생명처럼 피어 오르고, 목메어 외쳤던 독립 만세의 함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지금으로 부터 72년전, 전국을 메아리쳤던 만세 소리는 토막난 세월속에 삭혀졌지만, 의기 넘치고 분연히 일어섰던 선열들의 애국애족정신은 이땅에 영원히 남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그 쓰라린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고, 조상 대대로 이어온 금수강산을 소중히 지키기를 지금 저 하늘 먼곳에서 염원하고 계실것입니다.

충절의 고장이요, 의기가 출중한 역사의 고장인 우리 충남은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할때마다 충신 열사를 배출하고 민족의 맥을 면면히 이어온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이는 민족의 시련과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된다는 인식으로, 한목숨 초개와 같이 던지고 이름없이 살다 가신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이 이땅에 촉촉히 스며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찌기 이나라에 우리고장의 선열들과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나라가 있고 민족의 정신이 살아남아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이만큼 가꿔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조상들께서 물려준 정신과 유산을 잘 가꾸어 왔을때 나라의 융성과 민족의 번영이 있었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단절과 굴곡의 시대를 살아왔던 역사적 교훈을 갖고 있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숭고한 정신과 유산을 소중하게 가꾸고 다듬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곳 목천에서 시작된 기미 독립만세운동은 가까운 입장·광덕·천안과 그리고 처절했던 아우내 장터로 이어진 만세 사건의 시발점이요, 민족의 양심과 애국심을 불질렀던 우리 고장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이였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곳에 우뚝 솟아있는 저 탑은 그 아프고 한많은 시대를 살다가신 선열들의 혼과기개가 어린곳입니다.

무명옷에 혈서를 쓰고 서툴게 그려진 태극기를 손에 들어,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아픈 역사와 민족의 염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이분들이 흘린피는 민족의 정기가 되어 가슴가슴 마다 흐르고, 외쳤던 함성은 조국 번영의 메아리가 되어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는 바탕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침묵속에 들려오는 이분들의 뜻을 기리고, 오늘을 보람있게 가꾸어 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며,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남북통일을 이루고 선진된 국가를 만들며, 국력을 더욱 신장시키고, 화합으로 지역발전을 일구어 나가는 것 모두다, 아픈 세대를 살다가신

선대는 물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역사적 소명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다시한번 되새기며, 그날의 함성 하나하나를 모아 우리 국운 상승과 민족의 화합으로 승화시켜 오늘에 재현 되기를 다같이 다짐해봅니다.

그 동안 모임 준비에 힘쓰신 기미 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회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국악오케스트라 창단공연 리셉션 인사

1991년 3월 14일

나라의 소리, 세계의 소리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의 충남 국악 오케스트라 창단 첫 공연 무대, 참으로 기쁩니다.

특히 오늘 공연을 위해 서울과 대전에서 멀리 참석해 주신 여러분, 교수님, 국악계인사, 중도일보사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한 소리, 놀라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가다듬어온 민족의 소리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입니다.

그리고 88서울 올림픽에 전 인류를 놀라게한 굉장한 우리만의 소리임에 틀림없습니다.

93년에는 대전에서 과학박람회가 열립니다.

과학 박람회는 대전에서 열릴 것입니다만, 정말 우리 한국을 보여줄 문화박람회는 부여와 공주를 비롯한 충남 전역에서 열릴 것입니다.

한국의 것,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를 우리 고장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악 오케스트라 사물 놀이 연주를 보고 문화박람회 개최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오늘 연주된 국악 오케스트라가 충남의 소리에 그치지 않고 나라의 소리로, 세계의 소리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신 여러분, 오늘 공연을 위해 오랜 연습과 준비를 해 주신 모든 분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단원 여러분의 정진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남도의사회 제42차 정기대의원총회 축사

1991년 3월 14일

숭고한 사회적 책임

오늘 충청남도 의사회 제42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 즈음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같이하신 황명수 국회 보사위원장님과 박병선 의원님, 그리고 김명준 회장님과 대의원 여러분께서 평소에 저희 도정을 성원해 주시고, 도민들의 보건향상에 기여해 오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에는 우리 도정은 대전직할시 분리 2차년도로서 도세 신장을 위해 다함께 노력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학계에서도 수준 높은 연구와 꾸준한 노력으로 세계첨단적 위치를 추구한 분야도 있었고,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 보건의료를 체계화하는 업무와 더불어 의사회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의사 감시업무도 이제는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대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200만 도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참으로 숭고한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계십니다.

본인은 늘 의료인 여러분을 단순한 직업인이기 보다는 인간의 존귀한 생명을

다루는 성스러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진료를 통하여 베푸는 봉사와 사랑은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더 할 수 없는 용기와 희망을 주게 될 것이며, 그들이 전 생애를 통하여 인생의 값진 자산으로 기리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사 여러분의 선도적 역할로 지역 사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편으로 금년 한해는 우리 도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30년만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 모두가 생활 규범으로 확립해서 90년대 사회발전을 이끄는 국민운동으로 승화 정착 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자랑스런 충남건설』을 위한 전략사업을 추진하므로서 금년 한해를 발전과 도약의 해로 발판을 다져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3.26일은 지방의회 기초단체의원 선거일로 확정 공고 되었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되는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는 공명정대한 선거실시 여부에 따라 나라와 지역의 앞날이 달려 있다고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지방자치 성패의 시금석이 되느니만큼 유능하고, 참신한 일꾼을 선출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토록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 의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대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부 김용재 향토문화상 시상식 및 장학금 전달식 축사

1991년 3월 15일

보람있는 사업

오늘 초부 김용재 선생의 교육문화재단이 발족한 이래, 그 첫번째 행사인 향토문화상 시상과 장학증서 전달식을 갖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영예의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과, 장학증서를 받는 학생 여러분에게 심심한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보람있는 사업으로 선친의 유업을 받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시는, 김현욱 의원님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무릇, 한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그 청소년들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그 만큼 이나라와 지역을 이끌고 갈 소중한 주인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찌기 우리 선조들께서도 나라가 어지럽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시련속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일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던 의지와 지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높은 벼슬 자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홀연히 고향으로 돌아와 후학을 길렀던 그 높고 숭고한 기개와 선비정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곳 당진 제헌의원이셨던 초부 선생께서는,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지역에 대한 우정을 불태우다, 그 뜻을 다 펴지 못하시고, 일찍 타계하셨슴을 우리는 모두 안타까워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세태가 혼란스럽고 물질문명에 젖은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시대에, 초부선생과 같은 분이 또한 아쉽기만 합니다.

우리 김의원께서는 , 선친께서 못다펴신 그 유지를 받들고 지역에 뜻있는 일을 남겨 놓고자, 지난해 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하신 것은,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일깨워 주는 보람찬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해마다 춘궁기의 보리 고개를 넘고, 허기진배 채우기 급급했던 일이 불과 20-30년전의 일입니다.

너나없이 모두가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그 어떤 뜻이 있어도 우리 젊은이들은 가난한 가정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용기와 희망만은 저버리지 않았기에 우리 모두는 억척같이 일하고 땀흘려 노력했고, 오늘과 같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회도 많이 달라졌고 여건도 나아졌습니다.

재능이 있고 스스로 땀흘려 노력만 하면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란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회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혜택이 각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질때, 그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특히,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장학사업만큼 보람있는 사업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뜻있는 사업은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바탕이 됩니다.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은 앞으로 이 사회를 희망차고 건전하고 밝게 이끌고 가야할 각자의 책임이 있는 분들입니다.

더욱 내지역 발전을 위하여 봉사해주시고 열심히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오늘의 행사가 우리가 이웃과 지역을 위하여,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할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우리 사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건강한 기쁨이 넘치며, 서로를 밝게 비치는 등대가 되도록 힘써 주시길 기대 합니다.

그동안 재단 설립과 오늘 행사 준비에 애쓰신 김현욱 의원님을 비롯한 재단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본 교육문화재단이 더욱 성장되고 거듭 발전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54)

공명선거 당부(일간신문게재) 담화문

1991년 3월 19일

새로운 선거문화

공명선거는 우리의 장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오는 3월26일 실시되는 시군의회의원 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민주발전과 지역사회의 밝은 내일이 달려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돈 안쓰고, 질서정연한 가운데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로 반드시 치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의 산실입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기초부터 튼튼히 해나가는 제도로서, 주민대표가 모여서 지역의 살림살이를 논의하고 주민복지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에 대하여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데 있습니다.

내고장을 위해 참다운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의원은 지역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바탕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주민대표로써,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 봉사하는 지역의 살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선거문화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명선거를 이루고 타락선거를 막는 최후의 보루는 자신의 한표가 갖는 의미를 깨우친 유권자의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지역의 주인이라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유권자가 될 것인지, 다시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30년만에 새로이 부활되는 지방자치가 그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56)

시군읍면동장에게 보내는 공명선거 당부 서한문

1991년 3월 19일

깨끗하고 질서있는 선거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귀하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와 치하를 보냅니다.

당면한 시군 의회의원 선거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후보자들마다 참신한 공약사항을 내걸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겨루자는 공명선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토는 우리모두에게 새로운 선거문화가 이땅에 정착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희생과 난관을 무릅쓰고라도 불법과 타락선거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번 선거를 깨끗하고 질서있는 공명선거로 치루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더욱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선거문화를 위해서, 이번 선거야말로 지금까지의 잘못된 선거풍토를 혁신하여야 하는 절호의 기회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는 바입니다.

만해 한용운선생 생가복원 기공식 치사

1991년 3월 21일

꺼지지 않는 민족의 등불

오늘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 태어나신 이곳 박천동에서, 이 지역출신이신 조부영 의원님과 각급 기관장님 그리고 뜻있는 군민 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선생의 생가 복원 기공식을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부에서는 금년 3월을 한용운 선생의 달로 정하면서, 선생이 민족 시인으로서 남기신 업적과,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불굴의 독립투사이시며 위대한 사상을 지니신 출중한 선승이시고 민족의 영원한 시인이십니다.

선생께서 지니신 이 세가지의 의미는 어느 한곳이라도 기울어짐이 없을 만큼, 그 기개 높은 인품과 오로지 한마음으로 일관했던 민족의 양심으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자주독립의 피맺힌 열망으로 온 국민이 분연히 일어섰던 3.1독립운동에 참여하시고,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하시던 독립선언문 귀절이,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과 자주독립의지가 하늘을 찌를듯 선명하기만 합니다.

선생께서는 설악산 오세암에서 그리고 다시 백담사로 들어가 불승이 되셨으나, 선생이 불제자로서 선택한 길은, 세상과 떨어진 절에 들어앉아 자기만의 구원과 완성을

위한 참선이 아니라, 속세에 내려와 무명중생을 제도하는 고행의 길이었습니다.

만주와 시베리아를 방랑하셨고, 일본에 건너가 불교와 동양철학을 연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 작성에 참여하신 것처럼, 선생의 작가적 자질은 그 유명한 시집 「님의 침묵」을 탄생시켰습니다.

선생은 시인으로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 하시면서, 선생의 시가 후대에까지 읽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으나, 그 문학적 가치는 훌륭하게 형상화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가슴에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남아 찬연히 빛나고 있습니다.

선생의 시는 시라기 보다는 일제의 침략에 짓밟힌 조국과 민족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우리민족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호소였으며, 그것은 차라리 민족에 대한 절규였습니다.

흐르는 산하와 지나온 역사는 티끌에 묻히고 허망한 세월에 잊혀져 버리게 마련입니다.

이제 만해선생께서 세상을 떠나신지도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무딘 붓끝 날카롭게 세우고, 대쪽같이 굳세던 선생의 그 기개도 시간으로 토막쳐지고 희미해진 역사 속으로 묻혀졌습니다.

옛것을 되돌아보며 조상의 빛난 얼을 되살리고 재조명하는 것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민족수난의 역사속에서 한점 부끄럼 없이 살다가신 자랑스러운 선조를 둔 우리 후손들이 조상들의 뜻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책임이며 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선생의 그 높은 뜻을 되새기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선생께서 그토록 그리워 하고 사랑하던 조국 산하는 반세기동안 허리가 끊긴채 신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어지고 터지는 가슴 부여잡고 크게 꾸짖고 계실지 모릅니다.

차라리 우리가 보고싶지 않은 「님」이 되어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높은 뜻 헤아리지 못하고, 다만 고개 숙이며, 선생의 정신 길이길이 받들고 이어받아서, 우리모두는 통일된 조국을 그리며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 만해선생의 혼이 어린 생가터에서 모인 우리는 선생께서 민족정신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그 숭고한 정신을 면면히 이어나가면서,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번영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기공준비에 애쓰시고 정성을 다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성원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보내드리면서, 타고남은 재 다시 기름이 되어 그칠줄 모르고 타는 선생의 뜨거운 가슴과 같이, 우리모두 조국번영의 작은 등불이 될것 을 거듭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의회의원선거를 마치고 후보자에 보내는 서한

1991년 3월 27일

변함없는 성원을

온 국민의 큰 기대와 관심속에 치루어진 3.26 시군의회의원선거를 무사히 마치면서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선전분투하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가 일찍이 체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선거문화 창출에 앞장서 주시고 몸소 실천해 주신 의지에 깊은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과거 어두웠던 선거문화의 이미지를 말끔히 씻어내면서 성큼 다가선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슴 벅찬 감회와 함께, 진정한 선거의 참뜻을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이번 선거에서 시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아쉬움이 적지 않으실 것으로 사료되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지방자치에 기울여 주신 관심과 열정을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 도정과 시군정에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랑스런 충남인이라는 긍지로 한결같이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의 선도자 역할을 다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어제까지 선의의 경쟁속에서 제시된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과 지혜를

한데 모아서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가 굳건히 뿌리내리고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귀하의 흔쾌한 참여와 성원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1년 3월 28일

지역발전의 도약대

오늘 공주대학교의 종합대학 승격을 자축하는 「지역사회와 대학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자리를 함께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주대학교가 지난 48년 개교이래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우수한 교육자를 양성하는 요람으로서,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기까지에는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안승주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과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충남은 일찌기 우리 조상들께서 보금자리를 마련했던 곳으로 민족 여명의 삶터였으며, 찬란한 700년의 백제문화를 꽃피웠던 유서%은 역사의 고장입니다.

국토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온난한 기후와 후덕한 인심으로 충절과 선비정신을 자랑으로 여기며, 우리는 이러한 긍지를 소중히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난 30년간 급속한 경제발전과 성장을 지속하면서 우리 지역이 그 성장의 주역으로 중심적 역할을 다해 왔었는가 하고 물을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지역발전의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이지 못했던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고 반

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성장의 그늘에서 늘 소외되어 왔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서해안 개발과 지방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우리는 스스로 지역을 어떻게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착실히 연구하고 준비하여 왔습니다.

지난 '89년의 대전직할시 분리로 인하여 우리 충청남도가 추구하고 목표로 해야 할 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지만, 보람찬 미래를 가꾸어 나가는 부푼 기대와 희망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속에서, 우리 공주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서의 승격은 어떻게 보면 늦은감 마저 없지 않습니다.

대학은 연구하고 가르치며 또 이 사회에 봉사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발전과 번영을 위한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 기술개발의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하면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중요한 책무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시군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엊그제 끝났습니다만, 이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지역발전에 대한 지방대학의 역할과 그리고 바꾸어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하여 지역에서 하여야 할 일을 면밀히 성찰해 보고 재조명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공주대학교에 대한 보다 많은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적절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종합대학교로서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 충남발전에 폭넓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대와 희망이 결코 성급하게 요구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와같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주대학교의 동문은 물론 이거니와, 지역사회 많은 분들이 지역의 대학을 각별한 관심과 의욕을 갖고 사랑하고 보살펴 줄 때 지역과 동반적 긴밀한 관계속에서 균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종합대학교 승격의 원년을 맞이하는 공주대학교가, 우리 충남을 상징으로 하는 명문 대학교로서, 충남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사회에 참다운 덕성과 지성을 고루 갖춘 훌륭한 인재의 양성 그리고, 산학협동의 긴밀한 유대로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의 발전을 주도하는 대학으로 크게 성장해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로이 밝아오는 계룡과 금강의 시대, 그리고 서해안시대를 맞이하면서 오늘 세미나가 충남의 발전과 대학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큰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 대한 고마운 인사말씀과 더불어 공주대학의 종합대학교 승격에 즈음해서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공주대학교의 힘찬 출발과 도약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주실내체육관 기공식 치사

1991년 3월 28일

충남체육의 전당

오늘 우리 충남 교육문화의 중심지인 이곳 공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또 하나의 큰 디딤돌이 될 공주 백제 실내체육관 기공식을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윤재기 의원님과 우리 지역을 보다 희망이 샘솟는 터전이 되도록 역량을 모아 주시는 내빈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늘 시민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3천여평 규모의 최신 시설을 갖출 실내체육관 기공은 단순한 체육관이라는 의미를 넘어 이지역 여러분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의 종합체육공간으로서 국민 생활체육활동에 부응하는 보금자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공주 시민여러분이 큰 자랑으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에 이지역은 전 시민이 정성어린 준비속에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뤄, 성숙한 시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재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이 고장이 충남의 핵심 도시로서 발돋움하고 홀로서기가 가능했던 것은 시민 모두가 체육진흥과 지역발전에 대한 애정과 의욕의 결과라 여겨집니다.

더구나 이 고장은 1,600년전 역사의 숨결이 면면히 이어온 백제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긍지와 더불어 체육분야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시킨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시민의 오랜 여망이 되어 왔던 공주종합운동장을 지난해 완벽하게 건설한 바 있으며 이와 연계해서, 오늘 실내체육관 건립의 첫 삽을 뜨게된 것은 체육을 사랑하고 아끼는 시민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터전으로 체육인저변확대는 물론 이지역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충남은 그동안 많은 체육문화시설이 대전에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전시가 분리된 이후에는 열악한 시설환경과 더불어 체육의 각 부문에서 큰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육발전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더 많은 체육시설의 공간을 확보하고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활기차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는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의 시군의회의원 선거를 우리는 도민 모두의 관심속에, 그 어느때 보다도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룬바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할 우리는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주인이 되어 자치문화의 싹을 틔우고, 그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동참이 그 어느 시기보다 소중한 때입니다.

하나의 제도가 탄생하여 정착되기까지는 숱한 역경의 세월과 문화적 전통속에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이 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역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소중히 하여야 할 것이며, 체육의 육성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오늘 기공식을 갖는 공주 백제 실내체육관 건립은 이 지역 체육문화를 꽃피울 전당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의 전폭적인 관심과 뜨거운 성원속에 건립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기공식이 있기까지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거듭 치하와 감사를 보내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68)

시군의회 선거를 마치고 일선기관장에 보내는 서한

1991년 3월 28일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

약동하는 새봄,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3월26일 실시된 시군의회의원 선거에서 우리는 새로운 선거문화가 이땅에 정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귀하를 비롯한 산하공무원 모두가 깨끗하고 질서있는 선거를 치루겠다는 전 도민의 의지를 결집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치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충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십시다.

홍익대학 조치원 캠퍼스 1차 준공식 축사

1991년 3월 30일

동반자적 역할 기대

지난 84년, 홍익대학이 이곳 조치원에 지방캠퍼스 계획을 수립한 이후, 7년만에 이렇게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오늘 1차 준공식을 갖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이곳 조치원의 홍익대학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또한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더욱 신장되고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 이러한 대학이 들어선 것은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본인은 이자리를 빌어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보람으로 건설사업을 추진하신 재단 관계자여러분과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발전을 거듭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가꾸는데는 여러가지 발전요소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역에 하나의 대학이 들어서면 그에 따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은 연구하고 가르치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본적인 임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 사회에 봉사하는 중요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이 지역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대학에 대한 지역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기회에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충남은 유구한 역사와 충절의 문화가 빛나는 고장이며, 이러한 긍지는 우리의 옛 선비정신에서도 잘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중하고도 자랑스러운 문화를 대학이 계승 발전시켜 주고, 대학이 우리고장을 배경으로 성장하는 만큼,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이라는 긍지와 의욕을 가지고, 우정으로 보살펴 주게 된다면, 지역과 대학은 서로 이상의 고리를 형성하고 동반적인 발전을 지속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1차 산업대학의 준공이 있기까지, 홍익대학 조치원 캠퍼스가 뿌리를 내리는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넓은 터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민 홍익대학 조치원 캠퍼스가 우리고장 발전의 산실이 되고 지역과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보다 우수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 명문대학으로 크게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우리 충남이 새롭게 맞이하는 계룡과 금강의 시대, 그리고 서해안 개발로서 국가의 중심도 역할을 다하는데 동반적인 역할을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본 캠퍼스의 준공이 있기까지 애써 주신 최애경 재단 이사장님과 이면영 총장님, 김종휘 학장님을 비롯한 대학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인구 의원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 홍익대학의 무궁한 성장과 발전을 우리 200만 도민과 함께 기원하면서, 축사에

가름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91년 4월



△ 농정현장 시찰

4월 월례조회 훈시

1991년 4월 1일

크게 일하는 달

어느덧 '91년도 1/4분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새 봄의 기운이 완연한 4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그 달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해 보고 그것이 도정의 역사로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자연의 법칙과 인간발전의 필요성을 생각해봅니다.

분주한 업무속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앞날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창조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기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도약하는 충남」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우리 충남공직자로서, 도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드럽고 힘있는 도정을 펴 나가야 겠다는 책임과 의무를 갖습니다.

그리고 굳센 다짐으로 4월을 맞이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또 여러분들에게도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난 3. 26일은 우리 지방행정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군 의회의원을 뽑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206개 선거구에서 총 233명의 시·군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 모두의 자각과 참여로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선거를 마칠 수 있게 된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또한 이번 선거를 치루기까기 불철주야 휴일도 없이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신 관계공무원과 관계기관 여러분께 심심한 치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치루기 전에 과거와 같이 부정적이고 타락한 선거 풍토가 또다시 재현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속에서 이번 만큼은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역사 앞에 「선거혁명」을 이룩할 것을 다짐해 왔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주민과 후보자께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깨끗한 페어플레이 정신을 통해서,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가운데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루어 졌음을 볼 때, 이제 우리의 선거풍토도 선진화되고 바람직한 선거풍토가 이땅에 정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선거업무 수행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주해 온 선거행정체제를 속히 전환, 정상적인 업무체제로 해서 이제는 일상적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의 안정과 주민화합을 위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주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파악하여 미리미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계기로 우리가 해야할 일을 분류해 본다면,

먼저 지방화시대의 본격적 도래에 따른 우리 행정체계의 변화와 공직자들의 내부적인 행태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의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중앙의 일반적인 지침과 지도아래 집행되어 온 행정이 이제는 지방의회와 협조하고 협의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우리가 한 일들이 지방의회에 공개되며, 감사도 받고 조사도 받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주민의 행정참여가 확대되면서 행정의 기능은 점차 복잡·다양화 되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함께 주민의 행정참여요구는 확대 되어가고, 점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점점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과 업무 수행능력의 구비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문제는 지역내에서 해결되고 종결되어야 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담당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전문적인 처리능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변화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지역과 나라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창의적이고 의욕적으로 가꾸어 온 공직자 였다면, 어떠한 변화라도 이를 잘 소화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답습적이고 무사안일한 사고를 가지고 근무한 공무원이였다면 변화에 따른 거부감이나 당혹감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공무원에게는 자기 계발과 혁신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이 군살처럼 몸에 배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선거 체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행정이 이제는 더 열심히 일하는 직장풍토로 바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더 잘 사는 사회,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길은 없습니다.

다소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힘든 일을 꺼리고 한가지 일을 끝내면 계속해서 쉬고 싶어하는 풍토가 우리 사회전체의 만연되어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과 우리 고장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기 위한 쉬지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거기간중 다소 마음이 풀어진 점이 있다면, 지금 이시각부터 풀어진 부분을 다시

졸라매고 활기찬 번영이 고동치는, 더 크게 일하는 직장풍토를 만드는데 모든 공직자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을 이룩하고 국제적으로 경탄의 주목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고 공직자가 사명감있는 헌신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 봅니다.

국가경영의 기둥이며 나라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는 말한마디, 행동하나에도 많은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조금만 잘못되어도 호된 비난과 질책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깨끗한 정부」를 이루는 일은 국민의 신뢰를 다시찾고 우리사회에 밝은 물결을 일으켜 국민화합과 나라의 발전을 이루는 바탕을 공직자가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부정, 어떠한 비리도 어김없이 척결하고,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상황에 부응하여 부단한 자기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은 강도높은 사정활동도 필요하나 조직의 주인인 우리 모두가 부조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내가 맡은 일은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작은 민원사항에서부터 중요한 시책에 이르기까지 공명하게 처리하고 청렴을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지키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과거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새로운 마음으로 수범을 보이는 공직자의 사소한 잘못은 관용을 베푸는 반면, 앞으로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는 엄중문책하여 민원과 관련한 잔존부조리를 일소해 나가야 합니다.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감사업무에 독자성을 부여하는 등 자체감사기능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야 겠습니다.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이 앞장서 시대의 변화에 대한 뚜렷한 자각과 사명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할 때 「깨끗한 정부」「건전한 사회」는 이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직기강의 확립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해 부터 추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목민심서에 「청렴이란 목자의 본무요, 온갖 선행의 원천이며, 모든 덕행의 근본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맑은 마음과 깨끗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에는 온통 낙동강 식수오염과 깨끗한 물 공급문제로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물」은 인류가 지구상에 생존하면서 부터 운명을 같이해온 생명의 근원입니다. 인간은 물과 함께 살아왔고, 물을 통해 문명을 이루어왔습니다.

우리는 최근 영남지역 주민을 불안과 공포속에서 전율케한 낙동강 식수원 페놀오염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깊은 반성과 책임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동강은 한강, 금강, 영산강과 함께 우리나라 4대강의 하나로 대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주민 1천만명이 사용하는 유일한 식수원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하천에 일부 기업들이 공해물질인 페놀을 방출, 식수원을 오염시키므로써 1천만 주민이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만듬으로써 생활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일부 기업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위와 일부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자세에서 비롯된 실로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공직자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국민과 기업, 그리고 이의 중간에 있는 공직자의 책임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악취발생신고를 접수하고서도 수질기준치 이하라고 묵살해 버림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관리 담당공무원들의 자세에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만일, 이때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현장확인을 한번이라도 했더라면, 이처럼 엄청난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기업의 잘못을 알고서도 이를 방조해 준 공직자의 무책임한 행태는 이미 국민을

위한 봉사자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다같이 반성하고 책임을 나누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8일에는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토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또 토의하는 어느 한 사람 특정인이 하는 도정이 아닌 토의하는 도정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고장 으뜸가꾸 사업은 충청남도의 상징이나 전체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큰 사업이 아니라, 도내의 전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조그만 사업들입니다. 도내 9,943개 전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조그마한 한가지씩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유산을 올바로 전승·보전하면서 지방자치정신을 살려서 주민 스스로 마을의 1가지 이상 자랑거리를 찾아 가꾸는 사업입니다.

우리 조상대대로 물려온 자연환경이나 사회·문화적 유산은 그 원형이 보존되고 그 가치가 높아져야 합니다.

각종 개발계획이나 새로운 사업으로 인하여 마을의 전통적 환경이나, 문화적 유산이 바뀔 경우에는 우리는 이를 장기적 안목으로 신중히 검토 결정해야 도리라고 봅니다.

「마을이야기 모음집」을 발간하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며, 「옹달샘」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작은 것에서 우러 나오는 것처럼, 행정에 대한 신뢰도 주민들이 느끼는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태어난 동네가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가꾸어지고 이렇게 가꾸어진 마을 하나 하나가 모아 진다면 우리지역 전체가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고장으로 가꾸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업은 마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양보다는 질위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주민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부서는 물론이고 전 공무원은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모든 사업추진에 반영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우리 공직자에게는 무한 책임과 무한봉사라는 의무가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다양화되고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행정이 담당해야 할 영역은 무한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적 여건에 행정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주민으로부터 경원당하고 항상 불신만을 낳게 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식수 오염사건, 수서사건만해도 시대의 변화에 아랑곳 없이 선례답습 관행에 안일한 행정자세에서 비롯되고 이러한 사건은 시대의 요구나 정신에 따라 가지 못할 경우에 반복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민을 위한 참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행정도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는 발전을 뜻하는 것이어야 하며 능률적인 행정이 구현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행정의 발전을 통해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구현되도록, 「함께하는 도정, 도약하는 충남」역사의 증인이 되고 주역이 되는 역할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4월에도 모든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목표한 바대로 추진되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고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이 세상에 눈물의 인내나 땀의 노력, 피의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모두의 가정과 앞날에 무한한 행운과 건승하심을 빕니다.

(182)

일간 신문게제 담화문

1991년 4월 4일

푸른산 가꾸기

한 그루 나무를 심는 정성에서 내고장 으뜸 가꾸기는 시작됩니다.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국민 식수기간입니다.

충청남도는 온 국민이 참여하는 한그루 나무심기 운동과 관련하여, 내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으로 마을마다 경관림 조성을 추진합니다.

마을 주변과 공한지에 기념식수를 하고 꽃나무를 심어 휴식 공간이 조성되도록 합시다.

산불이 나면 100년 정성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합니다.

울창해진 산림으로 일단 한번 발생된 산불은 대형화재로 번집니다.

특히 매년 다가오는 청명, 한식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예방과 조심이 첫째입니다.

산에 불씨를 가지고 들어가거나 취사행위를 하지말고, 특히 노약자들이 논, 밭두렁을 태우지 않도록 합시다.

"푸른숲, 맑은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 그곳은 바로 우리들 마음의 고향입니다."

우리는 평소 산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푸르고 깨끗한 산림을 가꾸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산에 가서는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자기 쓰레기는 되가져 오는 습관을 가집시다.

그리고 이번 청명, 한식날에는 반드시 도시락과 비닐봉지를 준비합시다.

자연을 지키는 것, 이는 곧 우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1991년 4월 5일

사랑받는 지역축제로

봄의 따뜻한 햇살이 훈훈한 4월의 무대 위에서, 우리고장 아홉번째의 연극축전을 개최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도 꿋꿋하게 향토무대를 지켜온 고장의 연극인 여러분에게 심심한 치하와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더불어 본 연극제가 지난 83년 고장의 연극발전과 보급확대를 위하여 개막된 이래 연극인들의 자질향상과 연극예술의 수준을 높이면서, 우리고장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 뿐만 아니라, 삶에 보람과 즐거움을 주는 문화의 가치가 구현되는 사회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저질 외래문화에 물들고 비디오나 전자오락에 몰두하면서 자라나게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술은 그 본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의 대중으로부터 공감을 받고 사랑을 받는 예술로 발전되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연극제가 우리고장 연극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욱 친숙한 지역 연극축전으로 활성화 되기를

희망합니다.

연극제가 있기까지 애써 주신 고장의 연극인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더없는 위로와 찬사를 드립니다.

1991년 4월 6일

지역 공동방위체제

지역의 예비군 장병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방위협의회 위원 및 내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난 68년 "내고장 내직장은 스스로 지킨다"는 결연한 의지와 국민적 성원으로 태어난 예비군 창설 스물세돌을 맞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향토예비군 창설을 계기로 우리의 자주 방위력은 튼튼해 졌고, 우리는 언제라도 전후방이 없는 전선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향토예비군이 늠름하고 믿음직한 향토 방위체제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국민들이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아래, 예비군 장병 여러분이 향토방위의 주역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이자리를 빌어 예비군 여러분들이 향토방위와 지역안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온데 대하여 200만 도민과 더불어 깊은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향토예비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난해 부푼 기대와 희망으로 '90년대를 맞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변화와 격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세기 이상 지속된 이념분쟁과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은 개혁과 개방의 물결속에서, 큰 변혁을 겪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 독일의 통일은 전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우리에게도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부풀게 했습니다.

더구나 소련과의 역사적인 수교와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남북 고위급회담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우리의 꿈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확신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지구촌이 자유와 번영을 향하여 하나로 되는 변화의 물결은 그 어떠한 힘이나 체제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도 언젠가는 그들의 빗장을 풀고 개방의 길로 나오리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통일의 그날까지, 굳건한 안정의 바탕을 튼튼히 하면서, 이 나라를 번영과 복지의 선진된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과 전환기적 사회의 내부적 갈등을 해소하고 자유와 자율이 넘치는 새로운 질서를 이땅에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기적 변혁을 민족의 소망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의지를 다지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지역 향토방위를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 된다는 인식을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말 끝난 걸프 전쟁에서 한 나라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결국 그 나라는 수난과 고통의 역사를 갈 수 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감상적이거나 무사안일한 자세로 북한에 대한 경계의 눈빛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며, 정신무장을 더욱 가다듬고 자유민주체제 수호의 다짐을 더욱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모쪼록 창설 스물세돌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향토방위와 지역안정이 국토방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면서,

민·관·군 모두가 한마음 한듯이 되어 지역 공동방위체제를 더욱 공고히 구축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장병여러분은 변함없는 긍지와 사명감으로 향토방위는 물론, 우리의 더 밝은 앞날을 위해서 「새질서·새생활」의 실천과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지역의 힘을 모아주시고 선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향토방위 소임완수에 헌신해 오신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보내 드리면서, 예비군 관계관여러분과 방위협의회위원, 그리고 내빈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충남향토사 연합발표회 축사

1991년 4월 12일

역사발전의 촉매역할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장의 뿌리를 찾고 향토사 연구에 진력해 오신 향토사가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격려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서술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어떠한 시각에서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 그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한말에서 일제강압통치로 이어졌던 시기, 당시 우리 민족은 힘겹고 굴욕스런 역사속에 살아왔습니다.

나라와 운명을 같이하고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항일 독립운동에 몸바치신 선대들의 숭고한 정신과 거룩한 뜻은 분명히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 충남은 이러한 충절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고매한 선비정신이 군살처럼 배어 있는 고장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자부와 긍지를 바탕으로 지난 79년 충남향토사 연구연합회가 발족되면서, 「임존성」에서의 연합발표회에 이어 금년에는 조선조말 항일지사들의 자주독립정신을 주제로 하는 두번째 연합발표회를 갖게된 것은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모쪼록 오늘 모임이 아픈 역사를 살다가신 선조들의 고귀한 뜻과 정신이 계승되고,

우리 충남향토사 연구와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그동안 연합발표회 준비에 애쓰신 예산향토사연구회 관계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아낌없는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1991년 4월 16일

도약하는 충남

온통 대지가 새생명의 푸르름으로 가득찬 계절입니다.

충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회원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고향의 밝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고향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류근창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충남은 대전시의 분리에 따라 약화된 도세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89년에 이어 많은 전략사업을 구상하여 도민 모두가 함께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예상보다 빠른 도세도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도정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하였으며, 또한 도민에게도 부푼 기대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고장에서 많은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측면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난 2월 27일 착공되었고 25만평 규모의 천안 제2공단이 3월7일 기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령댐등 개발의 근원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사업과 석문공단을 비롯한 각종 공단이 들어서게 되고, 동학사 온천개발 사업과 더불어 공주와 대전 그리고

공주와 부여간의 도로확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면에서는, 유서깊은 문화의 고장이라는 긍지로 백제문화의 종합개발을 위해 공주와 부여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 개발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여국립 박물관이 기공되었고, 청소년 종합회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고장은 많은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날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공업화 추진 과정에서 이제는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은 공장이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 과제는 사회기반 시설인 도로와 물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공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해 나가느냐가 소중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15일에는 일제히 시군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의장단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고장은 양반과 선비의 고장이라는 충절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충성심 깊고 무리가 없는 충청인으로서의 긍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긍지는 지방자치를 활짝 꽃피우는 바탕이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이 전국에서도 모범적이고 가장 적합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이루는 고장이 되기 위한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은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서, 우리 농촌을 살기좋은 곳으로 가꾸기 위하여 농어촌 자립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UR문제도 우리 농촌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전기로 삼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농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시책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또 EXPO에 대비하여 문화 EXPO는 충남에서 개최한다는 기치아래, 전도민이 참여하여 마을마다 한가지 이상 자랑을 갖는 으뜸가꾸기 사업을 전개하면서, EXPO를 계기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의 기틀을 튼튼하게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한반도 중앙지역에 위치한 우리 충남은 양반과 선비의 고장, 예절과 충절의 고장

이며, 금강과 계룡산, 서해안과 내륙곳곳에 농업과 공업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찬란한 중심문화를 기필코 꽃피울 것입니다.

변두리 문화에서 중심문화로, 무엇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문화에서 무엇을 적극적으로 이룩해 내는 적극적인 개발문화, 정의와 진실, 화합과 창의로서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우리 충남도에서는 새질서 새생활의 정착, 지방화시대의 민주자치 기반조성, 자랑스런 충남건설의 전략사업 추진, 유서깊은 충남문화의 창조적 진흥, 신뢰와 화합을 통한 지역역량등, 5대 중점사업을 설정하여 200만도민이 뜻을 하나로 모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금년도의 업무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도의 유인물로 가름코저 합니다.

충남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다가오는 21세기 선진도약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200만 도민과 함께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도민 모두의 한결같은 소망과 의지속에 출향해 계시는 분들이나 고향에 있는 도민 모두의 애정과 관심, 그리고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노력할때, 뿌리깊은 문화의 고장, 자랑스런 우리 충남건설의 목표는 알찬 결실을 맺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고향의 발전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충우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4월 16일

충절의 고장

우리 충청남도를 방문해 주신 이해룡 장군님과 국방정신 교육원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나라의 안전보장을 떠받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동안 자주국방능력 향상에 헌신해오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남은 금강과 계룡산으로 상징되고 선비와 양반의 고장이며, 그리고 찬란했던 민족문화의 유서깊은 고장이라는 것을 자랑으로 열심히 일하고 활기차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은 온화하면서도 끈질기고 충성스러우면서도 무리가 없는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장이 간직한 이러한 자랑과 전통을 바탕으로 국토의 중심지로서, 이나라 전통보존과 발전을 주도하는 중심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3군본부가 우리지역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국방의 계룡대 시대가 개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국가사회 발전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충절의 역사가 숨쉬는 저희 고장에서 뜻깊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다시한번 따뜻한 환영의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남 32사단장님입니다.

그리고 고봉순 607 기무부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196)

충청남도 체육회 이사회 인사

1991년 4월 22일

체육은 도정발전의 견인차

오늘 바쁘신데도 어려운 시간 내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몇가지 안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취임후에 첫 이사회를 갖게 되었습니다만은 여러 이사님들의 좋은 의견 그리고 심의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12월 28일날 부임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연말.취임초 그리고 연초 업무계획, 연두순시 이어서 걸프전쟁이 일어났고 대통령을 모시는 행사, 의회선거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대전시 분리이후에 도세회복 차원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어느정도 도세회복을 하고 도약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도를 전국 제일의 농업도로, 우리가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전국 제일의 양적으로는 문제가 있더라도 질적으로도 전국 제일의 공업도로, 또 문화체육도로 전국에서 제일좋은 환경을 가진 이런 도를 만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내부적으로 다져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21세기 한반도에 충남이 중심이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모든일을 열심해 해나가자. 그래서 우리 도 일이든 나라 일이든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뛰자. 그렇게 도정목표를 정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도미들께서도 열심히 도와주시고 계시고, 특히 지난해 뜻과 힘을 합쳐가지고 튼튼한 도세회복의 기반을 구축했던 그런 한해라고 생각되어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체육이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 주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체육도 우수한 선수를 더욱 발굴하고 그리고 기존 선수들을 더욱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신바람을 가지고 체육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신문을 통해서 우리 체육회를 둘러싸고 다소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 이견이 있었다면 그 이견을 좁히고, 풀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비온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 체육인들이 더욱 단합해서 지역체육과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사님들의 도정에 대한 끈임없는 지도편달 그리고 가정, 직장에 행운 또 소망이 잘 이루어 지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충청남도 체육회 대의원 총회 인사

1991년 4월 22일

보람있는 일

오늘 바쁘신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내신 충남체육회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동안 우리 충남 체육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여러모로 애쓰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28일날 취임해서 4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취임초, 연말연초 그리고 연두순시, 업무계획, 대통령순시, 걸프전쟁, 3월중 기초시·군 의원선거등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취임후에 첫 대의원 총회를 갖고 몇가지 보고사항과 심의안건, 그리고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대전직할시 분리 이후에 도세회복을 위해서 여러가지 목표를 세워서 노력해오고 그 결실을 맺어서 도세도약의 기반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충남은 50%이상 가까이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제일의 농업충남을 가꾸면서, 그리고 아울러서 전국제일의 공업충남, 문화충남, 그리고 최고의 체육환경으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고 활기찬 그런 도정을 추진해 가자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도민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지난해 우리 체육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체육회 관계자 대의원, 이사회,

선수, 임원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단합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괄목할 만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기틀위에서 더욱더 단합하고 함께 노력해서 더 큰 발전을 금년에 일으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등학교 14개팀이 창단, 고등부 4개팀이 창단했으며 상명여대 핸드볼팀 유치, 20개 시·군의 전력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등부 전력강화, 재경출신 선수들의 규합과 팀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에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또 역량있는 선수를 열심히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면서, 또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조직력 강화에 더욱 힘써 가고자 합니다.

여러 회장님들께서도 사업에 바쁘시고, 또 어려운 여건에 있으실줄로 압니다.

고향을 위해 일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보람있는 일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뜻을 다해 그리고 충남체육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줄 것을 부탁 올립니다.

모쪼록 오늘 대의원 총회가 충남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서로 나누고 화합할 수 있는 다짐의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협조를 당부드리고 하시는 사업 소망하시는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평온과 다복하시기를 빌면서 이렇게 인사말씀을 대신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991년 4월 23일

소중한 인연의 고리

오늘 우리 충청남도 행정동우회의 '91년도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심춘택 회장님을 비롯하신 선배 회원님 여러분의 노익장을 또한 축하드리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1,700동우회원 분들께서 그동안 공직에 몸 담으셨던 오랜 행정 경험으로 저희 도정에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충청남도가 도정 역사의 문을 두드린지도 1세기가 다되어 갑니다.

그동안 선배 제현께서 땀흘려 노력하시고 그 흔적이 촉촉하게 배여있는 우리 고장의 역사는 정말 보람되고 자랑스럽게 면면히 이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영욕어린 민족의 수난기에도 우리가 간직한 문화유산을 소중히 하면서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속에서도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멸사봉공하셨던 선배 공무원 여러분의 흔적과 희생이 우리 고장 곳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공직자이면 누구나 자신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나라와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한 시대의 역사를 이끄신 회원 여러분은 분명히 이나라 5000년의 헐벗은 가난을

물리치고 세계속의 한국이라는 기적적인 신화를 창조해 오신 주역이십니다.

흔히 과거는 잊어버리기 쉽고 인연이라는 것도 한낱 스쳐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난 85년, 뜻있는 분들이 모여 행정동우회의 간판을 내걸고 그 소중했던 인연의 고리를 이어나가고자 서로 우의와 친목을 다지는 모임을 만든 것은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그동안 산업시찰도 다니시고 자연보호활동도 하시면서, 또 동우회지도 발간하시는 등 많을 활동을 해오신 것으로 압니다.

더우기 저희 도정에도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것도 지난날 공직에 몸 담으셨던 끈끈한 애정과 인연을 소중히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발자취를 추스려보고 오늘에 되새겨 보는 것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도정의 역사, 고향발전의 역사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배 회원님들의 폭넓게 사신 인생과 오랜 행정경험, 그리고 그 옛날 빛나던 지혜는 그냥 묻혀버려서는 안됩니다.

제가 "원로문화"라는 용어를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선배는 우리 후배들에게 그 경험과 지혜를 가르쳐주시고 무엇인가 남겨줄 수 있고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이 절실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이 그동안 도정의 나무에 뿌리를 정성스럽게 키워왔다면, 지금 우리는 그 바탕위에서 무성한 잎을 피우고 줄기를 튼튼히 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원여러분은 이나무가 계속해서 무성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후배 공무원들의 등불과 사표가 되고 도정발전의 목표와 전략비젼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되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회원 여러분 한분한분의 이러한 의지와 뜻이, 우리 고장을 더욱 기름지게 가꿀 수 있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행정동우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공직생활에 계실때의 의욕과 경험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건강한 생활을 하셔서 노병이 스스로 살아있음을 증명하면서 저희들을 더욱 도와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회원님 모두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운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일정에 쫓기다보면, 우리를 길러낸 선배님께 결례를 저지르는 일이 왕왕있으리라 믿습니다.

현직에 계실때와 꼭같은 마음으로 후배들에 지도와 채찍을 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평가보고회 인사

1991년 4월 24일

선진국 진입의 발판

公私多忙中하신 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각급 기관·단체장님과 회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10.13특별선언」은 6.29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욕구가 일시에 분출되고, 도처에서 불법·무질서·퇴폐·향락등 사회 병리현상이 나타나게됨에 따라 흐트러진 민심과 문란해진 기강을 바로잡으려 제창된 국가발전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도는 「10.13 특별선언」의 완벽한 지방적 구현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25일 도내 각급기관·단체를 총망라 협의회를 창립하여 범도민 총력참여체제를 구축하고 10월 29일에는 천안시민회관에서 범도민 실천결의를 다짐한데 이어 금년 1월 8일 제1차 평가보고를 가졌고, 오늘 새질서·새생활 실천이 제창된지 6개월동안, 추진실적에 대한 제2차 평가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새질서·새생활실천」에 가용역량을 주입해주시고 강한 실천의지로 거둔 괄목할만한 성과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질서·새생활 실천은 범도민적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고 사회 전반적인 모습을 밝게 변모시켜 놓으면서 범죄 발생율이 크게 감소되어가고 있으며, 생활주변의 준법질서 의식이 차츰 자리잡아 가고 건전한 사회기풍이 진작되어, 밝고 질서 있는 생

활문화 정착과 함께, 특히 경제적으로 걸프전쟁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치적으로 지난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로 이끄는데 결정적 열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 일부에서는 법망을 교묘히 피한 음성적 탈·불법행위와 공익보다는 "나"만을 생각하는 극단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전도된 가치관이 잔존하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을 퇴색시키고 참여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6개월간의 추진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흡한 분야는 적극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고 고질적인 탈·불법행위는 완결위주로 뿌리뽑기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적 참여 확대와 국민자율 운동으로 정착 유도하여 한치도 약화되거나 변질됨이 없이 영속적으로 전개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10.13 특별선언」은 정의와 진실에 기초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안정 기반을 확고히 하며, 주민화합으로 통일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대통령의 심오한 통치철학으로서,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장전으로 인식하고 흔쾌히 참여하여 선진국 진입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시점은 역사적으로 더없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민주질서 확립의 출발점에 서서 민주발전과 국운도약의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아 국민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개인보다는 나라와 지역을 먼저 생각하고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발양해 주실 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울러 국제화와 개방화 시대, 특히 '93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우리도에서는 "과학·기술은 대전에서, 문화·관광은 충남에서"라는 슬로건 아래 선진문화의식 함양에 도정운영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선진국으로 발돋음하려면 올림픽때 보여준 국민적 저력을 다시 살리고, 전 도민이 '93엑스포에 적극 참여하고 성원하여 우리 지역에서부터 성숙된 국민의식을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민들에 앞장서서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 올바로 인식시키고 흐트러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 구심점 만들어서 전도된 가치관을 올바로 정립시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 사회는 신뢰가 충만되고 서로 화합하는 밝은 물결이 흘러 지역안정과 나라발전의 값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명정대한 선거질서 확립에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기초 의회의원선거는 정말 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앞으로 공명선거 실시 가능성을 보여 주었던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번 광역의회의원 선거에서도 금권·향응이 도저히 발 붙이지 못하고 상대방 비방이나 흑색 선전을 찾아볼 수 없는 「페어플레이」정신의 「유권자 혁명」을 다시 달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땅에서 선거로 인한 잡음이나 갈등이 존재하지 않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 주어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한사람 한사람을 모두 존중하지만 그보다는 다수의 보통 사람의 중지를 중시하고 함께 이끌어가는 사회제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라와 지역발전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자기희생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 사회는 반드시 밝고 맑게 빛나는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건전한 사회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인사에 가름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8차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 축사

1991년 4월 30일

올바른 가정 문화

오늘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 제8차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본인은 먼저, 지난 1년 동안 섬세한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헌신적인 봉사 활동을 해오신 회원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치하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시대를 앞서보면서 새로운 여성상을 창출해 나가는 중심단체로서, 우리 도정 발전에도 적극 기여해 오신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해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눈부신 활동은 모두가 괄목할 만한 내용이었고 성과 또한 큰것이었습니다.

작년 9월, 중부 지방의 대홍수시에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앞장서서 충남의 온정과 정성을 수재민들에게 베풀었으며, 일선초소 위문과 소년소녀가장돕기, 그리고 여성교육등 참으로 보람있고 뜻있는 많은 일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어머니 제자리 돌아가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큰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라는 격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제 여성들의 지위는 과거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차별의 조항들이 하나씩 하나씩 개선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나 경제 활동 영역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고 보편화 되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읍니다.

법적으로도 가족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으로 제도적으로는 남녀차별이 없는 성과와 함께,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의 참여가 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자아실현을 위한 의욕적인 여성들이 우리나라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성들은 시대와 역사의 주변인물이 아닌 중심세력으로서, 한편으로는 이 사회를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과제도 함께 갖게 되었다고 봅니다.

친애하는 여성단체 임원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21세기의 선진한국은 이러한 여성들의 역할의 증대와 함께, 남녀구분이 필요없이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내다보면서, 우리 여성들은 지금까지 물질 우선의 성장과 발전을 앞세워 왔다면, 이제는 그 관심을 바로 자신을 연구하고 이 사회의 올바른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제자리 돌아가기」는 우리 여성들이 과거의 시대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과거 우리어머니들께서 보여주신 가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세우고, 변화하는 오늘의 시대에 알맞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건전한 가정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중심은 분명히 우리 어머니들 입니다.

그리고 삶의 보금자리인 가정은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할 가치이며, 화목하고 밝은 가정을 가꾸어야 하는 것은 어머니들의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은 우리 모두의 바램이며 우리는 서로가 분명히 지켜야 할 가정규범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올바른 가정문화가 이웃으로, 또 사회로 확산될 때, 우리 사회는 근면하고 화목한 상식이 통하는 건전하고 성숙한 선진사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국내적으로 도덕적인 위기에 처해있는 전환기적인 이 시기에 「어머니 제자리 돌아가기」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건강한 사회, 도덕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회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보람된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전 국민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너나 없이 그 실천을 다짐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절실한 것인지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정기총회가 여성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이땅의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정착될 수 있는 참여와 다짐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지난해 못지 않는 훌륭하고 보람된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되기를 확신하면서, 새로이 취임하시는 한창숙 회장님에 대한 기대와 성원의 박수는 물론 앞으로 밝은 빛이 더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일, 행운과 축복을 화창한 날씨와 함께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4월 30일

도지사실 개방

바쁘신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상근봉사위원님과 대전에 계신 전문위원님들 몇분은 접할 기회가 있었으나 이처럼 도내 전 위민봉사위원님을 뵙게 되기는 취임후 처음인것 같습니다.

지난 86년 위민실을 발족하고 위민봉사위원 제도를 운영해온지도, 4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각박한 사회현실속에서도 훈훈한 인정의 꽃을 피워주신 헌신적 봉사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보람있는일, 난처한일, 안타까운일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봉사는 외로움의 고행이며,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남을 위해 헌신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롭고 하소연 할데 없는 힘없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고 자기의 몸을 녹여서 주변을 밝혀주는 촛불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원상담실 운영은 물량적으로 총 10,464 건이 접수되어 10,457 건을 처리하였으며 '91년에 접수처리 된것도 259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작은 일이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誠心誠意껏 처리함으로서, 도민이라면

누구나 찾을 수 있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아늑한 사랑방」으로서의 역할과, 위민봉사위원님들과 고정인간의 격의없는 대화와 접촉은 도민화합과 계층간 위화감해소에 보이지 않는 역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임초부터 도지사실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민원부서와 하급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한 어렵고 억울한 민원을 직접 듣고 성의를 다해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불만원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작은일이라도 우리 행정이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또 지난 4.10부터는 직소민원실을 개설하고 운영중이며, 매주 금요일 오후를 「직소민원의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3.26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전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명선거 의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광역의회의원 선거도 공명하게 치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 협조도 아울러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있어서도 과소비 추방과 근검절약에 솔선 참여하여 주시고 이사회가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가 되도록 계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도정은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세신장시책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중심지로서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새로운 중심문화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은 우리 도정이 이러한 일을 하는데 큰 기대를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함께하는 도정, 도약하는 충남」에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드립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린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하고 보람있는 나날이 지속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91년 5월



△ 어버이날 노인방문

1991년 5월 1일

희망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등 행사가 많은달입니다.

어느달보다도 희망과 활력이 넘쳐 흐르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충만해 있는 좋은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이스 신화에 나오는 지상 최초의 여자가 「판도라」라고 합니다. 그녀는 모든 악과 불행이 가득차 있는 상자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녀는 그것을 절대로 열어서는 안된다는 계명을 어기고 호기심 때문에 그만 열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결과 죽음, 가난, 질병, 싸움, 배신등 이세상의 모든 악과 불행이 뛰쳐 나왔다고 합니다.

이 지상 최초의 여인인 「판도라」는 그만 혼이 나서 그 상자를 급히 닫아 버렸는데 그 속에는 오직 희망만 남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세상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상자속의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희망의 달 5월, 「판도라의 상자」와 같이 여러분께서도 모두 이 5월을 희망으로

맞이하시길 빕니다.

5월을 시작하면서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고 당면한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지난 한달 동안 활기찬 도정으로 우리 도약 충남을 가꾸는데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보여주신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은 국내외적으로나 우리 지방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르바쵸프 소련 대통령의 역사적인 제주도 방문을 들수가 있었습니다.

소련 최고지도자로서는 남북한 최초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소련 대통령이 오랜 맹방관계를 지켜온 북한을 제쳐두고 한국을 먼저 찾아온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한소협력의 중요성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6월 샌프란시스코, 12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3번째 정상회담을 양국간의 협력관계와 양국 정상간의 친교관계가 얼마나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대통령께서 줄기차게 추진해온 북방외교의 결실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외교의 획기적인 쾌거로 평가되는 이 성과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에도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대전세계박람회가 비록 대전에서 개최되지만 최인접 배후지인 우리도로서는 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해야 합니다.

도세발전의 기폭제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사의 의의와 내용을 소상하게 모두가 파악하면서 우리도에서 해야할

일을 점검하고 구상해서 관련된 사업들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민주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시군의회가 지난 4.15 그 역사적인 개원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를 치뤘다는 긍지속에서 개원된 시군의회가 앞으로 모든 국민들의 염려를 뿌리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실현하는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구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협력을 다해줘야 할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4.10부터 10일간에 걸쳐 감사원 정기감사도 받았습니다. 감사가 별다른 문제없이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맡은바 일을 잘 처리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업무를 추진할 때 감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하고 올바르게 일을 처리했는가 하는 평가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된다고 본다면 평상시 업무를 챙기고 마무리하고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행정은 지방자치실시와 더불어 주민참여 확대와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한다고 할때,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배양과 완벽한 업무처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라 할 것입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새질서·새생활실천」 6개월 성과를 평가하고 반성해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평가와 제2의 도약을 함께 다짐한 바 있습니다.

「10.13대통령 특별선언」 이후 지난 6개월간 추진해온 새질서·새생활 실천결과 사회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고 밝고 건전하고 질서있는 생활문화가 정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단속과 계몽을 전개하는 공직자를 보고 주민들도 정부의 의지를 알게 되고 호응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과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음성적인 불법행위와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적 무질서 심리가 잔존해서 대다수 국민들의 진지한 노력과 참여성과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이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지켜주고 사회안정속에 민주발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사회발전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운동을 국민생활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규범으로 사회에 뿌리깊게 정착할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있는 봉사자이고 공인입니다.

나라와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면서 공직자가 자기의 일에 책임과 자신감을 갖고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우기 자기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고 일할때 주민은 공무원을 믿게되고 정부를 신뢰하게 됩니다.

반면 책임을 두려워하고 소신이 없이 우왕좌왕한다면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그만큼 더욱 심화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거의 모든 공직자가 투철한 사명감과 자신감으로 자기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의 얘기를 현지사의 얘기로 생각하고 들으면 된다」고한 구마모도의 한 과장의 얘기를 다시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본공직자의 자신감, 그리고 사명감 이것이 바로 일본 국민들이 공무원을 믿고 따르고 해서 일본을 성장하게끔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중에서 책임있고 힘든일을 가급적 회피하려는 안일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민의 신뢰속에서 자부심과 긍지, 자랑, 사명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직분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임진왜란때 몰려드는 왜적을 바라보면서 「각자가 자기몫을 지키면, 적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을 충무공께서 하시고 분전해서 격퇴 시켰습니다.

이것은 호언장담이 아니라 성웅 이순신장군의 자신감, 담력과 용기 그리고 유비무환의 철저한 준비성과 계획성을 그대로 보여준 한마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발전의지와 자신감속에서 만이 도정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5월은 가정의달, 교육의 달 입니다.

가정의 달에 모두 부모님을 생각하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고 가정을 소중히하는 생활을 우리 공직자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단계고 출발점이고 근원이라 해도 탓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 평화와 안정이 없으면 사회와의 연결고리는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불량청소년의 대부분이 결손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사랑과 훈훈한 정을 느끼면서 올바른 인간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서 불량청소년이 된다고 보면, 가정을 올바르게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이야 말로,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어 가는 첩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5월은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스승의 달이고 교육의 달입니다.

누구나 옛날 학창시절에 자신을 이끌어 주시고 애정을 쏟아 주셨던 스승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쁜생활 속에서도 옛날에 지녔던 소중한 스승과의 인연을 되새겨 보고, 옛스승님께 한장의 편지, 그리고 뵐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또 교육의 장래를 함께 걱정해 보는 것은 나라를 위해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며 또 스승님께 한번쯤 고마움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라면서, 내일의 이나라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에게 무엇이나 뜻있는 작은 일에도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5월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발전과 창조는 각자의 피나는 노력, 눈물, 희생이 더욱 요구되는 싯점이라고 봅니다.

큰 시련도 사소한 것으로 자위도 하고 눈물의 고통도 즐겁게 감내해 나간다면 우리 앞에서 놓여진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발전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작은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모든일이 작은 것에서 시작도는 것처럼 나의 작은 실천이 모두에게 큰 기쁨으로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기 바랍니다.

5월에도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도정으로 자랑스런 우리 고장을 가꾸어 가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고, 소망하는 목표도 성취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5월 2일

새로운 창조적 힘

친애하는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록의 화창한 봄날을 맞이해서 새마을 가족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면서, 새질서 새생활의 실천과 다짐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본인은 먼저 지난 20여성상 동안 새마을운동을 신앙으로 여기며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해오신 새마을가족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인정에도 어려운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김수학 회장님과 기관장님, 그리고 내빈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예의 수상자 여러분과 숙원사업 지원을 약속받으신 우수부락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새마을운동은 우리 5천년 역사의 허물을 벗고 가난을 이겨낸 민족의 긍지와 보람이 담긴 국민운동이였습니다.

우리가 10대 무역국으로 성장하면서 국민소득이 5,000불을 넘고 민주주의의 활기찬 나라로 가꾸어온 것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었던 우리만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실이며, 우리는 분명히 이 엄청난 역사를 창조해 낸 자랑스런 세대입니다.

우리가 맨손으로 일어나 이만큼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선진복지사회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던 것은 근면·자조·협도의 새마을운동과 「하면된다」하는 굳은 신념으로 뭉쳐진 민족의 저력때문입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이 한때에는 그 가치가 전도되고 뼈아픈 시련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저희 충청남도는 이러한 새마을운동이 그 본래의 위상을 되찾고 한차원 더 높은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지난 2년전부터 도의새마을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충남은 전통적으로 충절과 고매한 선비정신이 빛나는 양반의 고장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습니다.

그동안 새마을운동이 잘 살기 위한 물질적인 면을 치중하여 왔다면, 우리는 가슴속에 새겨진 이러한 정신적인 긍지를 지역발전으로 접목시키면서, 도의가 살아숨쉬는 고장으로 가꾸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는 분명 자율과 자유가 충만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전통적인 윤리와 도의가 존중되지 않는 무질서한 풍토를 자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자유와 풍요로움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생활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창조를 위한 「새질서·새생화 실천」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을 조모조목 살펴보면 결국은 새마을운동과 그 맥이 통하는 도덕성회복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도의새마을운동, 그리고 이나라 근대화를 이끌어 온 새마을운동은 이러한 노력을 밝혀 주는 등불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새마을가족 여러분!

오늘의 모임은 새마을운동제창 스물 한돌을 기념하고 새질서·새생활 실천의 가속화 다짐을 위한 행사이면서, 우리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새마을 가족여러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우리는 자랑스런 우리고장을 위하여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고장을 가꾸고 스스로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주민을 앞장서 선도하는 지도자로서 마음의 문을 열고 건강하고 따뜻한 이 사회를 소중하게 가꾸는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가 되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사랑받고 믿음을 주는 지도자로서, 주민의 향토애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신념과 어려운 이웃과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신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둘째는, 이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자꾸만 더럽혀지고, 훼손되어가는 자연을 우리가 솔선해서 맑고 깨끗한 자연으로 되돌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겠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자연과 더불어 그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 왔으면서도 이를 소중히 하지 아니하여 오늘날 많은 문제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주의를 살피고 자연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셋째로 우리가 정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마을을 살기좋은 마을, 자랑스런 마을로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고향마을이 점차 황량하게 변해가는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락마다 자랑스런 것 하나하나를 가꾸고 손질하여 주민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할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번째로, 다가오는 93년에 대전에서는 EXPO가 열립니다.

경제과학 올림픽이라 일컫는 EXPO는 대전에서 열리지만, 문화분야는 우리 충청남도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서울 올림픽이 문화 올림픽이 되었듯이 이번 EXPO가 문화 EXPO가 될 수 있도록, 또 유서깊은 우리 충남의 문화가 널리 선양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전도민이 일어서서 새로운 창조의 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보여왔던 저력을 다시한번 힘차게 발휘하여 더높이 도약하느냐 못하느냐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난날 새마을운동의 의지와 열정에 다시 불을 지펴서, 살기좋은 마을을 다시 가꾸는 것부터, 자연과 환경보호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우리 스스로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땀과 희생 그리고 헌신으로 일구어낸 자랑스런 이나라 이 땅을 다시 번영과 성장으로 치달을 수 있도록 우리 새마을가족 여러분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령 문화부장관 초청 강연회 축사

1991년 5월 3일

문화충남

이어령 문화부장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관님을 모시는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 기관장님, 총·학장님, 바르게살기운동 지도자여러분, 그리고 대전대학교 경영행정 대학원생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에 장관님을 모시면서, 올림픽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올림픽을 치루어 냈던 한국문화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생각합니다.

올림픽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기여하신 업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어령 장관님은 평소, 우리고장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뜨거운 애정을 쏟아오고 계실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고장 출신의 유일한 장관님으로서, 이 시대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존경받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어령 장관님의 대표작으로, 국민들의 심금을 적셔주고 있는 저서 「신한국인」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문화충남을 도정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93년에 개최되는 엑스포를 맞이하여 대전에서는 과학엑스포를 개최하고, 충남은 문화엑스포를 훌륭하게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 도민이 참여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번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대전대학교 오희필 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이어령 장관님과 유익한 시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69회 어린이날 기념식 격려사

1991년 5월 5일

소중한 미래의 주역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푸른 5월의 하늘아래 오늘은 어린이 여러분을 위한 축복된 날입니다.

여러분의 티없고 깨끗한 얼굴에서 우리 어른들은 밝은 내일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우리 어른들의 소망은 한결 같습니다. 똑똑하고 야무지게 자라고,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높은 꿈과 이상을 갖고 내일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주인공인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을 당해왔던 우리민족은,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9년전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설움과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러한 설움속에서도 어린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언젠가는 되찾게 될 조국의 장래를 위하여 어린이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정환, 손진태, 윤극영 선생님같은 분들은 「전국의 어른과 어린이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시고 소년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이 글 첫머리에는, 「어린이는 일방적으로 내려다 보여서는 아니되며, 또 무조건 쳐다보기만 해서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올바르게 자라고 꿈을 가꿀 수 있도록 좋은 환경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도 있고, 몸과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도 많이 있습니다.

이 푸른 계절인 5월이, 세상 모든 것을 받아 들이고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렵고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따뜻하고 정다운 마음으로 대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과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원대한 꿈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굳세고 슬기롭게 자라나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는 주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러한 기대만큼 여러분이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같이 축복받은 날, 하루를 유쾌하게 보내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과 해맑은 웃음에서 우리는 무한한 기쁨과 희망을 갖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미래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며, 여러분은 바로 내일의 우리 사회를 약속하는 소망이요, 보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5월의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지는 오늘 하루를 보다 유익하고 보람있게 보내기를 기원합니다.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소비조합 제2매장 개장 축사

1991년 5월 6일

대중이 이끌어가는 시대

오늘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소비조합 제2매장 개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근로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헌신하시는 한국노총 박종근 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시고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매장 개설이 있기까지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치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열어 나가면서 이제는 몇몇 사람이 아닌 대중에게 배우는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만큼 자랑스런 나라를 일구어 오는데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의 창의적이고 노력과 구슬진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로자 여러분의 희생없이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근로자도 당당한 경제발전의 주체로서, 대접도 받고 스스로 권익을 찾으면서, 또 그에 따른 책임이 중시되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제2매장의 개점은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소득분배의 형평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오늘 이 매장개설과 같이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3권이 보장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문제가 될만큼 노동자의 임금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그리고 경제발전을 지속시켜야 하는 상충된 여건의 중간에 서서, 노동자와 사용자를 모두 만족시키고 타협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이해와 협력을 기대하면서, 오늘 개설되는 제2매장이 일익 번영하고 발전이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5월 7일

미래에 대한 희망

여러분 반갑습니다.

취임후 4개월이 되었는데 처음으로 자리를 마련한것 같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종웅 연합회장을 비롯한 시군회장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어촌을 지키고, 땀흘려 일해온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고도로 산업화되고 물질문명속에서 사는 우리 사회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농어촌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 농어촌의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정책이나 의견도 많이 있어왔습니다.

지금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농어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정부도 이제는 그동안 농어업이 투자에서 소외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농어촌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 의지도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선진권으로 진입하려면 공업발전과 수출도 중요하지만, 농어촌의 성장과 발전도 필연적인 것입니다.

특히, 농어업이 절반을 차지하는 충남으로서는 더욱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농촌이 현재 어렵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지금이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여러분은 우리 농어촌의 장래를 지켜나가기 위한 미래 농어촌의 주역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농어촌의 꿈나무인 셈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여러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있지만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불만이 있는 후계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어촌발전에 대한 계획은 대부분 장기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농어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책을 달가워 하지 않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는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것입니다.

첫째로, 도와 시군의 후계자대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두번째로, 후계자들이 참여하는 작목별 연찬회를 개최해서 영농의식을 고취하고, 해외연수와 표창등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후계자들이 생산하는 농산물판매를 위한 대도시 농산물판매장 설치에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도 종합복지관도 후계자 농산물 직판장 설치운영을 검토하면서

네번째, 후계자, 4H, 농고출신졸업생등을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금년중으로 72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후계자 관리문제도 도는 물론, 시장·군수가 애정과 책임의식을 갖고 지원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도에는 5,191명의 후계자가 농어촌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생각과 실천이 곧 우리 농어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의 위상이 국민들에게 잘못 인식되어 진다면 농어촌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기대도 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시 연구하고 사명감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지 농어촌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노력하면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본인도 여러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모든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농어촌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를 극복하고 살길을 찾을 수 있다는 신념과 용기를 가져야 할때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라는 말은 흔한 말이지만, 어디에도 적응되는 진리입니다.

인간이 오늘을 이길 수 있는것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후계자 여러분들의 도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가정에 행운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4회 국제라이온스협회 309-E지구 연차대회 축사

1991년 5월 7일

변하지 말아야할 것

5월의 푸르름속에,

오늘 우리 지역의 라이온스협회 열네번째 년차대회가, 유서깊은 역사의 고장 이곳 공주에서 갖게된 것을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보람찬 봉사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해 오시면서, 우리 도정에도 적극 성원해 주신 정교순 총재님을 비롯하신 라이온즈 가족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제의 새것이 낡은 것이 되는,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산업이 고도로 발달되고 국내외의 새로운 질서의 태동은, 우리의 생활과 의식까지 나날이 새로운 것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속에서도 온갖 어려움을 헤치며, 이만큼 자랑스런 나라를 일구어 왔다는 긍지를 느낍니다.

그리고 씨뿌려 펼쳐놓는 일들이 하나하나 알찬 결실로 이어져서, 모두가 보람을 느끼는 사회를, 또한 우리는 갈망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그동안 라이온즈 가족여러분께서도 나라와 지역발전을 위한 순수한 정열로 꾸준한 사회활동을 전개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

안구은행을 설치하여 앞을 못보는 이들에게 무료수술을 해 주셨고, 영세민돕기사업과 장학금지원 그리고 공공시설물 설치와 각종 시민대회 지원등, 정말 뜻깊고 보람있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충절의 고장 라이온즈 가족여러분!

지난 몇년간 우리 사회는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간을 우리는 이나라가 한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시련으로 생각하면서, 미래에 확신을 갖고 아픔을 인내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문명이 발달되고 역사가 오랠수록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할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잊지 않고, 변하지 말아야 할 많은 우리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지켜온 전통과,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민족의 저력, 그리고 억척같은 노력으로 지난날 우리가 흘렸던 땀의 향기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신은 우리가 영원히 간직해야 될 이 시대의 가장 값지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과 저력과 향기를 바탕으로, 이웃과 지역을 위해 헌신하며,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어른을 존경하고 젊은이들을 아끼고 사랑으로 돌보면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것 입니다.

모쪼록 오늘 연차대회를 맞이하여 회원여러분께서는, 지난 14년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우리 고장의 성장과 발전에 접목시켜서, 급속한 변화속에 맞이한 안팎의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밝은 등불이 되고 견인차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충절과 선비정신이 빛나고 유서깊은 문화의 고장인 우리 충청남도가 국가발전의 중심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성과 진실, 나라와 향토 사랑을 위한 대단결, 그리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회원 여러분의 활약을 아울러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끝으로 국제 라이온즈협회 309-E지구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싱그러운 생명력의 계절을 보람으로 맞이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5월 8일

효도는 법률이전의 천륜

오늘 우리는 열아홉번째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깊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것, 또 변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버이의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묘지근처에서 저자거리로, 다시 학교옆으로 이사를 했다는 맹자의 어머니,

그리고 떡을 썰면서 아들의 교만한 마음을 바로 잡았다는 한석봉 어머니의 얘기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역사적으로도 훌륭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부모의 가르침과 지혜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달려드는 열차속에서 몸을 던져 아들과 자신의 목숨을 바꿨던 어머니의 얘기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나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어버이의 사랑은 참으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충효를 최고의 가치와 덕목으로 알고 살아왔으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법률이전의 천륜이요, 인간의 근본적인 도리라고 배워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부모의 마을을 헤아리기 보다는 그 무능함을 탓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자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일평생 희생과 헌신과 노력을 다한 부모에 대해 감사하고 보답하기를 기대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옛날, 나라의 정치를 훌륭하게 돌보던 정승이나 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죄인이라 하여, 벼슬을 미련없이 버리고 산소를 지켰던 일은 흔히 있었던 얘기입니다.

시대가 변모한 현대에 와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보존하고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조상들의 그 소중한 정신유산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수상하신 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고 효행을 몸소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이 사회가 아무리 각박하고 톱니바퀴 처럼 쉴새 없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분들처럼 부모님에 대한 자식된 도리를 잊지 않고, 작은것 하나라도 효행을 실천해 옮기는 것이 정말 소중한 때입니다.

자식이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어버이의 마음, 그리고 자식이 슬퍼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어버이의 마음을 불교에서는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한자락이라고 헤아릴 수 있다면,
이 뜻깊은 날이 소중한 우리의 정신유산인 효행사상을 되새기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자는 다짐의 계기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전통과 예절을 숭상했던 양반의 고장이라는 명예가 더욱 빛나고, 효의 문화가 충만된 우리 고장을 가꿀 수 있도록 200만 도민 모두의 다짐과 실천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신의 은총이 가득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1 지방기능경기대회 개회식 치사

1991년 5월 9일

또 하나의 시작

오늘 우리고장의 내일을 짊어지고 나아갈 젊은 기능인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동안 열띤 경연을 갖고, 그 시상식을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먼저, 이번 기능경기대회에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여 영예의 수상을 차지한 선수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아울러 평소 기능인들을 보살펴 주시고 본 대회를 시종일관 성원을 다해 주신 한만우 대회장님과 관계인사 여러분, 그리고 각계의 성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기술습득과 기능연마에 얼마나 많은 각고의 노력과 구슬진 땀을 흘려 왔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갈고 닦은 우수한 기량이 이번 대회를 더욱 빛내줌으로서, 여러분 자신과 학교의 명예는 물론, 기능충남의 새로운 저력과 밝은 앞날을 밝혀 주었다는 데에서, 우리의 기쁨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산업과 경제는 과학기술과 우수한 기능에 의해서 좌우되고, 이는 곧 나라의 앞날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우리는 최신기술과 기능개발은 물론, 첨단과학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학기술 개발과 우수한 기능인력이 곧 국력과 직결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으로서, 여러분은 곧 풍요로운 우리고장과 선진복지사회를 약속하는 주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개발도 여러분이 지금 땀흘려 쌓아 나가고 있는 기술과 기능의 튼튼한 기초와 기반이 없이는 근본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뜻을 둔 기능인의 길이 이처럼 막중하고 보람있는 길이지만, 그 과정은 정말 어렵고 험난하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수상의 영예와 기쁨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기량을 연마하여 앞날의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더우기, 여러분 앞에는 전국 기능경기대회와 세계 기능올림픽대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상은 이제까지 청소년 기능인여러분이 땀흘려 노력해온 결과가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오늘, 입상하지 못한 선수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더욱 다지고,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좋은 성적을 올려줄 것도 당부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국민 교통안전 촉진대회 시상식

1991년 5월 10일

질서는 민주시민의 책임

오늘 우리고장 교통가족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교통안전을 위한 범국민 촉진대회를 갖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먼저, 교통안전에 대한 자율질서 확립과 사고 예방에 헌신하신, 수상자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안전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경찰관 여러분과 교통관계자 여러분께도,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서 저만큼 걸어가는 것도 교통이요,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는것, 그리고 직접 운전을 하는 것도 교통입니다.

결국 우리중 어느 누구라도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교통질서를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는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우리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국민모두가 민주시민으로서 책임을 나누어 갖고, 우리사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가족 여러분도 자발적인 실천을 다짐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모두의 의지와 실천으로, 이제는 교통질서의 의식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교통질서 체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로나 아직도 우리는 교통사고율이 높은 나라라는 불명예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만큼 모든 여건이 구비되고 선진된 교통문화가 정착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질서있는 사회를 이루어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고, 그 혜택 또한 각자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질서는 편하고 자유로우며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질서는 모두가 지켜지고 존중되어 질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는데는 교통안전과 교통질서의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면서, 국민 모두가 실제로 참여하고 실천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불법과 무질서가 민주사회의 기틀을 위협한다고 볼때, 지금은 선진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는데 사회각계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때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뜻깊은 자리가, 진정 우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선진된 교통문화를 이루는 촉진제가 되고, 오늘 수상하신 분들과 같이, 우리 모두가 교통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고 실천하는 다짐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내가 지킨 교통질서가 우리가정의 밝은 행복을 가져온다는 인식을 함께 하면서, 우리 모두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생활 그리고 우리 고장의 새로운 교통문화창달의 기수가 되고 선봉이 될 것을 다시한번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40)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각계에 보내는 서한

1991년 5월 10일

존사애제의 기풍

화사한 봄빛이 신록을 재촉하는 계절,

평소 도정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5월 15일은 제10회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던 스승에 대한 고마움이 해마다 5월이 되면 가슴 깊숙이 다가옵니다.

평소 바쁜 생활속에서 찾아 뵙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시 스승의 은혜를 간직하여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급격한 산업화와 팽배된 이기주의는 우리가 소중히 지켜온 尊師愛弟의 전통적 가치관이 점차 퇴색되어 가게 하고 있어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아쉽게 생각한 본도에서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이 사회를 믿음과 사랑이 충만된 사회로 가꾸고자 "범도민 스승 존경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운동은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솔선 참여하고 적극 호응해 나갈때 기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스승존경운동을 통하여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은사근황 알아보기 알려주고, 감사편지 보내기, 은사 찾아뵙고 문안드리기등 스승존경운동을 전개하여 주시고 모교발전을 위하여 동창회를 통한 은사님 모시기, 모교행사 참여하기 등의 실천을 통하여 산하 전직원 및 자녀들로 하여금 스승을 공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드리면서 기관과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올립니다.

제3회 충청남도 교육상 시상식 축사

1991년 5월 13일

뜻있고 값진 인생

오늘, 백승탁 교육감님을 비롯하신 교육가족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세 번째로 맞이하는 충청남도 교육상 시상식을 갖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직 2세교육과 인재양성에 헌신적인 사랑과 정열을 불태워오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영예로운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세분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오월이 오면 우리는 신록의 화사함과 함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바른길로 인도해 주셨던,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의 뜻이 담긴 스승의 날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옛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추억을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선생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하고 안부가 궁금해 지기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택하신 스승의 길 한마디로 고귀하고도 힘든 길이란 생각을 합니다.

스승의 길이란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길이요, 내가 먼저 행하고 따르게 하는 관행의 길이면서, 우리의 앞날을 빛내줄 일꾼을 기르는 보람의 길입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일이지만, 그만큼 어렵고 고된 시련을 감내하여야 할 참으로 어려운 자리임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오늘 수상하신 세분 선생님은 일생을 인내와 극복으로 보람을 쌓으시고, 가장 뜻있고 값진 인생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초롱초롱한 학생들의 눈매에 사랑을 쏟으시면서, 올바른 삶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고귀한 정신을 우리가 소중히 하고, 마음가짐과 행동을 올바르게 잡아 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좀더 보람되고 풍요로운 것으로 가꿀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가 다른 변화의 사회속에 살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물질문명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이 퇴색되면서, 우리 사회는 전환기적인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항상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속에서 휘말리고 있는것 같지만, 스스로 자성의 계기를 만들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육은 국운을 좌우한다"라는 말을 빌릴것도 없이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인내하고 노력해 오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헌신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밝고 환하게 비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지금까지 우리가 땀흘려 이루어진 성장의 결시도, 뿌듯한 보람도, 그리고 대망의 2천년대를 바라보는 선진된 조국의 미래도, 모두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세분 선생님들의 영예로운 수상을 다시한번 축하 드리면서,

우리 충청남도 교육가족여러분께서,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가시는 선도자로서의 보람찬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거듭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5월 15일

잊지 못할 스승의 은혜

오늘 열번째 맞이하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백승탁 교육감님을 비롯하신 교육가족 여러분과 함께 뜻깊은 기념식을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 나라의 장래를 책임지고 나아갈 2세교육에 헌신해 오시는 선생님들의 크신 공적과 노고에 대하여 우리 200만 도민과 더불어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잊을 수 없듯이, 그옛날 학창시절, 스승께서 들려주신 감명깊은 말은 우리에게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는 잊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올바른 삶의 길을 열어 주셨던 스승의 은혜 그리고 그 고귀한 정신을 아마 우리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에 따른 직업도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가르치는 일, 배우며 가르치는 즐거움, 그리고 미래의 이나라를 빛내줄 제자를 길러내는 자랑과 기쁨으로 사시는 선생님들은, 분명 스승이라 하는 고귀한 이름을 지니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이러한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 할 만큼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올림픽을 훌륭히 치루어 내면서, 세계 여러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때, 교육의 방향을 물질적인 성장과 기능위주의 지식과 기술 습득에만 힘을 기울여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육의 현실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치관이 전도되고 시련과 도전을 맞고 있는 전환기적인 오늘의 사회환경을 교육탓으로 돌리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현실은 교육만이 아니라, 사회각계와 국민모두의 공동책임이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교육은 제도나 법률이전에 사람과 사람사이의 진실이 맞부딪치며, 혼과 혼이 서로 교감되고 가슴과 가슴으로 전해지는 인간교육을 최고의 덕목으로 알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예로부터 충절의 고장인 우리 충남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것을 소중히 해왔던 전통이 있습니다.

저희 충청남도가 이런 전통과 인륜의 근본을 이어 나가고자 범도민 스승존경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젊은이들은 자칫 이러한 것을 고루하고 조금은 진부한 것으로 여기는 이도 없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과학적 지식이나 합리적인 사고방식도 인간이라는 기본틀이 단단히 다져진 바탕위에서 비로소 그 존재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운동의 가치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가족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스승의 날은 그동안 선생님들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드리고 보은을 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선생님들께서 더 큰 의욕과 용기를 가지시고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 이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리라는 우리 모두의 소망과 기대가 담겨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선생님들께서 맞이하는 오늘이 어렵고 힘든 사도의 길을 가시는데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교육자로서의 막중한 사명과 보람으로 국민의 스승으로서,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역할과 새로운 다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5월 15일

그래도 남는것

오늘 저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바른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사님을 모시고 자리를 함께 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더라도, 뼈에 사무친 말이나 가슴속에 조각된 감명, 그리고 마음속 깊이 아로 새겨진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바르쳐 주신것을 모두 잊어버렸다 해도 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얘기들일 것입니다.

오늘 이시간은 그 아련했던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그동안 사제지간에 나누지 못했던 감회어린 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마련되기 까지에는 저희도가 추진하고 있는 "스승존경운동"을 우리 교육가족여러분께서 적극 호응해 주시고, 우리 사회를 서로 믿고 정이 오가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된 사회를 가꾸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10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비록 조촐한 자리이지만 일평생 사도의 길을 선택하신 선생님들과 제자들 모두가 뜻깊고 보람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1991년 5월 15일

가슴속에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어려운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먼길까지 찾아주신 여러 은사님과 내외분 제자여러분!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일평생을 오로지 한길을 걸어오신 스승님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감사를 드리고, 위안을 드리고자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화기애애하고, 정이 오가는 정말 뜻깊은 저녁시간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君師父一體"란 말이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5천년전부터 배워온 조상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권위, 학교의 권위, 가정의 권위가 지금처럼 절실한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가정의 권위도 없고 국가의 권위도 불신과 반목으로 얼룩져 있으며, 학교에서는 스승이 제자로부터 폭행을 당할 만큼 그 권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존경의 마음으로 우러러 보았던 스승도 계셨고, 존경하는 부

모님을 모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정말로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이었나를 생각해 보아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믿고 정을 나누는 밝고 명랑한 사회, 스승과 제자간에 사랑과 존경이 오가는 전통은 마땅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 한분 중에는 제자를 친자녀이상 자랑하고 기대하고 아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제자는 매년 한두차례 스승을 뵙고 은사님이 좋아하시는 술 1병씩을 드리곤 했는데 스승은 그 술을 한모금도 마시지 않고 거실 진열장에 소중히 보관하고, 만나는 이마다 그 술병을 자랑하곤 했던 기억을 합니다.

여기 계신 제자 여러분들은 평소에 가슴속에 선생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아무리 생활이 바쁘게 돌아 가더라도 청명한 마음 한자락 비워두고, 지나간 인연을 소중히 하는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승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스승님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못하는 제자의 정,

그리고 아끼고 사랑하던 제자를 만나는 기쁨, 보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저희도에서는 미담가화와 사은의 편지를 공모해서 조그만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사라져 가는 미풍양속을 되살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이러한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에서 스승존경운동을 매년 지속하면서, 이 사회에 크게 확산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고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를 우리가 언젠가는 꼭 이뤄내야 하겠다는 의지와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조촐한 자리이지만,

어렵고 험난한 사도의 길을 걸어오신 은사님들께 잠시나마 위안의 자리가 되기를

빌면서,

옛날의 기억을 되살리고 많은 얘기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은사 내외분, 제자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해 드립니다.

1991년 5월 16일

지역안정과 화합

오랫만에 뵙는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남권 지역 목요오찬회에 참석해 주신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분들의 깊으신 관심과 협조로 도정이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이자리를 빌어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아,

오늘 이곳 역사와 문화의 고장, 부여에서 모임을 갖게된 것을 여러분과 더불어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 자긍심과 정신적 풍요로움을 망각한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곳 부여는 화합과 충절의 정신으로 대표되는 백제정신의 숭고함을 피부로 느껴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의 소중한 문화와 정신자원을 지금 우리 생활에 한껏 계승발전시켜 점차 소원해져가는 인간관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해 보면서,

당면한 도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의회가 지난 4월15일 일제히 개원된 바

있습니다.

온 주민의 깊은 관심속에 개원된 이번 「풀뿌리 의회」는

사상 유례없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지방자치의 밝은 앞날을 기약하면서 출발하였습니다.

지방의회가 우리 지역의 살림을 맡아하는 곳이라면, 그 살림을 맡아 처리하도록 여러분이 선출한 분들이 지방의원들입니다.

이들 지방의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맡은 일에 전념하고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진정어린 애정과 함께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시작하는 지방의회가 진정한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는 새로운 구심체가 되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곧 있을 예정인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시군의원 선거에서 보여준 「깨끗하고 돈 안쓰는 선거」「불법과 타락이 없는 선거」가 되도록 모든 노력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주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광역의원 선거는 정당의 참여가 허용되므로써, 선거 열기가 과열되기 쉬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치르느데에는 입후보자의 건전한 페어플레이 정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후보자들도 올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치루도록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앞장서 나가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선거문화도 이제 선진화되고 바람직한 풍토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는 말이 있듯이 시군의원 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루어 낸것을 시발로, 광역의원 선거도 공명선거로 치루어 이땅에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두가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처럼 지역의 안정과 주민간 화합을 위한 국민적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도 없다할 것입니다.

강경대군 사건을 계기로 일부 운동권 학생과 재야단체가 주동이 되어 각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시위사건은 단순시위 차원을 넘어 과격·폭력 양상으로까지 발전하므로서 대다수 선량한 시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활동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것은,

자기의 주장이나 의사를 강압이나 막힘없이 발표할 수 있는 자유와 권익을 보장하자는데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에 불만이나 못마땅한 것이 있다면 시정을 건의도 하고, 시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어디까지나 법을 존중하고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테두리내에서만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면서 까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나라는 이세상에 아무곳도 없으며, 또한,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의 주장이 옳고 정당하다면 그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청원이나 진정등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고,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으며, 정치권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자기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토론과 대화를 통하기 보다는 목청을 돋구어가며, 일방적인 자기주장만을 내세우려하는 풍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순리에 의해 해결하겠다는 의식보다는, 폭력을 써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행태가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할때입니다.

너와 나의 구별이 아닌 다만 「우리」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사회안정을 추구하는 건전한 내용의 보도로 과격시위를 자제하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겠습니다.

무분별한 일부 학생들의 분신자살과 관련하여, 지난 5월9일 서강대 박홍 총장의 발언이나 김동길 교수의 사표제출, 그리고 김지하 시인의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이같이 뜻있는 인사들의 바람직한 과장과 언행이 국민적 여론으로 형성되어 간다면 과격한 시위나 선동적인 행위는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지역의 지역층위치에 계신 여러 회원님들께서도 오늘의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으로,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안정을 이루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발전과 진보는, 땀과 눈물, 희생과 헌신의 결정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걸음 앞서가는 선두주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히 걷는 사람이며 땀을 더 많이 쏟아 붓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긍지와 사명감으로 그 소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여러 회원님들의 앞날에도 희망과 활력으로 가득하시고 앞으로도 저희 도정에 변함없는 애정으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도의 당면도정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5월 20일

홀로서기

먼저 성년을 맞은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성년은 여러분이 자기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자연적, 정신적, 도덕적, 법률적 연령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홀로서기를 위해 어미둥지를 떠나 높은 산꼭대기나 넓은 바다, 한없이 깊은 낭떠러지 어디든 나를 수 있는 자연적 연령이 되었다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나르는 시기이다.

이나이가 되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일부러 절벽아래로 밀어낸다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자연적, 정신적, 도덕적, 법률적 홀로서기를 위해 지금까지의 둥지를 떠나 혼자 배를 몰고 자신의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의 닻을 올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항해길에는 폭풍과 격랑도 있겠지만, 슬기롭게 항해를 마치면, 자유·평등·행복의 인생목적지를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숨은 재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사람은 날때부터 숨은 재능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러한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한 사람은 그만큼 보람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에 관련된 교훈이 되는 유명한 얘기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주인이 어느날 하인 세사람에게 똑같이 세잎씩의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주인에게 관리받은 달란트를, 한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돌려주었고, 한사람은 간수를 잘못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사람은 달란트를 증식시켜 더 늘려서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숨은 재능은 땅에 묻을 수도, 잃어 버릴수도, 또 잘 개발해서 자기 재능을 활짝 꽃 피울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인내에 달려있다.

바람직한 인생목표를 도달하는 방법은 스스로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개척해야 합니다.

하늘이 준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항시 사명감과 충만속에서 책임감을 갖고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그만큼 값지고 새로우며 생명적인 보람된 생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 그리고 보람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충남교향악단 창단연주회 격려사

1991년 5월 22일

문화창달의 빛이 되어

음악은 그 아름다움과 오묘한 선율로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와 조화로운 생활을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삶과 보다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새로운 힘을 샘솟게 합니다.

우리가 잘산 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물질적인 풍요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적인 향수가 충만되고 올바른 정신문화가 풍요를 앞서는 사회를 이루었을때, 우리는 진정 잘 살수 있는 사회로 가꾸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충남은 700년 역사가 찬연히 빛나는 백제의 옛 터전이면서, 또한 문화의 향기가 짙은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은 지난해 우리 충남이 교향악단을 창단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제 충남교향악단은 우리 고장의 문화창달과 음악예술 발전의 빛이 되기를 자처하며 오늘 그 첫 연주회를 갖습니다.

우리 200만 도민과 더불어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수준높은 음악으로 우리 고장 문화공간을 구석구석 채워주고, 내일의 희망찬 활력을 불어넣어 줄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연주회가 있기까지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을 다해주신 박종혁 교수님과 단원 여러분,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신 공주시민 여러분과 음악인 여러분께 마음속 깊은 치하와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제21회 도미술대전 격려사(팜플렛 게재)

1991년 5월 22일

비중높은 축전

스물 한번째를 맞이하는 충청남도 미술대전은 해마다 작품의 질과 내용이 그 폭과 깊이를 더하면서, 우리 고장 문화예술을 이끌어 나가는 비중있는 축전으로 성장하여 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고의 정성과 노력으로 작품을 내주신 향토미술인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창작활동에 진력해오신 노고에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해가 바뀌거나 어떤 뜻깊은 행사를 치른다고 해서 갑자기 그 무엇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늘 그랬던 것 처럼 톱니바퀴 처럼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롭게 바뀌는 한해, 또 의미가 주어지는 계기로 인하여 보이지는 않지만 느낌을 새롭게 하게 되고 남다른 결심과 다짐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미술인에게도 어김없이 다가와 창작의 길에 그 폭을 넓혀주고 새로운 지혜와 힘을 샘솟게 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믿습니다.

바램이 있다면, 본 미술대전이 그 연륜 만큼이나 중후해지고 명망과 권위있는 잔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미술인 여러분의 사랑과 집념이 차곡차곡 쌓이고 향토 화단에 대한 애정으로 창작활동에 더욱 정려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행사운영과 심사에 힘써주신 조종국 예총회장님을 비롯하신 운영위원님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보내 드립니다.

프리마 오페라단 죠인트 리사이틀 공연 축사

1991년 5월 23일

화사한 계절, 풋풋한 공간

신록의 푸르름이 짙어져 가는 5월의 무대위에서, 프리마 오페라단의 죠인트 리사이틀 공연이 우리고장에서 개최하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칫 삶에 대한 보람과 즐거움을 주는 정서적인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더구나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는 기대에 못미치는 시설과 열악한 환경, 그리고 두텁지 못한 저변인구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느끼곤 합니다.

누구나 한번쯤 한모퉁이 나부끼는 공연안내 포스터를 바라보면서, 조금은 뒤틀리고 기울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는 풋풋한 공간을 아쉬워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화사한 계절의 축복속에서 펼쳐지게 될 이번 공연은 기억속에 묻힌 줄만 알았던 이러한 마음에 한가닥 단비처럼 지방무대에 촉촉한 생명력을 불어 넣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릇 예술은 그 자체만이 지닌 가치를 실현하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우리의 건강한 삶과 올바른 가치를 이끌어 가면서 대중과 같이 호흡할 수 있다면, 이는 더욱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첫 공연을 맞이하는 프리마 오페라단이 그 역사가 일천하고 앞으로도 홀로서기에 감내해야 할 무성한 과제에 벅차겠지만, 지방무대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프리마 오페라단이 지역민의 관심속에 주목을 받고 사랑받는 오페라단으로서 끊임없는 성장을 기원하면서, 공연준비에 애쓰신 김태연 단장님을 비롯하신 모든 분들에게 치하와 찬사를 드립니다.

제8회 보이·걸스카우트 큰잔치 격려사

1991년 5월 26일

협동과 개척정신

오늘 싱그러운 여름이 성큼 다가온 5월의 마지막 주말을 스카우트 대원여러분과 함께 보내게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뜻깊고 보람있는 스카우트 큰잔치」를 마련해주신 보이스카우트 충남연맹 안세영 대회장님과 윤정자 걸스카우트 충남연맹장님,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지도교사 여러분과 학부모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스카우트 대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어른들의 희망이요, 소중한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씩씩한 기상과 티없이 밝은 웃음에서 우리는 내일의 희망찬 미래를 내다보려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장차,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꿈과 포부를 현실화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스카우트 정신은 우리의 이러한 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스카우트활동은 자연의 섭리와 질서를 배우면서 모험에 도전하는 동안, 새로운 경험을 쌓고 협동과 개척의 정신을 기르는 무엇보다 값진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큰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잠재되었던 자질과 역량을 발휘하게

되고, 서로 돕고 힘을 모으는 지혜와 보람,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는 기쁨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과 우정의 사연들이 가슴속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스카우트 대원 여러분!

앞으로 얼마 안있으면 스카우트 최대의 축제인 제17회 세계잼버리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세계잼버리는 세계각국의 지도자가 될 주역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세계의 청소년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교류를 하는 스카우트 세계 큰잔치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스카우트 대원이 되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잼버리에 참가해 활동해보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참가하는 대원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 서울올림픽을 전국민이 하나가 되어 성공적으로 치루어 냈듯이, 이번 행사도 훌륭하게 치룰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세계잼버리 성공을 다짐하는 이곳, 젊음과 자유와 질서, 그리고 스카우트라는 한 가족으로서 갖는, 끈끈한 연대감이 하나로 뭉쳐 뜨거운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질서와 규칙을 준수하며, 서로 협동하고 단결하는 스카우트 대원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한편으로, 충절의 고장을 이끌어가는 내일의 주인공답게, 의연하고 당당하게 행동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스카우트 큰잔치가 여러분 모두의 강인한 심신단련은 물론, 인격도야와 봉사정신을 스스로 함양할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빕니다.

보람찬 내일을 힘차게 이끌어 나갈 스카우트 대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어른들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과 그리고 격려를 보내면서,

여러분 모두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고, 흥겹고 신명나는 축제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5월 27일

문화예술의 가치

친애하는 미술인 여러분!

그동안 지역화합을 이끌고 고장의 명예를 빛내온 충청남도 미술대전이 어느덧 스물한번째라는 성숙한 연륜을 쌓게 되었습니다.

특히 각고의 노력끝에 오늘 영예의 수상을 하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향토에 대한 남다른 사랑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우리고장 미술인과 예총관계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난 30년간 아무것도 없는 폐허위에서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자동차가 홍수를 이루고 있고 중산층이 두껍게 형성되면서, 이제는 다소 여유있는 생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과정에서 사람들의 심성은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국민들의 문화예술적 욕구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남도는 천년을 지킨 백제문화와 전통적인 정신과 유산을 가진 자랑스런 문화의 고장인데도, 이를 잘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90년대를 정신적인 풍요가 물질적인 것을 앞서고, 전통과 문화가 꽃필 수 있는 수준높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고장에서는 미흡하나마 문화공간도 많이 생기고 전시회와 공연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문예진흥기금도 점차 늘려 지역문화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하고, 더 큰 발전을 위해서 행정적인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쪼록 더욱 창작활동에 전념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욱 훌륭한 작품이 더 많이 나오고 우리 충남문화예술이 나날이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91년 6월



△ 국립묘지에서

제22회 한국JC충남지구회원 대회 축사

1991 년 6 월 1 일

자랑스런 젊음의 기수

친애하는 충남 JC 가족 여러분!

그리고 부인회원 여러분!

오늘 한국 JC 충남지구의 스물두번째 회원대회가 유서 깊은 백제의 고도인 이곳 부여에서 개최하게 된것을 먼저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도정에 협력과 성원을 보내 주신 라경환 충남지구 회장님과 회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예의 충남인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무릇 청년은 투명한 이성과 예리한 지성으로 한 시대를 조화롭게 이끌어 가야 할 책임 있는 세대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은 이 시대와 이 사회, 그리고 이 지역을 이끌어 가는 자랑스러운 젊음의 기수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망의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더 큰 기대와 희망으로 우리의 미래가 풍요롭고 살기 좋은 복된 터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성장과 땀의 구실이, 다시 한 차원 더 높은 번영의 꽃으로 피울 수 있느냐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 충남은 전통과 충절의 문화가 숨쉬고 선비정신이 빛나는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이러한 전통과 긍지는 우리 지역이 국가 번영을 선도할 수 있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데 정신적인 힘이 되고 바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러한 지혜와 저력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회원여러분은 우리 고장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과 공통된 인식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봉사 활동을 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캠페인 전개와 사랑의 삼각끈 맺기, 공명선거 캠페인, 어린이 보호와 청소년 선도사업등, 참으로 뜻깊고 보람찬 많은 사업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충남의 미래는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와 뜨거운 가슴으로 부터 샘솟고 밝게 비쳐지고 있음을 정말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청년지도자여러분의 뜻깊은 회원대회가 서로간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고, 지역사회 봉사의지와 실천의 불을 지피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고장의 미래를 활짝 여는 JC가족 여러분의 건승과, JC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6월 1일

6월은 호국보훈의 달

뜻깊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먼저 우리민족의 생존과 자유를 지키다 가신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이나라 이 겨레를 위해 신명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전몰군경의 고귀한 충절을 추앙하면서 그 유업을 받들어 오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함께 위로를 보냅니다.

오로지 국권회복과 조국수호를 위하여 사사로움을 저버린 애국지사와 호국용사의 공헌과 희생을 되새기고 그분들의 유가족을 보살피고 예우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눈부신 국가발전을 이룩해가고 있는 것도 지난날 어려운 여건을 해쳐나간 선열의 우국충정이 있었기 때문이며, 전몰장병과 국가 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달은 더 깊은 의미와 숙연함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이달은 6.25 41주년을 맞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 공산주의로부터 얼마나 큰 슬픔과 상처를 입었는가에 대하여 전후세대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조국의 분단이라는 엄연한 현실속에 일천만 이산가족이 이웃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길은 오직 안정과 화합

으로 우리의 힘을 비축하는 일입니다.

그처럼 우리 선대가 역경과 곡절을 겪고나서 얻은 오늘의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일부층의 그릇된 의식의 발상과 행동으로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온 국민이 소망하며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취해가고 있는 민주화의 과정에서 호국영령들의 뜻에 반하는 환상적 이념과 급진적 사고는 이땅에서 추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이 전환기적 시기에는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가 지혜와 힘을 모아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안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가신님들에 보답하며, 한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다함께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에 충절의 고장, 자랑스런 충남인의 기개를 드높이며 정성어린 도민적 성원이 유가족과 이산가족들에게 따뜻하게 전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보훈가족에게 보내는 서한

1991년 6월 1일

가신님들의 유업

해마다 6월이 되면, 우리는 일찌기 조국광복과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전몰군경의 충절을 생각하며, 그 깊은 의미를 새기게 되고 숙연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동안 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나가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오신 유가족여러분께 먼저 마음 속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통하여 나라를 걱정하고 위하는 길이란 어떤 사무친 말이나 이념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천과 행동으로 나라사랑의 길을 일깨워 오신 우리 선대가 겪어야 했던
그 아픔과 역경은 결코 잊혀지는 역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확실히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 국내외 상황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고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과 같이 애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에 반하는 그 어떤 이념적 투쟁이나 급진적인 행동은 마땅히 이 땅에서 자제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가신 님들의 유업에 한점 부끄럼 없는 나라번영과 사회안정의 기틀을 다져나가야 할 때 입니다.

님들의 희생과 공훈으로 우리가 이 만큼 잘 살게 되고 번영의 내일을 일구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예우와 보훈이 충분치 못한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뜻 깊은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께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국민적 관심이 확산되고, 진정한 애국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도민 모두가 깨닫고 실천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뜻대로 성취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중도 포커스" 축간사

1991년 6월 1일

사랑받는 충청인의 화보

그동안 지역사회개발과 지방언론문화 창달에 앞장서온 중도일보사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월간화보 "중도 포커스"를 창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정보의 홍수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새로운 감각과 신선한 가치를 제공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무분별한 정보의 범람으로 자칫 판단을 흐리게 하고 가치관을 혼란시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냈던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의 문턱을 지척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지방화시대가 열리고, 중산층도 두터워져, 과거와는 전혀다른 다소 물질적인 여유를 갖는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치관이 퇴색되고 사람들의 심성은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질적 발전에 걸맞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고 선진된 국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절실해 지는 이때입니다.

더구나 우리지역은 국토의 중심지로서 산업 올림픽이라 일컫는 '93대전 EXPO를

앞두고 있고,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하게 될 서해안시대의 도래로 지역민들은 그 어느때 보다도 도약과 발전에 대한 부푼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중도 포커스는 이러한 기대와 여건을 가진 우리 지역이 추구하고 지향해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지역이익의 충실한 대변지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유익한 생활정보의 메카로서, 사랑 받는 "충청인의 화보"로 알차게 성장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1991년 6월 4일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새롭게 도약하는 「자랑스런 충남건설」을 다짐하면서 91년에 업무를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의 문턱인 6월을 맞이 했습니다.

그동안 책임을 다해주고 창의와 진실을 바탕으로 화합하고 봉사하며, 도정을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준 산하 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속 깊이 치하의 말씀을 보내고자 합니다.

시간은 금이라는 옛 어른들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는 시간의 흐름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귀중함을 알고 시간을 앞서가며 또 이를 잘 관리하는 적극적인 공직자의 모습을 그리면서 당면한 도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0일에도 우리도의 살림을 맡아 처리할 광역 의원선거가 실시됩니다.

총 55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될 이번 선거에서도 지난번 실시된 기초의원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선거를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로 불법과 타락이 없는 모범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각자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번 광역의원 선거는 정당의 선거 참여가 허용되기 때문에 자칫 선거분위기가 과열되기 쉬울 것으로 우려들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공명선거 실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때 일수록 우리 공직자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사전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으로, 또 불법적이고 타락한 선거분위기를 사전에 완전 제압해 나가므로써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겠습니다.

한편 선거를 관리하는 공직자의 자세에서도 다시 한번 경각심이 촉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당간에 첨예한 대립으로 자칫 선거개입에 오해 소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특히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줄로 압니다.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입후보자의 건전하고 깨끗한 선거운동과 함께 유권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첫째 타락선거를 막아야 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공명선거를 외치고 깨끗한 선거를 치루고자 호소해도 국민이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주지 않는다면 그 성과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군의원 선거를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루어 선거사상 유례 없는 분기점을 이룬 것과 같이 광역 의원 선거도 완전한 공명선거로 새로운 선거기틀을 마련하도록 모두가 관심과 정성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끝까지 잊어서는 안될 것은 비록 정당참여가 허용 되고 있다 하여도 지방의회는 정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지역살림꾼이 맡아주어야 할 것이고 지방의회가 몰 이성적 정치판에 함몰되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다음 광역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당부할 것은 선거후 의회 구성에 따른 완벽한 대비자세를 갖춰달라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에 새로이 참여한 이들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소상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정현황 소개와 함께 기능별로 소관위원회에 대한 상세한 업무보고가 이루어 지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인만큼 이분들에 대한 정중한 예우와 함께 불편이 없는 집무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준비가 소홀함이 없게 대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 모두는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에서 모든것을 책임 해결해야 하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 했습니다.

모든 지방의 공무원은 관련서적을 탐구하고 전문가에 도움을 얻어서라도 담당업무에 최고 권위자가 되고 통달하기 위해서 스스로 분발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처리한 업무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공직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시대가 그러한 공직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스스로를 재목으로 길러 가야 합니다. 또한 지역 안정을 위해서 공직자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5월은 우리 공직자에게 국가안녕과 지역안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달이기도 합니다.

명지대 강경대군 치사사건을 계기로 일부 운동권학생과 재야단체가 주동이 되어 각 지역에서 벌린 시위사건으로 도시마다 한때 시가전을 방불케하는 소란스러웠던 것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상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에도 지장을 받았던 대다수 시민과 학생들이 이를 외면하고 시위자제를 호소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무총리께서 물러나고 내각이 새로 개편되었습니다.

아울러 민심의 일신을 위한 특별조치가 있었고, 이제 민심도 자제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탄스러운 일은, 20세 안밖에 의식화된 대학생들이 제나라 국무총리에 팔을 잡고 발길질을 하고 폭행을 하면서 또 강의실 문을 부수고 10분이상이나 실랑이를

벌였던 사실입니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며 폭행과 생명의 파괴를 서슴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의 안정을 이루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댓가가 필요한지 새삼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하여 안정을 잃기가 일순간 이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여기에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공직자의 올바른 의식과 확고한 신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 입니다.

공직자는 사회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의식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시대적 상황에 처하건, 또 어떠한 역경의 길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체념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 안정과 지역발전을 의하여 헌신해야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 공직자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공무원이 흔들리지 않고 의연한 모습을 보일 때 주민들은 거기서 안정을 구하게 되고 반면 공무원이 흔들리고 방황하게 되면 주민도 동요하게 되어 지역의 안녕도, 사회의 질서도 경제나 건설도 더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민과 가장 가깝고 밀접한 위치에서 지방행정을 행하는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주민에게 꿈이 될 수 있고 희망이 된다는 것도 인식해야 합니다.

지역의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적극 앞장서 주셔야겠습니다.

탁상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정을 자칫 무사안일과 권의주의에 기울여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사고와 업무수행자체를 현장중심의 봉사 행정체제로 일대전환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폭 넓게 수렴하고 주민들의 걱정과 아픔이 있는 곳에 늘 행정이 찾아가서 머물게 함으로써 도민과 더불어 기쁨과 아픔을 함께 누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과 주민간에 뜨거운 정이 흐르게 되고 주민마다의 가슴과 피부에 맞닿는 봉사와 신뢰의 성을 더욱 견고하게 쌓아나가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엊그제까지 단비가 많이 내려서 모내기 철인 요즈음 우리 농민들에게 더 없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는 동남아 계절풍의 영향으로 장마철과 함께 동반되는 태풍과 폭우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난 87년 우리 충남과 내륙지방 금강유역에 내린 폭우로 사상 유례없는 인명과 재산 손실을 입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 입니다.

변덕스런 기상에는 정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조화에 인간의 힘은 스스로 한계가 있는 법이고, 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은 예방이 첫째입니다.

우리가 할일은 지난 87년의 수재를 거울삼아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재난대비를 철저히 하는 일입니다.

도로나 교량, 축재와 제방등을 사전 점검하고 수방자재나 장비를 확보하고 정비를 해서 유사시에는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응급복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도 정비하고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미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상반기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년초에 계획했던 사업과 시책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어야 할 단계에 왔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에 따라 추진 되야 하고, 그만한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만큼 상반기 동안의 추진 상황을 다시한번 재검토해 보도록하고 그동안 추진상의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하루속히 보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겠고, 진도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원인을 분석하여 상반기까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잘 짜여진 계획은 이미 반이 완료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빈틈없이 추진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동안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 지어 하반기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모두의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입니다.

이땅을 지키기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호국의 이슬로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의 넋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리도록 하고 어려움속에서도 꿋꿋히 살아가는 보훈 가족들에게 따뜻한 동포애로 관심을 갖는 한 달이 되어야겠습니다.

공직자의 조그만 친절에도 주민은 고마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자신에게는 별것 아닌 것이 될는지 몰라도 공무원을 믿고 의지하는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그것만큼 고마운 것이 없는 것 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이처럼 사소하고 조그만 것에도 쉽게 움직이는 주민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행정은 이미 주민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과 고향에 대한 애정, 그리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업무분야에는 확고한 신념을 갖는것 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그 험한 역경과 파도를 헤치면서도 그 노인이 끝끝내 버리지 않은 것은 그 큰 고래가 아니라 굽힐 줄 모르는 "신념"이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내가 맡은바 업무에 이러한 용기와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6월을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주민과 함께하는 도정으로 밝은 지역사회를 이루는 활기찬 6월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직원 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희망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자율기동순찰대 천안연합대 10주년 기념식 격려사

1991년 6월 8일

한차원 더 높은 지역사회

지역주민의 안녕과 치안질서 유지에 자율적으로 봉사해온 한국자율순찰대 천안 연합대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자로서 헌신 노력해온 임 만순 대장님을 비롯한 대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치하와 찬사를 보냅니다.

풍요롭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 이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요 바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귀가 아프도록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남을 위해 봉사하고 베푸는 인정은 인색한 편입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의 특별담화 이후 그동안 우리는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폭넓게 형성하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일각에서는 법과 질서가 무시되는 형태가 잔존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전통적 윤리와 가치관이 흔들리는 시련과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성숙하고 발전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지금 스스로 겪고 있는 시련과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한차원 더높은 지역사회를 이룰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젊은 대원여러분의 성실한 봉사와 신의 가득찬 의지는 우리

고장이 충절과 선비의 고장이라는 명예를 드높이고, 이 사회를 보다 밝고 건강한 사회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려과 봉사에 대하여 거듭 치하와 격려를 보내 드리면서 대원 모두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한국청소년 연맹 10주년기념 단원전진대회 격려사

1991년 6월 9일

세가지 소리

오늘 우리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이 깃든 이곳 독립기념관에서, 한국청소년연맹 창립 열돌을 자축하는 단원전진대회와 함께 청소년축제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밝은 웃음과 건강한 모습으로 대회에 참가한 청소년 여러분에게 먼저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토록 보람된 잔치를 마련해 주신 한국청소년 충남연맹 박종윤 총장님과 지도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단원 여러분!

예로부터 한 집안이 잘 되려면 그 집안에서 세가지 소리가 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번째는 어린이의 웃음소리요, 둘째는 일하는 소리이고, 세번째는 자녀들의 공부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집안은 기울어져가는 집안이요, 미래와 희망이 없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이나라를 이끌어야 할 소중한 새싹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꿈과 이상, 그리고 진취적 기상과 의욕은 여러분이 가질수 있는 특권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맞이 하는 청소년기는 일생중에 제일 변화가 많고, 여러분이 어떠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행동하며 실천하느냐에 따라 우리 모두의 장래가 결정되는 참으로 소중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여러분 각자의 것일 수도 있고 이지역과 우리나라, 그리고 나아가 전세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사회와 민족의 주춧돌이 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 모두의 희망인 청소년 여러분!

내일의 꿈을 소중하게 가꾸어야 할 여러분에게는 각자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일에는 서툰사람도 다른 일은 훌륭하게 해 내기도 합니다.

이 처럼 사람은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여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협동이란, 한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우리사회가 근대화되면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런 전진대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뜻 깊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축제에서 내일의 주인공답게 질서를 잘 지키고, 상부상조하는 형동심을 길러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능력이 적은 사람도 얼마든지 남을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서로 돕고 힘을 합하여 공동으로 해결하는 자세와 습관이 생활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싱그러운 여름 하늘아래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더욱 활짝 피어나고 힘찬 기상과 용기가 빛나게 되는 유쾌하고 보람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회준비에 애써 주신 한국청소년 충남연맹 관계자여러분, 그리고 함께 참여하신 지도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중앙 로타리 클럽 10주년 기념사 발간 축간사

1991년 6월 10일

더불어 사는 사회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소중히 하는것은 알게모르게 스쳐버린 시간을 현실에 조명해보고 성찰하면서, 내일은 보다 나은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려는 의지의 소산입니다.

천안중앙 로타리 클럽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봉사를 다짐하며 보람된 활동을 펴온지도 어느덧 10년의 경륜을 쌓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 볼때, 로타리안 여러분의 남다른 의지와 헌신적인 봉사활동의 흔적은 우리 지역 곳곳에 남아 촉촉히 배여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구슬진 땀을 흘리고 우리 도정에도 적극 협력해 주신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뜻깊은 클럽 1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로타리의 상징인 툡니바퀴의 원리와도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란 인간이 이러한 사회적 존재로서 해야 할 일중 가장 가치있고 소중한 일이 될것입니다.

한사람의 아픔이 전체의 아픔으로 이어지고, 한사람의 기쁨이 전체의 기쁨으로 확산될때, 이사회는 밝고 건강한 선진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뜻깊은 클럽 10년사의 발간으로, 회원여러분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천안중앙 로타리 클럽이 해를 거듭할 수록 지역사회를 밝게 비치는 등불이 되고, 바람직한 지역역사를 창출하는 알찬 성장과 발전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농산물 수출상담역 간담회 인사

1991년 6월 11일

우리 농산물을 먹일 수 있다.

본인이 부지사로 재임하던 작년 11월, 예산사과단지에서 뵙고 오늘 이자리에서 다시 뵙게 된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서울과 수원, 대전등 각지에서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바쁜 농사 시기에 사과, 밤,배, 화훼농가 대표분들까지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 수출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천안원예농협에서, 농산물 수출 상담소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되어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올 봄에는 그런대로 날씨가 좋아서 과실의 착과가 잘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가을에는 과일 값도 좋고 풍성한 결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농산물 수풀 담소는 지난 89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농산물 4개 품목을 가지고 미국 시카고 식품전람회에 도 단위로는 국내 최초로 참여하여 외국의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포장의 개선을 통하여 상품성을 제고시키고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농산물포장재 경진대회를 작년 11월에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충남농산물 수출을 위해 항상 걱정해 주시고, 노력해온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협조와 노력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으로 많은 농민들이 불안과 우려를 금치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국의 농산물이 들어온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먹일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우리 충남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수출상담소 운영의 발전방안에 대한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우리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오늘의 모임에 진지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도정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도 아울러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1991년 6월 12일

선배로서의 도리

오늘 바쁘신 중에도 어려운 자리를 함께 하셔서 기조연설과 주제발표를 해 주실 공주대학교 안종운 교육대학 원장님과 충남대학교 김종석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시는 교수님과 사회 각계의 청소년 지도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0년대의 문턱을 넘어선 지금 우리는 성큼 다가온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복된 선진한국을 내다보면서, 우리의 미래는 확실히, 희망과 부푼 기대가 내재 되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것은 나라의 장래와 내일의 이 시대를 담보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청소년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확실히 격동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하게 변화를 거듭하는 오늘날,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고 안밖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청소년들은 자칫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그들의

예민한 간수성은 유해환경으로 부터의 유혹을 뿌리칠만큼 정신적으로 성숙되어 있지도 못합니다.

이들을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면서,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키우는 일은 모름지기 기성인들이 해야 할 의무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난날을 되돌아 보고 알게 모르게 저질러진 그 많은 시행착오나 낭비된 인생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 선배로서의 도리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오늘날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각국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의견과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어느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모범답안을 내놓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의 청소년 문제가 아니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되리라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학교와 정부 모두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이 처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장래를 위한 불을 지펴 나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밝아지고 희망이 넘쳐 흐르는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자리가 청소년문제에 대한 이 시대의 바람직한 육성방안이 제시되고 폭 넓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의 인식과 의지가 새롭게 다져지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토론회 준비에 애쓰신 청소년 연구지도회 관계자여러분과 참여해 주신 교수님 그리고 각계의 청소년 지도자여러분께 심심한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망향탑 건립 1주년 기념 남북통일촉구 및 공명선거다짐 대회 축사

1991년 6월 13일

통일의 계단

오늘, 두고온 북녘산하를 그리며, 통일을 염원하는 이북5도민 여러분의 의지와 정성으로 세워진 망양탑 건립 1주년을 맞이하여, 200만 충남도민의 한결 같은 정성과 뜨거운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무분별한 파괴와 살상의 총성이 귀를 찢고, 부모 잃은 전쟁 고아의 울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던, 6.25가 발발한지도 어언간 41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육탄으로 조국을 지켰던 역전의 용사는, 이제 초로의 백발이 되었고, 그날을 체험하지 못했던 젊은 새 세대들도, 이제 장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60만 실향민 여러분!

아직도 분단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통일을 향한 6천만 겨레의 우람한 번영의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는 안정과 단합이 가장 기초적인 관건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로운 삶을 위해, 다같이 통일에 대한 기대와 염원을 갖고 더욱 인내하고 단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조국 통일의 길을 더욱 앞당기는 굳건한 발판을 한계단 한계단 착실히 쌓는 일을 함께 힘써 나갑시다.

오늘 먼길에서 찾아주신 홍성철장관님, 안응모장관님, 지창훈지사님, 그리고, 이북 5도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991년 6월 14일

문화의 가치가 구현되는 사회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전통민속 명절인 단오절을 앞두고 세번째를 맞이하는 민속대제전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에 힘써 오면서, 이처럼 뜻깊고 보람있는 자리를 정성으로 마련해 주신 중도일보 이기창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민족은 아득한 옛날부터, 멋이 넘치고 흥에 겨운 놀이를 생활속에서 즐기며 살아 왔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오랜 세월동안 면면히 이어져 우리만의 독특한 전통민속으로 민족의 독창적인 문화를 가꾼 바탕이 되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한국 고대사 속에 찬연히 그 꽃을 피웠던 700년 백제민족의 터전이었으며 항시 선비의 기개와 충절의 역사를 간직하면서 수많은 문화재와 아름다운 민속을 면면히 이어온 유서깊은 역사의 고장입니다.

마을의 여러 얘기가 향토사로 엮어지고, 한 시대를 스쳐지나간 많은 얘기가 또한 우리 고장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단오절은 본격적인 농사철로 접어들면서, 풍년을 기약하며 제사를 지냈던 큰 명절

로써 그네뛰기와 씨름을 즐기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서, 천중 부적을 문에 붙이고 익모초와 약쑥을 뜯었던 기억은, 그리 오래된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구의 물질문명이 들어오고 우리 사회가 고도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 이러한 고유의 풍습은 하나 하나 잊혀져 가는 옛 얘기가 되어 아득하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조상들이 살다간 이야기와 옛정취가 담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우리의 삶에 보람과 즐거움을 주는 문화의 가치가 격조높게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상들의 애환이 서리고 혼이 깃든 우리의 것을 다시 재조명하고 온전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더욱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일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세번째로 맞이하는 민속대제전이 갖는 의미는 남다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행사가 우리모두에게 선대들이 남겨 놓은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이를 보존하며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다짐과 화합의 잔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민족문화의 맥과 전통을 이어 나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오늘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슬기롭게해 창조해 나가게 되고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대회 준비에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예산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치하를 드리면서 참석하신분 모두가 보람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7회 대일 보훈대상 시상식 축사

1991 년 6 월 14 일

넘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라사랑의 정신과 보훈의 가치가 절실한 6월을 맞이하여, 오늘 지역사회 언론문화를 이끌어 온 대전일보사가 보훈가족을 위해 마련한 제17회 대일보훈대상 시상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인은 좌절과 실의를 딛고 일어나 우리 보훈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면서 남다른 봉사와 희생으로 사회의 등불이 되어오신 네분의 수상자 여러분께 마음속 깊은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몸을 희생하신 호국선열과 그 가족을 위한 많은 행사를 갖고 보훈의 뜻을 되새기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세대가 겪어왔던 지난날의 수난과 뼈아픈 역사는 가슴속 깊은 상처로 남아 실제로 남아 있는 우리 보훈가족에게도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주어 왔습니다.

그동안 이분들에 대한 시책적인 지원이 있어왔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진전을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신 님들께서 몸바쳐 희생하신 공헌에 비한다면, 아직도 국민적인 관심과 그 예우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뜻에 반하는 오늘의 사회분위기 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 5월을 최루탄과 화염병으로 얼룩진 한달을 보냈습니다.
선열들께서 목숨을 바쳐 지킨 이 나라를 혼란스러운 분위기로 연출해 낸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이분들에게 다시는 보여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이분들의 유업을 받들고 살아 가시는 우리 보훈가족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이며참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월남전선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시다 부상하신 분과 지뢰폭발의 부상을 딛고 신체적 고통을 극복하며 자립기반을 구축하신 두 용사가 계십니다.

그리고 경찰 유가족으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과 30년간 남편의 눈과 팔다리가 되어 4남매를 길러오신 또 다른 두 분이 계십니다.

뜻하지 않게 닥쳐온 시련과 고통은 정말 괴롭고 서글픈 일입니다.

슬픔과 좌절을 딛고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일어설 때마다 또 다시 엄습하는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데는 남다른 인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수상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그러했듯이, 이 분들도 넘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면서,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네분의 장한 뜻과 가치있는 삶이 우리 고장 보훈가족과 지역민의 교훈이 되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의 애국애족정신과 보훈의식을 드높이는 횃불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오늘 인간승리의 표상이신 네분을 발굴해 주시고 해마다 우리 보훈가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계신 대전일보사 서춘원 사장님과 사우 여러분, 그리고 각계의 성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 년 6 월 16 일

성취 의욕에 불을 지펴

오늘 유서 깊은 고장 예산에서 방송통신 대학인여러분이 한데 모여 아홉번째로 맞이하는 금강체육대회가 개최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준 8,000여 방송통신대학인 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돌이켜 보면 방송통신 대학이 설립 되어 운영되어 온지도 벌써 20여년의 연륜을 쌓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졸업을 하였고 사회 곳곳에 진출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중견사회인으로 활동하고 있슴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방송통신대학인 여러분!

우리는 미래라는 낱말 속에서 항상 밝은 희망과 많은 기대를 갖게 됩니다.

비록 그것이 막연한 느낌이 있을 지라도 우리의 가슴을 뿌듯하게 채워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미래를 향하여, 사람은 누구나 희망을 갖고 있고 또 보람 있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람이란 뜻있는 일 가치 있는 일, 꼭 해야할 일을 이룩했을 때 느끼는 정신적인 만족감이고 지적인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속에서 인생의 뜻을 세우고 자기성장을 위한 줄기찬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자신의 목표 성취를 해서 큰 기쁨과 보람을 가슴속 깊이 느낄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알게 모르게 지내온 낭비된 시간을 보충하고, 한번뿐인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고 보람있게 사는 지혜를 얻고자, 의지와 신념으로 내일의 꿈을 가꾸고 있습니다.

자기 성장을 느끼면서 발전하는 일은 스스로만이 갖는 기쁨과 보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스스로 자질과 소양을 높이고 자신의 성취의욕에 불을 지펴서, 우리 지역 사회는 물론 선진된 이 나라를 역동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상처입은 조개가 진주를 잉태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처해 있는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학업에 더욱 정려하기를 당부드리면서, 다가오는 21세기는 바로 여러분이 우리 지역사회의 성장과 번영을 주도하는 내 고장의 자랑스런 새 주역이 되고,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활짝 열리는 보람의 시대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되고, 서로간의 친교와 우의가 샘솟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대회개최와 준비에 힘쓴 한국방송통신대학 대전·충남 총학생회 임원여러분과 성원해 주신 동문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6월 17일

지역공동 이익을 대변

우리 고장 최초로 순수 사회경제지로서 탄생되는 한밭신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안정된 경제 생활과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의 사회를 원하는 것은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시민의 생활과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전환기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국민 모두 구슬진 땀과 억척같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제는 어느정도 여유있는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제 2의 도약기를 맞이하는 우리 앞에는 참으로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공업화 추진에 따른 공해와 환경오염 문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문제와 주택문제, 과소비 물가안정등 실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성숙화를 지향하는 우리경제는 지난날 고도성장으로 야기 되었던 시행 착오를 거울 삼아 경제를 건전화 시키고 시민생활의 향상과 안정된 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다져 나가야 할 때입니다.

더구나 지방화 시대의 도래로 지역적으로는 자금이 중앙으로 역류되고 지역 경제가 공동화 되는 현상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지역에서 산출된 재원을 재투자 하고 이를 극대화 시키는데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한밭 신문은 이러한 우리지역이 스스로 극복하고 헤쳐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하면서 지방경제문화를 역동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다양하며 흥미진진한 생활 경제 보도를 통하여 우리 지역이 보다 풍요롭고 복된터전으로 가꾸워 질 수 있는 유익한 경제 전문지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 막 새로이 태어나 홀로서기에 감내하여야 할 시련이 많겠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공동이익을 대변하는 신선한 보도를 통하여 도민들의 사랑 받는 사회 경제지로서 알찬 성장을 기원합니다.

1991년 6월 18일

아픈 역사를 삼키고

「오늘 서른 여덟번째 반공의 날을 맞이해서」 자유수호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 분연히 일어섰던 지난날의 동지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공산주의 실체와 본질을 일깨워 주면서, 자유 민주체제 수호의 결연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신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해마다 6월이 오면 우리는 동족 상잔의 처절했던 6.25를 상기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집단과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치루며 이름 모를 산과 들에서 산화화신 영령들의 침묵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전쟁의 총성이 멎은지 41년의 세월이 흘러, 공산주의자들과 육탄으로 맞서 싸웠던 역전의 용사들도 어느덧 백발 성성한 노인이 되었고, 아직도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라는 멍에를 진 전선의 총구는 41년이라는 허망한 세월을 지키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여러분은 대한 반공청년회를 조직한 이래 38년 동안 공산주의 허구성과 실체를 폭로하면서 승공통일의 의지와 실천에 앞장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수호의지와 국민들의 반공정신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이땅을 건히 지킬 수 있는 정신적 바탕이 되어 왔으며, 폐허로부터 번영된 이 땅을 일구어

온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땀을 흘리고 성장의 씨를 뿌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랑스런 나라로 가꾸어 냈습니다.

그러나 자유용사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공산치하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북녘동포들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저미는 가슴을 달래며 살아가는, 1천만 이산가족이 있습니다.

이렇듯 전쟁이 준 상처는, 우리를 아직도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울분으로 남아 있고, 우리의 가슴속 깊은 응어리는 그대로 뭉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 졌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전쟁의 비극적 체험과 쓰라린 교훈은,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결코 잊혀지는 역사로 만들어져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한 제단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쌓아나가면서, 이땅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일구어 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과거의 쓰라렸던 역사를 망각하고 체제전복을 노리고 폭력혁명을 꿈꾸는 얼빠진 세력들이 우리를 한없이 슬프게 하고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낡고 쓸모없는 사상에 심취하고 자기들만이 통일과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착각속에서 부질 없는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할 말이 많은 사람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소리없이 묻혀 있는 호국영령들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허구에 가득찬 것인가를 직접 체험하고 느꼈던 여러분들입니다.

할 이야기가 없는 것도, 분노가 치밀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말없는 많은 사람들은 인내와 침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동으로 보여진 애국심만이 진정한 애국심"이란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며, "나라의 안정과 발전이 통일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뜻깊은 반공의 날이 아직도 분단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민주체제의 소중함을 다시금 자각케 하고 나라발전과 통일을 위한 우리모두의 결의와 각오를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아픈 역사를 삼키며 꿋꿋하게 뜻을 모으고 행동으로 실천해 오신 우리 고장 자유용사여러들과 함께, 자유민주 체제의 수호와 통일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1 년 6 월 21 일

당선을 축하 드리며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속에 진행되었던 광역의회의원선거를 마치면서, 먼저 우리 도의 살림을 맡아 주실 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시군의회선거와 이번 선거를 무사히 치루어냄으로써 이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도민들의 부푼 꿈을 싣고 본격적인 출범의 닻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정치 보다는 본질적으로 지역살림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지역의 역사를 창출하는 곳이라고 본다면, 의원님께 거는 도민들의 기대 또한 남다르고 자못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고장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대표자로서 언제난 자랑스러운 충남인이라는 긍지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선도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아울러 탁월한 식견과 깊은 안목으로, 우리 도정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주민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성찰하면서, 우리의 밝은 미래를 가꾸어 나가는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힘껏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평소 다짐하시고 제시하신 지역발전에 대한 의견과 17,000여 공직자와 도민의 화합된 힘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으고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 고장의 지방자치는 그 어느곳 보다 그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선을 거듭 경하 하오며, 무더운 여름 건강 하시고 댁내 평안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1991년 6월 25일

분단종식의 책임

오늘 우리는 쓰라린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졌던 6.25전쟁 마흔 한돌을 맞이하면서,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위한 다짐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냉전 이데올로기의 불우한 유산을 물려 받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치른 댓가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온 강산의 초토화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엄청난 재산 손실과 함께 지금도 가슴속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1천만 이산가족을 남겨 놓았습니다.

6월의 푸른 하늘을 찢으며 날아오던 포성소리, 그리고 阿鼻叫喚의 아우성 소리도 이제는 41년이라는 세월속에 묻혀졌습니다.

살기등등했던 눈빛도 치밀었던 분노와 회한도 무정한 세월속에 희석 되고, 당시 몸을 던져 조국을 지켰던 역전의 용사도, 이제는 초로의 백발이 되어 가슴속에 상처를 감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6.25는 갔지만,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버려야 했던 쓰라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재발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 힘이 없으면 결국 슬픈 역사의 뒤안길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은 더욱 불신과 적대감 속에 빠져들고, 평화통일의 길은 더욱 요원해 지면서, 남은 것은 쓰라린 상처와전쟁의 폐허 뿐이었습니다.

결국 휴전이 되고 포성소리는 멈추었지만 그렇다고 한반도의 전쟁이 끝난것도 아니고, 새로운 전쟁위협을 종결 시킨 것도 아니며, 평화를 보장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치고 힘든 악몽의 세월과 전쟁재발의 위험 속에서도,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나 폐허와 황무지를 빌딩숲과 옥토로 가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인의 찬사속에 올림픽을 치룰 만큼 자랑스런 나라를 이룩했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6.25가 동서 냉전체제를 가속화 시켰다면, 서울 올림픽은 동서간의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장을 여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은 서울 올림픽에서 보여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피부로 실감했고, 더구나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잿더미속에서 일어나 자유와 번영을 치닫고 있는 자유한국의 참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스스로 선택한 자유민주체제를 굳건히 지키고 평화통일의 의지를 모아 성장과 번영의 꽃을 더욱 활짝 꽃 피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그토록 염원하는 것은 우리 국토와 민족을 하나의 국가와 국민으로 하여, 보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5천년의 역사를 함께 해온 같은 핏줄이 흐르는 단일 민족이며, 같은 말을 쓰고 전통문화를 함께 창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우리라고 부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신념을 굳게 하고 더욱 발전시켜 선진된 복지사회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을 향해서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한다면, 우리는 머지 않은 장래에 평화통일을 실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통일을 위한 많은 세월을 인내와 끈기로 견디어 왔습니다.

이토록 민족 통일의 길은 멀고 험난하지만, 우리민족이 꼭 이루어 내야 할 숙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인내하고 꾸준히 우리의 의지와 힘을 비축하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분단된 조국이 비록 타의에 의해 저질러진 비극적인 역사라 할지라도, 분단을 종식기킬 책임은 우리 스스로의 의사와 능력으로 이루어 내야 할 참으로 소중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자유용사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전후세대들에게 6.25는 지나날의 소중한 교훈으로, 내일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역사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슬픔과 전쟁의 처절한 모습을 이 땅에 다시 연출할 수 없으며, 우리 후손들에게 절대로 남겨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족통일의 과업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떠한 인고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의 결집된 의지와 역량을 바탕으로, 이땅에 안정된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때입니다.

6.25 마흔 한돌을 맞는 오늘, 자유를 지키다 산하하신 호국영령들의 앞에서서, 우리 모두는 전쟁의 피맺힌 상처를 민족과 역사의 교훈으로 되살리면서, 통일에 대한 의지와 민족의 새로운 역사 창조로 승화시켜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대회준비에 애쓰신 재향군민회원 여러분, 자유용사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기관단체장님과 시민여러분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8회 충청남도 여성대회 격려사

1991 년 6 월 26 일

어머니의 힘

오늘 가정을 건전하게 이끌고 건강한 사회를 가꾸기 위해 애쓰시는 여성 지도자 여러분들이 다시 모여, 여덟번째 여성대회를 갖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어려운 시간을 내주신 이계순 정무제2장관님과 주제강연을 해 주실 조규호 한국교육문화원장님 그리고 토론을 함께 해 주실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먼저 우리고장 각 여성 단체가 힘을 모아 여성 스스로의 역할과 자질향상에 힘쓰면서, 지난 1년동안 뜻 깊고 보람있는 사업을 힘써 추진하고 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주신데 대하여 더 없는 치하와 찬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대회 주제가 「어머니의 힘, 나라의 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화해도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이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식을 향하는 어머니의 정성과 염원은 지금 이 시대가 제아무리 자유분방하고 개인주의 사상이 팽배해도, 어머니의 샘솟는 사랑의 힘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한 석봉의 어머니가 장난이 심하고 교만에 차 있는 아들의 심기를 바로 잡고자 준엄하게 붓을 꺽고 벼루를 깨야 했던, 그런 옛날 어머니상을 되살리지 않더라도, 어머니의 힘이란 단단한 바위틈을 뚫고 뻗어 나는 나무 뿌리의 생명력 처럼 강인하고도 그칠줄 모르는 줄기찬 모성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가 급격히 변화되고 다양화 됨에 따라, 가족들에 대한 어머니의 지위와 교육적 위치도 많이 변질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사회 참여가 늘어나고 생활이기와 교육제도의 발달로, 아이들이 어느정도는 어머니의 보살핌이 없어도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머니를 실제로 접촉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어, 사랑과 이해의 틈이 벌어지기 쉽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어머니가 옛날의 어머니로 되돌아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럴수록 오늘에 맞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이 사회를 적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처해 있는 공통된 과제입니다.

모쪼록 오늘 모임에서 우리 사회에 맞는 어머니의 바람직한 역할이 논의 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여성운동의 목표와 그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 되는 뜨겁고 활발한 토론의 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결의와 다짐이 여성전체의 결집된 힘으로 확산되고, 어머니의 힘이 모여서 우리 고장과 나라의 밝은 미래를 여는 힘찬 원동력이 될 것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대회 준비에 힘쓰신 한창숙 여성단체협의회장님과 여성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칠줄 모르는 사명감과 의욕을 갖고 보람있는 사업과 봉사활동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고마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 년 6 월 27 일

도정의 소중한 발자취

안녕하십니까? 벌써 초여름의 날씨속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 또한 무척 반갑습니다.

그동안 자주 모시는 자리를 갖고자 했으나 여러가지 일로 자주 뵙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임들을 모시게된 것을 그동안 도의회의 기능을 대신해왔던 도자문의원회를 도의회구성과 더불어 해산하고 그 해단식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중에는 시군 의원으로, 또는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마음으로 부터 뜨거운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충남도의 기본시책과 주요정책사항들에 대해 옳고 그름에 대한 방향을 가르쳐 주시므로써 밝고 안정적인 도정을 열어 가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자랑스런 충남의 밝은 도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정의 길잡이를 맡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도정자문위원회는 해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룩해 놓으신 많은 업적을 도정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고 우리 도정사에 소중한 역사의 발자취로 기리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충남도정을 위해 애써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서 경과보고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듯이 그동안 도정자문위원회는 72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50건의 시책을 내놓았습니다.

충남찬가의 보급과 보령댐 건설은, 그 대표적 업적으로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구마모토현의회에 대한 시찰연수 또한 여러의원님들의 아름답고 값진 추억으로 기억되시길 빕니다.

우리가 도정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민을 위해 봉사하고 더불어 사는 풍토를 조성하여 복지의 실현과 지역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다운 도정이란 거기에 꿈이 있고 도민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도민의 뜻이 굴절없이 도정에 수렴되고 그 혜택이 도민에게 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 오신 것입니다.

바야흐로 지방화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오늘의 현실에서 본 도정자문회위원회의 해단식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그 시대적 흐름과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정에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전향적인 자세가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도민 모두는 자랑스런 충남시대의 역사적 전개를 위하여 대동단결의 슬기를 발휘하여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 보다는 내일이 더욱 안정적이고

활력있게 도약하는 우리 고장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 소임을 다하고 떠나시는 여러위원님들!

재임하시는 동안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과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우리 충남도정에의 인연을 변치마시고 그 역사를 긍지로 삼아 도정을 힘껏 밀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독교 청주방송 개국 1주년 멧세지

1991년 6월 28일

사랑을 실천하는 건강한 사회

기독교 청주방송이 이땅에 복음의 전파를 울린지도 어느덧 한해가 지났습니다.

그 동안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방송선교사업을 차분히 추진하면서 지역민들의 정서 함양과 우리 고장을 건강한 사회로 이끌어 온데 대한 노고에 마음속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1천만을 헤아린다고 하니 인구 5명중에 1명은 교인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축복받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의 촛불이 자신이 태워지기를 거부하고 한줌의 소금이 뿌려지기를 기피한다면 이 사회의 장래가 어두워질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서로의 허물과 결점을 감싸주고 용서하면서 살아왔던 많은 의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 하시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욱 건강하고 복된 사회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 청주방송은 그 동안 홀로서기에서 힘겨웠던 짐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참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유익한 정보와 프로

그램을 개발하면서, 서로돕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가꾸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개국 한돌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거듭 축하드립니다.

'91상반기 명예직 정년 퇴임식 치사

1991 년 6 월 28 일

변함 없는 공직관

오늘 우리는 정든 공직 사회를 영예롭게 마치고 퇴임하시는 동료공무원 여섯분과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퇴임하시는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던 시기에 공직에 발을 들여 놓으시고, 도민에 대한 봉사와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서, 남다른 사명감으로 한 평생을 우리 동료들과 고락을 함께 해 오신 동지들입니다.

아직도 우리 도정은 여러분의 오랜 경험과 흐트러짐 없는 성실함과 사명감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조직사회에 소속된 공직자로서 법률과 제도에 따라 오늘 후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1세기의 도정역사를 이끌어 오면서, 전국에서도 모범적이고 으뜸가는 행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히 아닙니다.

여기 퇴임하시는 여섯분과 같은 많은 선배공직자들의 인도와 가르침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생을 오직 한길을 걸으시고 책임과 신명을 다하여 여러분께서 흘리신 땀과 애쓰신 흔적은, 앞으로 여러분의 뒤를 쫓아갈 후배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고 등불이되어

우리 도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떠나시는 지금, 애환이 어리고 만감이 교차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보람스러웠던 추억 모두가 새삼스럽고 감회가 깊으실 것입니다.

비록 오늘 못내 아쉬운 작별을 하지만, 함께 공직에 있었던 인연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공직관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도정과 고향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의 영예를 뒤로 하시고, 또 다른 내일의 인생을 설계하시게 됩니다.

어느 자리, 어느 분을 만나시드라도 보람 가득하고 훌륭한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떠나시는 강대석원장님, 김길남소장님, 김학기과장님, 박대현계장님, 임동찬계장님, 권호승기사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남아 있는 동료 가족 모두는 떠나시는 여러분의 인간적 향기를 못내 아쉬워하고 또 그리워 할 것입니다.

또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앞날의 영광과 신의 은총과 축복을 기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영예스런 오늘이 있기까지 이분들을 뒷받침해 주신 사모님과 가족 친지 여러분께도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6월 29일

역사의 산 증인

오늘 보훈의 달인 뜻 깊은 6월을 맞이하여 모범 보훈가족 시상식을 갖게된 것을 매우 의의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좌절과 실의의 세월을 꿋꿋하게 딛고 모범보훈가족으로 선정되어 수상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보훈대상자 여러분들에게 지원과 시책을 펴온지도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경제 성장에 힘입어 정부의 지원 내용도 질과 양의 측면에서 많은 진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신 님들께서 몸 바쳐 희생하고, 상처를 입은 아픔에 비한다면 아직도 우리들의 관심이나 그 예우가 너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순국선열과 상이군경들의 아픔이 우리나라 안정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대학생들과 일부단체에서 부르짖고 있는 위험스런 구호나 행동을 지켜보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지금 우리는 가신 님들의 유업을 높이 받들고 나라를 힘있게 가꾸고, 우리 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위하여 대동단결의 슬기를 발휘해야 할 시점임을 함께 깊이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활력있게 도약하는 나라와 지역을 위해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

니다.

6.25가 마흔 한돌이 되었습니다만 1천만 이산가족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듯이 아직도 전쟁의 상흔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적의어린 눈빛도, 맺혔던 응어리도 세월 속에 묻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허와 잿더미 속에서 신음하던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이자리는 월남전선에서 공을 세운 분도 계시고, 6.25 참전 용사, 그리고 군경유가족과 미망인여러분 또 항일투쟁으로 옥고를 치르며 독립운동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남과 다른 고난의 역사와, 시대의 슬픔과 좌절을 몸소 경험하신 역사의 산증인들 이십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나라를 지킨 긍지와 사명감, 희망과 용기를 지니고 계속 우리 보훈 가족들의 모범이 되어 주셔서,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참뜻을 일깨워 주시는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지내왔던 지나날을 생각하면, 늘 어려웠던 일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변화와 도전속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신 분들의 유업을 받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보훈가족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훈가족 여러분이나 도민 모두가 풍요롭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이며 참된 도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상이군경회 충남지부 유지철지부장, 전몰군경유족회 허충진지부장님, 전몰군경 미망인회 변순목지부장님, 광복회 백문수지부장님 무공수훈자회 김태성지부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도내 모든 보훈가족여러분의 행운과 축복을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6월 29일

재해는 예방이 최선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사회발전과 재난 예방에 헌신해 오신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인류의 역사는 자연과의 투쟁사라고 할 만큼 자연의 조화는 우리 인간의 생활과 존재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지난 87년 우리도는 내륙지방과 금강일대에 쏟아진 폭우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년중 강우량의 3분의 2이상이 장마와 집중호우로 쏟아지는 여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와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왔던 우리가 재난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강구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수해 위험지역의 점검과 예찰활동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노후시설은 보수를 실시하며, 축대와 옹벽, 도로와 교량, 그리고 제방과 상·하수도 시설은 우기전 꼭 일제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방자재와 장비를 미리미리 비축하고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에 따른 응급대책과 복구에 긴급 동원될 수 있는 연락체계를 확

립하고, 민방위 대원에 대한 임무를 숙지시키는 등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예방뿐 입니다.

지난 87년 수마가 할퀴고 간 그엄청난 피해를 상기하면서 최일선에서 내고장, 내 마을을 스스로 지킨다는 사명감 책임의식을 갖고 재난예방의 불침번이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도정에 대한 변함 없는 협조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하시는 모든일 성취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어려운 이웃과의 자매결연 당부 서한

1991 년 6 월 29 일

사랑의 눈으로

평소 저희 충남도정에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을 바라보면서 국민복지 수준도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어려운 이웃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홀로사시는 무의탁 노인과 어린 나이에 가정을 책임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소년 소녀가장,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인한 모자가정이 있는가 하면 심신장애자와 부모 형제를 모르고 살아가는 보육시설의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늘 마음이 무겁고 더 어려운 것은 함께사는 이웃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지나치는 사람들의 발길이 야속하기도 하고 장난삼아 무심코 던진말에도 슬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웃의 무관심과 스스로 느끼는 좌절이 이들에게는 참으로 견딜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어려운 가정과의 자매결연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사랑의 눈으로 시선을 돌리면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게 갈아가는 이웃과 함께,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밝은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운 이웃과의 결연사업에 적극적인 동참과 후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귀하와 귀하의 직장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건전생활 안내 책자 발간사

1991년 6월 30일

건강한 사회, 건강한 여가 생활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자연과 벗하며 심신을 단련해 왔고 자연속에 묻혀사는 그 자체가 건강을 지켜주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 오늘에 사는 현대인들은 이러한 자연이 주는 혜택을 멀리할 수 밖에 없는 환경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사회에는 소득의 증대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여가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홍수를 이루는 레저인파나 여가선용을 위한 레크레이션 인구가 급증하는 현실은, 이처럼 우리의 건강과 정서생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튼튼한 몸과 건전한 정신이 서로 조화를 이루었을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과 함께 즐기는 여가생활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건전한 정신을 기르면서, 내일을 활기차고 보람있게 지킬 수 있는 삶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도에서는 지역 곳곳에 산재한 옛 오솔길과 명승지를 찾아내어, 도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전생활 안내" 소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 책자가 여러 도민들에게 널리 읽혀져 건전한 여가생활에 도움을 주고, 명랑하고 건강한 사회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1년 7월



△ 계룡산 계곡

대천해수욕장 개장식 치사

1991년 7월 1일

우리모두가 관광안내원

친애하는 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빈여러분!

멀리 활짝 열린 7월의 여름 바다를 바라보면서, 오늘 대천해수욕장의 개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로부터 천혜의 피서지인 대천해수욕장은 우리 시민 모두의 꿈과 희망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하얀 모래위에 잔잔한 은빛 파도, 멀리 보이는 다보도는 우리의 공동이익이 달려있는 소중한 자산이며 자랑입니다.

또한 이곳은 서해안 개발과 더불어 서해의 꿈이담긴 서해안 최대, 최상의 해수욕장을 목표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지난 2년전부터 시작된 1차 조성사업은, 10만평에 500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많은 숙박시설과 상가가 조성되며, 주변환경은 깨끗하게 단장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1년까지 본 관광지 조성사업은 그 대상을 65만평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아담하고 깨끗한 시설과 경관을 자랑하는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여러분!

이러한 원대한 계획은 우리에게 부푼꿈을 갖게 하지만, 곧바로 그 이익이 우리손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를 완성하기까지는 오히려 우리의 의지와 땀, 그리고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인식된 사고를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고장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무질서한 환경과 불친절한 인상을 지울수 없었다면, 그 관광객은 다시 이곳에 오지 않을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광의 책임을 맡은 안내원이라는 인식을 함께하면서, 스스로 친절한 안내자가 되도록하고 지역의 무질서와 환경을 스스로 감시하는 주인의식을 항상 발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다시 오고싶은 낭만의 피서지가 되고, 추억을 다시 만들고싶은 해수욕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모아져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지역을 스스로 "희망차고 힘차게 발전하는 고장"으로 가꾸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개장을 갖는 대천해수욕장이 전국에서도 제일 즐겁고 질서있는 피서지, 그리고 가장 친절하고 깨끗한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다짐과, 기대에 찬 역할을 다하여 주실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개장 준비에 애쓰신 단체임직원 그리고 관계기관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치하를 보내 드리고, 아울러 어려운 시간을 내셔서 지역과 도정발전을 힘껏 도와주시는 김용환 의원님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성원해 주신 대천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991년 7월 1일

여름철재해 예방이 최선

우리나라는 해마다 여름철이면 계절풍의 영향으로 풍수해를 겪게 됩니다.

6월 하순부터 3개월동안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고, 이기간 동안에 두·세차례의 강한 태풍이 불어와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방심은 금물」이라 했습니다.

특히 재해는 언제, 어떻게 온다는 예고가 없으므로 항성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해의 철저한 예방과 정밀진단으로 취약요인을 사전에 없애야 되겠습니다.

또한 재해상황 발생시에는 빠르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신속하게 복구하여 조속히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웃과 행정관서와의 유기적인 연락체계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도와 시·군에서는 민방위대와 함께 재해대책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도 다가오는 장마와 호우·태풍에 대비함에 있어 먼저 우리집이 침수, 산사태, 축대붕괴등 위험요소가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하수도나 주변 배수로를 손질하는 등 평상시에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재해 위험요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행정관서에 빨리 신고하고 유사시에는 이

웃과 서로 합심하여 즉각 대응함으로써 "홍수는 있되 수해는 없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역량을 키워나가는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7월 월례조회 훈시

1991년 7월 1일

변화의 흐름에 슬기롭게 대처

우리는 지금 금년의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을 맞이했습니다. 한해의 중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주는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상반기 동안 추진해왔던 업무를 하반기에 연결시켜서 금년도의 업무계획을 중단없이 완결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 달이며, 한편으로는 도의회 개원에 따른 그 준비와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심기일전의 마음가짐으로 자랑스런 충남건설을 위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자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7월의 신선한 의미와 새로운 바람을 느껴보면서 도정의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6개월은 본인이 도정의 책임을 맡은지 여섯달이 되는 기간이며 우리가 금년도 도정을 추진해 온지 꼭 반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6개월은 우리에게 바쁘고 벅찬 나날이었다고 봅니다.

우선 자랑스런 충남을 이끌어갈 도정의 기본구도와 지표를 설정하였고 대통령각하와 내

무부장관을 모시고 자랑스런 충남건설을 위해 우리모두의 다짐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행정에 처음으로 대변혁을 예고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를 두 차례에 걸쳐 치루어 냄으로써, 지방화 시대의 첫 장을 여는 역사적인 책임을 완수한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충남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기대되는 EXPO 기공식이 지난 4월 12일 있었으며, 또 얼마전에는 국무총리를 모시고 흑성산 독립기념관 앞에서 경부고속도로 확장 기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한편, 시국과 관련해서는 년초부터 수서지구 택지공급사건, 낙동강페놀오염사건 등이 한때 사회분위기를 흐리게 하였으며, 최근에는 명지대 강경대군 사건과 외국어대생의 폭행사건이 발생하므로서 국민 모두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성 문제와 함께 공직자의 확고한 시국관이 그 어느때 보다도 강조되어온 6개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6개월을 보내면서 또 도정발전을 위한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면서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또 내일에 대한 다짐을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다시한번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과 정성어린 도정을 위한 노력이 있기를 촉구해 봅니다.

지난 6월 20일은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맡아갈 도의회의원을 뽑는 날이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광역의원 선거도 별다른 불상사 없이 비교적 공명한 분위기속에서 치루므로서 새로운 선거문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최선과 정성을 다해 완벽한 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선거를 치루기 위해 휴일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 주고 마무리해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치하와 함께 격려를 보냅니다.

이제 어려운 선거는 끝났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 집주해 왔던 모든 행정력을 하루 빨리 일상적인 업무체제로 전환시키고 본연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무질서와 탈·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과 엄격한 사전조치를 강구해서 법이 살아있고 질서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더욱 다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거기간동안 다소 흐트러졌던 민심을 바로잡아 지역안정을 위한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지난날의 선거풍토에 비해서 깨끗하고 차분한 가운데 치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과열된 분위기나 그에 따른 지역간의 갈등 양상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치러진 광역의회 선거는 정당 추천에 의한 선거열기 때문에 후보들간의 경합이 치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방의회는 정치무대가 아닌 지역살림을 논의하는 곳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자칫 정치판의 축소판이 되어서 지역발전에 소홀히 하게 된다면 부푼 기대속에 출범한 지역의회는 시작부터 잘못된 길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속에 지역발전을 추구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지방의회의 출범을 맞이하는데 노력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공직자 모두가 진정 도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한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도의회가 오는 8일에 일제히 개원되면서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합니다.

도의회의 개원을 계기로 우리지방 행정에 불어오는 새로운 변화를 우리는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새로운 지역정치·문화가 형성된다는 점과 둘째, 자율과 자주의 자치행정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며, 세째는 지역중심의 사고와 참여의식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당면한 지방행정의 변화는 우리 스스로가 대처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아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하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모두의 자세와 인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하며, 도민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겠으며 무엇이 필요한지를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자세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강조해 왔듯이 공무원 모두가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도의회와의 관계를 가장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관계로 우리 지역에서 창출해 나가고 정립해 나가야 하리라고 합니다.

의회와 행정은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협력하는 분위기속에서 바람직한 도정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30년만에 새로이 개원되는 도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면서 지방의회가 보람과 긍지속에서 창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는 920km에 이르는 긴 해안선을 끼고 있으며 아름다운 백사장을 가진 이름난 해수욕장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해마다 1,000만명에 가까운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번 간곳을 다시 가고 싶은곳이 있는 반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환경이 불결하고 찾아오는 손님에게 불친절한 그런곳은 다시는 찾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 모두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한번 박힌 나쁜 인상은 여간해서 그 인상이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피서철 관광지 주변을 말끔히 정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손님을 맞는 태도나,

서비스자세등 여러면에서 선진화된 관광지 면모를 보여주므로서 우리 고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한사람이라도 더 좋은 인상을 심어주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장마권에 들어서 있고 곳에 따라 비가 오고 있습니다.

과거 재난에 대한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우리나라는 해마다 이때가 되면 큰 수해등 각종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재해란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설마 우리만은 괜찮겠지, 설마 우리가 그런일을 당할까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재해는 일단 발생하면 재산피해와 인명손실이 생각한 이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재해는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철저한 대비만 있으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취약지에 대한 일제점검은 물론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도 열어서 여러가지 세부적인 준비도 종합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해가면서 수방자재나 응급복구의 장비와 비축상태를 점검,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문제가 있는것은 사전에 보완조치를 함으로써 금년에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늘 그래왔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속에서 여러가지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세계적인 문명 비평가 토인비 박사는 그의 저서 문명비판에 「도전과 응전」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인류는 수많은 도전과 문제의 시련이 닥쳐오게 되는데 이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사람만이 문명에 있어서 생명을 오래 지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국제적 지방화를 향한 변화, 여러가지 우리 주변의 변화에 우리가 있는 노력을 다해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우리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공직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의 전개와 함께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하여 모두의 정성과 슬기로운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일할 것을 기대하며,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고 산하 공무원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991년 7월 2일

새로운 지방자치 행정을

여러 의원님들,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풀뿌리 민주주의 서곡이 울려 퍼지는 싱그러운 7월의 초저녁에 의원님들을 뵙게되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선거가 끝난 직후 이러한 모임을 갖고자 노력하던 중에 마침 「한국지방자치학회」주관으로 오늘 시도의회의원 당선자 세미나가 계획되고 있어,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영예로운 당선을 축하드리는 뜻에서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야흐로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지방행정은 조용한 가운데 「큰 변화의 흐름」이 열리고 있음을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지방자치행정」이 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정과 의회」, 이것은 우리지역 충남발전을 이끌어 가는 2개의 수레바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퀴가 하나만으로 굴러갈 때는 안정감이 없어 홀로 서 있을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퀴를 하나 더 달아 놓으면 안정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개의 수레바퀴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 수레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정과 의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도정이라는 하나의 축에 두개의 바퀴가 되어, 주민

복지와 지역발전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상호협조하고 보완하며 조화를 이루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도민 모두의 요구이기도하며, 이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부여해주고 있는 사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도민 모두의 바램과 기대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바람직한 도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는 8일에는 제4대 도의회가 개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30년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출발을 하게된 의회가 도민의 꿈과 희망을 가꾸고,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를 잡아 갈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과 거듭 다짐해 봅니다.

이제 도의회의 구성과 함께 모든 중심을 충남으로 생각하는 지방의 시대, 그리고 우리의 우수한 모든 것이 세계속에서 진정한 진가를 발휘하는 지방화시대에 자랑스런 충남건설과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비록 약소합니다만, 그동안 여러가지 일들로 쌓였던 피로와 노고를 말끔히 씻어버리는 화기애애하고 격의없는 자리가 되어 줄 것을 바라면서, 올여름 여러 의원님들이 건강하시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회 장한어머니 시상식 격려사

1991년 7월 4일

가정은 인격형성의 보금자리

오늘 언제나 맑게 빛나는 우리 고장의 잔치인 스무번째의 장한어머니 시상식을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보람을 쌓아 오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 여러분에게 더없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먼 옛날이 아닌 불과 몇 십년전만 하더라도 이땅을 살아가는 어머니들은 행복이라기보다는 생활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가사노동속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되고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된 요즈음에는 우리 어머니들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었던 삶도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린듯 합니다.

편리한 생활 가전용품의 보급으로 가사에서 해방되고, 개방화된 이 사회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성들도 자기능력에 따른 자아실현의 길도 열리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남성 못지않게 폭넓은 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우리는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으로 전환된 오늘날의 가정은 교

육적 기능과 애정의 기능이 대중매체와 학교교육에 밀려서 그 역할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은 가족들간의 정서적 유대와, 사랑이 깃들고 자라나는 2세들의 인격형성을 위한 기초교육이 이루워져야 할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 어머니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잠재된 능력도 요구하고 있지만 화목하고 사랑이 샘솟는 「가족문화」를 가꾸어야 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 된데 따른 어머니회원 여러분의 보람된 과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가정과 우리 이웃,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야 하는 지혜와 힘을 가꾸어 내는 책임과 소명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인은 이를 우리의 풍요한 미래를 약속하고 우리 도정이 기대하는 어머니들의 「조용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은 지역 곳곳에 잔잔히 깔리고 깊숙히 스며들어서 우리 고장을 더욱 살찌우고 건강하게 가꾸는 모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뜻있는 시상식을 갖는 의미도 우리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보다 나은 내일의 이 사회를 위하여 화합하고 협동하며 창조하는 어머니회원 여러분의 의지와 다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보람된 삶의 발자취를 만들어 가시는 수상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드리면서, 본 시상식과 어머니 교육 준비에 애써 주신 송인숙 회장님과 어머니 회원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7월 5일

신선한 예술 세계로

언제나 그렇듯이 역사는 변화속에서 발전되고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왔던 위인들이나 위대한 예술가들은 확실히 남들과는 다른 생각과 범상치 않은 눈을 가졌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들의 지혜역시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것을 예사롭게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역사가 맡겨졌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답습해온 어떤 선례를 뒤집는다든지 깊숙히 박힌 인식과 관념을 지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창조를 생명으로 하는 예술세계에서도 예외없이, 변화를 시도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갈길 바쁜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가까이 별 소문 없이 순수한 의미의 자연미술을 추구하며 창작에 전념해온 야투회원들이 우리고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안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91 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은 이러한 야투회원들의 땀이 맺히고 의지가 어린 전시회로서 보다 새롭고 신선감 있는 예술세계로 우리 도민들을 안내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93 대전 EXPO를 앞둔 우리고장에서 국제 예술인들의 축제가 열리게 됨으로써, 유서깊은 문화의 고장이라는 긍지가 자랑스러운

우리 충남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에 촉촉한 단비가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행사 준비에 애쓰신 모든분들께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제4대 충청남도의회 개원식 축사

1991년 7월 8일

지역살림의 전당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200만 도민과 더불어 제4대 충청남도 의회의 역사적인 개원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맞이하면서 축하를 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0일 도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오늘 새 의석에 자리하신 의원 여러분에게 또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30년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열린 도의회가 우리 도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이룩하는 진정한 「지역살림」의 전당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4월 시군의회 개원에 이어 오늘 출범하는 도의회는 200만 도민모두의 기대와 바람속에 우리나라 정치와 행정을 보다 성숙되게 하고 발전시켜 가면서, 우리 지역의 밝은 내일을 아름답게 꽃피워가는 보람찬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부터 지방자치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지방행정에 있어서 자치행정은 그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는 곧 지방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에게도 많은 변신을 불가피하게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갖는 요구와 바램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는 우리나라 민주발전의 디딤돌이 되리라는 점과 둘째는, 우리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살림살이를 논의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앞당기는데 그 참뜻이 있다고 봅니다.

도민들께서 정성스레 뽑아준 대표가 모여 내 이웃과 지역의 미래를 같이 걱정하고, 오손도손 서로 논의하는 모습은 얼마나 정겨워 보일것 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를 그만큼 바래왔고 또 기다려 왔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만의 대의제를 실시하고, 그 지역을 보다 살기좋은 복된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은 이시대 우리가 맡은 소중한 과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지방자치의 아픈 경험을 말끔히 지우고, 우리의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차분하게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지방화 시대의 싹을 틔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싹이 자라서 무성한 잎을 자랑하고, 꽃을 활짝 피울때까지는, 모진 비바람의 어려움들을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이 늘 한마음이 되어, 서로 협조하고 성원을 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과 조화를 이루며 화합과 신뢰를 다욱 더져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충남이 미래를 더욱 알차게 가꾸어 가는 고장이 되고, 번영과 성장의 결실과 그 보람을 도민 모두가 함께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각기 그 서있는 자리가 다르고 이념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지역의 살림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꾸려 나가면서, 지역 발전을 앞당기려 하는데는 여러 의원님과 도지사를 포함한 공직자, 그리고 도민 모두의 목표는 결코 다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 기관간에 각기 수단과 방법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나, 지역발전이라는 우리의 공통된 목표만은 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1만7천여 공직자는 의원 여러분께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의회가

지역발전의 산실로서 도민의 사랑을 듬뿍받는 의회로 운영되고 성장하는데 밑거름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으뜸가는 의회로서 그 위상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00만 도민과 더불어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고장과 도민들의 벅찬 기대와 희망을 안고 새롭게 출범하는 의회개원을 자축하면서, 지역발전과 번영을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고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도민모두가 소망하는 「자랑스런 충남건설」을 위하여, 새로운 역사를 우리 모두 함께 창조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제4대 도의회개원 축하 다과회 인사

1991년 7월 8일

타협의 문화 정착을

오늘 의원 여러분들이 전원 참석하신 가운데 우리 모두는 역사적인 충청남도 의회 개원행사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시군의회개원에 이어 오늘 도의회가 개원을 가짐으로서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자랑스런 우리 고장에서 저희 200만 도민과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새로운 의지와 각오로서 우리 고장을 알차게 가꾸는 다짐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민주주의는 타협과 협상, 그리고 인내와 양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계기로 우리는 이땅에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모든 사항을 서로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개원을 맞는 출발점에 서서 우리는 아주 원만하고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200만 도민의 바램이며, 또 한결같은 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하신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도지사를 비롯해서 저희들은 200만도민의 성원과 함께 의원님들의 활동을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정이 원할한 협조속에서 도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정을 활력있게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 충남도정이 희망차게 발전하는 큰 도정이 될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역할에 기대를 하면서, 인사에 가름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7월 11일

산림을 가꾸는 것, 우리를 지키는 일

오늘 백제의 옛 터전인 이곳 공주에서, 충남북을 관할하는 영림서가 뜻깊은 개청을 맞이하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림행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자리를 함께 하신 최평욱 산림청장님과 지역출신 윤재기의원님 그리고 함께 축하해 주시는 지역 기관장님과 유지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불과 20년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봐도 벌거벗은 민둥산이 대부분이였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물난리 겪고 산사태로 곤욕을 치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治山綠化 사업이 성공을 거두고, 이제 우리는 산과 숲을 할키면서 살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네 살림살이는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넉넉해졌습니다.

흔히 얘기하기를 산림은 한 나라의 부의 척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만큼 푸른 산과 울창한 숲을 가꾸어 오신 산림가족 여러분과 지난 67년 산림청으로 발족한 이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산림정책을 펴온 산림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새삼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산림정책이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자에 와서 사람들은, 산림이 소득보다는 급등하는 토지가격에만 관심을 쏟으면서, 나무를 심고 가꾸며 보호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治山綠化라는 공익적 기능에 치중한 너머지, 산림의 자원화 측면에서는 소홀히 한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반된 이해관계속에서 산림이 마구 오염되고 훼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고장에 처음으로 영림서가 자리를 한 것은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오늘 개청한 영림서는 고유기능인 국유림 관리는 물론, 그동안 취약했던 우리 고장의 임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림을 가꾸는 것 만큼, 산은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며 일깨워 줍니다.

자연을 지키고 산림을 가꾸는 것, 즉 이것은 우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영림서의 개청을 맞이하는 이자리는 그동안 우리모두가 각고의 노력으로 治山綠化에 전념했던 힘을, 산을 사랑하고 다시 가꾸는 지혜로 승화시켜 나가는 다짐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은 물론, 지역에 사는 우리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영림서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과 성원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뜻깊은 개청을 다시한번 축하드리면서, 신임 박대연 소장님 이하 산하 산림가족 여러분에게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7월 18일

본격적인 지방화시대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가지 행사일정에 쫓기다 보니 자주 참석치 못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회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도정이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도정기반을 만들어 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시·군·구 기초의회에 이어 시도의회가 7월 8일 일제히 개원되었습니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30년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갓 태어난 것이나 다름없는 지방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를 잡아가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잘 하는 것이 있을때에는 아낌없는 박수와 갈채를 보내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때에는 깊은 애정으로 감싸,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틀을 하루빨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그루의 어린 사과나무가 자라, 그것이 달콤한 열매를 맺어 줄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땀과 노력을 쏟고 끈기있게 기

다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기대보다는 바람직한 지방의회가 운영되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청소년들의 한마당 축제인 제17회 세계잼버리 대회가 오는 8월 8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 고성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잼버리대회는 세계 120 여개국에서 2만여명이 참가하고 우리나라에서도 8천여명의 스카웃이 참가하게 됩니다.

과거 그 어떤 잼버리대회보다도 규모가 큰 행사로서 우리나라 또 하나의 자랑거리이며 긍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잼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우리는 벅찬 기대와 꿈을 안고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사회 지도층 위치에 계신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저희 도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원님 모두의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보람있는 나날이 되시길 빌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7월 19일

민족의 영원한 횃불

오늘 우리는 백야 김좌진 장군께서 태어나신 이곳 행산리에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조국독립운동과 항일 투쟁에 몸바치셨던 장군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후대에 길이 남기고자 오늘 뜻깊은 생가복원 상량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나라가 누란에 처해 있을 때마다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한몸 희생하셨던 민족의 영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찌기 우리는 이러한 분들이 계셨기에 오천년의 장구한 역사를 지킬 수 있었고, 민족의 정기를 연면히 이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군께서 남겨놓으신 많은 업적과 특히 역사에 길이 빛나는 청산리대첩은 분명히 우리 민족의 앞날에 희망을 비쳐주고, 조국독립의 확신을 갖게 했던 민족의 쾌거이며 값진 승리였습니다.

낯선 만주땅에서 흩어진 동지들을 규합하고 얼어붙은 대지위에 독립의 뜨거운 열기를 쏟아부었던, 장군의 자랑스런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독립군들의 노도와 같은 함성과 만주벌판을 흔들었던 말발굽 소리가 그친지도 어언 7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선대들께서 생명과 희생으로 지킨 이 나라는 지금 성장과 번영의 터전이 되

었습니다.

역사는 스쳐버린 지난날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오늘과 미래를 비치는 횃불입니다.

한목숨 초개와 같이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선대들의 국난극복 의지와 나라사랑의 값진 정신은, 이제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피땀어린 노력으로 이룩해 놓은 번영의 이 터전은 흔들리지 않고 다음 세대가 더욱 성취의 보람을 누릴 수 있는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단절의 역사를 만들고 수난의 시대를 자초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장군의 생가를 복원하고 그 고귀한 뜻을 기리는 것도, 우리의 이러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고장이 배출한 민족의 영웅 백야 김좌진 장군의 그 숭고한 뜻이 민족의 영원한 등불로서 빛내 주기를 염원하면서 상량식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들과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여러분, 그리고 홍성군민 여러분에게 깊은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모두 항일운동과 조국독립에 헌신하시며 짧은 일생을 오직 나라만을 위해 살다가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다시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고장과 나라의 번영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등불이 되고 주역이 될것을 거듭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4H 야영대회 인사

1991년 7월 19일

의지를 가슴속에 심고

내일의 농촌을 이끌어 가는 회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덕·노·체의 이념으로 땀흘려 일하고, 복지농촌의 꿈을 성취해 나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의지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특히 4H의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는 후원회원과 농촌지도자, 농촌지도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옛날 우리 조상들은 자연과 함께 심신을 단련하고 개척정신을 기르며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왔습니다.

이번 야영훈련은 이러한 개척정신을 기르고 집단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과 협동정신을 쌓는 유익한 훈련이며, 또한 내일의 농촌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적 자질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960차례의 외침과 가난과 싸워왔던 수난과 시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은 5000년 가난의 허물을 벗은 조국 근대화의 기수였으며, 「하면된다」하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지금, 우리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농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지만, 농촌의 선진화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민, 그리고 농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하여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환경도 개선하고, 복지농촌을 가꾸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는 이러한 노력들이 점점 가시화되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복지농촌 건설에 힘써 주길 당부드립니다.

최근 우리 농촌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운데에도 이를 훌륭하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산군 둔포면 이영길 회원은 관상조류 500수와 3만평의 논을 부분위탁 영농으로 연간 2,50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고, 금산군 군북면 김기태 회원은 꿩2,000수, 토종닭 1,000수를 기르면서 부화기를 운영하여 년 3,000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것은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변화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여 왔습니다.

오늘의 농촌이 언제까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자 하는 여러분의 의지와 땀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후원하시는 후원 회원님들이나 농촌지도자님들의 생각도 같으리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이번 야영대회가 우리 모두의 이런 의지를 가슴속에 심어가는 뜻깊은 대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임세빈 회장과 박종민 부회장 그리고 4H 회원여러분이 한마음이 되어, 미래의 새로운 농촌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강한 몸으로 오늘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기원하면서 격려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7월 25일

충남체육을 한단계 더 높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장마와 삼복 더위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 선수들과 함께 땀을 흘리시고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작년에도 그러 하셨지만, 충남체육 발전에 큰 관심과 안목을 가지고 여러 지도선생님과 함께 힘을 모아 주시는 우리 백승탁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얘기 하기를 체력은 국력이라고 합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지키고 영위해 나갈때, 그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평소 저는 특별히 하는 운동은 없습니다만,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한 나라와 또는 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 특히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난 서울올림픽에서도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고 뿌듯한 긍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기를 지켜볼 때마다 기쁨으로 환호를 하고 가슴조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 우리의 지난해 전국체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성취상을 수상하고 11위를 했지만, 아마도 많은 체육인들과 체육을 아끼는 도민들의 가슴 속에서 뿌듯한 만족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충남체육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까지에는 선수와 지도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있었고, 각계와 도민들의 성원이 삼위일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고등부가 예상을 뛰어 넘고 좋은 결과를 낸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결실을 거두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겐 하나의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향하여 매진했던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목표를 성취했던 주역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조촐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그간의 노고를 다소나마 위로해 드리고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충남체육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 올리고자 하는 다짐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이상으로 더욱 단합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과 바램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72회 전국체전도 불과 7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훈련을 했고 전략과 전술을 하나 하나 구상해 놓았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우선은 학교체육의 야전 사령관이신 지도선생님들이 선수들에게 자심감을 심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훈련 여건이나 저희들이 지원하여 드리는 것이 충분치 못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것도 잘 압니다.

앞으로 보다 좋은 시설도 만들고,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충남체육의 내일을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 전국체전에서도 작년 이상만큼의 좋은 성과가 있기를 우리 모두 기대하고 다짐하고

또 염원하면서, 조촐한 자리나마 오늘 유쾌하게 보내시고, 여러 선생님들의 행운과 건투를 빌어 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가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락질서 자율실천 결의대회 치사

1991년 7월 26일

질서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

친애하는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지루했던 장마도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기위해 화창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고장이 자랑하는 천혜의 보고이며 안락한 피서지인 이곳 대천 해수욕장에 모여, 행락질서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원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자 할때마다 지역발전과 도민의 의지를 한데 모으는데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앞장서 오셨습니다.

본인은 먼저 그동안 건강한 이 사회를 이끌어 가고자, 정성으로 봉사활동을 전개 해 오신 박선규 충청남도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7,000여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국민은 어두운 역사를 딛고 놀라운 힘으로 일어나 위대한 성취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보리고개가 길기만 했던 가난한 세월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농업국가는 산업국가로 변모했고, 늘 패배 의식이 깔려있던 이 사회는, 이제

무엇이든지 해 낼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하고 활기넘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흘린 땀과 억척 같은 노력이 거두어 낸 보람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잘 살게 된것 만큼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고 피해자가 되어 왔던 불법과 무질서가 아직도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우리 사회는 웃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 오는 이곳 해수욕장도 여름 피서철이 되면 불법으로 멍이들고 쓰레기 더미속에 신음하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 준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가 이만큼 살게된 수준 이상으로 참다운 질서를 세우고 높은 수준의 행락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질서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차례를 지키고 남을 생각할 줄 알며 한번 더 인내하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은 반드시 우리 모두의 큰 기쁨으로 다시 돌아 올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원여러분과 시민여러분의 자율적인 실천의지와 결의가 우리고장의 질서와 행락문화의 정착을 이루는 원동력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유쾌한 시간이 계속되고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대전EXPO 성공을 위한 만찬법회 축사

1991년 7월 29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고장

오늘 불교문화의 본 고장인 우리 지역에서 고명하신 스님여러분과 각급 기관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신 가운데, 나라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과 '93세계무역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밝히시는 뜻깊은 법회를 갖게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생각하면 부처님께서 저희 중생의 어두움을 밝히러 이 세상에 오신지 2,6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우리나라에 부처님이 밝은 가르침이 전등된 이후 1,700년, 많은 고승 대덕의 출현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랜 역사를 이어오면서,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어 독창적인 불교문화의 육성으로 꽃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가 누란에 처해 있을 때마다 수도와 참선의 길을 멈추고,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켜왔던 살신성인의 불자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불상을 세우고 장경을 새겨서 외침으로부터 국태민안을 기원하고 몸으로 막아왔던 호국불교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눈이 있어도 앞이 안 보이고, 귀는 열려 있으나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이러한 어두운 관념이나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맑고 밝은 깨끗한 마음을 갖을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고장에 널리 펼쳐지기를 합장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우리 고장이 더욱 안정되고 화합하는 복된 터전이 이룩되고, 다가오는 산업박람회도 훌륭히 치룰 수 있도록, 부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고장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마곡사 능엄스님을 비롯한 고명하신 스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여러분께도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1년 8월



△ 독립기념관

8월 월례조회 훈시

1991 년 8 월 1 일

의연한 근무자세

지난 6월 달에는 광역의원선거를 치루었고, 7월에는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다시 개원최됐으며, 그리고 8월은 태풍이 부는 계절이면서 잼버리대회가 강원도 동해안 고성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행정으로서도 의회가 새로 구성되고 내부적으로 기구가 증설 개편되고 경찰청이 독립이 되어 새롭게 발족을 하는등 많은 변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더위와 장마속에서 우리 도정을 위해서 활기 있고 힘찬 도정을 가꾸는데 열과 성을 다해준 산하직원 여러분께 먼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8일에 개원된 도의회와 관련 우리 지방행정에 닥쳐온 새로운 변화와 이에 따른 여러가지 대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식변화를 촉구한 적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변할 수록 행정 여건도, 국민적 바램도 여러가지 양태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우리들도 거듭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하나씩 하나씩 실국 부분별로 정립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함께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회와 도정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가 더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의 목표, 하나의 일을 위해서 서로다른 입장에서 기능을 분담 처리하고 보완적인 관계,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여러차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워진다고 염려하는 분들에게 여러차례 말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행정을 혼자처리하는 것보다 의회가 둘이 처리하게되서 혼자하게 되는 것보다 둘이하므로서 일을 조금 더 완벽하게 처리하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동반자적인 관계라고 여러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시설이라는 도정과 의회의 공동목표달성을 위해서 더욱더 깊고 넓게 구체화시켜 나가 줄 것을 바랍니다.

경찰청이 독립하고 의회가 생기고 우리의 내부 기구가 일대 변혁을 하고있고 앞으로도 여러가지로 대변혁이 예고 되면서 계속 발전해 갈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인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능과 기구가 만들어 진다고해서 동요를 해서는 안되겠으며 그저 추호도 흔들림없이 우리의 할 일을 꿋꿋하고 의연하게 행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했습니다만, 우리 충남의 5000년 역사를 본다고 할 때 가장 자랑스러운 충남의 인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라고해도 이의가 없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모든 직책을 박탈당하고, 또 전군을 통솔하던 지위에서 무관의 사병으로 근무명령을 받았을 때 아무 불평없이 백의종군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예는 전인류 역사상 이충무공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둘째로 이충무공께서 항시 전지에 나가실 때 자신이 탄배 이외에 꼭 한대를 더 끌고자녔는데 거기에는 쌀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군량미가 부족한 부대에 가서는 쌀을 풀어서 군량미로 주자는 참모의 건의를 거절한 이충무공의 말씀은 "임금님께서 중국으로 피난가실 지도 모르는데 국내 있을

때는 해결이 잘되지만 중국으로 들어가시면 갖다 드려야 한다며 극한 상황하에서도 임금님을 위해 준비를 하는 충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두번째 조건으로 들 수 있으며,

세번째는 고향에 노모가 계셨습니다.

전쟁시에도 항상 사람을 보내서 노모안부를 묻고서야 잠자리에 드는 효성이 지극했다는 점에서 우리 충남의 제1의 인물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진린이라는 중국인 장수가 왜 무후 제갈공명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나는 무후와 같은 덕도 없고 때를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무후의 방법을 쓸 수 있겠느냐고 거절하고 원균과 같은 사람의 모함이 있고 임금의 신임이 확실치 않은데 내가 그런방법을 사용할 수 있느냐며 스스로 전쟁이 끝나던날 갑판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예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다섯째로는 충무공께서 생사를 예측할 수 없는 칠년동안의 전란상황에서 하루도 빠짐 없이 진중일기를 쓰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난중일기 입니다.

역사에 충실했으며 그런 극한 상황하에서도 최선을 다한, 이런점들을 들어서 이 충무공을 우리 충남이 배출한 가장 자랑스런 인물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여건과 어려운 일이 있을때가 있을줄로 믿습니다만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모든 공직자들은 이 같은 변화의 흐름을 예측해 가면서 모든 시장·군수, 실국원장을 구심점으로 해서 우리 조직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사분란하게 결속, 한치의 누수와 흔들림이 없이 근무에 임해 주실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가 8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 고성군에서 열립니다.

세계 126개국에서 12,000명이 참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8,000명이 그리고 우리도

에서는 321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올림픽이 운동경기를 통해서 인류의 화합과 국제 우의에 이바지 한 것처럼 세계잼버리는 세계청소년들이 국가, 민족, 언어, 종교를 초월해서 한자리에 모여 야영을 하면서 상호우의를 다지는 세계적인 잔치입니다.

잼버리대회는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세계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벌이는 세계적인 청소년 축제로 우리 도에서는 외국 스카웃대원들이 천안과 온양에서 민박을 하며 우리의 문화 풍습을 익히고 현충사와 독립기념관도 들르게 됩니다.

과거 어느 잼버리대회보다도 가장 큰 최대의 규모로 내용에 있어서도 알찬 행사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체육 청소년부와 강원도는 물론이고 전 지역과 부처에서 지원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8올림픽때 전세계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 것처럼 이번에도 잼버리대회를 통해서 한민족의 우수하고 훌륭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겠습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어나고, 새로운 대단위 공장이 설립됨에 따라 피크타임에 일반적인 전력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을 증산할 것입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가 절제와 창의력을 발휘해서 전기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쓰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민생치안, 그리고 국민생활 보호대책에 관한 장관특별지시 2호가 시달이 되었는데 「새질서·새생활 실천」 내용의 하나며 건전한 생활문화를 폭넓게 뿌리내려야 하겠다는 첫째 지시이며, 두번째로는 지방의회의원선거를 통해서 성숙 되고 건전한 민주자치발전의 기틀을 확고하게 다져 가자는 것입니다.

특히 하절기 행락철을 맞아 민생치안과 국민생활안정을 위해서 각 부분별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확립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참여하게 하고, 또 우리들은 수범적인 실천을 통해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사회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끝으로 당면사항 몇가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밖에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최근 경기·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많은 재산과 임명 피해를 입었으며 그 과정에서 1차 통신수단이 마비되므로서 현장과 시군, 도와 시군간에 통신수단이 강구되지 않아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파악도 잘 안되고 대응조치도 제때에 유효하게 강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제2차 통신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제2차 통신수단은 장마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제2차 통신수단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호우피해와 관련해서 골프장에 대한 좋지 않은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위험지구를 중심으로 점검 확인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각 실국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기가 좋아서 아직까지는 벼농사 작황이 양호한데 농사는 8월 한달이 중요합니다.

8월 한달 관리만 잘하면 풍년농사를 달성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병충해, 시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목표한 풍년농사를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여름철에는 각종 질병과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은 것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라고 하는 격언도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우리 도내 도심지나 농촌, 어촌 전 지역에서 모든 도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질병예방과 방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질병없는 한해를 이루도록 대비해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도정의 여건이 아무리 변화 하더라도 또 눈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어느 쪽에서 어떻게 강하게 불더라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유연한 업무수행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에 활발한 개발로 힘차고 자랑스런 충남사회 건설을 위해 함께 정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991 년 8 월 2 일

거듭나는 충남교육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 교육계를 이끌어 오신 교육위원님들이 지방화 시대를 맞아 그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영예로운 퇴임식을 위해 이자리에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5천년이라는 가난의 허물을 벗고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이에 부응한 교육의 발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여기계시는 교육위원님들이나 교직에 헌신해 오신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그 보람과 긍지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져 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역사는 변화속에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를 열어 가면서 지방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제 우리 교육계도 이러한 흐름과 발전속에 교육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자율과 질서속에 다가오는 21세기의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몸담고 계시는 교육의 현장에서 부터 움이 돋아나고 준비 되고 있으며, 성장해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퇴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미래의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시고, 우리 교육이 새로운 위상위에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그동안 교육자치를 위한 준비를 튼튼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좀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욱 의욕적으로 교육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곁을 떠나시려 합니다.

교육여건 개선과 우리 교육가족들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던 지나날의 인연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그동안 애써 이룩하신 업적은 우리 교육가족과 도민 모두의 귀감이 되고, 충남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충남교육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비록 교육위원직을 떠나시더라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교육계를 보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변화 속에서 거듭나게 될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성과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백승탁 교육감님께서 이끄시는 충남교육청이 더욱 힘찬 발전을 거듭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교육가족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회 KBS배 전국 중·고 가을철 축구대회 축사

1991 년 8 월 3 일

우정과 화합의 잔치

오늘 예로부터 삼남의 길로 통하는 교통과 충절의 고장으로 이름난 이곳 천안에서 제10회 KBS배 전국중·고 가을철 축구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우리 고장을 찾아주신 축구가족여러분께 200만 도민과 더불어 뜨거운 환영의 말슴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축구는 날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국력신장과 함께 우수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여 국위선양의 큰 몫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난 6월, 장차 세계의 축구를 이끌어 나갈 축구의 귀재들이 모인 제6회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남과 북의 형제들이 손에 손 잡고 축구단일팀을 구성하여 세계 8강 대열에 당당하게 진입한 바 있습니다.

단일민족이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위력을 떨침으로서 우리 민족의 저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7천만 겨레에 큰 용기와 희망을 심어준 바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의 강국으로서 세계 무대위에서 인정을 받으며,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혼과 우리 온 국민이 체육육성에 대한 소중한 열정이 모아져 열심히 가꾼 보람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더우기 오늘 우리 고장에서 개최하는 KBS배 중고 축구대회가 이제 10여성상의 연륜속에서 축구 백년단계를 바라보며, 축구발전에 뒷받침이 되어 왔음은 모두가 기뻐할 일이며, 앞으로도 명실상부한 전통있는 대회로서, 눈부신 활약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경기에 임하는 선수여러분은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십분발휘하여 모교와 지역의 명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로 이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 행사가 축구인의 우정과 화합의 잔치로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기를 바라며, 대회를 개최하신 서기원 한국방송공사 사장님과 백찬기 한국중고 축구연맹 회장님 그리고 대회준비에 노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고성 충남축구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축구 관계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8월 10일

충남문화 창출의 기수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하여 지역 스스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더구나 역사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도약의 시대에 접어든 우리 충남은, 그 부푼 기대와 꿈 만큼이나 넘어야 하고 헤쳐나가야 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하고 유서 깊은 전통문화의 고장이라는 명예와 긍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면서 도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자랑스런 내고장을 복된 터전으로 가꾸는 일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지역의 역사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에 의해 결정되고 창출되어 진다고 흔히들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막 창간을 본 "충남저널"은 소망과 의욕이 넘치는 우리 고장의 전통과 문화 의식을 일깨우고 지역발전의 방향타가 되기를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가치와 형태가 보편화 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정보의 홍수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보는 신선해야 되고 새로운 것이어야 그 가치가 빛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로운 사실이나 전위적인 사고라 할지라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잠깐 세인들의 관심을 끌다가 우리의 기억속에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정녕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를 받아들이고 정성으로 가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이롭지 못한 것은 땅속 깊이 묻어두는 선별의 능력이 소중한 때입니다.

여린 싹을 틔운 "충남저널"이 홀로서기에 꿋꿋하고, 짙은 향기와 무게를 지닌 충남문화 창출의 기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생활 가까운 곳에 머물고 사랑받는 "충남저널"로서 우뚝 서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6회 도지사기 정대항 궁도대회 격려사

1991년 8월 13일

민족 스포츠의 맥

대회에 참가하신 궁도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병선 의원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도민 여러분!

오늘 충절의 역사가 간직된 이곳 예산에서 도내 정대항 궁도대회와 궁도선수권대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는 것처럼 궁도는 먼 옛날부터 우리 민족을 동이족이라 하여 활 궁(弓)자에 사람인(人)자를 넣어서 동쪽 나라에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서 존경과 부러움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궁도야말로 우리의 선조들이 심신을 수련하고 인격도야에 힘을 기울인 민속운동이며 아울러 민족수난의 역사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충절의 정신을 길렀던 호국의 스포츠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민속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옛 선인들의 기상을 함께 호흡하며, 자칫 잊어 버리기 쉬운 우리의 것을 소중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예로부터 충절의 역사를 간직하고 선비의 고장이라고 이름지어진

것도, 이러한 우리의 전통을 소중히 이어왔기 때문이며,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충남궁도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전통이 그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충남궁도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주신 궁도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치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궁도인 여러분은 우리 고장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가고 발전을 선도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민족스포츠의 맥을 더욱 활기차게 가꾸어 가는데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이 지역문화진흥과 체육발전을 소망하는 도민 모두의 다짐으로 확산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오늘 화창한 날씨속에서 선수여러분은 평소 연마한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장의 명예를 빛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오늘의 대회가 시위를 힘차게 당기며 호국의 의지를 불태웠던 선조들의 뜨거운 가슴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기상을 함께 기리고 내일의 도약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정성스럽게 대회를 준비해 주신 충남궁도협회 권오중 회장님과, 최동학 군협회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지역 기관장님과 예산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 년 8 월 14 일

통일의 제단위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임명장을 전수 받으신 스물세분의 상임위원 여러분과, 시군협의회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으로 임명되신 이대희 의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함께 출범한 제5기 민주평통은 지방의회 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여 하셨고, 각계를 대표하는 지도급 인사로 구성해서 그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도민들의 기대 또한 커졌습니다.

「민주 평통」은 범국민적인 통일기구로써 그동안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 평통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발전과 사회안정을 위한 인식을 함께 해 주시고 통일에 대한 도민들의 의지 해산에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전 UN안보리는 남북한 UN 동시가안을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가 지난 49년이래 UN가입을 추진하여 왔던 노력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날이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너무도 싱겁게 진행되고 통과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마저 있었습니다.

아마도 북한은 그들이 UN가입을 스스로 원해서 신청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제정세가 이미 큰 변혁의 바람이 일고 있고, 그 변화를 외면하고 버텨왔던 북한이 이를 견디지 못한 결과일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최근 일련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국제정세는 우리가 그토록 멀게만 느껴져왔던 통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반도를 통일하는데, 과거와 같이 외부적 요인이 통일의 장애가 되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독일통일의 경우, 통일을 위해 형식적으로 2+4회담이 열렸지만, 무엇보다도 독일 통일의 근원은 민족 스스로의 힘과 상호합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작년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7.7 선언」에서 밝히셨듯이, 의선은 남북한 서로가 실체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북관계는 UN 동시가입을 계기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인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열강들의 손으로 그어진 분단의 역사속에서, 동족상잔의 엄청난 비극도 겪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족의 지혜와 힘을 모아 분단의 벽을 허물고 이세기안에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책임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0년동안 세계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의 통일을 위한 장애를 해소하는데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북한은 경직된 체제와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기본전략에는 변함이 없으며, 모든것이 통제된 북한사회 내부도 아직은 바뀐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에 대한 희망과 다짐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또 버릴 수도 없습니다.

저는 통일을 위한 과제로서 크게 두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절대적인 정치적·사회적 안정입니다.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불순세력을 척결하고 사회질서와 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한번 느껴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해 제창하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는 것도, 결국은 통일의 제단위에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리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남북이 둘로 나뉘어 반세기 동안,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속에서 살아온 지금, 생활양식과 가치관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이질화된 민족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결코 없습니다.

폐허위에서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가 오늘의 발전을 이룩했듯이, 우리 모두의 통일에 대한 노력이 결집될 수 있도록, 새롭게 출범하는 평통위원 여러분들께서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지역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지역평통을 이끌어 주시는 한기수 부의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평통을 중심으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지역 기관장님들의 성원속에 민족평화통일의 길을 힘차게 열어갈 것을 다시한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8월 16일

구국정신과 희생정신의 가치

오늘 광복 46주년을 맞이하여, 늦게나마 국가유공자로서 공적을 인정 받으셔서, 영예를 되찾고 서훈을 전수받게된 유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국가가 이분들에게 유공자로서 예우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조국의 광복과 나라를 지키다 산화하신 많은 독립운동가와 무명용사들이 계십니다.

그중에는 가족도 후손도 없는 분, 어느땅 어느 시기에 돌아가셨는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서훈을 받으신 분들은 과거의 기록과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후손들의 노력으로 그 공적을 인정받고 영예를 되찾으셨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또 이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민족자존을 지키고, 당당하게 이 나라를 가꾸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일제식민통치의 굴레에서 벗어난지도, 어제로 46주년이 되었습니다.

세계열강의 틈바구니속에서, 약소민족으로서의 치욕을 당해야 했고, 해방은 되었지만, 너나없이 힘들고 지친것은 마찬가지 였습니다.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전쟁까지 겹쳐 금수강산은 잿더미가 되고, 우리 민족은 마음속까지 할켜지고 찢겨져 버렸던 시련의 역사를,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이 겪은 시련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지만,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긍지와 자부심 높은 자랑스러운 나라를 일구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짐해야 할 것은, 이러한 선열들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그 위업을 이어나가는 일입니다.

그것은 선열들께서 뜻하신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루는 통일대업이며, 선열들께서 꿈에도 그리던, 번영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선열들에 대한 보답의 길이라고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존경을 받고 긍지를 느끼면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오늘 서훈을 받으시는 분들의 공훈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면서, 마흔 여섯해를 맞이하는 광복절이, 선열들께서 남겨 놓으신 구국정신과 희생정신의 가치를 다시한번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새로이 보훈가족이 되신 유족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고, 밝은 웃음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방위협의회 인사

1991년 8월 19일

힘의 논리

바쁘신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들어 방위협의회가 처음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새로운 위원으로 선임되어 참석해 주신 일곱분의 위원님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향토방위와 지역안정에 협력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여러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추석절 앞두고 자체 군·경 위문계획을 말씀드리고, 우리 향토사단의 주요활동 내용을 청취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실제사격 해보시는 뜻있는 일정을 사단에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자리가 지역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근 남북관계는 남북고위급 회담과 스포츠 교류 그리고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와 우리의 북방정책의 노력이 가져다 준 것

이지만, 결국은 우리 스스로의 힘을 튼튼히 다져오지 않았다면 이러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힘은, 우리의 경제력이 될수도 있고 국민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튼튼하게 다져진 국방력, 그리고 국민들의 투철한 안보의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틀림 없이 이웃나라로부터 치욕을 당했던 사실이 있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한 관계진전과 국제적인 화해무드가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안정태세를 굳건히하고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는 논리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의 을지/포커스랜즈 훈련은 그 범위가 축소되어 민.관.군 합동훈련으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남북한 유엔가입과 고위급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내고자 하는 우리의 인내와 자제의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훈련, 대비정규전, 쌍용연습등의 그동안 훈련을 전시대비 종합훈련으로 통합하여 지역 방위역량을 총 결산하는 훈련으로서, 금년하반기에 실시하게 됩니다.

종합훈련이 처음 실시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마다 도 방위협의회는 국군부대 장병과 경찰관들에게 작은 정성이나마 위로와 격려의 뜻으로 위문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작은 정성과 성원은 우리 장병들과 경찰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군대로서, 그리고 경찰로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금번 군·경 위문실시에 많은 기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충남은 서해안 개발과 더불어 산업발전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3군본부의 이전과 함께 국방의 계룡산시대를 여는 자주국방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고장이 민·관·군의 유대강화는 물론이고 지역의 방위태세도 전국에서 가장 수범적인 총력방위태세를 다져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힘을 앞으로 더욱 모아주시고 도정과 지역발전에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회의가 지역방위 공동협력체가 더욱 굳건해지고 긴밀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빕니다.

각 위원님들의 건강과 다복하심을 기원하면서 끝으로 오늘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주신 김정남 32사단장과 장병여러분의 무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세계박람회추진협의회 창립총회 인사

1991년 8월 22일

문화·관광은 충남에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총회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특히, 오늘 총회가 있기까지 협의회 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박선규 회장님과 관계인사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EXPO는 인류가 이룩한 찬란한 과학문명의 보급과 개최지역의 개발 그리고 첨단 과학분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선진국에의 진입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과학·기술·문화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세계박람회가 대전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 도로서도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민족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고, 국가간 교류증진, 동서 화해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계박람회를 통하여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결집된 범민족적 발전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취시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산업과학 기술수준과 고유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한두사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몇사람의 노력만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성원할때만 성공할 수 있는 어렵고 힘든 행사입니다.

서울올림픽이 온 국민의 참여로 성공하였듯이, 이번 박람회를 우리 도민 모두의 참여와 성원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모임은 이러한 범국가적 행사인 박람회를 최인접지로서 민간차원에서 지원하자는 모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협의회가 앞장서 도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활동과 성원을 통한 참여를 기대합니다.

세계박람회 개최지인 대전과 인접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는 「과학·기술은 대전에서, 문화·관광은 충남에서」라는 슬로건 아래,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결도로망의 확충과 숙박시설 확충개선, 그리고 문화·관광개발과 특산품 개발사업등을 추진하면서, 개최지인 대전직할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충남관광 진흥등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책들도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온 도민의 스스로 우러나는 자발적인 참여와 성원 없이는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힘들 것입니다.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동안 값진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제반지원사업에 아낌없는 지도와 자문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총회에 참석하신 위원여러분의 예지와 경륜을 바탕으로 지원시책이 알차게 추진되고 분위기가 널리 확산되리라 굳게 확신하면서, 오늘의
총회가 박람회의 지원과 준비를 위한 진지하고 격의없는 그리고, 보람있는 모임이

될 것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총회준비를 위해 발기인 대표직을 기꺼이 맡아 애써주신 박선규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인사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위원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일익번창하시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1년 9월



△ 금산 700의총 축의제향

1991년 9월 1일

검소하고 훈훈한 추석을

추석명절은 가장 풍요롭고, 멀리있는 일가친척들이 모여 정을 나누며 고향을 찾아 잊혀진 것들을 되새겨 보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추석절을 가정, 이웃, 동리가 한데 어우러지도록하여 가정과 이웃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일깨워야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어려운 생활도 생활이지만, 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차가운 이웃의 무관심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생활보호대상자, 불우노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우리의 이웃들은 도민여러분의 따뜻한 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화기애애한 가정의 추석절보내기를 위하여 가족의 뿌리찾기와 가출자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인정이 넘치는 고향을 만들기 위하여 경로애유의 마을전통을 찾아내며, 향토인사의 밤을 마련하여 내고장 경로당 가꾸기와 마을 관심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 노인 위안잔치와 어려움을 함께하는 이웃이 되도록 기관, 단체, 일반인이

참여하는 이웃의 어려운 사람 돌보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따뜻한 이웃이 많을수록 우리의 추석은 훈훈하고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검소하고 훈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1991년 9월 1일

아픔이 없는 사회를

우리가 평소 건강할 때에는 자신의 건강에 소중함을 느끼지 않고 살다가 우리 몸에 상처라도 나면 아픈 곳을 만지며 아프지 않은 때를 그리워 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 사회에 어느곳이라도 아픈 곳이 있다면 이를 빨리 치유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처방없이 막연히 종합비타민이나 투여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아마도 그 사회는 더욱 병든 사회가 되고 말것입니다.

오늘날 언론이 먼저 해야 할 있이 있다면 이 사회를 구석구석 진단하여 아픔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바람직한 처방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중도일보 창간 40년에 부쳐, 단절과 시련의 아픔을 딛고 지역언론의 정론지로 우뚝 서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그동안 쌓아온 연륜과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역량을 극대화 시키고, 사랑받는 종합일간지로서 끊임없는 성장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1991년 9월 1일

거듭나는 자세로

풍요와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는 9월은, 과일이 익어가고 황금 들녘엔 농부들이 여름내 땀흘려 가꾼 벼포기가 영글어가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어 더욱 풍성함을 느끼게 하고 각급 학교는 2학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또한 날씨가 선선해 지면서 독서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독서는 국제화, 산업화와 정보화, 전문화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생존방식이며 지혜를 얻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좋은 계절에 일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었으면 합니다.

지난달에도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줌으로써 활기차게 도정을 이끌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 산하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한 지난주에 실시한 을지연습에 적극적이고 수범적인 자세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실성과 남다른 창의력으로 으뜸도정을 이룩해 나가는데 활력을 불어 넣어줌으로써 오늘 표창을 받은 공무원과 부서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 업무에 정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안있으면 도가 백돐을 맞이하게 되고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좀더 원숙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국민앞에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격변하는 폭풍과 노도의 한달이었습니다.

먼저 소련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8월19일 고르바쵸프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8인 위원회는 3일만에 옐친을 위시한 개혁파에게 몰려나고, 실권을 차지한 개혁파들은 공산당 해체를 결의하고 에스토니아등 발틱 3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등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로써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이후 74년간 지속되어온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와 「소련연방」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소련의 이러한 개혁은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는 공산주의 사상의 허구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산주의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소련 지도자인 고르바쵸프와 옐친이 소련사회에서 공산주의 실험을 실패했으며, 이번 사태는 소련 국민에게 매우 불행한 교훈이었다고 스스로 자인하는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일부 대학과 대학신문은 북한의 공산 독재체제만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사회인 것으로 묘사하여 선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생들의 이러한 무분별한 행동을 지켜본 우리 공무원들은 주위에 있는 대학생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올바른 사상과 가치관을 정립하여, 내일을 위한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북한 UN 동시가입 문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8월8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 가입권고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오는 9월17일 열리는 제46회 유엔총회에서 가입문제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북은 유엔탄생 46년만에 유엔에 정식 가입하게 됩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되면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 상호간의 신뢰기반 구축과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산가족들에게는 희망과 용기와 꿈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아울러 정부와 대통령께서 추진중인 2천년대 통일과업을 완수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 한반도와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에 핵경쟁의 복잡한 상황을 조성하는 모험을 하고 있음을 항상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금년 여름에는 국민들이 전력 아껴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예상되었던 전력 부족사태를 제한 송전조치 없이 무난히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참여와 협력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앞으로 전력뿐만 아니라 소비절약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0억불 흑자국이 100억불 적자국이 되었으며 한국은행이 밝힌바에 의하면 노사분규 건수는 줄었으나 생산차질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GNP 5,000불의 나라에서 20,000불 국가의 국민과 같은 무리한 소비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관만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리비아 사막에 수로를 놓아 옥토를 만들며 남미 브라질에서 30억불의 철도공사를 실시하는 등 한국인의 근면성과 성실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면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우물을 파서 샘물을 마시는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때 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국민 모두가 절약과 인내로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솔선하여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8월말에는 태풍 「글래디스」의 영향으로 부산, 경남지방에 400~500㎜의 폭우가 내려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상의 손실 그리고 수많은 이재민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8월중순에 서천, 보령지방에서 콜레라가 발생하여 전 국민에게 많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이번일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는 예방활동에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인력과 장비를 미리 확보하고, 업무담당자가 미리미리 챙기고 예측하고 연구하여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예방행정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기강의 해이는 조직의 비능률과 대국민 불신을 조장합니다.

앞으로, 공직기강을 바로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신뢰받는 도정을 이루도록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을 회고해 보면 50년대 전쟁의 폐허 위해서, 60년대의 준비를 바탕으로, 70년대 경제발전을 위해 뒤돌아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던 시절을 거쳐, 80년대에는 민주화의 기틀을 다졌고, 90년대에는 21세기 선진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매진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은 21세기 민주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기점에 서서 지방행정이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깊이 통찰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개원과 함께 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와 행정참여 욕구가 증대하는 등 우리의 행정여건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 모두는 도정에 대한 주민의 바램은 무엇이며, 우리의 역사적 소명은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해서, 지방행정의 방향을 정립하고 나라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서 민선이상의 지지를 얻고 봉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 내부에서는 상·하간에 서로 믿고 존중하는 화기애애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업무면에서는 부단한 연찬과 자기 연마로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는 제1의 전문가로서 바르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주민이 믿고 무슨 일이든 함께하고 따라가도

좋다는 마음이 우러나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길 당부합니다.

둘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지난 10개월간의 추진성과를 돌아보면, 잘된 점은 꾸준한 거리질서 캠페인과 불법 주정차 단속, 노상 적치물 정비 등으로 교통질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자정 이후의 영업금지 조치로 무절제한 음주풍속이 개선되었으며, 유흥업소의 퇴폐, 변태영업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범인성 유해환경은 많이 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계층의 호화·사치, 과소비 풍조로 5,000불의 나라가 20,000불의 나라와 같이 살려고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먹고, 쓰고, 놀자는 풍토와 어려운 일을 기피하고 편하게 살려는 나쁜 풍조가 어느새 우리의 생활주변에 도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그 추진력이 둔화되고 추진 열기가 식어가는 조짐이 있으므로 질서와 능률, 화합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을 한차원 높여 다시 재점화한다는 의미에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총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공직자가 맡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난 10개월간의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근간에 이완된 추진태세를 정비하고, 새마을운동과 바르게 살기운동등 국민운동 조직과 민간조직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 추진중인 향약 실천운동을 통하여 전통윤리와 가치관을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며, 어머니 제자리 돌아가기, 충절공원 조성, 예절학교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 우리 생활속에 하루 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당면한 영농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11년 연속풍년을 이루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중국에서 날아온 벼 멸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그 피해가 매우 큽니다.

멸구 방제에 힘써주고 특히 요즘 발생이 우려되는 목도열병과 이삭도열병 방제,

그리고 과수의 낙과방지와 김장채소 관리에도 주의하여 농민들의 땀의 결실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영농지도를 강화해주기 바랍니다.

넷째, 검소하고 훈훈한, 분에 맞는 추석절 보내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한가위 보름날에 온 가족이 모여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추석은 훈훈한 인심이 넘치는 우리의 전통 명절입니다.

그러나 분에 넘치는 과도한 선물을 주고 받음으로써 추석명절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잃어가게 되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선물을 자제하도록 하고 추석전에 체불노임 일소, 귀성객 수송대책, 농·수·축산물 수급대책, 불우이웃 위문계획 등 이미 수립 추진중인 「추석맞이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도로변 휴게소 점검, 도로 표시판 정비, 도로정비 등으로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불편을 덜어주고 아울러 출향인사 귀향에 따른 대화자료도 미리 작성하여 추석을 계기로 우리 고장의 발전된 모습과 도정의 성과를 알릴 수 있는 세심한 준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추석이 검소한 가운데 이웃간에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뜻깊은 명절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섯째, 9월중에는 대비하고 추진해야 할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도의회 개원준비와 국정감사 준비, 국토 대청결운동의 적극 전개, 제72회 전국체전 준비등 당면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과제가 많고 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부딪히는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칙을 너무 지키다 경직되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너무 유연성을 발휘하다 궤도를 이탈하여 거꾸로 조직의 기강과 능률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는 경직성이고 하나는 부조리라 일컫고 있습니다.

원칙을 존중하면서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부조리에 흐르지 않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외유내강의 자세로 활력있는 도정, 내실있는 도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9월은 3/4분기를 마감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년초 계획했던 사업, 대통령께 보고 드렸던 사업, 도민에게 약속했던 사업들을 제대로 지켜서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실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도민에게 보여줌으로써, 도민이 도정을 믿고 함께하도록 행정의 신뢰분위기를 끊임없이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시대는 우리에게 인식의 대전환과 끊임없는 자기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거듭나는 자세로 도정발전에 헌신하여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지금은 이 해의 모든 성과를 총정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근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환절기에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에도 유의하여 보람찬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경충남선수단 단합대회 인사

1991년 9월 4일

자랑스런 충남인의 자존과 긍지

고장의 명예를 빛내줄 선수와 지도자 여러분, 충남체육을 성원해 주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하늘도 높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구리빛 얼굴에 건강한 여러분을 보니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는것 같아 마음 든든하고 뿌듯한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 태풍 글래디스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으나,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풍요한 가을, 황금빛 벼 이삭속에 영글어가는 고향소식을 전하면서, 무더위와 싸우며 집념과 의지를 불태워 온 선수 여러분에게 200만 도민의 성원과 감사를 대신 보내 드립니다.

지난 89년 충남체육은 대전직할시 분리로 한때에는 전국 14위라는 최하위의 수모를 겪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 모두는 실망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며, 구슬땀을 흘렸던 기억을 합니다.

그 결과, 작년에는 전국 11위라는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저력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 전국체전이 한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자리는 여러분께 부담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고향의 명예를 위하여 고되게 훈련하고 땀흘린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뜻으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누구나 고향이 있지만 고향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신분과 소속이 다르지만 모두 고향을 대표하고 있다는 정으로 오늘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향을 대표하고, 자랑스런 내고장 영예로운 충남인이라 자존과 긍지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도의정에 여념 없으신 중에도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이대희 도의회 의장님, 충남 체육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부회장님, 그리고 충남팀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국군체육부대와 각급 대학교 체육지도교수님, 그리고 각팀의 지도자여러분께 도민 모두의 고마운 뜻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에서 재회의 기쁨을 나누게 되기까지 건승을 기원하면서, 승리후에 또 다시 자축의 모임을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조촐한 자리지만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역대도지사 초청 도정보고회 인사

1991년 9월 7일

혼신의 노력과 정성을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여러 선배 지사님과 도민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 충남도지사의 중책을 맡게 된지도 벌써 8개월이 넘었습니다.

진작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데도 뒤늦게 자리를 마련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먼길을 마다 않으시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모실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선배 지사님들께서 쌓으신 업적과 전통적인 도민의 저력에 힘입어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정을 위하여 가르쳐 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에 고개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비록 선배 지사님들의 역량이나 기개에 비하면 미약하기 짝이 없지만 선배 지사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드립니다.

다시한번 오늘의 자랑스런 충남이 있기 까지 기반을 닦아주시고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충남발전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한 고마운 인사를 올리면서 모쪼록 재임중 간직하셨던 아름다운 추억을 나누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준비한

유인물에 의거 「충남의 오늘과 내일」을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회 충청남도 산업미술대전 격려사

1991년 9월 7일

무역전쟁과 상품경쟁의 시대

오늘 지역문화발전과 우리고장 상품개발의 밑거름이 되고자 했던 산업미술대전이, 어느덧 다섯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여러분께 축하를 보내면서, 좋은 작품을 출품해서 향토미술발전에 기여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데올로기의 반목과 갈등이 사라지고 전쟁의 위협이 줄어든 오늘날, 앞으로의 세계는 치열한 「무역전쟁과 상품경쟁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건속에서 우리 상품의 질을 높이는데에 「기술개발」은 물론, 「산업미술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과제」가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산업미술대전을 다섯번째 치르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 고장의 향토미술발전과 상품개발을 선도해 왔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를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새롭고 참신한 작품, 좀더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작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줄 압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도록, 수상작품이 제품화되고 실용화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수상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작품개발에 더욱 정려하여 우리고장 산업미술발전을 이끌어가는 기수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본 산업미술대전 준비에 힘쓰신 대전, 충남예총지부 관계자여러분과, 단국대학교 윤병규 교수님을 비롯한 심사위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지도자 간담회 인사

1991년 9월 9일

보람의 결실 기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신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님과 순회코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제 비가 오더니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과일이 익어가고 가을의 황금들판에서 벼포기가 영글어 가고 있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이제 우리 체육계도 지난 1년동안 씨뿌렸던 것을 거두어 들이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한해는 대전직할시가 분리된 이후 우리 충남체육은 비록 같은 하위권이기는 하지만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한해 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열악한 여건을 무릅쓰고 땀흘려 애써오신 여러분, 가맹단체 살림을 뒷받침 해주시고 우리 충남체육의 전략전술을 이끌어 주시는 순회코치와 지도자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의 정성과 땀으로 금년 전국체전에서 보람의 결실이 크게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육을 통하여 우리 충남을 자랑스런 고장으로 가꾸고 꽃피워 나가고자 하는 것은

200만 도민 모두의 소망이며 자리를 같이한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더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동안 흡족하지 못한 지원에도 힘든 훈련과 기량연마에 열중해 온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부족한 점을 잘 매듭져 주는 일입니다.

충남체육의 내일의 기대와 염원이 전국체전 각 경기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충남체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가맹경기단체 지도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백승탁 교육감님과 체육계 임원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조촐한 음식 즐겁게 드시고 정다운 이야기로 오늘의 모임을 더욱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57회 도의회 임시회 인사

1991년 9월 10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의원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국에서 처음으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의원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급속한 산업사회의 발달로 국민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 날로 다양해지고 고액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생활형편이 나아지면서 주민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과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도로, 교량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투자가 필연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5.5%의 낮은 재정자립도가 말해주듯이 적은 재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동안 적은 예산으로 도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업화시책과 새로운 세수 발굴등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는 다른 한편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낭비와 비능률 요인을 최대한 제거해 나가는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되었고,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대책과 당면한 생활민원해결 그리고 농어촌 종합대책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지출요인이 생김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안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으로 세출예산은 총규모 7,470억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하여 540억원, 약 7.8%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세출예산이 늘더라도 국비보조금과 교부세 추가분을 주 재원으로 함으로써 추경편성에 따른 주민부담에는 별 영향이 없으며 앞으로의 집행과정에서도 예산낭비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노력하는 자세로 맡은 바 직분에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도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우리 1만4천여 공무원 모두가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바 입니다.

이 예산안에는 바로 이같은 우리의 정성과 굳건한 의지를 담아 우리고장을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자랑스러운 고장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제안설명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민봉사위원 간담회 인사

1991년 9월 13일

현장중심의 봉사행정

지난 여름의 땀흘린 수고가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먼저 오늘 표창을 받으신 다섯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계에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우리 도정에도 성원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생활하다 보면 기쁠때도 있고 즐거운 때가 있는가 하면, 억울할때도 있고, 또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은 우리 도정이 찾아가서 해결해 주고자 하는 현장중심의 봉사행정을 펼쳐 보이는 날입니다.

주민들의 어두운곳, 가려진 곳을 살피고 널리 의견을 청취하면서, 이를 도정에 반영코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안정과 화합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이 시기에 행정이 주민의 편에 서서 봉사 한다는 믿음을 심어 주고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하루의 봉사로서 주민여러분들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리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인식하고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변함없이 봉사행정을 펼치겠다는 우리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종사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 열심히 봉사해 드릴 것입니다.

최근 정든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면,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의 여유가 생길수록, 사람들은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 오는 현실이 나타나는데, 사회복지학자들은 이를 "U턴 현상"이라고 합니다.

2000년대에 가면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농촌이 어렵다고 해서 고향을 떠나는 것은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속단이라고 확신합니다.

더구나 이곳 부여는 백제의 고도로서 민족문화가 깃든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내 고향을 더욱 사랑하고 지역발전과 자랑스런 내고장 가꾸기에 힘써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스스로 정화하며 올바른 길로 가게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데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으로서는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여기와서 가전제품 하나 고쳐 다시 쓰는 일도 과소비를 억제하는 길입니다.

이제야 말로 근검절약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덕목으로서 권장되고 정착되어야 합니다.

도정에 대한 참여와 함께 우리 고장이 더욱 도약하고 발전하는 자랑스런 충남이 될수 있도록 성원과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일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5회 상록문화제 치사

1991년 9월 15일

상록수의 정신

친애하는 당진군민 여러분!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열다섯번째 맞이하는 상록문화제의 개최를 당진군민 여러분과 함께 크게 기뻐하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고장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지역출신 김현욱 국회의원님과 관내 각급 기관, 단체장님 그리고 군민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이처럼 성대한 축제를 개최토록 준비해주신 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 류지환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더없는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상록문화제는 이곳 당진이 우리나라 농촌계몽 소설의 대표작인 상록수의 고장이라는 군민여러분의 긍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설 상록수는 채영신과 박동혁이라는 주인공이 일제치하의 어두운 현실속에서도 농촌계몽을 실천해 나간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최근 우리 농촌은 이농현상이 늘고 농산물 개방압력과 산업화시책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소설 상록수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 농촌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무엇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곳 당진은 서해안개발의 전진기지로서 활기찬 미래가 기대되는 곳이고, 또 이와 병행하여 우리 농촌도 더욱 활력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구슬진 땀을 흘리고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할 때 입니다.

당진군민 여러분!

상록수의 정신은 우리 군민 모두의 가슴속에 흐르는 자랑스런 정신이며, 또 긍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지와 정성으로 우리 고장을 더욱 살기좋은 곳으로 가꾸는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없이 소중한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분명 오늘의 축제는 군민여러분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안겨주는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화합의 디딤돌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곳 당진을 결코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고장으로 가꾸면서, 오늘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창달하고자 하는 당당한 군민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축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해안시대를 활짝 꽃 피우게 될 지역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1991년 9월 16일

통일을 향한 민족의 과업

오늘 민족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범도민적 실천의지를 확산시키고 북한의 개방을 촉구하기 위한 민족통일 충청남도 촉진대회가 이처럼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창식 민족통일 중앙협의회 의장님과 내빈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뛰어난 작품으로 영예의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달전 소련 보수강경파가 주도한 쿠테타가 3일간의 드라마로 끝나면서 볼셰비키 혁명 이후 소련을 지배해왔던 공산당이 붕괴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어떤 물리적 힘으로도 자유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것도 붉은 광장의 스탈린 동상이 철거된것도 그 모두가 그나라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과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핵안정협정 서명과 이에 따른 핵사찰을 거부하고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만이 그들의 권력체제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듯한 환상에

젖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소련사태에 영향을 받아 개방과 대화를 중단하고 북한동포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폐쇄의 벽을 더 높게 쌓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의 길이 결코 멀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남북한 U.N 동시가입이 실현되고, 북한 주민들도 점차 자유에 대한 눈이 트이고 귀가 열려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민족통일 충청남도 협의회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인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열강의 손에 의하여 가로막힌 분단의 역사속에서 동족상잔의 쓰라린 비극도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족의 지혜와 힘을 모아 분단의 벽을 허물고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야만 하는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 절대 안정속에 굳건한 경제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불순 세력을 척결하고 사회질서와 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께서 「10.13특별선언」을 제창하신 것도 결국은 통일의 확고한 기반을 쌓아올리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뜻깊은 대회를 계기로 회원여러분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민족의 화합과 번영을 이끌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민족의 통일과업을 위해 사명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대회를 위하여 애쓰신 김병탁 회장님과 회원여러분께 거듭 치하를 드리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9월 17일

근검절약은 이 시대의 소중한 미덕

도민여러분!

그리고 지역 기관·단체장님과 새마을 지도자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높고 풍요함이 익어가는 가을의 이른 아침입니다만, 우리에게 맞는 우물을 다시파야 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먼저 추석맞이 범 도민 새마을 대청소를 마치고, 바쁘신 시간을 늘려서, 근검절약 실천 결의대회에 함께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밖의 경제사정이나 소비문화 행태가 어디까지 와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증가율이 떨어지고 있고 국제수지 적자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계층의 전매특허인줄만 알았던 사치풍조가 점점 확산되면서, 위화감을 느끼던 우리 서민들마저 불필요한 소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86년부터 우리는 그동안 다져진 경제안정과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년간 12%의 고도성장과 국제수지 흑자를 시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원동력은 국민 모두가 근면을 바탕으로, 잘 살아 보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보람된 결실이었습니다.

한나라의 경제운영 측면에서 보면, 때로는 소비가 미덕이 되어 성장을 끌어 올리는 수단이 되었는가 하면, 물가를 안정시키고 통상마찰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내수확대는 인정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에 넘치는 지나친 과소비는 우리 경제의 기반을 흔들어 놓고 사회의 기풍을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이제 고급 승용차를 몰고 값비싼 옷을 입었다고 해서 부러움을 사거나, 자기과시를 한다고 해서 존경받고 인정해 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사회분위기에 들떠, 사치와 낭비풍토가 만연되어 과소비가 판을 치는 사회풍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경제는 뒷걸음 칠 수 밖에 없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는 다시 가난했던 옛날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검소하고 짜임새 있는 생활을 해서 여유있는 내일을 지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때이며,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건전한 중산층을 형성하는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근검절약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사회의 소중한 미덕이 되고 밝은 내일을 약속해 주는 발전의 열쇠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사회분위기가 굳건한 안정속에 절제와 자제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생활이 정착되어야 할때 입니다.

개개인이 근검절약하고 저축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더이상 나라경제를 파국으로 이끌지도 모를 외제 선호사상이나 분수에 맞지 않는 과소비를 과감히 청산하고 방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여러분 한분한분의 근검절약의 의지와 뜻이, 우리사회의 큰기쁨으로 확산되고, 또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실천이 큰 보람으로 맺어지는 내일의 결실을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중추절을 맞이하여, 금년은 그 어느해 보다도 검소하게 지내시고, 정다운 이웃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따뜻한 정담이 오고가는 뜻깊은 명절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9월 20일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문화

역사적으로 보면 한 나라 융성의 저변에는 그 시대를 이끌었던 시대정신이 있었습니다. 작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물질적 풍요로부터 정신적 성숙을, 경제적 성장으로부터 정치적 민주화를, 중앙집권으로부터 지방자치를, 국가우위대립으로부터 국제우위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인류에게 양차대전이란 상처를 안겨 주었던 20세기를 서서히 마감하면서 제3의 물결로 일칭되어지고 있는 21세기를 향하는 시대로서 이를 이끌어 나갈 신사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유치가 교차하면서 빚어내고 있는 혼돈의 국가현실은 물론 수천년 이어온 농업이 서해안개발에 따라 공업화되어 가고 있는 충남의 현주소에 있어서도 확고한 그 어떤 정신적 토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국난시에는 충절로서 나라를 구하였고 평상시에는 선비로써 온 백성의 귀감이 되어 왔던 충남인으로서는 이 나라 정신문화를 재정립하는데 앞장 서지 않을 수 없는 소명을 느끼게 됩니다.

자칫 잊혀지기 쉬운 전통문화를 재조명하고 오늘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실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갖고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곧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해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와 아름다움 그리고 그 정신을 찾아야 하며, 그것은 비교급적 우위가 아니라 최상급적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가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도 그러한 맥락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정신의 뿌리와 실체를 곰곰히 생각하노라면 너무 모른다는 사실을 솔직히 감출 수 없습니다. 「충남정신의 뿌리와 실체」는 이러한 기대와 의지에 따라 지난 2년간 충남대학교 현대사회문제연구소에 연구시켜 발표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널리 읽혀질 수 있도록 보급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구의 성과에 대하여는 보는 이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우리 스스로 도민정신의 뿌리를 찾고 그 실체를 재조명하기 시작했다」는데 그 더 큰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그러므로써 후인들이 이를 다시 가꾸고 다듬어 그에 맞는 시대정신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는 밑거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기개가 하늘을 찌르고 구국단성의 일념으로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불태웠던 선조들의 넋이 우리 시대의 값지고 소중한 유산으로 부추켜지고, 시대를 이끌어 가는 정신문화를 새롭게 창조하는 디딤돌로써 이 한권의 책이 일조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1991년 9월 26일

도정의 다섯가지 역점시책

존경하는 유한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력자원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정을 살펴 주시기 위하여 우리 도를 찾아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은 오랜 「백제문화의 터전」으로서, 또한 「충절의 고장」으로서 훌륭한 전통과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갖고 있으며 오늘날 국토의 중심지로서 꿈과 희망의 고장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건과 새로운 개발수요를 충남발전의 기틀로 연결시켜 나간다는 생각아래 「자랑스런 충남건설과 새 문화창조」를 도정의 기본목표로 정하고

① 신뢰와 화합을 통한 지역역량의 결집,

② 성숙된 민주자치기반의 확립,

③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확산·발전,

④ 자랑스런 충남건설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

⑤ 유서깊은 충남문화의 창조적 진흥등

다섯가지 역점시책을 마련하고 우리 1만4천여 모든 공무원들은 「진실·화합·창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면한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하여 호화·사치·낭비의 추방과 에너지 10%절약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연탄과 유류 그리고 천연가스등 생활연료의 충분한 물량확보와 원활한 공급을 통하여 도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려 오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무원 모두는 주민의 바램과 소망을 도정시책에 착실히 반영하면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번영하는 국가건설에 정성과 책임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가르침과 성원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도정보고에 앞서 도의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중배 부지사입니다.

신건식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홍태 내무국장입니다.

박중규 재무국장입니다.

이종현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조춘자 가정복지국장입니다.

김정인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류덕현 농림수산국장입니다.

노규래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정진홍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동원 민방위국장입니다.

구기찬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정동기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종은 공보관입니다.

이명수 개발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보고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와의 간담회 인사

1991년 9월 27일

사회 내적인 힘을 결속

참으로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오곡백과 무르익어가고 우리의 마음도 풍요로워 지는 계절입니다.

오늘 뜻깊은 민방위 창설 16주년을 맞이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그동안의 노고와 우리 도정에 협력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모임은 여러 강사님들께서 우리 민방위조직을 국민의 기반 조직으로 이끌어 주시고, 국민정신을 심어 주신데 대한 고마운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앞으로도 민방위대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더욱 알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하는 뜻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제관계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어느 서방지도자의 말도 생각납니다.

최근 소련의 개혁과 남북한 UN가입등으로, 냉전체제의 마지막 유산으로 남아온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염원도 가까워 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정세는 대결에서 공존으로, 반목에서 화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국제 정세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대처할 능력이나 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대와 희망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동서고금의 역사에 등장하여 명멸했던 수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국태민안과 국력을 키워온 나라는 세세손손 영속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나라는 역사속에 영원히 사라져 버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특히 화해와 협력 시대의 도래로 전쟁위협이 사라졌다고 속단하는 것은 아닌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역량으로서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사회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서슬 퍼렇게 대치하고 있던 시대의, 투철한 안보의식은, 최근 우리 경제를 다시 되살리는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근검절약을 실천하면서, 우리 사회가 다시 활기와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합심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방위란 군사적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내적인 힘을 축적하는 것이 지금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소 민방위대원들의 소양교육을 담당해 주시고,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강사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졌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룩한 성장의 기틀이 위협받고, 내부적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가 활력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당부 드리면서, 변변치 않는 식단이지만, 즐겁게 드시고 자랑스런 우리 고장을 새롭게 창출해 나가는 우리 도정에도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9월 28일

민속문화는 귀중한 무형의 자산

높고 맑은 대풍의 가을을 맞아 제32회 전국 민속 예술경연대회가 우리나라의 남단에 위치한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선조들께서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켜오는 동안 수많은 외침을 받아 오면서도 슬기롭게 민속예술을 면면히 이어 왔습니다

역사와 문화는 삶의 운치와 그 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면 옛 조상들의 숨결이 어린 민속문화는 모두의 귀중한 무형의 자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산을 전승보존하고 가꾸면서 여기에 새로운 힘을 축적하여 앞날을 바라보는 역량과 지혜를 창조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금번 전국 민속 예술경연대회는 우리민족의 주체성과 자긍심을 높히고 미래의 값진 민속예술의 전승과 발전의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도의 참가종목인 "물페기 농요"는 충남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물페기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농요로서 근면·협동의 조화로운 정신속에 풍년을 기원하는 한마당 놀이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회가 잊혀져가는 우리 민속예술이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롭게 조명되고 전승되어 국내외에 선양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991년 9월 28일

문화는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힘

오늘 오곡백과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다섯번째 개최되는 놀뫼향토제를 19만 군민 여러분과 함께 경축하면서 오늘의 행사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이 지역출신 김제태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유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사가 군민 여러분의 의지와 역량을 한곳으로 모으고, 지역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는 축제로 성장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 땅을 지키면서, 보다 잘 사는 고장으로 만들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이 반드시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도덕적인 이상과 가치가 빛나고 올바른 정신문화가 살아 숨쉬는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하여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문화를 창조하고, 가치관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다가오는 2,000년대의 우리의 운명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건전하고 올바른 문화, 참된 가치관을 세워 나간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지금보다 한차원 더 높은 수준의 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놀고 마시는 향락문화나 무분별한 외국문화를 모방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열렸던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우리 논산지방의 "연산백중놀이"가 종합우수상을 차지했던 것도 우리 선조들께서 지역문화를 소중히 하고, 가꾸어 왔던 군민 모두의 자랑이요, 긍지였습니다.

최근들어 백제의 옛터인 우리고장의 문화를 재조명하고, 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의욕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우리의 문화적 긍지와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민여러분!

지역의 문화는 곧 지역발전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더구나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해진 지금, 우리의 미래는 바로 지역 스스로의 선택과 역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놀뫼벌 축제는, 군민으로서의 긍지를 드높히는 화합과 도약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군민 여러분 한분 한분이, 지역의 문화를 소중히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울때, 이 고장은 문화적으로 더욱 윤택하고, 풍요로운 고장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행사준비에 힘써주신, 놀뫼향토제 집행위원회 하기수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보내드리면서, 지역문화를 사랑하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19만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7회 도원문화제 및 연기군민체육대회 치사

1991년 9월 29일

화합과 다짐의 자리

10만 연기군민 여러분! 오늘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군민여러분의 의지와 화합을 다지는, 도원문화제행사와 군민체육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경축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뜻깊은 축제를 준비해 주신 도원문화제 추진위원회 관계자여러분과, 지역기관단체장님, 그리고 군민여러분의 성원에 대하여, 먼저 마음으로부터 심심한 치하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일찌기 한 나라의 문화나 체육은, 그 나라의 국민적 수준과 국력을 가늠하고, 번영과 성장을 촉진하는 척도가 되어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고, 세계인의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국민모두의 정성과 지혜가, 하나의 힘으로 어우러지고, 민족의 저력과 오천년의 유구한 역사속에 다져진, 우리의 문화적 역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은 그 영광과 환희가 아니라, 이러한 민족의 저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지혜와 힘의 원천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난 몇년동안 이러한 자랑스런 향기와 긍지를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단합하고, 화합하며, 힘을 하나로 모아, 개국이래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한강의 기적을 창출했던, 활기찬 우리의 본래 모습을 다시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밝고 희망찬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우리의 후세들에게도, 정말 자랑스런 이땅을 물려 주어야겠다고 하는 우리모두의 의지와 각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대회가 갖는 의미는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짐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연기군민 여러분!

이곳 연기는 금강연안을 따라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왔던 곳이며, 백제시대에는 금이산 전투의 충절정신이 빛나는 고장입니다.

그리고 백수문학의 슬기가 숨쉬는 문화의 향기 또한 짙은 고장입니다.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은 7년동안 꾸준하게 성장한 도원문화의 바탕이 되었으며, 오늘과 같이 군민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뭉쳐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높은 가을 하늘아래 군민여러분 모두가 지역의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화합과 질서의 축제, 그리고 지역발전의 축이 되는 축제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선수여러분의 선전분투를 기원하면서, 참석해주신 내빈여러분과 군민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와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9월 29일

우리의 것을 다시 찾자

가을의 풍요로움이 더해가는 이때 올해로 세번째를 맞이하는 서산문화제가 16만 서산시·군민의 성원속에 이처럼 성대히 개최케된 것을 주민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면서, 그동안 대회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문화제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국회 박태권 의원님과, 본 문화제 추진워원회 박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유지 및 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곳 서산지역은 예로부터 백제의 미소라 일컬어지는 마애삼존불입상등 귀중한 문화유산을 많이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문화제 시연종목이기도 한 간월도굴부르기제와 같은 전통문화를 훌륭히 보존 계승하고 있는 유서깊은 문화의 고장입니다.

또한 서산 갯마을이라는 말에서 풍기듯 토속적인 한국정서와 함께 충청인의 온유·소박함을 대표하는 인심좋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근래 들어서는 서해안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더불어 대규모 공단이 들어서는 등 급속한 발전도 병행되어 명실공히 서해안시대의 주역으로 각광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의 문화제는, 우리의 민족정서가 살아 숨쉬고 충남발전의 기틀이 될

살기 좋은 곳에서 열릴 뿐만 아니라 다른 고장의 문화제와는 달리 서산시민과 서산군민, 즉 두 형제 시군이 한마음으로 어우러져 화합을 다진다는 점에서 한층 뜻이 깊다 할것입니다.

본래 우리 민족은 해마다 풍년·풍어를 이룬 가을에는 한해 축복을 주신 조상께 감사를 드리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미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이런 풍습은 마을마다 고유의 민속이 되어 역사와 함께 변천을 거듭하면서도 그 명맥을 유지, 아름다운 전통문화로서 자리를 잡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런 우리의 고유문화는 서구의 향락적 문화에 밀려 많은 부분이 퇴색되거나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최근들어 우리것을 다시 찾자는 운동이 전개되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로써, 오늘의 문화제와 같은 행사가 그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본 서산문화제가 더욱 다채로운 행사로 알차게 꾸며져 서산시·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마당 잔치로 승화 발전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2천년대라는 가슴벅찬 미래를 눈앞에 두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라는 위업을 달성하였는가 하면 뚜렷한 외교적 성과로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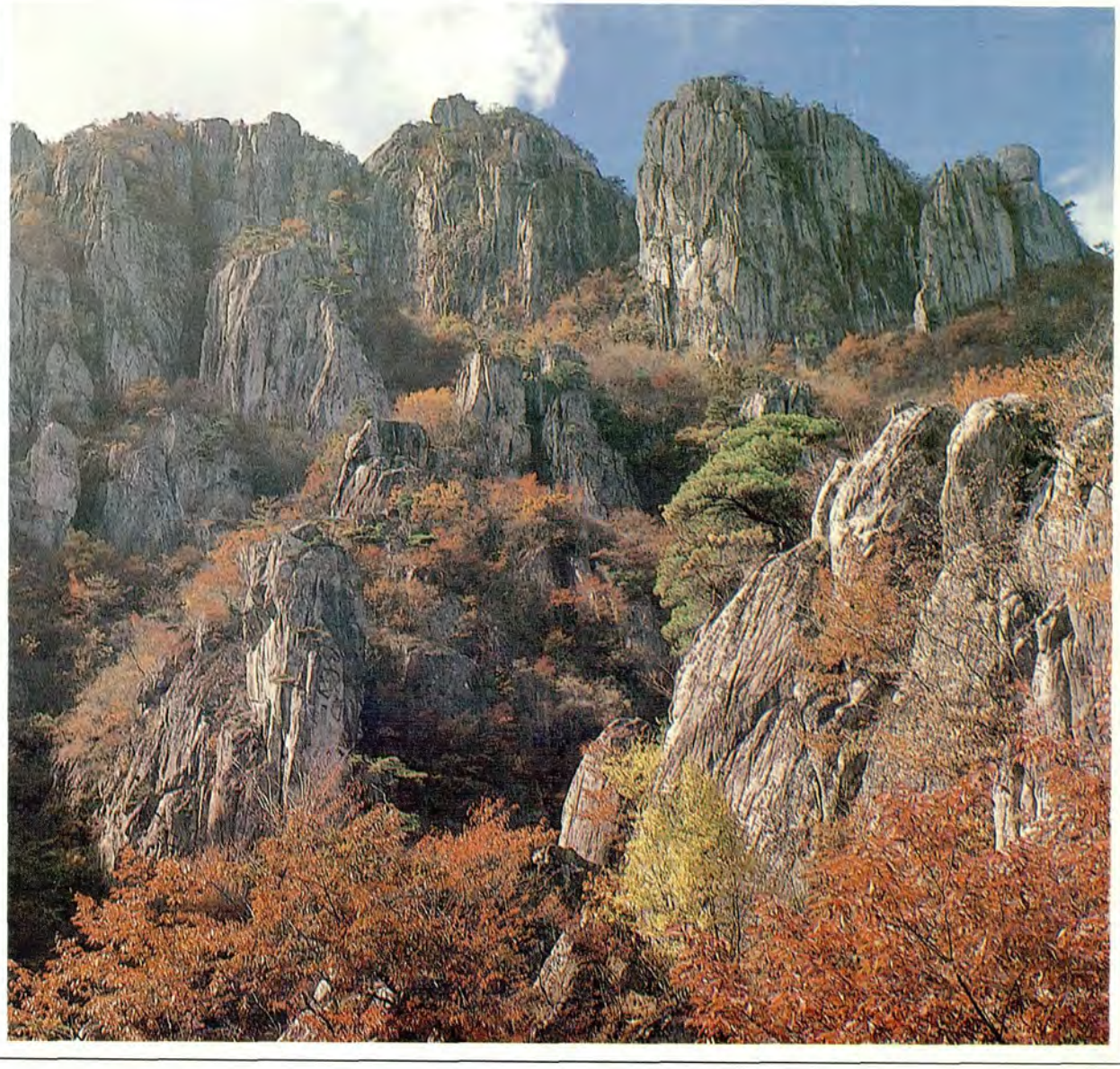
이에 우리는 우리의 높은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선진문화국민으로서의 긍지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높은 의식수준을 가진 민족이 결국 선진국민의 대열에 끼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문화제행사를 계기로 이런 우리의 뜻이 전통문화의 보존계승은 물론 선진문화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91년 10월



△ 대둔산 가을

1991년 10월 1일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10월은 문화의 달입니다.

모든것이 풍요롭고 넉넉한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운이 융성하면 문화가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조상들께서 꿈꾸어 오던 잘사는 나라도 결국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높은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국가였습니다.

그 어떠한 물질적 발전도 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할 때만이 그 가치가 빛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참된 자유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서울 올림픽때처럼 우리 민족의 자존을 자랑스럽게 느낀때도 별로 없었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그토록 세계인의 찬사를 받은것도 결국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문화적 역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는 이러한 우리의 역량이 더욱 빛나고 시대에 맞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화가 꽃피는 시대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진흥과 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준비하고 그 힘을 축적해 나아가야 합니다.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지금 우리 고장 곳곳에서는 향토문화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문화행사에 참여하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와 가정, 또 우리 지역사회에 올바른 가치관이 숨쉬고, 우리의 생활이 문화적으로 더욱 윤택해 질 수 있도록 과연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갖고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계절이 되기를 빕니다.

1991년 10월 1일

화합의 디딤돌

청명한 10월의 하늘이 열리는 오늘, 멀리 성주산이 보이는 이곳 웅천에서 네번째 맞이하는 만세 보령문화제를 이처럼 성대히 개최하게된 것을 군민여러분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국회 김용환 의원님과 기관 단체장님 그리고 군민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여러분의 긍지가 담긴 이곳 보령은, 고려시대이래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거친 수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지정학적 위치에서 만세보령이란 고유명사로 지칭되면서, 조상들의 숨결이 숨쉬고 전통이 빛나는 자랑스러운 터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충신열사를 배출하고, 선대들이 살다간 이야기와 문화유산이 곳곳에 깔려있는 유서깊은 문화의 고장입니다.

이러한 군민여러분의 긍지와 자부심은 만세보령문화제를 특색있는 문화축제로 가꾸어온 바탕이 되었습니다.

특히 풍어제, 광산제, 풍년제는 이곳 보령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향기짙은 문화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의 체육대회도 군민여러분의 단합된 의지와 지혜를 모으고, 지역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것 입니다.

보령군민 여러분!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한 지역의 문화는 그 지역의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 왔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상들의 문화유산을 가진 지역이라 하더라도, 오늘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지 못한다면, 그 지역의 앞날은 어두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3년전의 서울올림픽이 그토록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선대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특성에 맞는 문화 역량을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민족의 저력과 문화적 향기는 중단없이 계승되고 발전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만세보령축제는 지역의 단순한 놀이 마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힘을 한 곳으로 모으고, 미래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지역의 에너지를 비축하는 도약의 광장으로 승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해진 지금, 본인은 오늘의 축제가 지역발전을 책임진 군민 여러분 한분 한분의 의지가 하나로 모아지고, 지역결속을 다지는 화합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참가하신 선수 여러분의 땀과 군민 여러분의 성원이, 2000년대 우리 고장을 살기좋은 터전으로 가꾸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행사준비와 진행에 참여하신 만세보령문화제 추진위원회와 각급기관, 행사단체 관계자여러분께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0월 2일

지역문화 발전과 화합의 구심점

친애하는 금산 군민여러분!

아름다운 금산의 대자연과 함께 10여 성상을 이어온 금산 인삼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연륜과 명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물결치는 황금벌판, 풋과일이 영그는 빼어난 대 자연의 품안에서, 전군민의 관심과 성원속에서 열리는 금산인삼제를, 본인은 먼저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자리를 함께하신 국회 유한열 의원님, 기관장님과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우리고장 의회의원님을 비롯한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부터 금산은 임진년의 국난을 칠백의사의 절의정신과 이치대첩으로 빛나는 충절의 고장이요,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명성을 떨쳤던 좌도농악을 비롯한 물페기 농요등 민족의 숨결이 서려있는 민속의 고장이며, 영약신초로써 만인이 건강을 지켜온 인삼의 종주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11회 금산 인삼제는 이러한 지역의 독특한 문화정서와 멋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서, 이제 막 출발한 지방화시대에 있어 전국적인 명성과 가치를 더해 가리라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유문화는 산업문명의 발달과 함께 서구문화에 뒷전으로 밀려, 많은 부분이 퇴색되거나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88서울올림픽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한국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높이 되살려 세계 10대 교역국의 위상에 알맞게 인류역사의 주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고향 지사로 년초 부임하면서, 지역문화 발전을 도정의 첫째 목표로 정하고 자랑스런 충남의 새 문화를 창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금산군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동안 외래문물의 도입으로 우리의 옛모습, 우리의 것, 우리 본래의 모습을 잃어 버리고 서구화 되어 있는 현실을 깊이 되돌아 보면서, 이제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것,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랑인 도의, 특산물, 명소, 대표농가, 민속을 소중히 간직하고 가꾸는 지방문화의 발전운동으로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을 전개, 고장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렵게 땀흘려 이루어낸 우리의 국민 경제가 사회의 잘못된 가치관과 과소비 풍조로 우리 경제의 잠재력 마저 흐트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잠재력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기 위하여, 「새생활·새질서 실천」과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추진 하면서, 지방자치로 도민화합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농업과 문화의 진흥 시책과 공업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통하여 서해안 개발과 내륙지역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모두의 슬기를 모으고 절약, 근면, 화합으로 이제는 더이상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국력소모를 청산하고 21세기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전국민 모두가 나서야 하겠습니다.

금산 군민여러분!

한 시대를 이끌어 가는 지역의 문화역량은 더없이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오늘의 인삼축제는 분명 우리고장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는 견인차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본인은 금산인삼제가 '93대전 엑스포를 맞이하는 우리모두에게 인류의 평화와 건강을 기원하는 세계적 축제로 기필코 도약하리라 확신하는 한편,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인삼문화제가 지역문화발전과 2000년대를 꽃 피울 화합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행사준비에 애써주신 인삼선양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와 군민여러분의 굳은 단결에 치하를 다시한번 드리면서,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는 금산지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0월 2일

값비싼 희생의 댓가

오늘 우리는 열여섯번째 합동위령제를 맞이하여 망향의 영령들께서 잠들고 계신 영전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이곳 망향의 동산에는 멀리 이국땅에서 조국산천과 부모형제를 그리다가, 가슴에 한을 품은채 유명을 달리하신 해외동포와 6.25 동란시 구국의 정신으로 참전한 재일 학도의용군들께서 잠들어 계십니다.

먼저 민족수난의 아픈역사에 시달리고 울분을 삭여야 했던 영령들께 200만 도민과 함께 옷깃을 여미고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상처를 안고, 통한의 아픔을 인내하며, 꿋꿋하게 살아 가시는 유가족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영령들께서는 참으로 힘겹고 굴욕스런 민족의 시련기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잃은 슬픔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것인지···,

몸소 체험 하셨습니다.

운명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치가 떨리고 마디마디 마다 저려오는 아픔이었기에 영령들의 삶을 생각하면, 그 아물지 않은 상처가 되살아 나는 듯, 가슴이 미어지고

터질 것만 같습니다.

가난에 시달리고 악몽속에 몸부림쳐야 했던 그 숱한 나날들, 누구나 지치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 였습니다.

이제 토막쳐진 세월은 우리의 살기어린 눈빛을 흐려놓고, 한맺힌 응어리도 가라앉혀 놓았습니다.

망향의 영령들이시여!

떠나신 자리의 공간을 지켜온 우리 후손들은 찌든 가난의 허물을 벗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영령들께서 꿈에도 그리던 잘 사는 나라, 힘있는 나라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념의 장벽도 허물어지고 어제의 적이었던 소련이나 동구국가들도 이제는 우리의 이웃의 되었습니다.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으로, 냉전 이데올로기의 마지막 유산으로 남아있는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도 더 가깝게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이 모두가 영령들께서 치르신 값비싼 희생의 댓가라고 생각하니 부끄럽고 죄책감이 먼저 앞섭니다.

영령들이시여!

오로지 바램이 있다면, 다시는 이 땅에 암울했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 나라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소서.

사랑을 주셨던 사람들 여기 모두 모여 옷깃 다시 여미고 머리숙여 향을 피워 올리나이다.

따뜻한 조국하늘아래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

'91 풍년맞이 새농민대회 축사

1991년 10월 3일

농촌의 밝은 미래와 새역사 창조

오늘 민족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의 고도인 이곳 유서깊은 부여의 구드레 들판에서 11년 연속 풍년을 자축하고, 우리 농산물 애용을 결의하는 새 농민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대회준비에 힘을 많이 써주신 손 창준 농협충남도지회장님, 김 관종 부여농업협동조합장님과 임직원 그리고 농협가족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우기 오늘 이 대회는 최근 가중되고 있는 농산물 개방의 국제적 흐름과 급변하는 국제적 환경의 변화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가 농어촌문제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여러분의 의지를 결연히 다지는데, 더 큰 의의를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인 국제화와 개방화는 우리 농업부문에도 예외없이 다가와서, 바로 우리 눈앞의 현실적인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농업의 장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쁜사람은 근심할 시간이 없다"는 말과 같이 이러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여건에 맞게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농업부문의 국제경쟁력을 스스로 강화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우리 농업이 활력을 되찾아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잠재력을 또한, 충분히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농자는 "天下之大本"이란 말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우리의 농수산업도 다른 산업과 같이 고루게 발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농수산업과 농어촌 부문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의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비하여, 내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농어촌 구조개선에 모두 42조원이상을 투자하여, 우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며, 우리 충남도에서도 향후 10년간을 「농어촌구조 혁신의 년대」로 삼아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농어촌의 활력증대를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정부나 사회 일부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범국민적 노력과 단합을 요하는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물론,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산업이 다소 소외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드래도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소외의식과 남의 손에 의해 살 수 만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같이 우리들 농촌문제에 범국민적 공감이 이루어 졌을 때 바로 농촌문제의 매듭을 푸는 전화위복의 기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를 모으고 발휘해서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대회가 이러한 여러분의 결연한 의지가 하나로 모아지고, 우리 농촌을 꿈과 희망이 넘치는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과 새출발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희망찬 농촌의 밝은 미래와 새역사 창조를 위하여, 희망의 씨를

다시 뿌리고 가꾸면서, 우리가 안고있는 보람된 과제를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십시다.

오늘 풍성한 결실의 가을하늘 아래, 보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마을과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91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격려사

1991년 10월 4일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먼저 우리고장 청소년을 위해서, 서울에서 공연단과 함께 찾아주신 한국청소년 공연예술진흥회 최문경 이사장님을 비롯한 출연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의 달인 10월을 맞이하여 고장 마다 특색있는 문화제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여러분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예공연을 갖게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우리 충남은 예로부터 충절의 고장, 선비의 고장으로서 자랑스런 선현들의 숨결이 어린 문화적 유산과 전통이 빛나는 고장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여러분들은 이처럼 훌륭한 선조를 가지고 있다는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나 용기있고 슬기롭게 자라나는 내일의 주인공으로서, 나라의 앞날과 우리 고장의 미래를 책임지고 선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청소년 여러분은 우리 모두의 꿈이요, 희망입니다.

오늘의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며, 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앞날이 좌우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지난 달에 우리나라는 UN의 정식회원국 자격으로 대통령

께서 UN총회에 직접가셔서 연설을 하심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의 평화와 역사를 앞장서 이끌어가는 자랑스런 나라라는 인식을 전 세계인들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위상에 부응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더욱 위대하고 훌륭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언제나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청소년,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굳굳하게 일어서서 뜻을 펼치는 청소년으로서 여러분은 우리고장과 나라를 사랑하며 저 넓은 세계를 향하여 힘껏 발돋움하고 무한한 꿈을 펼치는 청소년이 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공연이 청소년 여러분의 이러한 꿈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기를 빌면서, 오늘의 공연을 위해서 힘써주신 출연진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김제태 의원님과 내빈여러분께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72회 전국체육대회 결단식 격려사

1991년 10월 5일

자랑스런 모습, 최상의 결실

친애하는 선수와 임원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만 도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제72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의 장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먼저 출전하는 선수단 여러분에게, 200만 도민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보내드리면서 필승의 결의를 굳게 다짐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먼길에 오셔서, 우리 선수단의 장도를 축하해 주시는 각급 기관·단체장님과 도민 여러분께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남체육의 역사가 어느덧 6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체육을 대표 했던 수많은 체육 엘리트와 스타들이 배출되었고, 또 그동안 이루어냈던 찬란한 위업과 함께, 우리 충남체육이 한국체육 발전의 주역이 되어 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은 곧 우리 충남체육이, 대전시 분리 이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운동력이 되었습니다.

3년도 채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 우리는 충남체육의 재건을 위해서 그동안 남다른

노력과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여기계신 체육지도자여러분, 선수와 임원, 그리고 200만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장의 씨를 다시 뿌리고 체육발전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해 전국체전에서의 결과는, 우리 충남체육이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못 이루어 낼 것이 없다는 값진 교훈도 얻어냈습니다.

선수와 임원여러분!

우리는 한선수를 키우고 하나의 팀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우연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고, 우리가 쏟아온 정성과 다져온 의지만큼,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씨뿌려 가꾸고 구슬땀을 흘렸던, 인고의 시간을 극복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소속이 다르고 팀도 서로 다르지만,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정으로 이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프로 선수는 자신을 위해서 뛰지만, 아마츄어 선수는 소속팀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을 불태웁니다.

이번 체전에서 여러분의 소속은 충남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은 여러분의 부모형제가 태어나 살아왔고, 또 살아가야 할 터전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향을 위해서 그동안 땀흘리고 닦은 기량을 힘껏 발휘한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검게탄 얼굴과 자신에 찬 늠름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벅찬 기대와 희망을 갖습니다.

또한 우리 충남체육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여러분들이기에, 더욱 애정어린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냅니다.

선수단 여러분!

이제 남은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일 입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최상의 결실과 보람을 안고 자랑스런 모습으로 개선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남다른 각오와 집념으로 장도에 오르는 1,300여 선수단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200만 도민의 뜨거운 박수와 성원을 보내드리면서,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특별히 격려까지 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선수여러분! 체육인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0월 5일

어르신 잘 모시는 일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천안군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 하셨습니까?

하늘은 높고 들에는 풍성하게 곡식이 영글어 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계절 만큼이나 올해는 여러가지로 축복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랜 염원이었던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한 것은, 통일을 한걸음 더 가깝게 만들었으며, 폭풍우 속에서도 11년 동안의 연속적인 풍년은 우리 농민들의 가슴을 뿌듯하게 합니다.

우리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 스스로의 결정으로 처리하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고,

특히, '90년 UN 45차총회 결의에 의해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지정하여, 어르신들께서 사회에 기여해 온 공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도록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저는 기회 있을때마다 어르신 잘 모시는 일이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 길이고 바탕이다라는 말을 자주합니다.

오늘의 이 행사는 이러한 「어른을 잘 모시자」하는 생각에서 치뤄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오늘 이 자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어르신들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구경을 하시고 젊은이들에게도 어른을 잘 모시는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고을은 옛부터 효와 예를 중요시한 고장입니다.

「어른을 잘 모시는 일」이 가정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13주년 기념식 치사

1991년 10월 5일

우리의 삶을 보존하는 생존운동

오늘은, 지난 78년 10월 5일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가꾸고자하는 자연보호 헌장이 선포된지 13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본인은 먼저 그동안 자연을 사랑하고 이를 보호하며 가꾸기위하여, 자연보호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자연보호 지도위원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와 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고장의 자랑이며, 많은 전설이 전해져오는 신비로운 계룡산을 깨끗이하고 아름다운 산으로 가꾸어 주시는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실로 자연이란 우리들의 삶의 원천이요 생활의 안식처로서, 마치 어머님의 품속과 같은 곳입니다.

또한 자연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수려한 풍경과 맑은 공기, 그리고 생활의 여유를 제공해 주는것 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자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는 생존마져 위협 당하고 있습니다.

오존층의 파괴라든지, 이상기온 현상,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겪고 있는 공해나 환

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은 말없이 훼손되고 정복 당하는 것같지만, 반드시 훼손되고 파괴된 만큼의 댓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보호 운동이란 물질문명에 대한 반대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보존하고자 하는 생존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있는 소중한 이땅의 밝은 내일을 약속받으려는 문화운동이며 역사운동입니다.

자연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지키고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 국민의 문화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산과 바다는 해마다 피서객과 등산객이 버린 쓰레기로 얼룩지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도 중요하지만, 질서를 지키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깊이 인식하고, 이제는 문화국민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본인은 오늘을 계기로 우리의 자연보호운동이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와 함께,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지키고 가꾸는 정신운동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자연속에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소중한 이 터전을 자랑스럽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다짐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쁘신중에도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뜻깊고 보람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절 이웃돕기 참여자에 대한 감사

1991년 10월 6일

서 한

국향 그윽한 가을이 깊어갑니다.

평소 저희 도정에 적극 협력해 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중추절에는 추석절 이웃돕기에 고마운 뜻을 전해주셔서, 11,000여명의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은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늘 살펴주시는 정분이 고맙고 소중하기만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으로 저희 도정을 아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라오며, 하시는 모든일 뜻대로 결실되기를 빕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10월 월례조회 훈시

1991년 10월 7일

창조적 문화유산

먼저 오늘 상을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과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10월달 여러가지 행사가 겹쳤기 때문에 1일날 조회를 미룬 것이 1주일이나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본격적인 가을이 열리는 10월달을 맞이하고 있읍니다.

전국 도처에서는 지금 단풍이 천자만홍으로 물들고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잇따라서 열리고 있읍니다.

오늘 전주에서 전국체전 개막식을 갖습니다만 우리 선수단도 지난 토요일 이 고장의 명예를 걸고 출전의 장도에 올랐읍니다.

10월달 각종행사는 단순한 행사로 그칠것이 아니라 화합과 슬기, 자랑과 활력이 가득찬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건전한 문화 행사로, 그리고 문화운동으로 승화발전 되어야 하겠습니다.

개천절이 있고 한글날이 있고 문화의 날이 있는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문화에 관련해서 몇가지 생각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아시겠읍니다만 미국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미국의 3대 대통령 제퍼슨 대통령이 전쟁중에 부인에게 했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지금 왜 전쟁을 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내 다음세대들은 철학과 수학을 배울거고 또 그 다음 세대는 문화와 역사를 가꿀 수 있을거다」라고 했읍니다.

이말은 21세기를 향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의미 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우리 문화가 활짝 꽃피고 그리고 우리생활이 문화적으로 더욱 윤택해 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은 그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역량을 축적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그나라 그지방 고유의 특성이 중요시 되고 있읍니다.

이런 문화를 가꿀때 그 바탕에는 우리의 것 우리의 전통, 우리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한국사람이고 나는 충남사람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내고장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없으면 문화발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랑과 긍지는 우리에 전통적 가치이고 전통정신이며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던 조상들의 창조적 유산이라고 봅니다.

이달에 한글날이 있읍니다마는, 세종대왕께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한글을 창조하셨던 것은 우리의 자랑스런 큰 유산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에서 자기나라 말과 글자로 교과서를 만든 나라는 30개국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가나문자도 한자에서 빌려온 것에 불과하고 또 전세계 공통어라는 영어도 로마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한글을 가진 우리 민족은 정말 우수한 창조적 문화유산을 가진 민족이라고 자부해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얼마전 미국에서는 "인디안과 콜롬부스 후손과의 화해를 주선한다"는 외신이 있었읍니다.

콜롬부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를 발견해서 새로운 세계사에 신기원을 열었읍니다만, 원래 그 목적지는 인도였고 콜롬부스의 항해목표는 처음에 목적지와는 빗나간 그런 실패작이 었읍니다.

그러나 1492년보다 700년이전에 우리나라 혜초스님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항해술로 원래 목적한 인도에 정화하게 상륙을 하고 「왕오천축국전」이라는 소중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이외에도 일본의 국보 1호 반가사유상도 우리 조상들의 것이고 또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 이것도 우리 조상들이 했읍니다.

이러한 모든것이 우리 민족의 자존의식과 긍지를 높여주는 문화유산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어떤 시각과 긍지를 갖고 역사를 생각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문화발전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88년에 서울올림픽을 우리민족의 역량을 다해서 훌륭하게 치루어냈습니다.

서울올림픽은 스포츠 제전을 넘어 문화예술축제로 승화시켰다고 세계 언론들이 극찬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서울올림픽은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렸을 뿐만아니라 우리 민족 스스로 우수성을 발견하고 확인했으며,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가를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긍지, 문화적 향기를 잊어버리고 살아왔읍니다.

올림픽이 지난후 사회적 갈등대립으로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의를 중시하는 충절정신 또 그토록 열성이 강한 면학정신, 근로정신은 뒷전으로 가고 어려운 일을 안하려고 하면서, 무작정 잘 먹고 잘 입고 많이 쓰려는 과소비, 사치와 낭비가 심한 사회문화에 이르게 되었고, 이런풍토는 우리경제 발전에도

지장을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본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이 꿈꾸던 잘사는 나라는 물질적으로 뿐만아니라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높은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국가를 건설하는 일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가치관과 정신문화를 가진 정신적으로 강한 사회,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우리도정 목표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일본 기업인들이 한말이 있습니다.

당신네들은 우리 일본에서 기술을 가져 갈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까지는 빌려가지 못할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를 찌르는 따끔한 말로 들리고 여러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어령 문화부 장관께서도 기업문화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문화라는 밑천이 없이는 앞으로 기업을 꾸려갈 수도 경쟁에서 이길 수도 없다는 얘기로 저한테는 들립니다.

엊그제 백제촌 건립에 대한 용역보고도 있었읍니다만, 우리가 백제문화권을 개발하는것이 다가오는 2000년대 우리문화를 꽃피우고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긍지를 높이는 사업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여기에 강한 신념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지난 9월달은 우리고유의 추석명절이 있었고 을지연습, 의회추경예산 심의와 국정감사가 있었읍니다.

그때에 밤을 새워가면서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다해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남·북한 동시유엔가입이라는 분단 43년만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읍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24일 유엔총회 정식회원국의 대통령으로 참석하셔서 연설을 하

셨읍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희망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한 연설로 21세기를 맞이하는 인류에게 비젼을 제시했읍니다.

대통령께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인류비젼과 한반도에 자주평화, 민주적 방식의 통일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3단계 대안도 제시하셨읍니다.

이제 남북한 유엔가입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 외교적 성과이며 분단 43년만에 가장 중요한 통일을 향한 역사적 사건이었읍니다.

우리는 냉전 이데올로기 그리고 단일민족 국가로 그러면서도 세계 하나밖에 안남은 분단국가로서, 통일에 대비한 염원과 함께 유엔동시 가입을 계기로 북한이 핵개발이나 스커트 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로 전국을 겨냥하는 이러한 소모적인 무력경쟁이나 대립을 지양하고 떳떳한 통일의 대도인 역사의 길로 나와서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독일통일을 참 부러워하고 있읍니다마는 독일 동방정책에 아버지라는 빌리 브란트수상의 조언을 잊을 수가 없읍니다.

빌리브란트는 독일이 준비없이 너무빨리 통일을 해서 부작용이 너무크다는 말을 했읍니다.

좀더 계획성있게 점진적으로 추진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독일의 혼란과 부작용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계획성 있고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거듭하는 노력을 지역단위에서 아끼지 않아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실의 계절, 4/4분기가 시작되어서 1주일이 지나갔고 그동안 전력투구를 해온 우리도정이 알찬결실을 맺도록 하나하나 챙기고 추수도 하고 마무리를 해야하는 그런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군에서 개최되는 문화제 체육대회가 지역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문화운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체전이 열리고 있읍니다만, 여기에도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고 초래되는일이 없도록 점검을 해주었으면 하고, 체육인은 물론 공직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충남 체육에 저력과 응집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당면한 영농과 관련해서 일손돕기 추진에 새로운 판단과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추곡수매 준비 그리고 민원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하고, 그리고 얼마 안있으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1주년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읍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력의 확보는 남보다 한시간이라도 더 일을 할 때에 그리고 한푼이라도 우리가 더 저축할때, 덜 쓸때 그만큼 우리 힘은 비축되고 경쟁력은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잠시 언급했읍니다만 1996년에는 우리 충청남도가 개도한지 100년, 즉 1세기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출범 100주년의 의의를 찾아내고 이를 기념할 수 있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서 시·군별 실·국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알차게 수립해 주길 바랍니다.

문화의 달입니다만 불란서 루소는 불란서 역사상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입니다.

에밀은 루소를 불후의 사상가로 만든책으로서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지만 결국 세계명작으로 남아서 오늘날 여러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읍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 보셔서 잘알겠읍니다마는, 이 책에서 보여준 루소의 창의력, 사고방식은 프랑스 역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갔읍니다.

우리 도정의 역사도 창의력을 가진 우리 도 산하 공직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고 발전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도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4/4분기가, 마지막 분기가 되니만큼 모든것을 알차게 결실될 수 있도록 여

러분의 분발과 다짐을 기대합니다.

지금 이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강과 질서 그리고 봉사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시인 장폴렌의 시 한구절 여러분한테 소개 하고자 합니다.

'태양은 빛으로 말을 하고 꽃은 향기와 빛깔로 얘기한다, 구름과 비와 눈은 대기언어이고 지금 자연은 온갖 몸짓으로 가을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읍니다.

우리 공직자는 지금 이시점에서 나라와 국민 그리고 역사앞에 어떤빛, 향기와 빛깔 그리고 어떤 언어와 어떤 몸짓으로 오늘을 얘기할 것인가 깊은 성찰이 있길 바랍니다.

국제로타리 3680지구 제14년차대회 축사

1991년 10월 12일

가장 소중한 덕목

국제 로타리 3680지구 클럽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지역사회 봉사를 다짐하며 보람된 활동을 펴온지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로타리안 여러분의 남다른 의지와 헌신적인 봉사활동의 흔적은 지역의 소중한 역사로 빛나고 있슴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을 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얻고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회원여러분이 펼쳐 온 사랑과 봉사활동이 이러한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기 까지에는 남모르는 노력과 정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은 먼저 지역발전에 헌신해 주시고, 우리 도정발전에도 큰 성원을 보내주신 신민호 총재님과 로타리안 여러분의 각별한 정성과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로타리의 상징인 톱니바퀴의 원리는 우리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며, 우리가 서로 돕고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치와도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남을 도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이 오늘날에 와서 그 가치가 희석되고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지만, 사랑과 봉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서로 이상의 고리를 형성하고 그 어떠한 가치보다고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가장 소중한 덕목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가치있는 생활과 보람있는 인생을 이루려고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활약보다는, 로타리지구 회원여러분처럼 하나의 이념과 목표를 결속해서 다양하고 폭넓은 이해속에서 활동한다는 것이 이 사회를 위해서도 더 큰 효과와 보람의 결실을 가져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14년차대회를 갖는 것 또한 이러한 여러분의 의지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는 뜻깊은 모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쪼록 오늘 년차대회가 로타리안 가족여러분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고, 바람직한 지역사회의 역사를 창출하는 등불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국제로타리 3680지구의 무궁한 발전과 더불어 앞으로의 활약에 200만 도민의 큰 기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결단식 격려사

1991년 10월 15일

더 일하는 사회

오늘 우리 고장의 명예를 짊어지고 제2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여러분의 장도를 본인은 믿음직스러운 마음으로 환송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선수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지도 선생님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께 깊은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신 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메리카 대륙처럼 넓은 평원도 아니요, 중동국가에서 뿜어 나오는 풍부한 석유자원도 아닙니다.

좁은 국토와 빈약한 자원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자랑스런 나라를 이룩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신 께서 우리에게 준 우수한 두뇌와 조상들이 물려준 창조적인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민족의 저력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기능올림픽 9연패를 이룩한 선배기능인들의 찬란한 위업에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은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냉전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그리고, 치열한 무역전쟁과 국제

기술 경쟁시대로 변모 되면서, 그 어느때 보다도 높은 수준의 기능인력과 산업기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0년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발전을 가속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부지런한 국민성과 값싸고 풍부한 그리고, 뛰어난 자질의 기능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고도산업사회 진입과정에서 임금은 높아지고, 우수한 기능인력 또한 부족한 실정에 이르게 되었으며, 성장의 바탕이 되었던 절제와 인내 그리고 근면하게 일하던 사회풍토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운상승의 열쇠는 우리 상품과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투자 그리고 고급 기능인력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가 근면하게 일하는 사회풍토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앞날은 어두워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수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앞날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과 손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국의 산업역군으로서 그리고 기능인으로서,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줄기찬 노력을 다한다면, 여러분은 물론 우리가 소망하는 지역의 밝은 내일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

모쪼록 금번 기능경기대회의 출전이 앞으로 여러분의 기능과 인력을 함께 갖춘 산업의 역군으로 성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신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고향의 명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단식이 있기까지 정성을 기울여주신 한만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그리고 기능인 양성의 최일선에서 집념의 불을 지펴오신 지도선생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선수 여러분의 장도에 행운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0월 16일

가슴 뿌듯한 만남

온누리에 결실의 기쁨을 나누는 풍요로운 계절에, 오늘 우리 농민과 도시의 소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의 협력과 관계발전을 다지는 도·농화합의 자리를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농촌발전에 헌신 해오시고, 본 대회 준비에도 힘써주신 손창준 농협도지회장님을 비롯한 충남 농협인여러분과 주부교실 관계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우기 오늘의 대회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데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며, 우리 농산물의 애용과 생산의지를 드높이는 「농민과 소비자의 한마음잔치」라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곧 농수산업이 건전하게 육성되고 농어촌의 활력이 증대될 때 도시의 경제 또한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농촌실정은 농수산업의 개방화를 서두르는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로 현실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최근의 세계경제 질서는 무역 자유화를 확대해나가는

추세로 변하고 있으며,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대외지향적인 경제운용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통상에 의한 갈등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실적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교역국으로서 국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된 지금, 우리의 입장은 대외적으로 국제적 여건 변화에 탄력있게 대처하고, 대외적으로는 현재의 산업구조를 고도의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전환·발전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때입니다.

특히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분야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이행기간을 확보하면서, 우리의 주요농산물이 가급적 개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적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내년부터 앞으로 10년간을 「농어촌구조 혁신의 시대」로 삼아 과감한 투자와 제도적인 개혁,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 못지않게 우리의 각오 또한 새롭게 다져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의 국제무역 수지 균형은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것을 훨씬 초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 까지에는 여러가지의 요인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너나 할 것없이 우리 자신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몇년간 우리는 「자기몫 찾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힘을 소모했다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경쟁적으로 발생한 과도한 임금인상 투쟁과 사회일각에서 움터온 호화·사치·향락문화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데 모여 건전한 소비풍토 정착을 위한 알뜰한 지혜를 모으고, 우리 농민들이 정성으로 가꾸고 거두어 드린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오늘 이행사야말로,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 가슴벅찬 만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이 소중한 모임을 계기로 농협인은 농촌의 활력증대를, 소비자는 우리농산물의 애용을, 그리고 생산자는 품질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의 결의를 다지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이 대회가 우리 농촌의 밝은 내일을 위한 뜻깊고 보람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방송 대전분실설립 축하리셉션 축사

1991년 10월 17일

지역민들의 바램

오늘 풍요한 결실의 계절이 깊어가는 우리고장에, 기독교방송의 손과 발이될 대전분실이 설립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이땅에 기독교 사랑의 씨앗이 뿌려진지도 1세기가 지났고, 지난 54년 한국 최초의 민간방송으로 기독교 선교방송이 시작된지도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방송은 하느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 시대에 바람직한 도덕관과 윤리의식을 심어주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기독교 청주방송이 개국되면서, 오늘 이곳 대전에 분실을 설립함으로써, 우리고장 성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써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전분실 설립을 계기로 기독교 방송에 거는 지역민들의 바램이 있다면, 우리사회가 지금보다는 좀더 도의심이 양양되고 바른사회로 건전하게 만들어 가기 위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해서, 더 좋은 방송으로, 그리고 더욱 사랑 받는 방송으로 발전을 거듭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분실설립을 함께 축하해 주시는 기관·단체장님과 내빈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태어나는 기독교방송 대전분실에 대한 성원과 협력을 다해 줄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기독교방송 이재은 사장님 그리고 이광일 분실장님의 지역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기대를 하면서, 거듭 오늘의 분실설립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충남·대전 장애인 체육대회 격려사

1991년 10월 17일

가슴 뭉클한 것

결실을 재촉하는 가을의 문턱에서, 오늘 우리고장의 장애인 가족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과 화합을 다짐하는 체육대회를 갖게 된데 대하여, 2백만 도민과 더불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대회준비에 힘써주신 강창희 지부장님과 지체장애인 재활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도 뜨거운 찬사를 보내는 바 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민족의 수난기와 찌든 가난의 역사속에 버림받고 어둠속에 묻혀졌던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고의 세월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지난 81년 세계장애인의 해가 선포되면서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에 걸맞은 장애인 복지제도에 대한 개선과 함께, 장애인들도 이 사회의 떳떳하고 동등한 사회인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보여주신 불굴의 정신과 실천적 의지는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며 새로운 감명을 불러 일으키고 국민모두의 자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실례로 정상적인 사람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라산 등정을 비롯하여, 길고 험난한 국토종단의 대장정등, 장애인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불굴의 의지와 행동은 실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성취되기까지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충과 고난은, 아마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보람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바로 여러분의 건전한 사고와 확고한 신념, 그리고 굳건한 실천적 의지의 결실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는 생의 산 교훈이라 믿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밝은 미래를 향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장애인 가족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의 사랑과 기대, 그리고 열린 마음을 보내면서, 오늘의 이 성스럽고 복된 모임이 보다 뜻깊고 보다 유익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6회 충남수석 연합전시회 축사

1991년 10월 17일

자연의 멋과 진실한 가치

하찮은 하나의 돌이라도 그곳에는 수백년 풍상이 씻기며 인내해 온 흔적이 있습니다.

작고 소박한 자연석 한개가 기나긴 세월의 내력이 은은하고, 고색찬연한 멋으로 나타날때,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 고고한 자태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수석은 그 자체로 자연의 오묘함과 섭리를 느끼게 하는, 신이 우리에게 준 예술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나라에서 화엄경을 배워온 승전법사가 돌을 모아 불경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도 나와 있듯이, 일찌기 우리 선조들께서 돌을 사랑했던 것은 대자연이 일깨워 주는 참다운 진리를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바쁜 생활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석은 자연의 멋과, 순수하고도 진실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 그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금번 백제문화제 행사와 더불어 우리고장 수석 애호가들의 모임인 충남수석연합회에서 여섯번째의 전시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수석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도민들의 정서함양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고양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1991년 10월 18일

민속스포츠에 대한 애정

대회에 참가하신 전국의 궁도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 백제의 옛 정취 그윽한 이곳 공주에서, 전국남녀궁도대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충절의 고장을 찾아주신 전국의 궁도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명궁 여러분들의 수준 높은 기량과 힘찬 시위를 지켜 보게된 것을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대회가 개최되는 이곳 관풍정은 지난해 6월 준공되면서, 이를 기념하고, 자축하는 전국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고장 궁도가족 모두는 이곳이 한국궁도의 산실이라는 긍지로, 제37회 백제문화제 개최와 더불어 이러한 큰 대회를 다시 갖게된 새로운 감회를 갖습니다.

전국의 궁도가족 여러분!

지금 세계질서는 동서냉전과 지금까지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념을 초월한 민족간의 또 다른 경쟁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소련연방 민족들의 잇따른 독립선언과, 유고의 내전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본주의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기술경쟁과 무역전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것으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는 우리 민족에게도 시사해 주는 것이 적지 않지만 무엇보다고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민족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내부적 힘의 결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도 보기드문 단일민족국가를 형성하고, 유구한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언어와 풍습에서 오랫동안 지켜 온 전통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궁도는 선조들이 심신을 수련하고, 인격도야에 힘쓴 전통적인 민속운동이며, 민족수난의 역사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고 충절의 혼을 길렀던 호국의 스포츠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민속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우리의 것을 소중히 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전통문화 선양이라는 측면에서 궁도가족 여러분의 이러한 역할에 대한 기대와 성원을 함께 보내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의 대회가 한국궁도 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궁도인여러분의 우정과 화합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대회준비에 힘쓰신 관계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빈여러분께 다시한번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0월 18일

백제의 참 모습

오늘 우리 역사상 대발견이었던 백제무령왕릉 발굴 2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는 학술회의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전국대학 연구소 그리고 일본에서까지 참석해 주신 석학, 제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지난 71년 무령왕릉발굴 이전까지, 역사속에서의 백제문화는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매우 단순하거나 내용이 빈곤하기 이를 데 없었던 안개속에 가려진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서기 660년에 패망한 백제의 수도 사비성은 7일 밤낮동안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었고,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500년이나 지나서 펴낸 삼국사기에서도 백제의 역사가 온전하게 전해졌을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백제의 참 모습은 천수백년의 세월이 흐르고서야 땅속에서부터 살아나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령왕릉 발굴은 출토된 부장품에서 신비에 쌓여 있던 찬란한 백제문화를 입증 했던 역사적 쾌거 였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에게는 더 많은 역사와 문화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좀 더 많은 역사적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서 전해져 왔더라면, 우리 역사의 내용은

풍성하고 값진 것이 되어 우리의 문화를 더욱 뽐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처럼 무령왕릉의 발굴은 백제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역사적 가치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역사적 가치와 의의을 지닌 무령왕릉에 대한 연구는 그 가치만큼 가시적인 활동이나, 그 방대한 량만큼 다양한 연구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전통문화 계승과 역사에 대한 후세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오늘과 같은 학술회의도 다소 늦은 감마저 없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술회의는 국내외 사학계를 총망라하고 백제문화에 정통한 많은 사학자들께서 참여하는 행사로서, 단일주제에 의한 학술회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더구나 우리 충청남도가 백제문화권 종합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기에, 이번 학술회의가 갖는 의의 또한 남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과 관련해서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발굴 보고서"나 "기념 논문집"을 발간하고, 이를 널리 활용토록 하여 이번 학술 회의의 의의를 높일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의 학술회의가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백제문화에 대한 연구 의욕을 북돋아 주고, 백제사연구와 선양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하면서, 뜻깊은 학술회의를 준비해 주신 공주대학교 안승주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0월 19일

세계적인 축제로

친애하는 공주지역 시.군민 여러분!

그리고 백제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도민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란했던 백제문화와 역사를 돌아보면서, 서른일곱번째 백제문화의 장엄한 서막을 올리기 위하여 이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예로부터 백제라는 이름은 충남인의 가슴속에 자존과 긍지를 불러 일으키는 역사적 발원지로서, 무한한 역사의 향기를 우리에게 샘 솟게 했습니다.

매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유서깊은 이 문화제를 지극한 정성과 노력으로 전국 3대 축제의 하나로 지키고 발전시켜 오신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과 공주시.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찌기 백제는 서해로부터 대한해협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해양을 역사무대로 하였던 고대 동양사의 해양 강국으로 그 찬란한 문화를 신라, 일본등 주변국에 전파하면서, 그 기상을 한껏 드높여 그 사실의 일부가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당 연합군의 철저한 유린과 그후 삼국의 통일, 임진왜란, 일제강점으로 찬란했던 백제문화는 흙과 시간속에 묻힌 채로 거의 멸실되어 버리거나, 어느 소설가의 말과 같이 잃어버린 역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71년 역사적 대발견인 무녕왕릉의 발굴은 이러한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실존하는 역사 사실로서 보여 주었고, 백제사연구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충남인의 가슴속에는 항상 백제사에 대한 갈증이 사무쳐, 모든 자존과 긍지의 뿌리와 진실을 캐내고 조명하기 위하여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해마다 백제문화제를 개최하는 것도 결국 앞서 갔던 백제문화를 재조명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우리고장 발전에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롬부스가 위축된 중세 서구역사를 끝없는 대서양 횡단으로 그 탈출구를 마련하였듯이, 우리도 해양왕국이었던 백제의 천년혼을 이어받아 새로운 서해안시대를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93년 대전에서 개최될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도에서는 10년여에 걸쳐 지속하여 온 백제문화 유적 정비사업을 토대로 백제촌 건립등 백제문화 재창출을 위해 백제문화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고, 백제사 편찬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사업들은 일부기관이나 개인에 의해 이룩될 수 없는 방대한 사업입니다.

한방울의 물이 모여 강물이 되고 바다를 이루듯이, 우리는 작은 정성들을 모아 먼훗날 역사에 길이 보탬이 될 또 하나의 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백제문화제가 세계사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한국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백제문화를 선양하는 동시에 민족 화합을 다지는 대축전으로 승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행사준비와 진행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공주시, 군민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59회 한국미협 충남지부 회원 작품전 격려사

1991년 10월 19일

지역화단의 활력소

땀흘려 씨뿌렸던 결실의 기쁨이 충만한 계절에, 우리 고장의 화단을 이끌어온 한국미협 충남지부 회원여러분의 59회 작품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우기 37번째 맞이하는 백제문화제의 막이 오르면서, 때를 같이하는 충남 미술인들의 축제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지금, 지역 스스로의 문화 역량이 더욱 중요하고 절실해 졌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성장에 따라, 오늘에 맞는 정신문화의 계발이라든지, 우리것을 지키는 바탕위에서 지역문화를 발전 시키는 일도 우리 모두의 소중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물질적 풍요함도, 그것이 시대에 맞는 문화 창달에 기여함으로써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풍성한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충남미술이 그 터전을 굳히고 성장이 있기까지에는 향토 화단의 불이 지핀 회원 여러분의 남다른 창작 의지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역문화의 미래는 우리가 어떤 시각과 긍지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회원 여러분의 주옥같은 작품 하나 하나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면서, 창의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작품전이 갑년 가까운 연륜만큼이나 우리고장 화단을 풍성하게 하는 활력소가 되고 참여하는 층이 더욱 두터워지는 성과와 함께, 지방문화 창달에도 크게 이바지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시 준비에 힘쓰신 강신철 지부장님과 출품해 주신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1년 10월 22일

시대정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국운이 융성했고 나라가 화평했던 시대에는 그 시대를 이끌었던 국민정신이 있었습니다.

신라의 화랑정신, 조선시대의 선비정신, 가까이는 70년대 잘 살기 운동으로 전 국토를 휘감았던 새마을 운동이 그랬습니다.

10·13 특별선언이후 범죄와 무질서추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모든 도민들이 전폭적으로 참여해 주신 결과 사회 각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수록된 미담과 수기는 밝은 사회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이웃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책의 주인공이 되어 이 사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가꾸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준다면 후손들에게 복된 내일을 자랑스럽게 물려 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끝으로, 작품을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 편집에 힘쓴 관계공무원 그리고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뜻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0월 22일

새 옷과 새 규범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각급기관 단체장님, 새질서 새생활실천 협의회원 여러분,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각단체 회원과 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열어 나가는 과정에서 빚어진 전환기적 상황을 매듭짓고, 밝고 희망찬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 1주년을 맞이하는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 1년동안 정부는 사회도처에 도사리고 있던 병리현상을 퇴치하는데 단호하고도 일관된 정책과 실천의지를 펴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마을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한 역량을 모으고 솔선참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결과, 범죄가 줄어들고, 교통질서와 행락질서가 눈에 띄게 자리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와함께, 우리사회에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바람직한 풍토와 인식이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남도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지난번 전국단위 평가에서 우수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두는 도민여러분의 성원과 참여에 의한 결실과 보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자리를 빌어 도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성장하면 격에 맞는 새옷이 필요하듯이, 우리 사회도 발전할수록 거기에 맞는 새 규범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인간성의 바탕위에 오늘에 알맞는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 그동안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스스로 개선해야 되고 실천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과 공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 우리가 피부로 느낄수 있을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는 소리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룰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지금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기약하는 새기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 가족들이 펼치고 있는 「도덕성 회복」과 질서지키기 운동 그리고 환경보존운동, 근검절약 운동등으로 각계 각층의 자발적인 힘이 뭉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첫째, 범죄를 소탕하고 불법과 무질서를 다스리는데 있어서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결연한 의지로 나갈 것입니다.

둘째,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비능률과 낭비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와 관행을 과감하게 바로 잡아 나갈 것입니다.

셋째, 일하는 보람과 가치를 소중히 하는 사회풍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호화, 사치, 낭비 추방과 함께 불로소득의 근원이 되는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다가오는 선거에 있어서 질서있는 선거풍토 정착을 위하여,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불법행위도 단호하게 다스려 나갈 것입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은 국가적으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정신혁명 운동」이며 「사회개혁운동」이요, 나아가서는 「국가발전운동」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지역적으로는, 내직장 내고장에 대한 보람과 긍지와 또 가치를 느끼면서,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기본으로 하는 운동으로, 소비절약·실천과, 낭비와 비능률 등의 국력소모를 막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노하우를 축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듯이, 법과 질서를 지키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가치가 되고 덕목이 되어야 합니다.

공권력에 의한 질서가 아니라 성숙한 국민의식이 바탕이된 자율적인 질서가 필요할 때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조금씩 덜쓰고, 조금이라도 더 일하는 근검절약의 기풍이 확산되어 우리사회가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차원 더 높은 선진된 삶의 터전을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뛰어난 한사람의 능력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 이끌어 나가는 사회제도입니다.

나 자신의 목표추구가 이웃에 폐가 되지는 않는지, 나보다는 이웃과 사회전체를 생각하면서, 새질서·새생활 실천을 국가 선진화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때, 우리 사회는 반드시 밝고 희망차게 일하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1년간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참여와 실천에 대하여 거듭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들께도 마음속 깊은 축하를 드리면서, 새질서·새생활 실천과 민주 국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도리와 책임」을 다할 것을 여

러분과 함께 다시한번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0월 23일

문화적 힘과 기반

22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결실의 가을이 깊어가는 오늘, 다섯번째 천안삼거리 문화제를 이처럼 성대히 개최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사준비에 힘써주시고, 삼거리 문화제를 시민의 자랑스런 축제로 발전시켜 오신 천안시 문화예술 선양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과, 성원해 주신 각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일찌기 이곳 천안이 삼남의 길목에 위치하고 여러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가꾸어 왔슴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고려 태조 왕건이 개국의 터전을 닦았던 유서깊은 역사의 고장이며, 많은 충신열사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입니다.

특히 능소버들의 전설이 깃들고, 「흥겨움이 극에 달하나 양반의 기품을 잃지않았다」고 하는 흥타령의 운치가 숨쉬는 문화의 고장입니다. 삼거리 문화제는 이러한 문화적 배경과 시민 여러분의 긍지가 바탕이된 한마당 축제입니다.

더불어 21세기를 바라보는 미래 산업도시로서의 도약과 함께, 문화적으로도 풍요한

고장으로 가꾸고자 하는 시민여러분의 의지가 담긴 화합의 큰 잔치입니다.

한 시대의 문화는 역사의 흥망과 민족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 왔습니다.

우수한 문화속에 역사는 잉태되고, 문화를 가꾸어 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문화를 소중히 하고 오늘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는 소명과 과제는 분명한 것입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이곳 천안은 충남의 대표적 수부도시로서, 지역문화를 이끌어 가는 수범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논리인지도 모릅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러한 역할은 우리 스스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고, 얼마나 많은 문화역량을 축적하고 분출해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통적인 윤리와 가치관이 퇴색되면서, 우리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며 살아 가고 있습니다.

물질문명의 영향으로 감각적이고 흥청거리는 외래문화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조상들의 정신적 가치관과, 소중한 덕목이 되어 왔던 근검절약의 미풍이 절실해 지는 지금입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 졌습니다.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극복하는데, 조금은 덜 입고 덜 쓰며, 조금이라도 아끼고 더 일하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이제 우리는 본연의 가치와 문화를 독창적으로 일구어 낼 수 있는 힘을 비축해 내야 합니다.

다가오는 93년 EXPO에서, 우리 충남의 유구한 역사와 독특한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선양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문화적 힘에서 비롯 될 것입니다.

내고장을 으뜸으로 가꾸고자 하는 노력, 문화 거리를 조성하는 일, 이 모든것도 결국은 우리의 문화적 힘과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자 하는, 도민 모두의 다짐과

각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번 삼거리문화제가 옛 정취 어린 우리의 것을 재현하는 것은 물론, 문화시민, 문화도민으로서의 긍지를 널리 선양하면서, 지역 문화발전과 도민화합을 이끌어 나가는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충남이 미래의 축복받는 고장이 되고, 우리 후손들 또한 풍족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터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국회 정일영 의원님과, 도의회 의원여러분, 그리고 성원해 주시고 지원을 다해주신 지역 기관단체장님과 시민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고장의 문화를 더욱 소중히 가꾸고 힘을 모아 나갈 것을, 다시한번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0월 23일

한방의학 발전의 시금석

오늘 우리고장 한방의료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대전대학교 부속 천안한방병원이, 최신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개원식을 갖게 된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 뜻깊은 한방병원의 개원이 있기까지 정성을 기울여 주신 대전대학교 오응준 이사장님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와, 각계의 성원에 대하여 찬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한방의학은 우리겨레와 더불어, 역사와 생명의 호흡을 같이한 민족의학이며 학문이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한의학에 대한 지식이나 깊은 식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평소 건강유지를 위한 체력관리나 심신을 치료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며, 때로는 서양의학에서도 치료할 수 없는 분야에서 극적인 효험을 나타내는 철학적이고 경험적이며, 차원높은 전통적 의술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시대 최고의 명의였고 동의보감을 저술한 허준선생께서, 임산부에게 아침이슬을 받아 순산시켰다는 이야기에서도, 우리의 한방은 단순한 의술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와 이치를 깨닫고, 이를 응용했던 신비로운 인술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 한의학이 페니실린이나 다이아찡 등의 과학적인 서양의학에 밀려온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날 한방의학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방의학이 더욱 체계화되고 과학화 됨으로써 그 인식은 날로 새로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방의학은 그 깊이나 폭이 무궁무진하여 앞으로 인류 건강증진을 위해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고유의 한방의학에 대하여 애정과 긍지를 갖고, 오늘에 적응하는 의학으로 더욱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충남 북부지역 최초의 천안 한방병원 개원은, 우리고장 한방의학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의료 시혜의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개원을 하는 천안한방병원이, 우리고장 의료보장 확대와 복지사회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역할과함께, 수준높은 의료써비스 제공으로 도민들의 사랑받는 병원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여러분과 지역 한방의학 연구와 발전에 헌신하시고 성원해 주시는 모든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0월 24일

자랑과 활력의 축제

친애하는 선수와 임원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풍요한 가을의 결실과 수확을 기뻐하며, 200만 도민의 힘찬 기상이 펼쳐지는 제43회 도민체육대회의 개막을 갖게 되었읍니다.

특히, 이번 체전은 역사적인 남북한 UN 동시 가입으로 겨레의 앞날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충만한 가운데, 「자랑스런 충남과 새 문화창조」에 전진을 다짐하는 「화합의 한마당」 축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먼저 오늘의 체전이 있기까지 정성어린 노력을 기울여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3일간 기량을 겨루며 뜨거운 우정을 나누게 될 3천여 선수와 임원여러분에게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는 바 입니다.

일찌기 체력은 국력을 상징하고 그 지역의 성장과 번영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지난 서울올림픽에서도 확인했고, 과거 우리가 이룩했던 충남체육의 발자취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읍니다.

우리 충남도민은 전통적으로 충절과 예절의 고장이면서, 진취적인 기상과 끈기있고

활력이 넘치는 도민의 저력을 분출해 왔습니다.

지난번 전북에서 개최되었던 제72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선수들은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지난날 쌓아 올린 충남체육의 저력을 생각하면,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 입니다.

그렇다고 실망을 하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이며, 우리에게는 새로운 집념으로 다시 땀 흘리고 도약하고자 하는 분발과 다짐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충남체육의 미래를 위한 성장의 씨를 착실하게 가꾸어 왔으며, 조만간 그 성과는 우리 모두의 보람과 기쁨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지방화시대와 서해안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 충남은 힘찬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체육뿐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도세신장과 그 창출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다짐을 하여야 할 것인지,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풍요하고 살기좋은 미래는 누가 그냥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 모두가 단합하고 의지를 하나로 하여, 지역의 보다 큰 이익과 발전을 위한 힘을 한곳으로 모아, 혼신의 노력을 다 할때만 비로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체전이 활기차게 도약하고 있는 「자랑과 활력」의 우리 고장 충청남도의 미래에 자신감을 드높이는 분수령이 되고, 충남체육의 영광을 다시 증명해 보는 다짐과 출발의 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선수여러분은 그동안 연마해온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장의 명예를 빛내 주시고, 특히 질서 있는 체전, 인정이 넘치고 우정 어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선전분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회준비에 힘쓰신 충남 체육계 인사여러분, 성원을 보내주신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내빈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만 도민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지역 무역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인사

1991년 10월 25일

맡은바 분야에서 최선을

먼저 이러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용학 무역협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뒤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각기관·단체장님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지역경제를 힘차게 이끌어 오신 무역협회 회원과, 상사대표 여러분들께 심심만 사의를 표합니다.

최근 우리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경제 70%가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먼저 우리기업이 생산성과 수출경쟁력을 회복하여 수출을 많이 해야 한다는데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우리 경제 규모가 커졌고, 사회는 복잡해졌으며, 자원동원에도 한계에 부딪쳐 있는것 같습니다.

기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최근 몇년전 까지만 해도 노사분규에 시달리더니, 지금은 거기에다가 자금난, 인력난, 기술난까지 겹쳐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지방의 경제구조가 워낙 취약한데다가, 그나마 중앙으로부터 자금역류 현상때문에 그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지방행정 측면에서도, 자주 재원부족으로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 투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년도 우리도의 수출목표가 12억$인데, 지난 9월말까지 약8억$의 수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년내 목표달성도 낙관할 수 만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물론 기업이나 근로자, 국민 모두가 우리경제가 이렇게 어렵게된데 대한 책임의식을 통감하고, 대동단결하여, 맡은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자리는 우리지역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지방무역의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회복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무역진흥을 위한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토의되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지역무역업계의 기반을 다져오신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우리 박용학 회장님께서 이끄시는 한국무역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거듭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0월 25일

시대에 맞는 가치와 문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뜻깊은 기업문화 심포지움을 마련하신 한국 기업문화 협의회 정을병 회장님과 관계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고장을 방문해 주신 작가 여러분과 각 기업, 언론계, 학계인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문화적 발전 없이는 경제와 나라 발전에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일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한 나라가 육성하고 국민들이 평화를 누릴때면, 그 시대에 맞는 문화가 발전되어 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역사를 이끌어 왔던 사람들도 문화를 소중하게 가꾸어 왔던 사람들입니다.

얼핏보면 문화란 전쟁시나 사회가 혼란스러울때, 총 한자루, 쌀 한줌보다도 못해 보이는 것이 문화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곧 문화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즈음 문화란 말이 흔해졌습니다.

심지어는 모방문화니 향락문화니 해서 문화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얹짢은 마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에다가 문화를 붙였다고 해서 제가 기분이 얹짢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기업문화에 대하여 별다른 식견이 없습니만, 어느 일본 기업인이 한국에 기술이전을 해 주면서 한말을 생각해 봅니다.

"기술은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정신은 가져갈 수 없을 것이다"

이말은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그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자만심은 아닐것입니다.

그이면에는 그들만의 기업문화를 가꾸어 왔다는 긍지가 숨겨져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기업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선택하여야 할 것인지, 시사해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년간 심한 사회적갈등을 일으키고, 노사분규가 심했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출해내고 대응해내지 못했던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산업사회는 이제 기능적 가치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고 받는 가치로 변해야 합니다.

관리체제가 아닌 참여체제로서의 인식과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때 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업문화의 정착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절실한 과제인, 생산성 향상과 노사화합의 원동력이 되고, 나아가서는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부임초부터 충절과 선비의 고장인 우리충남을, 유서깊은 문화의 고장으로 가꾸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의 문화가 활짝 꽃피는 시대가 될 것 입니다.

그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자못 진지하고, 문화의 부를 축적해야 한다는 다짐 또한 새롭습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나라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문화를 창출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화는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리를 빌어 충남문화를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문화 발전협의회가 있고, 문화의 달에 오늘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 올바른 가치관도 세우고, 우리의 생활이 문화적으로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참다운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문화적 바탕을 제공하고,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행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명깊고 성과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가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빕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0월 25일

장기적인 안목으로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서른번째의 충청남도 축산진흥대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날 농촌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그 어느때 보다고 다양하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땀흘려 노력하시는 양축가 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오늘의 우리 축산업은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축산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 농촌의 주 소득원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산업은 영세성과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 때문에,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축산물 가격의 불안정과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까지 가중되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촌경제에 많은 시련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양축가 여러분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시고, 축산진흥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과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우리의 축산업을 괄목할 만큼 성장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농축산물의 수입 자유화에 대응하고 축산을 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축산장기발전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축사시설개선 사업지원과 축산단지조성, 그리고 축산물가공, 유통사업, 축산분뇨 처리사업등 축산구조 조정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단기적으로 볼때 큰 효과가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우리 축산인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머지않아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은 물론,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올해의 축산경기는 정부의 축산물 수급정책과 가격 안정시책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기반구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양축가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결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럴때 일수록 우리 축산진흥과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더욱 연구 노력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오늘 가축품평회에서 땀흘려 길러낸 우량가축을 출품하여 입상하신 양축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수상을 못하셨지만 우량가축을 정성껏 길러 출품하여주신 여러분께도 아낌 없는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축산진흥대회 준비에 애써주신 하만용 축협중앙회 충남도지회장님과 심사위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행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더없는 치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0월 26일

하늘을 찌른 도민의 긍지

끝까지 대회를 빛내주신 선수와 임원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

지난 사흘동안 열띤 경쟁과 우정을 나누었던 체전의 성화는 내려지고, 이제 우리는 아쉬운 작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도민의 긍지가 하늘을 찌르고 질서와 화합의 체전이 되었던 이번 대회에서, 선수와 임원 여러분은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에 못지 않게 도민여러분도 질서있고 열열한 응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자랑스런 내일의 충남건설에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번 체전에서 내일의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도민들의 화기찬 기상과 저력,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승을 차지한 선수단, 그리고 준우승과 3위를 차지한 선수단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입상을 하지 못한 나머지 시·군 선수단 여러분께도 위로와 분발의 격려를 보냅니다.

선수와 임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지난 사흘동안 정말 잘 싸우고 열심히 응원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충남체육의 내일과 자랑스런 충남 건설을 위하여 힘을 다시 모으고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합시다.

그동안 도민체전 준비에 정성을 다해 주시고 친절하게 손님을 맞아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수단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0월 27일

문화는 삶의 그림자

오늘 존경하는 이어령 문화부장관님을 모시고 충남 문화예술인 가족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충남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상을 받으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예술 발전에 힘쓰고 계신 예총회원 여러분과 시·군 문화원장님,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문화예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갖는 이 모임은 우리고장 문화예술의 울타리를 더욱 튼튼히 하고자 하는 다짐의 자리입니다.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는 지난 수천년동안 독창적인 문화를 발달시킨 문화민족임을 자부합니다.

빛나는 우리의 말과 글인 한글을 가졌고 오랜 전통문화를 이어온 자랑스런 한국인이라는 긍지를 갖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학문과 사상을 즐기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졌나 하는 것이 더 소중했던 우리의 정신문화를 사랑합니다.

근세에 들어와서 망국의 길로 이끌었다는 고집스런 선비정신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자랑스러운 것이 많은 우리문화는 20세기에 들어와 꽁꽁 얼어 버리고 남의 손에 의해 잘려 나간적이 있습니다.

일제에 찬탈당하고 전쟁 속에 희미해졌으며 보리고개를 넘다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얼마전 미국의 소더비 경매시장에서 팔려 나간 국보급 고려시대 불화에서도, 우리 것을 지키지 못했던 역사에 대한 아쉬움을 갖습니다.

문화예술 가족 여러분!

문화란 우리 삶의 그림자와도 같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이 문화이기에 누구에게 강요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를 가꾸기 않거나 천대를 할 경우 그 시대의 기반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사회에 독버섯 처럼 번지고 있는 범죄의 흉포화나 배금주의, 한탕주의도 따지고 보면 문화를 몰아 낸 자리에서 피어난 것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가을이 되면 서점가는 때 아닌 불경기를 맞이 한다고 합니다.

너나 없이 산으로 단풍구경을 나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행락문화란 말도 생겨 났습니다.

소비문화니 향락문화니 해서 문화의 진정한 값어치가 떨어지는것 같아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물질적 풍요를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떠한 물질적 성장도 그것이 문화에 접속되어야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화의 질을 높이고 물질적 성장에 걸맞는 새로운 가치와 문화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와같은 인식으로 우리 충남을 전국에서 으뜸가는 문화의 고장으로 가꾸고자 합니다.

문화사업은 가시적인 것이 적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세대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업은 장기적 구상과 함께 방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자유치도 계획하고 있지만, 손익계산이 빠른 기업에서 선뜻 투자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것, 우리문화를 가꾸고 보호하겠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사회가 「문화적 갈증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이때에, 절실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문화적 주체는 우리 도민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고장 문화예술인들은 이 시대의 소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기대는 그 어느때 보다 큽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도 충남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세운 문화시책은 도민들에게 문화의 바탕을 제공하고 문화적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고장에 유형·무형의 문화적 자산을 늘리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인 여러분!

우리 지역에는 지방문화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시설도 열악해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흡하나마 하나씩 하나씩 문예진흥을 위한 노력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역의 밝은 앞날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실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지역이 앞서가는 문화의 고장이 되고자 하는 도민모두의 바램이며, 이러한 정성과 노력은 반드시, 먼훗날 우리모두의 보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대회준비에 애쓰신 한국예총 조종국지회장님, 한국문화원연합회 박노을 지부장님, 그리고 특히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사랑을 쏟아 주시는 이어령 문화부장관님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0월 28일

지역의 힘을 모아야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희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남북한 UN동시 가입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기운이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정세보고회를 개최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내셔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염홍철 비서관님과 양 영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동안 엄청난 변화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동구권에서 부터 일기 시작한 자유화 물결, 1세기만의 한소수교에 이어, 불발로 끝난 소련의 쿠테타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북한에도 그 어떠한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와 희망을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7일에는 역사적인 남북한 UN동시 가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UN 정식 회원국 대표자격으로 참석하신 UN총회 연설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세계평화에 대한 자신감 넘치는 의지와, 남북한 관계 정상화 3원칙을 제시하시면서, 남북한의 두 의석이 하나로 되는데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을 것

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모두는 북한이 변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속에서 정부와 국민 모두가 바람직한 변화를 바래왔습니다.

엊그제 평양에서 열렸던 제4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합의서를 단일문건으로 만드는 성과를 올렸던 것도, 북한이 어느 정도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을 보는 눈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성급해서도 안되며, 어디까지나 냉정한 분석과 판단에 기초를 두고 좀 더 계획성 있고 참을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북한이 입만 열면 북한식 사회주의 고수를 외치고 있으며, 대남혁명 전략을 포기했다는 어떠한 징후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오히려 핵무기 개발등 체제를 더욱 강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우리는 지난 반세기동안 열강의 손에 의해 그어진 분단의 역사적 상황속에서 살아오면서,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일천만 이산가족은 그 한을 지금도 가슴속 깊은 응어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동족상잔의 처절한 전쟁을 거치면서 또 이데올로기의 대결과 반목속에서, 이루다 계산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손실을 인내해야만 했고, 국력을 소모해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냉전 이데올로기의 유산을 물려 받고, 첨예한 대립과 반목속에 살아왔던 지난 날은 우리 5천년 역사에 비한다면, 반세기에 불과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단현실이 21세기로 까지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진정한 민족화합의 길로 나와, 통일과 조국번영의 역사의 길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일중에는 이러한 민족화해와 통일을 향하는 지방적 힘을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내에서도 이미 쓰레기통속에 버려진 낡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적인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어려워진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회기풍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모두의 책임과 과제인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힘을 축적할 수 있고, 조국변영과 지역의 밝은 앞날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조국과 지역의 내일에 대한 여러분 모두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가 우리의 통일의지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영농학생 전진대회 축사

1991년 10월 29일

흙속에서 흘린 땀

오늘, 대자연과 인간이 함께 성숙하는 계절인 결실의 가을에, 유서깊은 우리 고장 천안에서 윤형섭 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하신 내외귀빈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농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전국의 영농학생 여러분의 의지가 담긴 보람된 전진대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영농에의 꿈을 키우며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오늘 표창을 받으신 모범 영농학생과 지도교사 여러분께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농학생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은 우리 민족의 얼이 살아 숨쉬고 조상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고향이며, 농업은 예로부터 만업의 근본으로서 나라 살림의 바탕으로 섬겨져 왔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급속히 산업화·공업화 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고, 농업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보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농촌과 농업이 언제나 살아있는 마음의 뿌리로 남아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충남은 전통적인 농업도로서, 그동안 정부시책에 따라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농업의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대응하여 선진 농업기반을 튼튼히 확보하기 위한 투자에도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농촌을 내손으로 지키고 가꾸어 나가고자하는 굳은 의지와 투철한 사명감이며, 우리 농업이 가는 길에는 특히 여러분과 같은 젊은 인재의 땀과 지혜를 소망스럽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협농학생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흙은 정직하다」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흙에 정착하여 흘린 땀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며,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풍요로운 「복지농촌의 건설」도 믿음직한 여러분의 손으로 반드시 이룩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흙에 대한 애정과 존중심으로 꾸준히 배우고 익혀서, 장래 과학영농의 기수요 또한 우리농촌을 이끌어 갈 주역으로서,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윤택하고 살기좋은 농촌을 일구어 나가는데 헌신·노력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번 대회가 영농학생 여러분간의 화합과 친선을 다지며, 미래의 농어촌 발전을 위한 굳은 결의를 다지는 유익한 자리가 되고, 아울러 우리 충남을 찾아오신 기회에 가까운 역사 유적지와 관광 명소를 살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는 일들이 꼭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72회 전국체전선수단 해단식 치사

1991년 10월 29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먼저 충남체육을 위하여 선전분투하신 선수단 여러분에게 치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가맹 경기단체장 여러분과 체육계 임원,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고등부 전력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백승탁교육감님과 지도선생님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도민체전을 끝으로, 오늘 우리는 금년 한 해 체육을 마무리 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겨울부터, 혹심한 추위에 견디고 불볕더위 속에 집념의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72회 전국체전을 결산하면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을 갖는 것이, 비록 저만의 생각을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이 나빴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투자에 비례하여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아니냐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그것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

다.

결과를 얻는데는 반드시 그 과정이 있는 법입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이, 결과주의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사람들은 결과주의인 편입니다.

먼저 제 자신부터, 그리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 이루었던 성과가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었는데도, 우리 스스로 지나온 과정을 소홀히 하거나,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자성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분야별로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논산공고 체육과의 눈부신 성장과 함께, 더 큰 가능성이 예고된 점이라든지, 작년도 부진했던 종목이 괄목할 만큼 성장한 경기단체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우연이나 행운을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잘된 것은 더욱 육성시켜 나가고, 부족한 것은 자꾸 채워 나가는 일입니다.

저는 충남체육의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또 우리에게는 그러한 저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올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가 있었지만, 조금도 실망하거나 위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충남 체육의 씨를 착실하게 뿌려 왔듯이 이러한 노력은 지속될 것입니다.

체전은 끝났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다시 분석·평가하고 새롭게 정비하여, 더욱 땀을 흘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한다는 약속을 여러분들 각자가 서로 그리고 도민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대학총장님, 학장님께서도 대학체육육성에 더욱 힘써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시군에서는 많은 우수한 선수가 육성될 수 있도록 더 챙기고 뒷받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자여러분은 물론, 체육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더 큰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체육회 임직원들도 더욱 열심히 뛸 것입니다·····,

오늘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상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충남을 빛내준 자랑스런 얼굴들 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땀 한방울 더 흘리고 각고의 노력을 다한다면, 충남체육의 영광은 반드시 도민 모두의 긍지와 보람으로 다가 올 것입니다.

내년에 다시 이런 자리에 모여서 그 보람과 결실을 나눌 수 있도록, 각자의 맡은 종목과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여러분께 고마운 뜻을 전해 드리면서, 치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0월 29일

자기 소득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

오늘 우리는 스물여덟번째 저축의날을 맞이하여 내빈여러분과 영예의 수상자, 그리고 금융기관 임직원 여러분의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먼저 어려운 경제현실속에서 저축증대에 힘써오신 저축추진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축유공자로 수상하신 여러분들께도 축하를 보내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0년동안 우리나라는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어내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두차례 엄습한 오일쇼크와 80년대초에 맞이한 경제적 어려움속에서, 한때 외채는 눈덩이 처럼 불어난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국민들의 근검 절약과 저축정신은, 바로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8년에는 저축이 투자율을 웃도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저축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금년에 자금난으로 도산한 중소기업이 천여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무역적자에도 원인이 있지만, 국민 모두가 필요이상으로 소비

저축을 하여, 저축을 하지 않은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소비생활도 향상되어야 한다는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수입이 늘고 여유가 생길수록 근검절약은 우리의 더욱 소중한 덕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교훈서인 탈무드에 보면 "어떤 사람이 풍부한 사람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대답은 "자기소득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에 들떠서 과소비를 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을 수반할 뿐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어려워진 경제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곳곳에서 씀씀이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일 열심히 하기운동 등,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본인은 이자리가 그동안 과소비와 향락을 쫓던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사치와 낭비를 줄이고 저축을 생활화하는 다짐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자원도 자본도 없는 우리가 이만큼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것이, 과거 땀흘려 열심히 일했던 댓가였다는 교훈을 되새기면서, 여러분 모두의 인식과 각오를 새롭게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 저축의 생활화와 계도에 힘써오신 금융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저축유공자로 수상을 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0월 30일

서 한

풍요로움이 가득한 결실의 가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도정발전에 적극 협력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계는 이념분쟁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치열한 무역전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우리 경제는 국제적인 개방압력과 무역수지 불균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사회일부에 만연된 과소비와 호화사치 풍조는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갈길 바쁜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명랑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건전한 가정의례 실천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경·조사시 과다 화환 진열(기준 : 영전, 묘소에 10개이내, 예식장에 2개이내),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 호텔에서의 화촉 결혼식과 회갑연 등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처한 오늘의 경제성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전반에 건전한 소비생활이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건전한 가정의례 실천에 솔선수범하여 주시고, 아울러 귀 산하 임직원 및 회원 여러분들도 이에 적극 호응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내내 건승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빕니다.

(532)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관련 간담회 인사

1991년 10월 30일

신뢰와 진실의 자리

시군 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김진현 과학기술처 장관님께서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어려운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전국적인 정책조정계획의 일환으로 오늘 저희도에서도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 간담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지역에 예민한 이 문제가 정부의 의지가 어떤 오해나 굴절없이 분명하게 전달되고,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있는 그대로 전달되어서, 오늘 이 자리가 정부와 지역의 거리를 좁히는 신뢰와 진실의 장이 이루어 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0월 31일

사례집을 펴내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나 기대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민실은 지난 86년, 도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거나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이를 찾아 가서 도와주고 봉사하기 위하여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 기간 운영하다 보니 금년에 그 명칭도 직소민원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도민들의 신뢰와 사랑속에서 봉사행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보람있는 일도 많이 있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 책자에는 지난 1년간 직소민원실을 통하여 피어난 훈훈한 인정과 애환어린 사연들이 포개져 있습니다. 자칫 인정이 메마르기 쉽고 각박한 사회를 적시는 촉촉한 단비가 되어, 주민화합과 위민 봉사행정의 지혜를 찾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그동안 정성을 다해 헌신해 오신 위민봉사위원님과, 성실하게 봉사행정을 수행해 온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그 고마운 뜻을 여기 같이 적어 놓습니다.

감사합니다.

'91년 11월



△ '91충남 농어촌 특산품전

11월 월례조회 훈시

1991년 11월 1일

모두가 도정홍보 요원

결실의 달이고 문화의 달인 10월을 보내고 11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수확의 기쁨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이제 가을걷이가 끝나 월동대책을 세우고 있는 농부의 심정과 같이 금년 1년간의 도정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챙기고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져 나갈 시점에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는 전국체전, 도민체전 그리고 백제문화제, 지역문화예술인대회, 우정의 문화열차등 다채로운 문화 체육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로 바쁜 일정속에서도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일관해 준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특히 그동안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오늘 표창을 받은 공무원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0월은 국내외적으로나 도정면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고 또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먼저 국제 상황속에서 눈에 띄는 것은 유럽공동체와 유럽 자유무역연합이 통합하여 새로운 「유럽 경제지역」을 창설하기로 합의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유럽 경제권은 인구 3억8천에 세계교역량의 45%를 차지하는 거대한

단일시장 블럭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자극을 받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경제공동체 결성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나라를 맹렬히 따라오고 있는 아세안 여러나라의 결속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같은 세계경제의 신블럭화, 지역주의화 추세는 앞으로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우리경제가 이같은 블록내에서 무관세등 관세장벽을 뚫고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제 자국의 이익이나 블럭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21세기 경제여건에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또 증가되는 무역적자등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경제를 조금이라도 더 튼튼히 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도민이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는길 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모두가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땀흘려 일하도록 주민과 함께 꾸준히 노력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몇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인명을 경시하고 개인적인 불만을 다수인에게 해소하는 여러가지 불미스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사회의 윤리도덕을 다시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한두사람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염려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애써서 이룩한 민주화와 자유를 헛되게 하는 이런 분별 없는 행동을 제멋대로 자행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된 것은 내탓이 아니고 일단 다른사람의 탓으로 돌리려는 무책임한

사회적 심리가 만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분수를 지키면서 인간적인 이상을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의 자정운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도의 특수시책인 향약실천운동, 예절학교운영, 전통예절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사회도덕성 회복을 위해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 극빈계층이 있다면 이들에 대해서 따뜻한 보살핌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창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고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도록, 또한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10월말에는 제4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은 남북유엔 동시가입후 첫회담이었던 점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성과를 기대 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성과는 남북간의 관심사인 화해와 교류 및 협력 상호 불가침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는 못봤지만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담장의 분위기라든지 우리 남측대표들을 대하는 북한주민들의 여전한 경직된 태도를 볼 때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길은 멀고 험하다는 점을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엊그제 천안에서 통일정세 보고회를 가졌지만, 이제 우리는 통일에 대한 조급한 기대나 꿈을 갖는것 보다 우선 차분하게 흐트러진 사회분위기를 바로잡고 어려워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서 우리의 국력을 키워야 겠다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해봅니다.

도정을 돌아보면 지난 22일 공주에서 「10. 13 특별선언」 1주년 평가보고회와 범도민 다짐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은 쉽게 표현하면 「올바르게 잘 살기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력,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와 성원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준 결과 지난번 전국 평가에서는 우리도가 우수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내직장 내고장에 대한 보람과 긍지와 가치를 느끼면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 가짐으로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 추진에 심혈을 기울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소비절약을 실천하고, 낭비와 비능률을 없애며 각자가 성실한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밝고 명랑하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운동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생활 주변을 돌아보면 낭비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신문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전체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28.4%를 차지해서 돈으로 환산하면 년간 8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8조원은 우리 무역적자를 100억불로 볼 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생활과 밀접한 먹는것, 입는 것에서 부터 낭비를 줄여 나간다면 우리경제도 절반은 건져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요즘 추진하고 있는 씀씀이 10%줄이기 운동도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하고, 근검절약하는 모범을 공·사생활에서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분야에서 조금 덜쓰고 조금 더 일하는 사회적 기풍이 널리 확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충남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정신적으로도 성숙된 한차원 더 높은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분발과 노력을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달에는 여수에서 개최된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금산물페기 농요가 국무총리상을 수상 했습니다.

작년에 논산 연산의 백중놀이 수상에 이어 우리 충남의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충남이 백제문화의 중심지로서 전통문화를 잘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는 고장으로써 책임을 다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농요를 새로 발굴하고 재건 하기까지 노력해 오신 금산문화원 사무국장님과 주민들께서 매우 노고가 컸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해서 향토민속을 더욱 발굴,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여타 지역에도 파급되어 향토민속창달에 큰 전기가 될 것을 바랍니다.

지난달에는 전주에서 전국체전이 열렸습니다. 우리선수와 임원들이 열심히 뛰었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뒷받침을 했으며 도민들도 성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비록 올해는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를 얻었지만 앞으로 체육회 임원, 체육 관련공무원과 전체공무원 그리고 주민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값진 노력과 분발로 내년에는 좋은 성과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러분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11월달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 몇가지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문제입니다.

우리 농촌을 발전시켜서 선진 농촌으로 가꾸고, 살시좋은 고향을 만들어서 후세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야겠습니다.

농어촌은 우리민족의 꿈이 담겨있는 곳이고 조상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우리모두의 영원한 고향이고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농어촌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농어촌 종합발전대책을 수립해서 농수산업 진흥과 농어촌 복지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여건등으로 여러가지 소외감과 빈곤감을 느끼고 있는데 농민들은 특히 농가의 주소득원인 벼수매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곡수매가 7%인상 발표후에 일부 농민들이 올해 추곡수매 방침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추곡수매가를 10% 인상하고 농가희망량 전량을 수매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여건과 국제현실등을 감안하면 이같은 농민들의 주장을 수용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산하공직자들은 농어촌의 안정없이 사회안정이 있을 수 없다는 깊은 인식을 갖고, 사회안정을 통해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수매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농어촌 발전을 위한 국가적 시책과 계획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주기 바라며 지금은 농어촌 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제와 국제적인 여건등이 모두 어렵다는 사실과 함께 살기좋은 고향 농어촌 건설을 위해 공직자들이 집념과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달에는 도의회 정기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기중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새해예산안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사무감사도 중요하고 의회에서의 첫 예산안 심의도 중요합니다.

도정업적과 내년 살림살이 규모를 의원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서 도민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생각으로 자료준비를 충실하게 하고 예상되는 답변 준비에 소홀 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의회와의 관계에서는 그동안 의회와 큰 마찰없이 원만하게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도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협력하고 존중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정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도정을 이해하고 따르며 협조해 주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그동안 도세도약을 위한 공업화 시책과 병행해서 개발 시책을 추진하면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금강종합 개발사업, 서해안 개발사업, 계룡 신도시건설 사업들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2,000년대 충남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2,000년대 충남은 어떻게 변하고 주민생활은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주민들에게 제시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남이 가시적으로 발전하는 모습과 여러분 스스로가 이룩한 활기찬 도정의 성과등을 보여주어서 각종 개발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런 홍보를 수행하는 것은 개발에 따른 주민집단민원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앞으로 산하공무원 모두가 도정 홍보요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도정성과와 업적을 적극 홍보해줄것을 당부합니다.

이젠 금년도 두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대책을 서둘어야 하겠고 겨울철 영농교육 준비도 해야하고 각종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새해업무 계획도 수립해야 할 때 입니다.

금년 한해 도정을 수행하면서 내 스스로도 많은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어려분들에게 내가 요구한것 만큼 살펴주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서의 하나인 중용에서는 「정성은 하늘의 길이요, 정성껏 하는 것은 사람의 길」

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저 정성껏 일할 뿐이며 그것이 성공하고 안하고는 하늘의 뜻이다」라는 말입니다.

도정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정성을 다했는가를 반성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 각자가 도지사라는 입장에서 신년에 나라와 지역 또한 주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깊이 성찰해서 신년도 업무계획을 짜임새있게 세우는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이 더욱 알찬 결실을 맺게 되고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도민 앞에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날로 차가와지는 날씨속에서 건강에 유의하여 업무에 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1991년 11월 1일

변화에 대응

먼저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를 이끌어 오신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갖는 이유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나 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방향과 활로를 모색 하여야겠다는 뜻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경제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만, 이제 한국에서는 「더 이상의 기적은 없다」고 단정해서 보도를 할만큼 외국인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했던 우리가 다소 자세면이나 정신면이나 실제 기업활동면에 있어서 다소 해이해진 것도 사실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생산성, 기술, 품질아이던지 저축을 통한 자본 형성측면에서 또는 생산요소의 흐름에 있어서 여러가지 자체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도 진단되고 그런것들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지만, 지방단위에서도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지역은 수도권의 앞을 트게하는 지리적 조건으로 서해안 지역에 중화학을 비롯한 많은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사회간접 시설이 뒤따르지 못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면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 어려움은 정부, 학계, 기업체,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타결될 수 있는 상황이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마련된 이자리가 이러한 국내외적인 경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이 폭넓게 논의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과 전략이 이자리에서 모색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너무 어려운 주문을 드린것 같습니다만, 기탄없이 이야기하는 중에 좋은 방안이 제시되고 토의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1월 1일

행정의 역할 제고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제도이며 그성패는 우리 모두의 성실하고 진지한 공동의 노력여하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지방의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지방자치제도라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화려한 보석상자에 돌이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먼저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행정여건 변동에 따른 자세변화이다.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의 역할제고와 새로운 공무원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는 행정의 변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사회의 공복이며 봉사자임을 깊이 인식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 의회 업무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증진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이러한 바탕위에서 지방단체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는 일이다.

기관대립형의 자치형태를 취하고 있는 현자치제도는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바탕으로 지역문제를 공동 해결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 정립이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남의 뜻이 소중하고 남의 생각이 옳으면 내 뜻과 생각도 존중받게 된다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세번째는 이러한 바탕위에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다.

지역주민의 무리하고 무분별한 요구는 지역 이기주의가 표출하게 되고,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방관적 자세는 지방의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의원들에 대한 정당한 요구, 의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을 통한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로는 의원들이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의 공통된 인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의원들의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겸허한 자세 그리고 타협과 양보정신의 정착은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적인 흐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역사는 어느 탁월한 지도자나 소수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소망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높은 의식수준과 역량에 의하여 결정되어질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나 높은 이상과 가치라 할지라도 의원과 의원사이, 집행기관과 의회간, 그리고 이웃간에 서로 담을 쌓고서는 결코 이를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공감대를 폭넓게 확산시켜야 할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는 것이다.

제16회 도민 걷기 대회 격려사

1991년 11월 2일

사랑의 손길

함께 참여해 주신 서산시민 여러분, 학생여러분,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시고 성원을 해주신 박태권 의원님, 도·시의회 의원님과 기관·단체장 여러분,

임복준 대회장님,

대전일보와 어린이재단 관계자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서해안개발의 전지기지인 이곳서산에서, 열여섯번째의 도민걷기대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대회가 열여섯번째로 해를 거듭하면서,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와 시력이 약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밝은 빛을 주는 사랑의 손길이 되어 왔슴을 큰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시민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과거보다 잘 살게 되었다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주위에는 사회의 온정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민여러분의 참여와 우리의 작은 정성은 이러한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것이며, 이사회가 아직은 인정과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회에 참가한 시민여러분의 힘찬 발걸음은, 이곳 서산과 우리사회를 밝고 힘차게 발전하며, 사랑이 넘치는 복된 고장과 사회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도와 주시고, 우리도가 추진하고 있는 「자랑스런 충남건설」과 「자랑스런 내고장 가꾸기사업」에도 더욱 큰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를 마련해 주신 대전일보 서춘원 사장님과 한국 어린이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1월 6일

더 밝은 미래

자랑스러운 스카우트 대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헌신해 오신 한국보이스카우트 안세영 충남연맹장님을 비롯한 지도교사 여러분!

오늘 꿈 많고 씩씩한 우리고장 보이스카우트 충남연맹 창립 30주년을 맞아 이렇게 보람된 자리를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30년이라는 연륜은 바로 성숙과 결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우리들 인간의 연령으로 볼 때도 한 사람이 그 인생의 뜻을 펼치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보람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보이스카우트 충남연맹이 태어났던 지난 60년대는 우리나라가 찌든 가난속에 보리고개를 힘겹게 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로부터 지난 30년동안 우리나라는 경이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 보이스카우트 충남연맹도 이러한 성장과 발전을 같이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와 경쟁속에서 새로운 역사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념과 체제의 벽이 허물어지고, 북방세계로 가는 선린우호의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 46년만에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는 세계평화를 이끌어가는 민족으로 당당히 참여하고, 통일로 가는 자유와 번영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보이스카우트 대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모두의 꿈이요 희망입니다.

"한 나라의 장래를 알려거든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의 청소년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떠한 꿈과 이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 나라의 장래가 결정 되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사랑과 봉사 그리고 우애와 충성의 보이스카우트 신념은 여러분의 이러한 꿈과 이상을 키워줄 수 있는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난 8월, 우리나라가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여러분의 스카우트 정신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이스카우트 대원여러분들이야말로 미래의 우리 국가와 사회를 자랑스럽게 이끌어 갈 수 있는 활기차고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서른 돌을 경축하는 이자리가 더 밝은 미래를 다짐하는 뜻깊고 보람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스카우트 발전에 헌신 노력해오신 안세영 연맹장님과 지도교사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1월 11일

충청인의 이익과 긍지 대변

역사적으로 아주 어려웠던 시기에 태어나, 민주언론의 정도를 걸어온, 대전일보 창간 41주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장년의 연륜과 전통으로 충청인들의 긍지와 이익을 대변해 왔슴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정세와 더불어 다양한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일반대중들은 정보의 홍수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진실한 보도와 올바른 논평은 바로 오늘날, 언론이 지향해야 할 소중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과 보람을 이룰 수 있도록 충청인의 신뢰와 사랑속에 더욱 알찬 성장과 발전이 지속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서춘원 사장님과 사우 여러분의 건필을 빕니다.

(554)

삼성전자(주) 온양공장 준공식 축사

1991년 11월 13일

지혜와 힘을 하나로

오늘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이 우리 충청남도 공업의 핵심지대인 이곳 아산에서, 이처럼 성대한 준공식을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황명수 의원님. 박용도 상공부차관님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준공을 보게 되기까지 공사에 힘써주신 삼성전자 강진구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생각해 보면 반도체산업이 우리의 귀에 익숙해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역사는 서구 여러나라에 비하여 일천하지만 그동안 꾸준한 연구와 기술개발투자로 국제경쟁력을 갖출만큼 높은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반도체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지난해 16메가디램 개발성공에 이어 금년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 아산에 최첨단 시스템으로 반도체 제품을 조립, 생산할 수 있는 전용공장을 설립하게 됨으로써, 우리 고장의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 하게된 것을 200만도민과 함께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이곳 아산은 우리 도가 구상하고 있는 공업화시책과 맞물려 수도권과 접한 북부지역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공업벨트 지역으로서, 앞으로의 전망이 매우 밝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중심지로서 장래 우리나라 공업발전을 이끌어가는 선도지역으로 자리 잡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부푼 희망과 기대 이면에는, 변화에 따른 제반여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지역적인 과제도 안고 있는것이 우리 충청남도의 현실입니다.

인근지역과의 효율적인 연계발전과 사회 간접자본시설의 확충, 그리고 환경문제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려 나가야만 합니다.

또한, 요즘들어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외국제품을 선호하는 일부 계층의 과소비와 서비스분야 근무만을 선호하는 노동기피현상은 무역적자로까지 이어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경제는 반도체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을 더욱 육성발전시켜, 세계를 앞지르고, 지난 70년대처럼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풍토를 되찾아 다시한번 더 선진국을 향한 도약의 나래를 펼쳐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은 국토의 중심지로서, 국가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중추지역으로 성장해 나가고, 우리고장이 보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민 모두는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의 준공식이 우리의 이런 의지를 재점화하는 계기가 되고, 다시한번 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삼성전자 온양공장이 날로 성장을 거듭하여 국가산업발전과 이익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삼성전자 임직원 여러분의 일익 번창하심과 가정의 안녕을 빌며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1월 15일

민족의 은은한 향기

충남국악현악단이 그 여린 싹을 틔우고 홀로 서기를 감내하여 온지도 어느덧 한해가 지났습니다.

옛것을 오늘에 다시 되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절실하게 다가왔는지 어느 잣대로도 가늠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방국악예술 발전의 등불이 되겠다는 신념과 자부심으로, 그동안 바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네 전통국악의 가락과 음율속에는 민족의 은은한 향기가 촉촉하고, 민족성 만큼이나 끈질긴 은근함이 배어 있습니다.

만추의 계절에, 우리의 전통음악 속에서 풋풋한 민족의 혼을 찾고,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생활 가까운 곳에 우리의 것을 끌어 들여야하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오늘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가꾸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문화가 이 사회의 그림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지역발전의 큰 힘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모쪼록 오늘 공연을 계기로 지역의 문화생활 공간이 더욱 넓어지고 국악발전과 교류의 좋은 선례로 남겨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뜻깊은 대전에서의 공연을 마련해 주신 중도일보 이웅열 회장님과 사우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고마운 뜻을 표해 드립니다.

1991년 11월 15일

신뢰 깊은 소방인

친애하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 충절의 고장인 이곳 예산에서 우리고장 소방가족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개최하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소방 행정은 33년의 역사를 갖고 그동안 소방발전과 국민의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급격한 산업사회로의 전환은 소방가족여러분에게 보다 선진된 기술과 조직적인 재난방지 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그동안 소방의 과학화와 조직의 활성화에 관심과 정성을 다해왔느냐고 묻는 다면, 자신있게 대답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도정의 살림살이가 좀더 여유가있고 형편이 넉넉해서 여러분의 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아쉬움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소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소방의 과학화를 위한 노력을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소방인 모두는 화재의 예방과 진압활동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는 예방활동의 선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재의 역군으로서 도민에 대한 봉사에 최선을 다하여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소방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이 하여 소방시설 점검과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화재발생시에는 초동진압태세를 갖춤으로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자랑스런 소방상을 심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대회가 여러분들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통하여 화재진압기술 향상은 물론, 화재예방에 대한 우리 모두의 결의를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고 소방가족의 단결과 화합의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아무런 보수없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불철주야 헌신해 오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대회준비에 힘써주신 관계자여러분과 차가운 날씨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여러분께도 깊은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JC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 축사

1991년 11월 16일

지역에 대한 봉사와 의지

JC특우회 가족여러분!

오늘 유서깊은 역사의 고장인 이곳 온양에서 우리고장 JC특우회원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의날 행사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본인은 먼저 지난날 JC특우회 여러분들이 "조국의 미래는 청년의 책임"이라는 기치아래 우리 지역에 늘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키고, 보람된 활동을 해오신데 대하여 치하와 감사의 뜻을 보내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의 이 행사는 지난날 JC의 긍지와 자부심을 되살리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정을 재확인하는 모임이라는데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JC 특우회 가족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지난날의 수많은 시련과 도전속에서도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낸 자랑스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역사적인 남북한 UN 가입을 실현하고 세계질서와 평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마련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염원인 통일조국 실현에도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섰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의 국내여건은 이를 기뻐만 할 만큼, 우리가 보다 성숙한 사회를 창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면이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 처해있는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발전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사회를 만들어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전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지만,

「시대를 앞서 이끌어 나간다」는 JC와 특우회 여러분의 사명과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뜻깊은 모임이 마련되기 까지에는, 지난날 회원 여러분이 펼쳐온 정열적인 활동과 성취가 이루어낸 큰 보람이 그 기틀이 되고 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성장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남모르는 정성과 노력이 그 밑거름이 되어 왔다고 확신하면서, 정말 큰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JC 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를 갖는 것도 JC 활동을 도와주는것 한편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그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모임으로 여러분 모두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다짐과 새로운 기운이 분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이길영회장님이 이끄시는 충남 JC특우회와 회원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큰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1월 17일

조화로운 삶의 단비

민속예술 보리수합창단이 도민들에 대한 정서함양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밝고 고운 노래를 보급해 온지도 어느덧 8년의 연륜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문화 창달과 격조높은 합창문화를 이끌어 오신 윤창국단장님과 단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사회가 다양해지고 고도로 전문화됨에 따라 사람들은 심성이 점점 각박해지고, 정서 또한 메마르기 쉬운 환경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사회는 우리의 삶에 보람과 즐거움을 주는 문화의 가치가 더욱 소중해지는 시대가 될것입니다.

그것은 삭막한 도시의 콘크리트문화에 싫증난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인간본연의 마음과도 결코 무관치 않습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고운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는 합창을 들으며, 우리는 이 사회를 밝고 건전하게 가꾸는 하모니의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소명을 갖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속예술 보리수합창단의 금번 순회공연은 우리고장 곳곳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도민들의 조화로운 삶을 살찌우는 촉촉한 단비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항상 지역문화를 이끌고 새롭게 창조한다는 긍지와 보람으로 늘 도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꾸준한 활동과 더불어, 도민들로 부터 끊임없이 사랑받는 합창단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1991년 11월 18일

지역공간을 넘어

쌓이는 낙엽이 정겨운 만추의 계절에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충남교향악단이 뜻깊은 서울공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충남교향악단은 지난해 11월, 충남 공주에 둥지를 틀고 200만 도민의 성원과 여망 속에 창단 되었습니다.

그간 꾸준한 연주활동으로 여명의 틀을 벗고 이미 높은 수준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딛고 충남교향악단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휘를 맡아 주신 박종혁 교수님과 단원 모두의 부단한 의지와 노력 위에 음악을 사랑하는 지역의 따뜻한 애정과 격려가 포개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각계 인사와 음악애호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공연은 지방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전국적인 무대로 그 활동의 폭을 넓히고, 중앙과 지방간 문화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충남교향악단이 지방문화 발전의 방향타를 잡고 음악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의 사랑받는 교향악단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성황을 이루어 주신 음악애호인 여러분들께 거듭 고마운 인사를 전해드리면서, 이번 서울 처녀연주회를 마련하는데 적극 뒷받침해 주신 서울신문사 신우식 사장님과 사우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그 고마운 뜻을 여기에 같이 적어 둡니다.

삼락회 제23차 정기총회 축사

1991년 11월 21일

원로문화

"세월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는 말과 같이 차가운 날씨속에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왔슴을 느낍니다.

지난 5월에 유성에서의 간담회 이후 다시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지형 회장님과 여러회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대하면서, 먼저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승탁 교육감님과 민병달 교육위원회 의장님과 함께, 오늘 스물세번째 맞이하는 삼락회 정기총회에 자리를 같이하게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대와 사회가 변천됨에 따라 어떤 하나의 가치기준도 그만큼 변화되는 것인가 봅니다.

그동안 사람의 의식도 그렇고 이 사회의 제도자체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생활하는 것도 다양화 되어서 그런지, 어떻게 사는것이 보람있게 사는 것인지 그 가치기준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는 가장의 권위, 학교에서는 스승의 권위, 사회에서는 어른의 권위, 나라에서는 정부와 법의 권위가 시련을 겪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젊은이들은 눈앞의 姑息之計에 현명하고, 자신의 손익계산에 영리하

기만 합니다.

저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학창시절을 회고해 보면, 선생님들께서는 지식이상의 지혜와, 가슴을 뜨겁게 하는 용기와 희망을 주셨던 기억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의 방향이 물질적인 성장과 기능위주의 지식과 기술습득에 힘을 기울여 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육현실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교육현실에 대한 책임은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계와 국민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하는 단순한 이치가 지금 사람들의 인식속에 얼마만큼 절실하게 자리잡고 있는지, 자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만 보고 큰 숲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원로문화라는 얘기를 자주합니다.

이 사회가 경험이 풍부하고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원숙한 지도자들에 의해 이끌어져야 한다면,

이러한 숲이 보이게 하고 울창하게 가꿀 수 있도록 하는 원로의 숨은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역할을 하기에는 사회적 위치나 주어진 환경에서의 한계가 있지만,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중시하는 사회풍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읍니다.

"사람이 늙고 젊은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신념이 늙고 젊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미국 어느 장군의 얘기처럼,

세상의 영욕과 고충을 감내하시고 백발성성하실 때까지 교육자의 길을 걸어오신 보람과 긍지를 바탕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을 신념을 갖고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

립니다.

그리고 저희 충청남도가 지난 87년부터 「스승존경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운동이 그 성과나 파급효과가 어느정도인지, 행정적으로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가시적 성과가 없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우리 사회가 인륜의 근본을 지키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만으로도 그 가치가 매우 높고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우리충남은 학문과 도덕의 가치를 중시해온 전통적인 충절과 선비의 고장입니다.

이러한 자랑과 긍지를 지키고 우리 고장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우리나라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도정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선생님들께서 평생을 인재양성에 힘써 오신 노고에 다시한번 위로와 경의를 표해드리면서, 다가오는 년말 보람으로 맺으시고 내내 건강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1월 22일

화합의 메아리

오늘 겨울을 맞이하는 문턱에 서서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군을 대표해서 참가하신 합창단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격려와 치하를 보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고된 생활속에서도 흥에 겨운 놀이와 노래를 즐겨왔던 슬기로운 민족이었읍니다.

우리고장만 하더라도 이고장 천안의 흥타령이라든지, 최근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금산물페기 농요에서도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책을 보거나 일을 하다가도 불현듯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래는 일상 생활에 쫓기고 땀흘려 일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생활속의 삶의 활력소로 소중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노래 한곡이라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권력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부르는 노래는 우리에게 신선하고 풋풋한 위안을 주고 올바른 삶을 위한 용기와 힘을 가져다 줄것입니다.

오늘의 합창대회는 노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동안 틈틈이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는 화합의 잔치입니다.

본인은 오늘의 이러한 대회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밝고 건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보다많이 모여서 우리고장을 그야말로 활력있고 건건한 사회로 이끌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도 더욱 당당해지고 우리 충남이 올바르고 진실된 사회를 이루면서, 힘차게 도약하는 자랑스런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도민 모두의 화합의 메아리가 되어 우리고장은 물론, 멀리 북녁땅에까지 널리 울려 퍼지는 통일의 화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여해 주신 합창단여러분과 관계자여러분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성황을 이루어 주신 내빈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이자리가 보람있고 유쾌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1월 22일

새로운 음식문화

오늘 우리 고장에서 처음으로 전통음식에 대한 맛과 솜씨를 겨루는 맛자랑, 솜씨자랑대회를 개최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멀리 시군에서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심사를 맡아 주실 심사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표해 드립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속에서 이러한 기후와 풍속에 따라 즐겨먹던, 우리만의 독특한 음식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지역별로 또 가문별로 특색있는 맛으로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의 식생활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변했다고 하기 보다는 차라리 외국음식 문화에 잠식당하고 우리 고유의 맛을 잃어 버리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햄버거와 피자를 즐겨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어느틈엔가 서양음식에 맛이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우리나라 도시에서는 예전에 없던 성인병 환자가 늘어만 가고, 따라서

우리 농촌의 생산자도 자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 우리의 것을 다시 찾고 우리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기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오늘의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와 함께, 우리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행사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단순한 맛자랑, 솜씨자랑이 아니라, 우리음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옛 음식을 다시 찾고 오늘에 맞는 맛으로 가꾸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자고 하는 우리 모두의 의지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식생활에는 낭비요소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어느집 수채에 밥풀이라도 보이면, 그 집 며느리의 살림이 헤프다고 흉을 봤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콩나물 한줌 놓고 장사꾼하고 실랑이를 벌이던 모습은 흔히 있었던 일이였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미덕이 깃들었던 우리의 음식문화가 지금은 년간 8조원이나 되는 음식물 찌꺼기를 남기는, 잘못된 식생활로 변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전통적인 상물림풍속도 없어지고, 효율적인 식단을 개발하는데 소홀히 해온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낭비풍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맛과 멋,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고, 맛있고 낭비없는 새로운 음식문화 창출에도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1농어민후계자대회 격려사

1991년 11월 23일

농산물도 품질로 승부할 때

친애하는 농어민후계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고장의 농어촌을 함께 걱정하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같이한 가운데, 농어민후계자 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향을 지키며 꿋꿋하게 농어촌의 꿈을 가꾸어가고 있는 농어민 후계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도정과 농정시책을 적극 협력해 주시고 성원해 주고 계신데 대하여, 진정으로 고마운 뜻을 보내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오늘 아침 이곳 예산에 오는 차중에서, 우리 농어촌문제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갈수록 농어촌 여건은 어려워지고 우리 도민의 절반이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도의 경우, 어떻게하면 우리 고장의 농어촌을 꿈과 희망이 있는 터전으로 만들 수 있을까하고,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농수산업은 우리의 국력이 신장된 만큼 그 위상에 부응하여,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하는 시대적요청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농업은 인류의 생업이였고,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한,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기간산업이요, 생명산업입니다.

이처럼 수천년의 기반을 갖고 이어온 우리 농수산업이 지난 30년간 산업화 정책에 밀려오면서, 최근 대외개방 압력과 우루과이 협상으로 많은 진통과 거센 도전을 받고 있지만, 결코 하루 아침에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어민후계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여러분들께 정부와 도의 농업시책을 설명하거나, 오늘의 농어촌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오지 않으면 안되었는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온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농어촌 현실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걱정하고, 우리 농정시책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가깝게 다가갔는지 스스로 진단하면서, 농촌의 미래를 같이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정상적인 경우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때, 부가가치가 높고 산출이익이 많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농수산업에 투자를 하면 국가이익과 효율성면에서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는 우리나라가 급속한 성장을 하기까지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농수산 분야에 앞서 2, 3차산업부터 투자할 수 밖에 없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모든 산업이 골고루 성장해야 하듯이, 농수산업의 성장없이는 결코 선진국 진입의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농어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이르게 된 원인을, 우리는 농수산업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경제이전의 산업이라는 인식을, 잘못한데 부터 찾아야 합니다.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농어촌을 국민모두가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농어촌을 살기좋은 고향으로 만들겠다는 주체적인 생각과 뜨거운 애정이 없이는 우리가 처해있는 농어촌현실을 극복해 내고 발전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바탕위에서, 오늘의 농어촌 문제를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드시 해결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먼저 갖는 일입니다.

농어촌 문제를 심각하다고 지적할게 아니라 농어민 스스로가 일어서서 땀흘리고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자립의욕에 불을 지펴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농산물도 품질로 승부해야 할 때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메리카 대륙에 넓은 평원과 옥토를 주었다면, 우리에게는 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은 우수한 두뇌와 자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외국농산물을 수입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먹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농어민후계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농어촌의 미래를 튼튼히 지키는 최후의 보람이며 보루입니다.

농어민후계자의 올바른 육성은 이 시대를 살이가고 있는 국민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려운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앞날을 내다볼 줄 알고, 여러운 때일수록 힘을 모을 줄 아는 우수한 지혜와 두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어렸을때는 흙냄새 나는 논길을 걸으며 내 고향을 반드시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던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시절에는 학교를 세우려고 흙벽돌을 찍어나르던 생각이 어제와 같이 되살아 납니다.

본인은 우리모두가 농어촌 내일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기대를 버리지 않는한, 멀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다시 돌아오고 싶은 풍요롭고 복된 터전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굳은 결의를 해주신다면, 저 역시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자랑스럽고 살기좋은 농어촌을 가꾸는데, 그 사명이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취해 내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향을 지키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기에 본인은 다시한번 더 큰 격려와 위로를 보냅니다.

모쪼록 오늘 이자리가 우리모두의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리를 같이하신 이근용 농수산분과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과 기관장님, 전통과 유서깊은 이곳에 행사장을 마련해 주신 이종호학장님 그리고 행사준비에 힘써준 도연합회 임원진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1월 25일

내일을 향한 꿈과 의지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에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열심히 땀 흘려 1년 연속 풍년농사를 거두어 주신 우리고장의 농어민 후계자와 4H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낙후한 농촌을 균형 발전시켜야 하는 문제와, 대외적으로는 국제화·개방화라는 세계 흐름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여러가지의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최근의 국제 상황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농업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도 열악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 농업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잠재력은 얼마든지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부에서도 2,000년대의 미래 농촌을 설계한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을 추진하여 향후

10년간을 「농어촌구조 혁신의 년대」로 설정하고 우리 농촌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본인은 지난 6월, 농촌진흥원 시험포를 돌아보는 자리에서 청야의 구기자 연구소를 비롯한 6개소에 「지역특산물 전문연구소」를 설립 충남지역 특산물을 세계 제1의 수출 농산물로 육성키 위해 총 2백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농업 실현을 위한 이와같은 투자노력에 앞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자립성장의 의지와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선진기술의 습득, 그리고 젊은 영농인 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충남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농민후계자와 4H회원 여러분에게 영농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월간 「농경과 원예」 11월호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밝은 내일을 향한 꿈과 의지를 키워 나갑시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앞날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1년 11월 27일

지켜야 할 것

오늘 우리고장 여성지도자 여러분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 생활속에 씀씀이를 줄이고 이웃사랑의 실천다짐대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어려운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신 안필준 보건사회부 장관님과, 유익한 강의를 해주실 강교자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먼저 우리고장의 여성단체들이 그동안 과소비 추방운동과 에너지 절약캠페인, 그리고 수재민과 어려운 이웃돕기등, 밝고 건강한 지역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노고에 심심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지도자 여러분!

흔히 잘 산다고 하는 말은 듣기 좋은 것이고 누구나 거부감 없이 기분좋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한번 곰곰히 되새겨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보리고개를 넘고 허기진 배를 채웠던 옛날에 비한다면 확실히 오늘날 사회는, 과거보다 생활의 질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그만큼 변하고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지 못하고 정작 지켜야할 것은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 사회는 진정으로 잘 산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어느때 부터인지, 근로의 불이 꺼지면서, 무절제한 과소비와 향락산업이 번창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물론이고 농촌의 아낙들도 전화로 택시를 불러 장에가고, 철따라 여행을 떠나는 관광버스가 부녀자들을 싣고 새마을 사업으로 닦아놓은 마을길을 따라, 마을 동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왕성한 소비를 자랑하는 미국사람이 평균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의 두배를 우리 서울사람들이 버린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새끼 한도막이라도 아끼는 것이 전통적인 우리의 경제적 가치관이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연탄 한장을 아끼려고 밤잠을 설치고, 내복 한벌 사려고 다리 아프도록 시장을 돌아 다녔던 것이 바로 엊그제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웠던 생활속에서도, 이웃과 정을 나누고 서로 돕고사는 미풍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런 근검절약의 전통과 이웃사랑의 미덕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옛이야기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다시 찾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 모두의 선택과 노력이 소중한 때입니다.

조선시대의 학자인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보면, 「국가발전의 근본은 사회각계가 각자의 본업과 분수를 지키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모두가 자기분수를 지키며 건전한 정신과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따뜻한 가슴으로 더불어 사는, 밝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고장 미래의 성장과 보람도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의 양도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본인은 여성들의 단합된 의지와 힘이야말로 우리가 이러한 보람찬 사회를 가꾸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대회를 계기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성지도자 여러분의 의지가, 우리 사회의 씀씀이를 줄여나가는 건전 소비생활운동을으로 승화되고, 아울러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훈훈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대회준비에 힘써주신 한창숙 충청남도 여성단체 협의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큰 보람으로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82)

총기소지자에 대한 서한

1991년 11월 29일

수렵기를 맞이하여

평소 도정과 야생조수보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수렵기를 맞이하면서 야생조수의 보호가 필요한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산과 들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조수는 자연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우리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간 약1조 2천억마리의 해충을 잡아먹고 있으며, 생태계를 자연 그대로 보존하면서 우리 인간이 생활을 하는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야생조수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그 수가 감소되어 정부에서는 지난 72년부터 10년간 수렵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2년부터 조수 서식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91. 11. 9~92. 2. 28)에는 상설수렵지인 제주도와 거제도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수렵장을 개설하고 이곳에서만 소정의 허가를 받아 수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직도 공기총으로 참새는 허가없이 잡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그릇된 생각입니다.

금년에는 불법 수렵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o 총·농약·덫·올무를 사용한 불법포획 금지

o 박제품 불법제조·불법포획 조수 거래금지

o 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 및 판매금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밀렵행위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가까운 행정·경찰관서에 신고하고, 폭설로 인하여 인가 부근으로 내려온 조수는 엽도정신을 발휘하여 야생조수보호에 앞장서 도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1991년 11월 30일

한해의 알찬 마무리를

도민 여러분!

풍요한 결실의 계절이 지나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누구나 한해의 마무리를 서둘러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미리미리 여유를 갖고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고 챙겨서 바쁜 연말을 대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금년 우리 도정은 활기찬 도약과 자랑스런 충남건설에 바쁘게 줄달음쳐 왔습니다. 살기좋은 터전을 가꾸고 보람을 일구어 내고자 하는 도민 모두의 뜨거운 정성이 소중하기만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땀흘려온 보람을 더욱 알차게 결실하기 위해서 남은 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힘차게 도약하는 충남의 미래 설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고장 곳곳에서는 바쁜 발걸음과 개발의 메아리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건강하고 풍요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더욱 소중한 시기입니다.

우리 고장이 새로운 질서속에 번영이 샘솟는 살기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

11월은 겨울나기를 채비하는 달입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하여 각 가정과 직장에서는 월동준비를 서둘러 주시고 각종 사고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과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보다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91년 12월



△ 충청남도 문화상 시상식

9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정연설

1991년 12월 2일

새로운 도약의 시대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실로 30년만에 다시 열린 우리 도민의 전당인 도의회의 정기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도정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8일 역사적인 도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의원여러분과 저는 급변하는 국내외적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 오면서 자랑스런 충남의 으뜸도정을 건설하기 위해 두개의 수레바퀴가 되어 힘찬 걸음을 같이해 왔습니다.

91년은 진정 우리 도정사에 있어 커다란 변화의 시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도의회의 개원과 함께 새로운 도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한해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도정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소중히 요구되는 「지역의 결론」을 합리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과 협력의 바탕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도의회와 집행기관인 도가 막중한 도정의 책임을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충남 도정사의 한장한장을 차곡차곡 채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91년은 국가적으로 볼때 남북관계의 개선과 민주화 발전에 커다란 획을 긋는 한 해였습니다.

소련과 정상 외교를 나누고,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남북한의 UN 동시가입은 그동안 제6공화국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추진해온 북방정책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남북한이 유엔 동시가입을 통하여 우리는 통일에의 발걸음을 한발 성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립과 긴장이 감돌던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시대를 여는 밑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같은 결실을 통하여 세계를 향한 활동무대를 넓히고 우리의 입지와 존재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6.29 선언에서 밝힌 바 있는 지방자치를 다시 부활시키므로서 지방화시대의 문을 활짝 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성과와 더불어 우리가 창조하고 얻어내려고 했던 노력의 결실들이 도정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음도 의원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올해의 보람들이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다가오는 92년은 그 어느때 보다 그 시대적 의미가 소중한 한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가적인 여건을 볼때 남북한 UN 동시가입에 따른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가 확대되어 질 것이 분명합니다.

사회·문화·경제적 교류의 문이 넓어지고 공동체를 이루게되면 평화공존과 통일에 이르는 여건은 한층 성숙될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14대 국회의원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그 어느때 보다도 성숙된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선진화된 선거풍토의 조

성이 절실하게 요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통하여 우리 경제·사회의 각 부문을 내실화하고 선진화를 가속화하여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 효율적으로 대비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지방적으로는 각종 선거의 실시에 따라 자칫 지역의 안정과 평온한 사회적 분위기가 깨지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에따라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 안정기반을 공고히 하므로서 민주발전의 기틀을 확실히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93년 대전에서 개최되는 세계박람회가 우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됨에따라 내년에는 이에대한 준비도 착실히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문화 EXPO의 실현을 통한 도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면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지원에 모두가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국가적·지방적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도정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당면한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방적 결실을 완수하고, 자랑스런 충남건설과 새 문화 창조의 실체를 더욱 가시화시켜 나가는데 내년도 도정의 기본방향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92년은 「선거의 해」라고 불리울 만큼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대통령 선거등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내년도에 실시되는 각종 선거를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공명정대하게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여러분과 도민 모두의 힘을 모아 정성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위해 지방 언론사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와 협조하여 캠페

인을 벌여 나가고 각종 모임의 기회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는등 체계적인 계도를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불법선거 감시단을 적극 활용하고 도에서도 유관기관 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선거 감시단을 구성 운영하여 위법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주화가 우리고장에 더욱 체질화, 생활화, 토착화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지난해 10.13특별선언으로 불붙기 시작한 새질서새생활 실천 운동을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년동안 추진해온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추진태세를 재정비하고 사회 선진화를 위한 새시대 국민운동으로 도민의 일상생활속에 뿌리가 내려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치와 낭비를 추방하고, 범죄와 폭력의 소탕으로 밝고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며 질서의 표본인 교통 거리질서를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면서 특히 최근 사회 일각에 일고 있는 「일하는 기풍 조성」과 「씀씀이 10% 절약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사회에 일하는 풍토와 근검 성실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새마을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 운동을 이 시대의 도덕성 회복과 새 가치관 정립을 위한 「인간화」의 민간운동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물가불안과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기업체의 인력난에 따른 경쟁력 약화등이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같은 어려움은 지방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내년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경제안정 기조의 정착과 산업경쟁력의 강화

그리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등에 두고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역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찾기 위한 지방적 차원의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경제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인식을 같이하기 위해 경제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저축증대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방물가를 안정시켜 나가기 위하여 물가동향을 신속히 파악관리하고, 합동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력난의 해소를 위해 취업정보센타와 상담창구등을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며 유휴부녀노동력의 생산참여로 소득도 올리고 농공단지등 생산업체의 인력난 해결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겠으며 근로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의 꿈을 키워 나가면서 근로의욕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의 창업과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기업주와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이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하여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중재역할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노사간 협력을 통하여 산업평화의 기반아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같이 매진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도민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잘사는 사람보다는 못사는 사람, 밝은 곳보다는 그늘진 곳」에 시책의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생활형편이 어려운 생활 보호대상자, 의료 보호대상자등에게 직업훈련과 자녀학자금 지원, 생업자금지원, 취업알선등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도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효율적인 의료보험의 운영과 재정안정에 주력하겠으며,

특히, 의료진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도서, 벽지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시혜확대를

위한 진료 및 검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업소의 위생풍토 조성과 식품위생 향상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등 다량으로 소비되는 식품에 대한 유통과정등을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고, 아울러 위생접객업소의 수준향상과 좋은 식단을 개발하여 식생활 문화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퇴폐 향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계몽과 단속도 실시하여 위반업소를 근절시키는등 과소비, 향락풍토를 바로잡아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확충하고 과감한 투자와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등을 비롯한 하수종말처리장의 기초환경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200만 도민의 젖줄인 금강수질보존을 위하여 95년까지 오폐수방지시설등 중기계획의 제2차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업화와 서해안 개발 사업등과 관련한 각종 공장시설로 인한 환경 공해문제도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건강한 노후생활 보호 시책을 강화해 나가며, 이를 위해 노인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로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맞벌이가정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들 자녀들에 대한 건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저소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보육시설을 확대설치하고 기존시설의 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아동등 불우 아동에 대한 자활 자립을 위하여 정서함양, 적성계발, 자활능력계발등 3단계로 나누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호화·사치·낭비 풍조를 추방하기 위한 건전 소비생활실천 운동을 여성을 중심으로 적극 유도하고 각종 교육계기를 통하여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을 계발시켜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변화와 함께 나타난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모두의 관심과 지도가 요청되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인격과 진취적 기상을 함양하기 위한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정화와 계도를 통한 선도·보호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약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시책도 적극 추진하며 청소년 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금 우리의 농어촌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의 농수산물 수입개방압력은 농어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 농업도인 우리 도로서는 농어촌이 겪고 있는 이같은 어려움과 고통의 해결을 위해 거도적인 대책과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농어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며 뿌리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문제는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중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우리들의 전체의 문제입니다.

당면한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어민들이 보다 큰 꿈과 용기를 갖고 스스로 정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애착을 보내주는 일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여기에 주안을 두면서 우선 농어민후계자등 우수인력을 중심으로 농어촌을 지켜 나갈 후계인력을 비롯해서 기존의 영농조직단체에 대한 지원과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 농어촌을 이끌어가는 근간조직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농업고등학교 자영학과에 진학하는 4H 회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농촌지도

자등의 해외연수와 선진 농업기술을 개발하므로서 농촌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농어촌의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 화훼와 사과 단지등 종합시범 단지를 조성하며,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농촌으로 흡수, 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관광농업 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농수산물의 전근대적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집하장과 개량저장고, 수송차량등 유통시설과 장비를 늘리고 천안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간의 유통단계를 축소시키기 위해 중소 도시마다 직·공판장을 설치하여 직거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위해 지원과 지도를 강화하여 공동 출하조직을 육성하고 출하비용을 절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의 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성장 유망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지역단위 특산물 농장의 모델로서 도내 15개소에 성장유망 작목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후 풍토에 적합한 백합, 딸기, 구기자등을 세계 제1수준의 수출 농산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산물 전문연구소의 설립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특산물 연구소의 설립과 더불어 꾸준한 연구개발로 세계 제1의 우리지역 특산물을 국제시장에 수출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선진 농업국으로의 도약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농어촌에서 소득원을 개발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가 밝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정주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올해 15개지구에 대해

실시해온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영농기반시설 확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완비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경지정리 사업과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지의 침수방지로 안전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과 방호제 개·보수사업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해온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을 농어촌의 활력과 발전을 이끄는 선도사업으로 내년에는 꽃을 활짝 피울 계획입니다.

그동안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은 마을 단위 자원조사를 마치고 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상사업들을 선정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에 선정된 사업을 조속 가시화시켜 나가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마을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축산진흥을 위해서도 축산시설의 자동화, 기존 사료자원의 개발로 생산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농촌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1군 1마을씩 「무공해 축산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촌 종합개발과 어촌관광 조성사업등 어업 소득기반시설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점차 어업정주생활권이 조성되도록 노력하면서 임업 육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금 우리 도는 서해안시대를 맞아 새로운 국토개발의 현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있어 지역개발은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역경제와 주민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인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21세기의 충남의 새로운 미래상과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지역발전의 선도사업을 선정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전문 연구기관에서 용역중에 있는 제2차 도건설 종합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충남 21세기의 발전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종래 개발분야에만 치중해온 장기 발전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 정책방향과 실천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충남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충남발전 10개년 계획은 정신문화, 행정쇄신, 지방재정, 농어촌개발, 사회복지 그리고 지역개발등 도정 전반에 걸쳐 21세기를 대비하는 장기발전계획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랑스런 충남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개발여건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분석하고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충남개발의 선도사업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경부고속전철의 중간역으로 계획되고 있는 천안지역을 역세권으로 종합개발하고, 도내 북부권 및 임해공단의 원활한 교통수송체계 확립을 위해 철도노선을 추가 신설하는 문제를 중앙과 적극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문제의 장기적 해결 방안으로서 공주 · 청양 · 천안지역등에 신규용수원개발을 검토하면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도서개발을 위해 실태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한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문화예술공간을 넓혀 나가고, 특히, 우리 겨레의 성역인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삼거리까지를 연결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나라의 바람직한 미래 창조와 청소년을 위한 「독립기념관 문화권역」 조성 계획을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대 국방중추도시로서 자리하게될 계룡 신도시 건설계획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도가 대전시 분리 이후 도세회복을 위해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온 공업화 시책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공업화 계획은 2001년을 목표로 아산, 석문, 장군공단등 3개 국가공단

978만평을 비롯하여 지방공단과 농공단지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등을 합하여 총 2,743만평 3,000여 업체를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업화시책의 추진 결과, 장군공단과 아산공단등 620만평 규모의 국가공단 조성사업이 진행중이며 지방공단의 경우는 5개 단지가 금년중에 완료예정입니다.

또한 농공단지는 40개단지에 176만평을 조성 완료하고 유망 중소기업은 283만평에 625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업화시책을 추진하므로서 우리 도는 전통적인 농업도에서 농·공병진의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지방공단을 중심으로 무공해성 첨단 유망중소기업을 적극 확대 유치하고 이를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21세기에 필요한 첨단정보·기술확보와 과학기술 인력양성에도 지역적 관심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만성적인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택의 가격안정을 위해 지난 88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해온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은 이미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영구임대 주택, 근로복지주택등 영세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난 해소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과 농촌지역의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의 발전수준이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척도인만큼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우선 순위를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최근 몇년까지 수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재해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 하천과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개수사업을 실시함과 아울러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항구적인 재해대책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93년에 이곳 대전에서 세계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충남으로서도 국제화 시대의 본격적인 전개이며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번 대전세계박람회를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기로 활용하기 위해 「과학·기술은 대전에서, 문화·관광은 충남에서」라는 슬로건 아래 많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문화·관광자원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으로 문화 EXPO를 통한 도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관광개발과 더불어 도로, 사적지, 관광지 주변등을 크게 정비하고 다양한 형태의 포스타와 홍보책자를 제작·배포하는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미래상 정립과 여기에 걸맞는 국제활동도 적절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서깊은 역사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훌륭한 문화유산을 더욱 빛내고 기리기 위해 충남문화의 창조적 진흥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먼저 백제문화권에 대한 종합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찬란한 백제문화의 실체를 재현하기 위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금년말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백제시대의 뛰어난 조각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문화를 선양시켜 나가기 위해 「아사달 조각대전」을 개최하겠으며, 도에서는 이 행사 준비를 위해 금년에 아사달 조각대전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도민 누구나 일상생활속에서 체육활동과 건전한 여가를 선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수준높은 체육기반을 넓혀 나가기 위해 생활체육 중심의 동호인 단체를 적극 육성하고 시범레포츠 공원을 조성하며, 1시군당 1운동장 1체육관 확보를 목표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전직할시 분리 이후 그동안 침체를 면치 못해온 충남체육의 진흥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남체육 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해 92년에는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역의 안보와 안정은 바로 빈틈없는 유비무환의 정신에서 이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남북대화의 일부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에는 조금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군비을 더욱 강화하는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건으로 볼때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체제와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재난경보체제를 보완하고 필수적 민방위 시설·장비를 년차별로 확충시켜 나가면서 제도상 미흡한 분야를 보완·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방관서와 인력을 보강하고 소방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소방차가 없는 면지역을 일소시킴과 아울러 광역 소방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전개되면서 무엇보다도 뚜렷한 변화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와 기대 욕구증대, 그리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에 부응하여 자치시대를 이끌어가는 바람직한 도정목표와 방향을 정립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수립과 대안을 제시하여 가는 정책개발 능력을 적극 배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병행한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투철한 공직관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행정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있는 공무원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각계각층의 주민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대화 또는

간담회등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일반회계의 예산안은 총 3,88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보다 11.7%가 증가한 것입니다.

도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내 세출의 건전기조를 유지하면서 도민생활의 질적 수준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방향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매우 소중한 시기에,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의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함께 나누어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걸음 한걸음의 힘찬 발걸음이 그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크고 작은 일 하나 하나가 내일의 밝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귀중한 자취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제 도의회와 더불어 오늘의 이 시대가 부여해준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모든 신명을 바칠것을 다짐을 해 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대가 우리 눈앞에 소망스럽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충남은 나라 발전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그 역할과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200만 도민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갑시다.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자랑스런 충남의 새문화를 창조해 나가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대산읍 개청식 치사

1991년 12월 2일

서해안개발의 거점도시

서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내빈여러분!

오늘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도지역인 이곳 대산에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기약하는 대산읍 개청식을 갖게된 것을 군민여러분과 함께 크게 기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회 박태권 의원님과 지역기관장님 그리고 내빈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이곳 대산은 지난 몇년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대호지구 방조제공사 이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고요하고 평온했던 전형적인 농어촌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상전이 벽해가 된다는 말과 같이, 고기잡이 배가 한가롭게 떠있는 바다를 막고 길이 다시 열리더니, 이름도 모르는 공장기계 설비가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이를 기뻐하면서, 개발에 따른 바람직한 지역발전을 소망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도에서는 이곳 대산을 임해공단 조성에 따른 도시행정 수요에 효율적

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상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함께 완벽한 도시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까지는 인구 10만명을 수용하는 쾌적한 공단 배후도시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머지않아 이곳 대산이 한국최대의 석유화학단지가 된다는 데는 아무도 의심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대산읍의 승격은 우리가 이곳이 서해안시대와 더불어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하나의 시작이며,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여러분!

호사다마란 옛말이 있듯이 한 지역이 개발되면 이에따른 여러가지 부작용이 뒤따르게 됩니다.

공장가동에 따른 환경과 공해에 대처해야 하고 교통급증에 따른 도로확장등의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이곳이 진정 국토개발의 중심지로서 부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으로 우리 스스로 가꾸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역의 모든 요소들을 우리의 것으로 수용하고 가꾸어 내지 못한다면, 이곳은 그저 남들이 생각하는 비문화적인 공단지역으로서 그 이상의 가치는 창조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공업화된 석유화학단지가 아니라, 인심좋고 살기좋으며 다시 오고싶은 고장으로 가꾸는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서산군민여러분!

이제 서산은 대산읍의 승격으로 서해안개발과 지역발전을 더욱 가속화 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산은 서해안개발의 거점도시로서 지역특성을 갖춘 중추지역으로 급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본인은 이곳이 우리 도정은 물론, 지역발전의 산실로서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밝은 미래를 향하여 활기차고 희망차게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대산읍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여러분, 그리고 지역유지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하면서,

이곳 대산읍에서 근무하게 될 공무원여러분도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뜨거운 애향심으로 대민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2일

우리의 것,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 민족의 화가인 현동자 안견선생의 기념관 개관을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만 도민과 더불어 기뻐하는 바입니다.

산수화의 대가로서 고유의 한국적 화풍을 창출한 안견선생은 조선기에서 으뜸가는 걸작의 하나인 몽유도원도를 그렸으며, 후세화가는 물론 세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동안 지역의 많은 분들이 힘을 쓰셔서 늦게나마 이렇게 훌륭한 기념관이 우리 고장에 세워지게 된 것은, 참으로 경사스런 일이며,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념관이 開館하게 되기까지 자료수집등 여러가지면에서 협조와 성원을 다 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본 기념관이 군민의 진정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이 기념관은 안견 선생의 유작품을 전시하여, 그의 예술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향토작가의 작품과 각종 자료를 전시하고, 학생미술 사생장으로도 활용하여, 명실공히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예술전당으로서 그 가치를 더해갈 것입니다.

다만 그의 최대 걸작인 몽유도원도가 일본의 도서관에 보관되고 있어, 모사작품만을

전시하게 된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이같이 소중한 우리 문화재가 아직도 상당량, 외국인의 손에 소장되어 있음을 생각하면, 역사를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수많은 우리 문화재가 일제치하에서 일본인들의 손에 의해 넘어가 유출된 것도 가슴아픈 일인데, 최근에는 미국의 소더비 경매시장에서 귀중한 우리의 문화재가 고가로 외국인에게 팔려 나간데 대하여, 우리의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많은 문화재를 지키지 못하고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게 한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군민여러분!

찬란한 백제문화가 발현했던 문화의 고장인 우리 충청남도는 진정한 문화 도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창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문화를 사랑한 민족은 세계의 역사를 이끌며, 성장하여 왔으나 그렇지 못한 민족은 역사속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선진문화 도민으로서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풍요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전통을 살리고 지키는 문화의식의 고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안견선생의 기념관을 개관하면서, 선생의 예술혼을 본받아 더욱 뛰어난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고장에 많이 나와서 우리의 문화를 더욱 빛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자리에 참석하신 국회 박태권의원님과 내빈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곳 서산이 세세만년 빛나는 문화의 고장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월례조회 훈시

1991년 12월 3일

우리의 가치와 생명력

여러분들에게 도정에 대하여 하고 싶은 얘기는 어제 의회에서 도정 연설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국정에 관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간략히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11개월동안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준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오늘 남다른 노력으로 표창을 받은 수상자 여러분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6공화국 출범 이후 .민주화 실천을 국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6.29선언에서 약속했던 대통령 직선제 실시, 국회의 활성화, 사법부의 독립보장, 전례없는 언론의 자유신장, 지방자치의 실현이 속속 실천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87년 전환기적인 사회혼란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며 안정을 바탕으로 민주화 개혁을 통해서, 민주시민의식을 되찾고 나라 발전에 탄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화는 선진국이나 유럽에서처럼 정부가 절대권력을 가졌을때 시민들에 의해 견제를 하고 국민의 권익을 신장시킨다는 그런측면보다는, 과거의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것을 청산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독립예산 허용등 지방자치의 내실을

기하여 국가의 힘을 강화시키려는 것이 민주화의 본래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민주화의 실천과정에서 계속 우리의 힘이 약화되고 국가발전에 장애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민주화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나라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소모적이고 비능률적인 요소를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국제환경은 미소가 종주국이던 동서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평화공존과 자국의 경제실리를 추구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동구권 국가들은 소련의 우산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았고 독일은 하나로 통일되었으며 우리나라도 그동안 6공화국 출범 이후 일괄되게 추진해온 북방외교가 결실을 맺어 한·소 수교, 한·중 관계개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라는 성과를 가져왔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개선과 우리의 국제적 지위도 크게 향상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남북의 대치상태에서는 우리나라가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살아 나가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그 하나이고, 또한 막대한 군비를 지출하고 이러한 대립에서 오는 경제적인 소모를 감당하면서 국제사회에 그대로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그 하나입니다.

이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교역증대를 통하여 관계개선에 관한 기틀을 마련한후, 실효성 있는 불가침과 통행·통신·통상등에 관한 합의를 도출,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의 이해를 촉진하여 민족 공동체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번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상호 이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단일문건으로 정하는데 일단 합의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은 계속 할 것이지만,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북한이 다른 한편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남한 전체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특수부대를 계속 양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에 의해 스커드미사일이 개발되어 우리 전역을 사정권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군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이 너무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잠시도 잊지 말고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점을 더 얘기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물가불안과 둘째 국제수지 적자폭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셋째로 부동산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와 토지 공개념 도입시행 그리고 주택건설 대책등으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소비자물가가 작년보다 9.5% 상승되었지만 년말까지는 현수준에서 동결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비자들도 건전한 소비생활과 근검·절약·저축하는 습관을 길러나가야 할때입니다.

최근 새마을등 국민운동단체가 중심이 되어 「30분간 더일하기」,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 경제 5단체장들은 절약과 저축 그리고 생산성 향상과 수출 촉진을 위해 「일 10% 더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등 자숙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퍽 다행스런 일입니다.

농어촌의 당면과제는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U.R협상문제에 우리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쌀수입등 기초식량에 대한 시장개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어떠한 대안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한편 U.R타결 이후를 대비하여, 우리 농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골자로하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촌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되, 농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촌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한 더 이상 발전해 나갈 수가 없다는 생각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여러가지 지원시책을 전개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일이 다 어렵듯이 지금 기업도 어렵고 농촌도 어렵습니다. 또 모든 것이 그렇지만 스스로의 힘과 민주적인 힘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민주화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분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힘을 키워서 결국 나라힘을 키우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북방정책, 남북회담을 수행하면서 우리 목표를 추구하되 북한이 군비강화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교역확대추세는 어차피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개방화의 추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농촌문제도 당사자 스스로가 극복하고 우리 전체가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나라, 기업,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국제사회속에서 빛을 발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나 생명력을 가지지 않는한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 남을 수 있는 가치나 생명력을 키우고 가꾸면서, 우리의 것으로 지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국제변화에 대비하여 양의 시대가 아니고 질로 진행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제활동도 여러가지 폭으로 다양하게 확대시켜 나가야만 앞으로 우리만의 우수한 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도 결국 우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생명이며, 자연이 파괴되었을때에 우리 인간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신호등이 켜졌을 때 서로 앞질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를 일으키고 갖가지 부작용을 낳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사회에서 이것이 무질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질서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 오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력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이 개발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지만 자연적인 질서를 넘지않는 한계에서 조화롭게 개발해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 즉 인간적인 도덕을 회복하고 지금과 같은 극단의 이기주의라든가 금권만능주의, 출세제일주의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더이상 발전하지도 못하고 지탱할 수도 없습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남은 날짜를 세어 보게되고 그리고 나이,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거듭나는 성찰, 노력을 통해서 풍부한 인생과 도정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일으켜 주길 기대합니다.

제35회 충청남도 문화상 시상식 식사

1991년 12월 3일

지역사회 등불

먼저 오늘 영예의 수상을 하신 여섯분들께 200만 도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수상자 가족·친지 여러분과 지역문화계 인사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 문화상 제도가 시행된지도 어느덧 서른 다섯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마다 많은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이 제도가 우리 지역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발전의 큰 힘이 되어 온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해에도 우리는 각 부문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오신 여섯분에게 그 영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의 업적이 오늘 수상의 영예를 차지함으로서, 비로서 그 공로가 빛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땀 흘리고 헌신해 오신 노고에 비한다면, 비록 오늘의 수상이 큰 보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분들에게 조촐한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일평생 걸어온 길과 공로가,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밝은 등불이 되고, 우리 사회의 소중하고 가치있는 덕목이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세계를 이끌어 왔던 나라들은, 그들만의 빛나는 문화를 바탕으로 역사를 주도해 나갔으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 주역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도 선진 문명을 이루어낸 나라는, 그 나라 특유의 높은 문화수준을 바탕으로, 이를 국민의 자존의식으로 가꾸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물질적인 풍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떠한 물질적 성장도 그것이 오늘에 맞는 새로운 문화창달에 이바지 했을때,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물질적 풍요보다는 학문과 사상을 즐기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졌나 하는 것이, 더 소중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만 하더라도 찬연 했던 고대 백제문화의 발상지이며, 충절과 선비정신이 빛나는 유서깊은 문화의 고장입니다.

이렇게 면면히 이어져온 문화적 긍지는 그 옛날 찬란했던 백제 문화의 재조명과 함께, 조상들이 남긴 자랑스런 문화 유산의 발굴·복원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국토의 중심지에 위치한 우리 충청남도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 이 시대와 나라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도민 모두의 뜻과 힘을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문화란 우리 삶의 그림자와도 같아서 잘 보이거나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이를 가꾸지 않거나 멀리 한다면 그 시대의 기반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인 범죄의 흉포화나 배금주의, 극도의 이기주의, 한탕주의도 따지고 보면 건전한 문화를 몰아낸 자리에서 피어난 것입니다.

우리만의 것, 우리의 문화를 가꾸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도 오늘 수상하시는 이분들의 공로나 업적이 오늘의 수상으로만 기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스런 업적은 지역의 밝은 내일을 위하여, 도민들에게 널리 선양되고

우리의 문화적 자존심과 긍지를 더욱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 분들은, 평소 간직하고 계신 높은 뜻과 이상을, 이웃과 지역을 위하여 변함없이 펼쳐나가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욱 정진하시고 우리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발전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시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문화상이 수십년의 연륜과 전통을 거듭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각급 기관장님, 문화계 인사여러분, 그리고 훌륭한 분들을 엄선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6일

도약의지에 불을 지펴

친애하는 선수 여러분! 도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체육계 인사와 학부모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충남체육의 요람인 이곳 논산공업고등학교에서 '92년도 우리 충남체육의 새로운 도약과 부푼 희망을 안고 동계강화 훈련 발단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먼저, 내일의 충남체육을 이끌어갈 선수여러분의 늠름한 모습을 지켜 보면서 그동안 각고의 훈련과 땀을 흘려온 노고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위로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발단식을 갖도록 정성을 기울여 주신 백승탁 교육감님과, 김진창 교장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충남체육의 내일을 짊어질 꿈나무를 육성하는데 땀흘려오신 지도선생님과 체육계인사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평소 체육이란 사시사철 쉴사이 없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인고의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만물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결실을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섭리입니다.

그러나 체육은 결실이 끝나면 휴식기를 갖는것이 아니라, 바로 쉴틈없이 다시 내년 가을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훈련해야 하는 전천후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겨울의 추운날씨는 우리를 움츠려 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속에 흐르는 뜨거운 의지 만큼은 이겨낼 수 없을 것 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난 3년동안 우리 충남체육은 내일에 대한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갖고 이러한 강한 의지를 불태우며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적인 과정에서, 우리 충남체육은 성장을 거듭하여 지난해에는 전국체전에서 11위를 했고 금년은 12위를 했습니다.

우리 200만 도민 누구에게나 "이것이 우리 충남체육의 현주소인가?" 하고 묻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더 도약할 수 있고 자신감에찬 저력과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산공업고등학교가 지난 2년전 체육과를 신설했지만, 금년에도 아주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시설도 열악하고 주어진 환경이 좋지 않은데도 정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낸것입니다.

여기계신 지도선생님 그리고 어린 선수여러분들이 피나는 훈련을 했고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셨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신입생을 받으면 이제서야 논산공고 체육과가 제모습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더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우리 도민들을 기쁘게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체육발전을 위한 우리의 정성과 노력은 지금 이전보다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충남체육이 도약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자하는 도정의 첨병이 되고 디딤돌이 되기를 우리모두는 간절히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선수여러분은 혹한의 추위에 건강한 몸을 지키고 훈련에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충남체육의 내일을 위한 도민 모두의 성원이 모아지고 도약의 의지에 불을 지펴 주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추운날씨에 참석해주신 학부모님, 지도선생님, 학생여러분, 그리고 체육계 인사와 내빈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얼마 남지않은 신미년 보람으로 맺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6일

자랑과 긍지

친애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국회 이긍규의원님과 도·군의회 의원여러분!

지역기관장님과 내빈여러분!

오늘 우리는 군민 여러분의 오랜 숙원사업이 되어왔던 한산모시타운 건설의 기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곳 한산은 곳곳마다 선조들의 충정과 의로운 숨결이 가득한 고장입니다.

고려시대 대학자인 목은 이색의 고장이요, 그 16대손인 독립운동과 민족의 지도자인 월남 이상재선생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전래되는 아름다운 설화와 함께 면면히 이어온 한산모시의 명성과 건지산의 맑은 물로 빚은 소곡주의 향기 그윽한 곳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태어난 곳을 그리워하고 남다른 애정을 갖게 되지만, 이곳만큼 자랑스런면이 많은 고장은 매우 드물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군민여러분의 자랑과 긍지는 오늘 우리가 한산모시타운을 건설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산업화되고 사회가 다양해진 오늘날, 사람들은 조상들이 깨우쳐준 참된 삶의 가치와 그 문화적 실상을 잃어버리기 쉬운 환경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장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모습을 지키고 민족 문화를 보존하며 가꾸려고 하는 노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소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산모시 타운이 건설되면 이곳은 우리의 자랑이 더욱 선양될 뿐만 아니라, 지역은 물론 국민모두가 한번쯤 다녀가고 싶은 명소가 될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되고 더욱 다양하고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곳 서천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난 30년동안 눈부신 성장을 한만큼 그 개발의 혜택을 누리거나 성장된 고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한지역이 개발되면, 그지역은 그만큼 소득이나 문화생활 측면에서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오늘날 개발로 인하여 환경공해에 시달리고 그 고장의 전통이나 뿌리마저 없어져 버린 곳을 지금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개발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공업화 시책을 추진하고 서해안 개발을 의욕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지만, 지역에 오는 업체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환경에 대한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역이익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우리의 생활문화를 높이는 차원에서,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라 할 것입니다.

오늘 모시타운 기공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고장의 자랑과 긍지를 더욱 높이면서, 지역발전을 추구한다는데 큰 의의를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본 모시타운이 완공되기까지에는 크고 작은 여러가지 문제점과 장애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군민여러분 모두가 협력하고 합심해서 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성원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본 사업으로 이곳 한산의 자랑스런 참모습이 널리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군민여러분의 의지와 긍지가 하나의 힘으로 결집되어서, 이 고장의 더욱 풍요롭고 살기좋은 곳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여러분과 군민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남지 않은 이 해, 하시는일 보람으로 맺혀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10일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도민 여러분!

성큼 다가온 겨울의 문턱에 서서, 어느덧 금년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누구나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보다 소망스러운 내일을 기약한다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 도정은 자랑스런 충남건설을 위하여 활력있게 움직이고 바쁜 걸음으로 줄달음쳐 왔습니다.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도민모두는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과 도약의 연결고리를 움켜잡고, 구슬진 땀을 흘리고 정성과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고장 곳곳에서는 이러한 땀의 결실이 맺어지고 알찬 사업마무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고장이 보다 풍요롭고 자랑스런 터전이 되기위하여, 도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변함없는 협력과 성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각 가정과 직장에서는 이 추운겨울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겹겹이 포개지는 훈훈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혼자사는 사회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땅을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축복된 고장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참된 이웃 사랑 실천의 다짐과 참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홍주의사총 성역화사업 기공식 치사

1991년 12월 11일

민족의 꺼지지 않는 등불

오늘 우리 민족의 의로운 숨결이 밝게 빛나고 있는 충절의 고장 이곳 홍성에서, 홍주의사총 성역화사업 기공식을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조부영의원님, 이강훈 광복회장님, 유족대표이신 안세영추진위원장님 도와 군의회 의원여러분, 지역기관장님, 그리고 군민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으로부터 90여년전에 일제의 강압적인 을사조약에 항거했던, 홍주 항일의병들의 장열하고도 숭고한 넋을 기리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침과 수난속에서, 끈질긴 생명력으로 유구한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을 지켜온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구한말에서 일제 강압통치로 이어지던 당시, 한반도 주변의 역사는 주변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되었고, 나라를 지킬 힘이 없었던 우리 민족은, 그 아픈 역사를 삼키며 치욕적인 수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나라잃은 슬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인지, 우리 민족은 역사의 현장에서 그 아픔을 견디고 뼈져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우리 홍주성을 지켰던 900의사들은 민종식 의병대장을 중심으로 최후의 한사람까지

끝까지 싸웠고, 장열하게 옥쇄했습니다.

이분들은 생명이 꺼져가는 나라에서 의병을 일으킬때, 그것이 성공하거나 자신들이 살아 남으리라고는 결코 생각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이분들의 죽음이 헛되고 무모하다 하겠습니까?

일제 침략자들의 총칼앞에서 분연히 항거했던 선열들의 숭고한 뜻과 혼이 아니고 없었다면 아마 우리가 오늘날 이만큼의 나라를 만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장구한 역사를 지켜왔던 민족의 꺼지지 않는 맥박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때면 책과 호미를 집어 던지고 구국의 길에 동참했던 선열들의 고귀한 나라사랑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지난날 우리가 폐허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은 흘러 이분들의 드높은 함성과 분노의 몸짓과 눈빛도 역사속에 묻혀졌습니다.

산업화된 사회와 물질문명의 풍요로움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분들의 거룩한 뜻과 애국애족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분들의 넋을 기리고 그 충절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주어야 할 정신적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내빈여러분

우리 선열들께서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박한 나날을 보내면서도, 겨레의 생존과 국권회복을 위하여 민족의 양심과 애국심에 불을 지르고 민족의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선대가 겪었던 그 아픔과 한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그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픈 역사를 살다가신 선대들에 대한 보답이며, 또 다음 세대

에게도 값지고 자랑스런 역사를 물려주어야 하는 우리의 당연한 도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 모인 우리는, 다시 이곳을 떠나,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화합하고 단결하여, 지금보다 더 힘있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기운이 샘솟고, 보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가꾸어야 한다는 도민 모두의 의지가, 하나의 큰 힘으로 모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이곳 홍성지방에 메아리쳤던 나라사랑의 정신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정신유산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쌀쌀한 날씨에 본 행사에 기꺼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다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홍주의사총 성역화 사업에 힘쓰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과 치하를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12일

시련과 보람

격동의 신미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는 세모의 문턱에서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도정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도정의 책임을 맡은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도 우리 충남 도정에 많은 보람과 크고 작은 시련이 교차되었던 한 해 였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200만 전 도민이 합심하여 도세도약에 힘을 모아온 결과 공업화와 지역개발, 문화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던 반면, 지역개발과 관련한 크고 작은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던 점은 개발의 과정에서 피할수 없는 시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중단되었던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되어 기초 및 광역의회가 구성되는 등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북부권개발기획단" 구상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도민 모두의 역량과, 행정동우회 선배 공무원들의 지난날의 풍부하신 경험과 지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임신년에도 자랑스런 충남건설을 위하여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1991년 12월 12일

보람있게 마친 교육

신미년이 저물어가는 세모에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도의 공무원교육은 투철한 공직관과 사명감 고취를 위한 공직윤리와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함으로서 창조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능력있는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교육기간중 어려운 시간을 내셔서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교육을 보람있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교육성과 거양에 크게 이바지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공직자 교육을 위한 많은 성원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1991년 12월 14일

이웃사랑 훈훈한 겨울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어느덧 세모의 문턱에 서서 구세군의 방울소리와 더불어 정겨운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지난 1년간의 보람과 아쉬움을 되돌아 보고 자신을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난 1년간 우리충남 도정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와 지역을 위한 정성을 다한결과, 알찬성장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동안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는 소중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보내고 신년을 맞이 할 수 있게 된것이 비록 스스로의 힘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소중한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 추운 겨울을 보내야만 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욱 어려워 하는것은 혹심한 추위와 물질적인 것보다는 무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웃사랑 실천은 이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기운입니다.

지금 사회봉사단체를 중심으로 「이웃사랑 실천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는 신선한 기운이 될것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세모의 길가에서, 우리는 어려운 이웃부터 생각하고 신의 은총에 감사를 하는 연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사회가 훈훈한 정이 샘솟고 따뜻한 이웃이 많다는 믿음을 갖게하는 것이며,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소망스러운 기대일 것입니다.

도민여러분의 이웃사랑 실천과 참여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1991년 12월 16일

땀흘린 보람

부푼 기대와 희망으로 맞이했던 신미년의 세밑에서, 그동안 도정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도정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지난 1년은 땀흘려 일한 보람과 함께 남북한 UN 동시가입과 소련 연방의 분열 등 국내외적으로 격동의 물결을 슬기롭게 대처해온 벅찬 한 해였으며, 또한 우리 충남은 자랑스런 충남건설을 위한 도정에, 도민 모두의 흔쾌한 참여와 협조가 더없이 소중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했던 어려움과 아쉬움 또한 적지 않았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새해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대내외적 환경 여건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 각분야에서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새해에 우리 충남은 변함없는 도세도약의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화합과 안정의 바탕위에 보람찬 결실을 위하여 더욱 활력에 찬 도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보면서, 우리 도정이 더 큰 성과와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새해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내내 건승하시고 뜻하신 일이 소망하신대로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관광농원 및 부흥회관 기공식 축사

1991년 12월 18일

생명창고

오늘 한해를 보내는 세모의 문턱에 서서, 매헌 윤봉길의사의 얼이 서리고 체취 그윽한 이곳 덕산에 모두모여, 관광농원과 부흥회관 기공식을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도·군 의회의원 여러분, 윤규상 월진회 회장님, 서춘원 후원회장님, 손창준 농협도지회장님, 그리고 김종한 덕산단위 농협장님을 비롯하신 농협가족여러분과 주민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예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윤봉길의사께서, 상해 홍구공원에서 폭탄으로 일본인들을 폭사시킨 독립투사라는것 이외에도, 농촌계몽 운동에 헌신했던 민족의 선각자이신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찍이 "농민독본"을 저술하시고 월진회와 부흥원을 조직하여 야학을 열면서, "농민은 인류의 생명창고를 그 손에 잡고 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이제 세월은 흘러 스물다섯의 짧은 생애를 살다가신 의사께서 순국하신지도 어느덧 60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의사께서 조직하고 정열을 쏟으셨던 월진회가 그 뜻을 받들며,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긍지로 오늘 우리는 덕숭산이 바라보이는 이곳에 부흥회관을 세우고, 우리 농촌을 마음의 고향으로서 가꾸며 이를 선양하는 관광농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농촌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더구나 농산물 수입 개방이 우리 농촌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농민 스스로가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광농업개발이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우리의 창의적인 노력이며 의지입니다.

지금 도내에서는 이러한 관광농업개발을 추진하는곳이 13군데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주관하는 것은 이곳 덕산지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성패는 이곳이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안심하고 사갈 수 있는 질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면서, 누구나가 다시 오고싶은 특색있는 농원으로 가꾸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기공을 갖는 이곳 관광농원과 부흥회관이, 윤봉길의사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촌은 생명창고"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낼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흔쾌한 참여와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기공이 있기까지 많은 애를 써주신 농협 가족여러분, 월진회 회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내빈여러분과 주민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신 연말,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항상 신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서비스 업체에 보내는 서한

1991 년 12 월 18 일

근검절약 실천

한해가 저무는 세밑에, 먼저 하시는 일 뜻대로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은 그 어느해 보다도 대내외적인 변화와 격동의 진폭이 큰 한해였다고 회고해 봅니다.

역사적인 남북한 UN 동시가입 실현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고, 평행선을 달리던 남북고위급회담이 큰 진전을 이룬 반면에, 대외적인 통상압력과 경제적 여러움이 뒤따랐던 보람과 시련의 한해였습니다.

한 해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일 들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하지만, 새해에는 우리 사회 각계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소망과 기대를 갖습니다.

그것은 기업이 다시 기업가 정신을 되찾고, 근로자 또한 근로의 불을 다시 지피면서, 우리 소비자의 행태도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시킬 수 있도록, 국민모두가 인식과 방향을 전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은 덜 쓰고, 더 아껴쓰며 애써 인내 하므로써, 근검절약이 사회의 소중한 덕목이 되는 집념과 국민적 의지가 정말 소중한 때입니다.

지난해 땀흘려 주시고 도정에 협력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충남은 많은 어려움속에

서도 알찬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고장이 더 큰 발전을 이루고, 우리사회가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씀씀이 10% 줄이기등 근검절약 운동을 솔선 실천해 주시고, 특히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 관리를 위한 시책에도 변함없는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년말, 보람으로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 큰 행운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1991 년 12 월 20 일

우리의 옛것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상황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에 바쁘기만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하기 마련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나머지 귀중한 우리의 옛 것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 돌이켜 생각해 볼 일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모진 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견딜 수 있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듯이 우리의 전통사상인 충효사상과 예절은 마음의 밭을 일구는 뿌리이며 샘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절과 효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우리 충남은, 그동안 충효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려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을 고집하기 보다는 선조들이 물려 준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오늘에 맞게 접목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는 우리 모두의 의지입니다.

이 책자는 충효교실을 운영 하는데 있어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편집된 교재입니다.

모쪼록 이 책자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것을 일깨우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라며,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도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92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시 인사

1991년 12월 21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 도의회 정기회 개최이래 행정사무 감사와 신년도 예산안 심의등 쉴사이 없는 의정활동을 위해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에 보내주신 의원여러분의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기중에 질의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국운도약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3일에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한 총리 사이에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서명·교환하는 모습을 우리는 「벅찬 감격과 깊은 감동」으로 지켜 보았습니다.

이로써 남북한은 분단이후 46년간 반목과 대립을 계속해 온 냉전의 시대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과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동반 협력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추세에 따라 저는 도민모두의 뜻과 힘을 모아 통일을 향한 시대적 소명을 하나하나 빈틈없이 완수해 나가면서,

국토의 한복판에 위치한 도에 걸맞게 국가발전을 이끌어 갈 중추적 역할을 계속하기 위한 역량을 배양하면서, 전국 제일의 수범적인 「농업도·공업도·문화도」로서 역할과 임무를 확장 수행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 더욱 힘써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정발전과 지역안정을 위해 의원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정기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신 신년도 예산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한번 여러 의원님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노고에 경의와 찬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의원 및 간부공무원 부인에 대한 도정현황 설명시 인사

1991년 12월 21일

자랑스런 충남

오늘 도의회의원 부인과 도간부 부인 여러분을 모시고 도정에 관한 설명을 드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내조와 가사, 그리고 사회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먼길을 마다않고 오늘 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부군께 오늘의 영광을 안겨주시기 위해 온갖 지성과 정성을 다해오신 여러분께 뜨거운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700년 백제의 터전으로 수많은 충신과 애국지사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 우리 충남은 오늘날 서해안개발과 더불어 국토의 중심지로서 꿈과 희망의 고장으로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새로운 개발 수요를 도세도약과 지역개발의 획기적 전기로 삼아 우리 1만 4천여 공무원 모두는 「진실·화합·창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 기쁨과 아픔을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 제일의 수범적인 「농업도·공업도·문화도」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확장 수행해 나가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8일 도의회가 새로 출범한 이후 그동안 6회의 임시회를 통하여 37건의 주요안건을 처리해 오면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중앙이나 타지역으

로부터 모범적이고 수범적인 의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록 6개월동안의 짧은 기간에 이와같은 높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도의회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경륜은 물론이고 전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 부인 여러분의 내조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인여러분의 정성어린 내조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 도정설명회를 계기로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진작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상 정기회 회기중인 오늘 모임을 갖게 된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도정설명을 들으신후 격의없는 대화와 더불어 앞으로도 도정발전을 위한 유익하고 좋은 의견을 들려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도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용소방대장에 보내는 서한

1991년 12월 21일

화재예방 역점

한해가 저물어 가는 세밑에 서서, 평소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지역발전에 헌신해오신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은 국내적으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되고,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으며, 또한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우리의 경제문제가 어려움에 처했던 기쁨과 시련의 한해였습니다.

한편 우리 도정은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서해안 개발과 공업화시책이 추진되고, 백제권 문화개발등 지역문화 창달과 도세도약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보람있는 결실을 이루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대원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새해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참여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겨울철 화재예방에 대한 계몽과 경각심을 더욱 고취 시켜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평소 다져진 대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지역발전에도 적극 협력해주시고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봉사 단체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일 뜻대로 성취되시길 빕니다.

1991년 12월 21일

성원해 주신 덕분

부푼기대와 희망속에 맞이했던 신미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모의 길목에 서서, 지난 1년간 저희 도정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남은 금년 국내외의 급격한 변화와 어려움속에서도 서해안 고속도로 착공, 임해공단조성, 백제권 종합개발등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크고작은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알찬 성과와 보람을 거둔 한해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서해안 개발과 도세도약을 위한 공업화시책 추진으로 지역균형 개발과 소득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와같은 성과와 보람은 평소 귀하께서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주셨던 덕분으로 생각하며, 또한 도민 모두의 결집된 의지와 땀의 결실이라고 봅니다.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주어진 모든 여건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성과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저희 도정을 지켜봐 주시고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립

니다.

아울러 앞날의 행운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991년 12월 21일

보람과 아쉬움

세모의 지평선에 서서 보람과 아쉬움속에 신미년 한해를 보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면 교통가족 여러분께서 저희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덕분으로 우리충남은 알찬 성장과 도약을 이룰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통편익 증진과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더 큰 집념과 의지를 갖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더 큰 보람과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희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바쁘신 세밑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일 뜻하신대로 성취되시길 빕니다.

1991년 12월 26일

생활 가까운 곳에

지구상의 어느 민족이건 그 민족고유의 문화와 전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문화를 소중히 가꾸어 왔던 민족만이 그 시대를 이끌었던 주인이 되어 왔음을 역사적 사실에서 늘 반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독특한 문화를 창출해 냈던 민족고유의 소리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진한 삶의 맥박과 향기어린 가락이 과연 지금의 우리 생활에서 얼마만큼 가까운 곳에 머물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모습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것을 소중히 하고 후세들에게 조상들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작은 소망에서부터 이 책자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고장에서 널리 불리어 졌던 옛소리를 채보하여, 정성으로 집필해 주신 이소라 위원님께 고마운 뜻을 보내 드립니다.

1991년 12월 27일

어린이의 꿈

할머니의 무릎맡에서 듣던 구수한 옛날 이야기는 어린시절 우리들에게 한없는 꿈과 슬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싫증 모르고 졸라듣던 그때의 아련한 추억들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잊혀져가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심어주고 권선징악의 진리를 깨우쳐 주던 옛이야기를 오늘에 되살리고 이를 이어 나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면면히 흐르는 맥과 전통을 찾는 의미에서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면서, 여기 우리고장 곳곳에서 전해 내려오는 옛이야기를 모아 책으로 펴냅니다.

모쪼록 여기에 실린 이야기들이 잊혀져가는 우리의 것을 되살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용기와 지혜가 함께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동안 우리고장의 전설과 민담을 찾고 이어가는데 정성을 기울여주신 한상수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1년 12월 27일

희망찬 내일의 꿈

솟아오르는 아침햇살처럼, 어둠의 고난을 헤치고 살아가는 작은 새싹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은 미래의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희망의 새날을 열어가는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아동들의 삶의 이야기를 모아 하나의 책자로 펴냅니다.

여기에 담겨진 글과 그림속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가슴뭉클한 사연과 내일의 소망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생각만큼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그만 관심과 정성, 그리고 따뜻한 말한마디가 이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심어주고 내일의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라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조그만 이 책자 발간으로 우리 아동들이 도민 모두의 사랑속에 희망찬 내일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책을 펴내기까지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성원해 주신 관계인사 여러분들께 고마운 뜻을 여기에 같이 적어 놓습니다.

1991년 12월 28일

도약위한 청사진 마련

한청수 충남도지사가 28일로 취임1주년을 맞았다.

지난연말 부임한 한지사는 도정의 기본구도를 화합과 충절의 정신문화 함양, 전통문화의 새로운 출범, 조화로운 개발문화의 실현, 국가발전을 위한 중심문화의 창조 등으로 잡고 도세도약의 기반마련에 힘써왔다.

특히 「文化지사」라는 별명이 붙을만큼 정신·문화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온 한지사는 백제촌 건립과 부여 고란사의 옛모습 복원사업을 통해 전통문화유적의 재조명에 역점을 기울였다.

한지사가 주도한 91년의 충남도정은 2차례에 걸친 지방의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의회의 원만한 운영에 적극 협조, 원년의 지방자치를 무리없이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세기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한지사는 도세신장의 장기계획으로 제2차 도건설 종합계획을 추진, 2000년대의 충남건설의 발전목표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전통 농업도로서의 특색을 살려 모두 24개의 농어촌건설분야에 4천3백억을 투자하는등 다각적인 전략사업을 모색한 점은 UR로 시름에 젖어있는 농어촌에 다소

나마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

한지사는 지방자체제 실시등 시대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일부 조직의 신설 및 통폐합을 추진,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활용능력의 극대화를 통해 책임·봉사의 자치행정 기틀을 구축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지난 9월 7일에는 도정사상 처음으로 역대 도지사를 초청해 도정에 쏟은 정열과 노고를 위로하고 도약하는 충남의 모습을 보고, 전임 도백들로부터 계속적인 협조와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빠른 행보와 함께한 91충남도정은 전국 제일의 농업도·공업도·문화도로 급부상, 농·공이 병진하는 조화로운 지역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했다.

그리고 「함께하는 도정 도약하는 충남」의 가치아래 달려온 한도백의 지난 1년간 역정은 충남권 개발에 따른 각종 현안 사업추진에 애를 먹은 한해이기도 했다.

1991년 12월 28일

발전적 행정구현 역점

한청수 충남지사가 28일로 취임 한돌을 맞았다.

2회에 걸친 부지사로서의 면모를 씻고 충남도백으로 올라섰대서 인사당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던 한도백의 도정항해가 1년을 경과한것. 부임하자마자 한지사는 도정의 기본철학을 무엇보다 정신적인 뿌리의 현대적 계승에 두고 계룡산, 금강, 서해안 국토중심의 지리적 조건을 4변 구도에 두었다. 즉 계룡산을 표상으로한 화합 충절의 정신문화를 함양하고 금강을 통해 전통문화를 새로이 창출하며, 서해안지역을 대표로 조화로운 개발문화를 실현, 국토의 중심지답게 국가발전의 중심문화지로 거듭난다는 구상이었다.

이같은 한도백의 도정기본구도는 사회전체적으로 정신적·문화 기근현상에 비춰 바람직한 행정좌표로 인식되는 호평을 받았다.

이같은 구도아래 한지사는 도정방침을 「자랑스런 충남 새 문화창조」에 두고 그 실천전술로 진실·화합·창의를 내걸었다. 무엇보다 공직인은 지성과 최선을 다해 자기 직분을 충실히 해냄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행정상을 구현한다는 것이었다.

한도백의 지난 1년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를 맞아 마을일꾼뽑기, 지방자치 기틀다지기로 바빴던 한해였다. 두차례의 지방의원선거를 비교적 큰 사고없이 치러냈고

아직 미숙하긴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토양을 다지기 위해 대폭적인 기구개편도 이뤄냈다.

이와함께 대내외적인 행정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으뜸도정상」을 마련, 「으뜸공무원」「으뜸부서」를 선정, 연찬하는 공직풍토조성의 기틀을 다졌다.

또 자랑스런 충남건설을 위한 전략사업을 위해 기존 공업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아래, 오는 2021년까지 지방공단 농공지구등 90개지구에 2천7백43만평을 조성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통해 전통농업도에서 공업도로 산업구조를 재편한다는 계획은 올해말로 19개지구 1백88만평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함께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24개 분야 4천3백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

특히 수입개방에 따른 유망작목의 개발·육성을 위해 96억원을 투입, 오는 93년까지 딸기, 백합, 토마토, 구기자, 시설재배, 근교·관상 농업등 6개 「지역특산물 전문연구소」를 설립키로 한것은 우리 농산물의 대외경쟁력 확보에 커다란 힘을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지사의 행정스타일은 전시행정형태를 배제하고 깊이있는 정신계발에 역점을 둔, 한마디로 문화지사로 불릴만큼 옛것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부임초부터 유서깊은 충남문화의 창조적 진흥을 강조해온 한도백은 우선 마을마다 역사성을 부여,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하기위해 마을역사 안내판설치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병행, 1道義 1명소 1민속 1특산물을 발굴, 육성한다는 「내고장 으뜸가꾸기」사업도 현재 마을단위 별로 자원조사를 끝내고 가시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중이다.

한지사의 문화시책중엔 특히 부여고란사를 옛모습으로 복원, 천년백제의 얼을 되살리기위해 인위적인 냄새가 짙은 시멘트벽을 헐어내고 옛 정취를 되살린다는 계획아래 추진중인 「고란사 정비사업」이 눈을 끈다. 또 현재용역이 진행중인 백제문화권종합개

발사업도 점차 그 윤곽을 드러내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문화원을 지역문화예술의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 추진중인 문예진흥기반 다지기 시책도 현재 활발히 추진중이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이미 16개소를 지정, 생활문화로 뿌리내리고 있다.

한지사는 이와함께 불우계층 원로문화의 재창출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

영세민자녀에게 빈곤의 되물림을 받지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위해 정서함양→적성개발→장학지원→직장알선등 입체적 시책을 편것은 종전 시혜베풀기 일변도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또한 웃어른을 공경할 줄아는 원로문화의 재창출을 역설, 노인회시설 및 노인활동에 대한 시책을 펴 노인들이 결코 사회소외계층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켜 주었다.

그러나 한도백의 앞으로의 도정 항해는 여러가지 과제를 안고있다.

우선 2백만 도민의 자긍심이될 백제권종합개발이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후회없는 개발이 되도록 해야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공업화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 억제책강구, 정신문화 계승을 위한 각종 문화시책의 가시화를 이뤄내야할 소명을 안고있다.

결과적으로 지나온 한해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세월에 얼마만큼 후회되지 않는 족적을 남기느냐가 한도백의 숙제이다.

1991년 12월 31일

땀과 노력으로 얻은 보람

벌써 일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람과 아쉬움속에서 다사다난했던 신미년을 보냅니다.

무엇을 이룩했다는 보람과 무엇을 못다한 섭섭함속에서 그리고 한해를 새로 맞이한다는 희망속에서 송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년동안 많은 어려움속에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준 산하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다른 노력으로 땀흘려 일하여 오늘 표창을 받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종무식을 갖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느낌을 새롭게 갖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을 돌이켜 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발전을 기약하고 그리고 옛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1년 한해를 되돌아 보면서 함께 생각을해 보고자 합니다.

91년을 회고해 보면 참으로 그 어느해 보다도 금년만큼 국내·외적으로 격동과 변화의 증폭이 컸던 해는 없었다고 봅니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또 분야별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중동에서 걸프전이 있었고 또 큰 사건으로는 74년간 냉전의 두 종주국중 하나로 냉전체제를 40여년간 이어 오던 소련이 약화가 된 것이 아니고 해체가 되어 이 지상에서 영원히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와 국제 권력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세계질서의 재편이라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주목해야될 국제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블럭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동맹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만, 요즘에 새로 나타난 경제블럭화 현상은 기술선진국간의 동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처해야 하는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술의 동맹 또 선진국의 동맹속에서의 블럭화,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개혁을 통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는 먼저 두차례의 지방의회선거가 있었고, 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3개월동안 의회에 매달려 보고 협조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한 평면적인 변화가 아니고 여러가지 입체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지방 행정에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지방뿐만 아니라 나라전체를 위해서 새로운 우리의 자치문화를 확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우리는 대외적으로 한소수교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되고 또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 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끈질기게 추진해온 북방정책의 큰 성과라고 볼수 있고, 이

것을 어떻게든 국가발전에 연결시켜 가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 이것은 북측으로 보면 국제적인 탈고립을 위해서 40년간의 논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의 실체를 서로 인정하는 합의서를 이끌어서 본질적인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전통적인 이중 전략목표 기도라도 할수 있는 내부의 군비를 강화하고 거의 40년간 추구해온 김일성일가의 세습체제를 완성시켰습니다.

저들이 아직도 이러한 이중적인 대남 전략속에서 한반도에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많은 성과속에서 우리경제는 생산성, 경쟁력 그리고 물가, 여러가지면에서 참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 분야가 크게 각성을 하고, 우리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고 했고, 이러한 경제 제도약을 위한 우리의 자각과 노력은 정말 목표를 달성해야한다는 벅찬과제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변화와 어려움속에서도 우리 충남도정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지방자치시대를 30년만에 다시 시작하고, 많은 염려속에서도 출발했습니다만 두차례의 선거, 그리고 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할 수 있었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수 있었으며, 정말로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또 시대에 맞는 자치관행의 모범을 우리 충남이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번째 새생활 새질서 분야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범죄검거율, 질서의식 그리고 심야 퇴폐·변태영업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여러가지 수치를 내놓지 않더라도 그 성과는 긍정적이고 또 인식에 일치를 가져왔던 한해였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은 우리 내부질서의 개편과정이라고 본다면 이 구조 조정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이 발생했습니다

이 구조조정을 우리가 다시 뛰어 넘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노력을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로 자랑스런 내고장을 건설하기 위해 여러 전략사업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서해안개발과 공업화 시책을 추진하여 지금도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이 착수되고 있습니다.

많은 도로, 공단, 사업간접자본 확충을 가져왔습니다.

언젠가도 만씀드렸습니다만 금년까지만해도 10억불 내외로 수출목표를 잡던것이 명년에는 30억불 이상의 목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5년내에는 50억불, 또 90년대말에는 국가적인 목표로 잡았던 100억불의 목표도 이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노력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전통적인 농업도로서 농·공병진의 기반을 확고히 다진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어촌 문제가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농어촌 선진화사업 활력을 다시 찾기 위해서 농업유통 구조개선, 농어촌 기반 조성사업, 그리고 지역특산물 연구소설립,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등 여러가지 노력을 해오고 여러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네번째 문화적 발전과 기반을 튼튼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40년동안 백제권 문화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약속을 해왔습니다만은, 금년에 백제권 개발에 대한 용역을 거의 마치고 결과가 명년쯤에는 가시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나라가 어려울때 일어서서 나라를 구해주신 여러 선열들의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을 중심으로 문화권역을 새로 설정해서 이것이 옛날 우리것을 복원하고 재현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꿈과 방향을 가르치는

교육장소로도 문화권을 개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의 백제문화를 우리나라 3대 문화제의 하나로 손색이 없도록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해오고 명년부터는 발전된 문화제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진건의 무영탑 주인공 아사달은 백제시대 조각솜씨가 가장 뛰어났던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사달 조각전을 우리 도가 개최해서 야외에 할수 있는 커다란 조형물을 만들도록 하고, 초대전도하고 공모전도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조형물들로 조각공원을 만들고 각 시·도에 백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더욱 드높여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의 연산 백중놀이에 이어 금년에는 금산의 물페기농요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해서 우리 민속문화에 있어서도 으뜸 고장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산물을 개발하고 국제화시대 21세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신적인 원천을 만들기 위해서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 그늘진 곳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가난한 가정의 자제들이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가는 일들이 없도록, 영세민 자립화 사업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원로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서 원로문화를 우리 충남으로부터 만들어가자고 일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전국단위의 각종 시책평가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전국단위에서는 평가를 마친 26개 사업중 19개 사업이 3위이내에 입상한 것은 우리 공직자 전원이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분야 우수도를 비롯하여 민방위 분야에서, 농촌지도 분야에서, 산림분야에서, 그리고 하천분야등 총 일곱개분야에서 전국 최우수도로 입상하여 우승기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으로 얻어낸 도민들에 대한 선물이고 정말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각기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온 증명서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주어진 업무에 성실해서 내 고장과 조직, 나라를 위해서 큰 성취를 또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해를 보내고 보면 기쁨과 보람보다는 섭섭함과 아쉬움을 더 갖게 되는 것도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금년 도정의 여러가지 성과와 보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여러가지 해결하지 못하고 아쉽고 섭섭한 가운데 지나간 일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서해안 개발에 대한 투자실적이 미흡해서 그 실체를 가시화 하지 못했고 보령댐을 비롯한 민원업무도 그대로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를 묻는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픈만큼 성숙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모자라고 챙기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를 다시 연구해 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신년 이틀 쉬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새로운 의지와 다짐을 기대해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가지 아는 것도, 재주도, 덕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도정성과를 올린것은 어떤 경우에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여러분의 전적인 노력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정도, 아쉬움도 많이 느끼면서 또다른 결의와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이제 12시간후면 이 해는 역사속의 한해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더 큰 보람과 결실을 위하여 금년을 보내면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으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1991년 12월 31일

도약의 한해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신미년 한해를 보내면서 도민여러분께 송년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도민여러분께서 흔쾌하게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덕분으로, 지방화시대 도정의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도약을 위한 힘찬 비상의 나래를 폈던, 참으로 뜻깊은 해였습니다.

올해에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는 더 열심히, 더욱 잘 해 나갈것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도민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월 1일

더 큰 기쁨과 보람으로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희망찬 임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기쁨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충남이 보다 활력이 넘치고 발전하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성과 노력을 함께 모아 나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 큰 기쁨과 보람으로 다가올것입니다.

도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망하시는 모든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축복과 영광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월 3일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14천여 동료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장 충남에도 희망찬 임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해에 여러분이 마음먹은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임신년은 역사적으로 볼 때 백제가 일본으로 불교를 전해준 해입니다. 그리고 원숭이해로서, 원숭이는 사람과 가장 닮았을 뿐만 아니라 서유기에서도 묘사한 것처럼 지혜로운 동물이며, 또 정이 많아서 새끼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냄새가 날때까지 새끼를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자식에 대한 정을 잊지 못하는 정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원숭이가 큰 숲을 자유롭게 헤치고 뛰어 나가는 것처럼, 새해 우리가 맞이하는 여러 난제들을 우리 모두가 원숭이처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금년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 질 것인가는 오로지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좋은 모습으로 그려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 국가는 물론 우리 고장이 선진화의 재도약 기틀을 마련하고 또 그 전환점을 만들고 분수령을 만들어가야 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새해는 우리가 오랜동안 참고 기다린것 만큼이나 통일을 향한 많은 노력과 진전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의 지혜로운 대응과 결단을 재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해 지방자치를 실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민주화의 뿌리를 더 튼튼히 내려야 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총선을 비롯해서 대통령선거등 많은 선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선거로 인해 사회, 경제 전체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그리고 탈법, 불법이 없는 공명한 선거를 치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중에 우리의 국력이 소모되거나 소진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년은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해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것이,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일이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여러가지 여건으로 볼 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노력을 한다면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체적으로 경제문제에 민감해 있습니다. 미국만해도 그렇습니다.

옛날 그 좋았던 시절 곡물을 마구 뿌리던 그런 풍요했던 미국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자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각박하게 따지고 하는 그런 경제전쟁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의 경제는 정부나 기업에게만 맡기던 경제시대는 이미 가고 있

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각 지역에서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또 도민 모두는 물론 모든 마을 스스로가 경제력을 갖추고 활성화시키며 국제경쟁력을 길러가야 되는 시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지난해 여러분의 노력으로 도정에 많은 성과와 보람을 창출해 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보람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집념과 의지를 한데 모아서 또 여러분의 정성어린 노력과 슬기를 발휘해서 우리 고장이 더욱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장은 전통적으로 전국제일의 애국충절의 고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공업, 농업, 문화가 조화를 이루면서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고장을 만들어서 공직자로서의 보람과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의 우리 도정과제와 방향을 대체로 다섯가지로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금년은 여러차례의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새로운 선거풍토를 뿌리내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명선거는 국민 모두의 소망이고 역사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존심을 걸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뤄서 국가안정과 지역화합의 기틀을 다져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명선거를 실시하는 데에는 먼저 입지자가 마음을 먹으면 그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권자가 마음을 먹으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언론기관과 선거위가 앞장서고 모든 사람이 마음을 굳게 한다면 공명선거는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될때 더욱 올바른 우리의 대표자를 우리 손으로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지역경제의 활력과 도민화합 기반을 튼튼히 다져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상 작년처럼 그렇게 짧은 기간내에 많은 변화를 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큰 변화를 가져왔던 해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속도에 맞춰서 우리 스스로를 쇄신하고 개혁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있는 운동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 있고 또 일을 더하자는 운동이 있고, 모든 것을 아끼자는 씀씀이 절약운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고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도록 우리 공직자가 먼저 앞장서서 근검절약하는 운동에 솔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의 전분야, 모든 사람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다시 또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는 곧 지방자치의 골간이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지방화시대의 자율적인 행정력을 높여 가는 일입니다. 지난해에는 선거과정에서 그리고 의회 운영과정에서 건전한 운영을 통해 진실한 자치기반을 다져왔고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봉사행정체제를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각종 선거가 여러차례 있고 또 지방의회 관계가 여러가지로 쉽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없이 우리는 우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가꾸고 과거를 재현하고 이것을 현재와 미래에 다시 연결해 가면서 우리 지방적인 힘을 더욱 가꾸어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국제화 시대에 와 있고 또 21세기를 대비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국제화시대 또 21세기에 대해, 앞서 나가는 우리들의 자세를 깊이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또 이것을 능동적으로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우리 자랑스런 충남의 실체를 가시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미흡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채워 나가면서 도민들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2,000년대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과 활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어촌건설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그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농촌의 발전과 농촌의 경제력을 갖지 않고는 도시도 더 이상, 공업도 더 이상 발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과 공업이 또 문화가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고장이 더 멀리, 더 푸른 희망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모두가 신념과 의욕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백제고도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문화에 꽃을 피는 우리의 터전을 힘써 가꿔서, 후세들과 여러나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줘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기념관 주변을 우리의 역사와 새로운 미래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역사와 미래의 교육장으로 가꿔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관한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과제를 발굴하고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년초에 원로 한분을 찾아가서 뵌적이 있습니다.

역시 연세가 칠팔십되시면 몸에서 냄새가 나고 이도 빠지고 그럽니다만 정신만은 더욱 또렷하고 향기가 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로에 대한 존경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분 말씀이 우리 나라는 지금 경제문제 때문에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강물과 냇물이 전부 서해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만주대륙의 모든 물줄기가 전부 황해로 물이 흘러들어 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황해의 시대이고 우리 서해안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금년은 우리 충남의 해입니다.

어떻게든 이런 우리의 기운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고장을 더욱 빛내고 발전시키고 국가발전을 크게 널리 이끌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경제는 앞으로 일본이 당분간 대국의 지위를 잃지않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중국이 제대로 힘을 발휘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 지위를 이어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우리 한국이 경영을 잘 한다면 우리 경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임신년이 지혜로운 해, 그리고 정이 많은 해, 우리의 덕과 정으로 뭉쳐서, 더욱 정성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간다면 금년 한해야 말로 우리 충남은 더 좋은 한해를 맞이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1992년 1월 9일

따뜻한 정, 소중한 인연

우리 인간은 항시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과 상황속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연속선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났건, 의도적으로 만났건간에 누구나 헤어질것을 염두에 두고 만나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약속된 운명이요, 섭리이며 자연법칙인가 봅니다.

지난 4년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서 도정발전에 힘써주신 산하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이해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던, 고향의 어르신들과 도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자랑스런 고향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뛰고 생각하면서, 보람과 아픔을 같이 해왔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였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 일했고, 국가에 대한 충성, 직무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의 도정을 맡으면서, 늘 소중히 해왔던, 고향에 대한 애정과 긍지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언제까지나 소중히 간직 할 것입니다.

아무리 보람된 일이 많다 할지라도 아쉬움과 미련은 남게 마련입니다.

제 능력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도정의 책임자로서 미흡했던 점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좀더 많은 정도주고 살펴주고 싶었는데, 도정의 책임자로서, 벅찬 도정에, 그런 시간을 자주 갖지 못했습니다.

고향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했다고 했지만, 지금 헤어지는 마당에서 회고해보면, 아무런 일을 해놓지 못하고 떠난다는, 부끄럽고도 아쉬운 일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제 자신으로서는 얻어내고 깨달은 것도 많았습니다.

또 여러분과 도민들께서 저를 이해해 주시고 잘 도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후회없이 이 자리를 물러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변천되어 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재임기간중 저는 지방자치시대의 첫단추를 끼워 놓고 갑니다.

이 단추가 잘 끼워졌는지, 못 끼워졌는지는 이제 여러분의 노력과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변화가 있다 하드라도, 공무원의 조직은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라와 지역을 이끌어 가는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런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시 나라와 지역을 위하여 인화단결하는 힘있는 조직으로서, 후임 이종국 지사님을 잘 모시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고향을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신임 지사님께서는 저보다 많은 경험과 능력을 겸비하신 분으로써, 과거 이 지역에도 근무하신 경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충남발전을 위한 많은 업적을 쌓으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새 지사님을 모시고 자랑스런 내고장 건설에 더 큰 결실과 보람을 맺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산하공무원 가족여러분,

재임기간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정과 그 고마웠던 뜻, 그리고 소중한 인연을 늘 잊지않고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비록 오늘 여러분곁을 떠나지만,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모습으로도, 우리 충남을 위한 부족한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몸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요.

감사합니다.

1992년 1월 10일

살펴주셨던 은혜 소중히

떠나올대는 변변한 인사도 못드렸습니다.

경험도 덕망도 부족한 제가 지난 1년의 고향도정을 맡아 오는동안, 따뜻하게 보살펴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많은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뿌듯한 보람을 느꼈던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정성으로 땀을 흘리고 시간을 나누며 뛰었던 바쁜 걸음 하나하나가 이제는 보람과 아쉬움의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고향 도정의 책임을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살펴 주셨던 정분과 은덕을 소중히하고, 언제나 고향에 대한 애정과 긍지로 미력한 힘을 다할 각오입니다.

소망하시는 모든일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앞날의 행운과 영광을 기원드리면서, 일일히 진배치 못하는 인사를 몇자 글월로 대신 올립니다.

韓淸洙知事演說文選集

1992년 1월 10일 인쇄
1992년 1월 12일 발행

발행 : 충 청 남 도
편집 : 총 무 과
인쇄 : 협 성 문 화 사

[비매품]

CHUNG CHEONG NAM – DO
AM003954